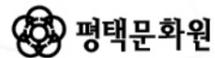


## 평택군수 오형묵의 정무일기 평택 쇄언 瑣言

평택군수 오형묵의 정무일기 《평택 쇄언》을 읽어보면  
그는 1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였다.

평택군 동헌에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내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민정을 살폈고,  
공주관찰부나 이웃 고을에 불러다니며 도정에도 협조하였다.

조선시대 지방관의 기록에서 볼 수 없는 사건들을  
그는 숨기지 않고 담담하게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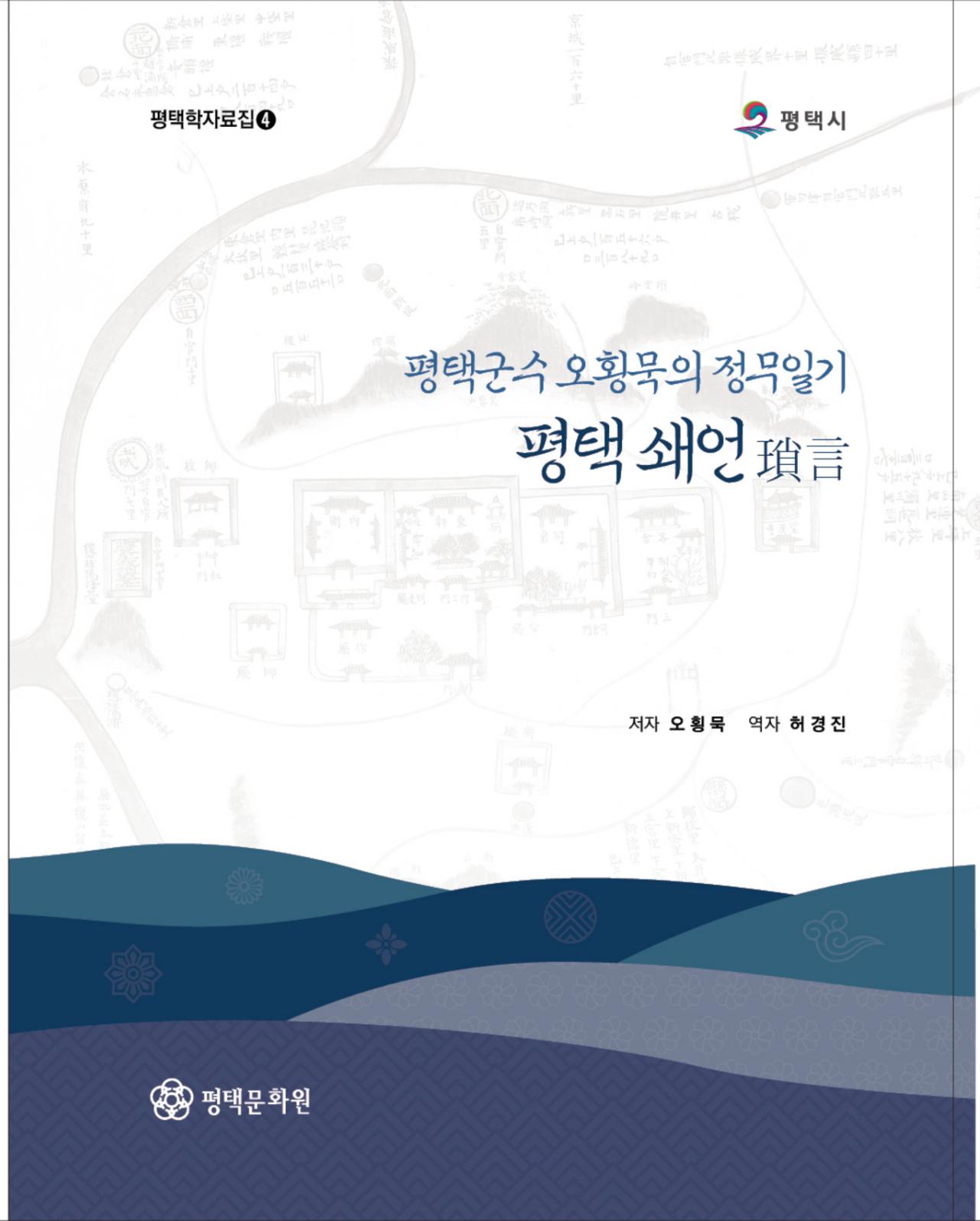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Tel 031.655.2002 Fax 031.654.8807  
www.ptmunhwa.or.kr



평택학자료집 ④

평택군수 오형묵의 정무일기 평택 쇄언 瑣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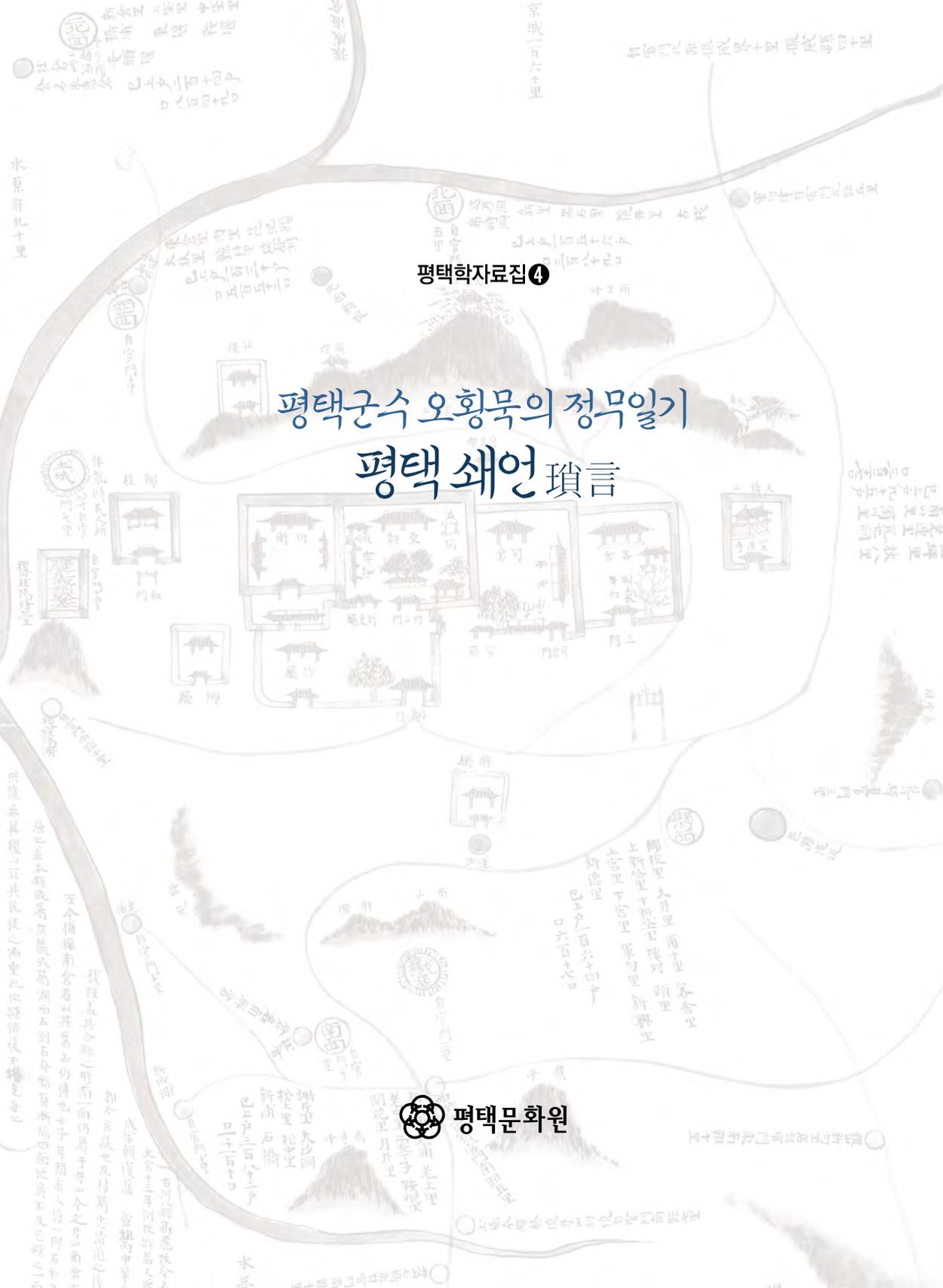
평택문화원



### 역자 허경진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를 거쳐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교 객원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조선위향문학사》, 《한시 이야기》, 《허균평전》,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기독교의 편린들》 등 10여권이 있고  
역서로는 《다산 정약용 산문집》, 《연암 박지원 소설집》, 《매천야록》,  
《서유견문》, 《삼국유사》, 《역리지》, 《난설헌 허초희 시집》, 《고운 최치원  
시집》, 《정일당 강지덕 시집》, 《진교일기》 등 50여권이 있다.



평택학자료집 ④

# 평택군수 오형묵의 정무일기 평택 쇠언 瑣言

평택문화원

水原南九十里

京城一百六十里

自宮門北距城界十里振威縣四十五里

新金宜 東堡 南堡 西堡 北堡 已上戶二百十四戶 口八百四十九口

東門 西門 南門 北門 已上戶二百三十六戶 口八百二十九口

軍門 軍門 已上戶...

西門 已上戶...

東門 已上戶...

南門 已上戶...

所傳無異稷曰其民使之備重此也謹備後不備也  
至今猶稱南舍者以其舊名仍傳也予年間有人得一碑石於...  
如今庶幾之及移屬北道之...  
咸宜調復舊 宜觀尚中事

新德里 大井里 南十里 峯舍里 柳松里 下松安里 陣村 頭里 上新松里 軍勿里 新興里 上宮里 下宮里 已上戶一百六十戶 口六百十八口

南門 已上戶... 銅井里 大沙洞 松上里 松中里 新浦 石橋 已上戶三百八十三戶 口一千一百十口

西門 已上戶...

水原



## ❁ 발간사

지역의 소중한 자료를 발굴하며...

우리지역의 삶과 문화를 살펴보고, 과거를 되짚어보는 일은 지역사 연구에서 기초가 되는 작업입니다. 평택문화원에서는 기이러한 연구를 위해 꾸준히 지역사료를 발굴하여 평택학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평택 관련 기사자료집》, 《삼학사》, 《진교일기》를 발간하였고 뒤를 이어 4번째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평택군수 오형묵의 정무일기 《평택 쇄언》은 1902년부터 1906년까지 약 4년 동안 평택군수로 재임한 오형묵의 일기입니다. 이 일기 속에는 대한제국기 평택군의 모습을 군수의 시각에서 꼼꼼히 기록하여 우리고장의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평택군은 경부선 개통 등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평택군은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였고 오형묵은 군수로서 성실하게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이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번역 발간한 평택학자료집4 - 평택군수 오형묵의 정무일기 《평택 쇄언》은 지역을 연구하는 이에게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에게는 근대평택의 모습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해 평택시에 대한 애郷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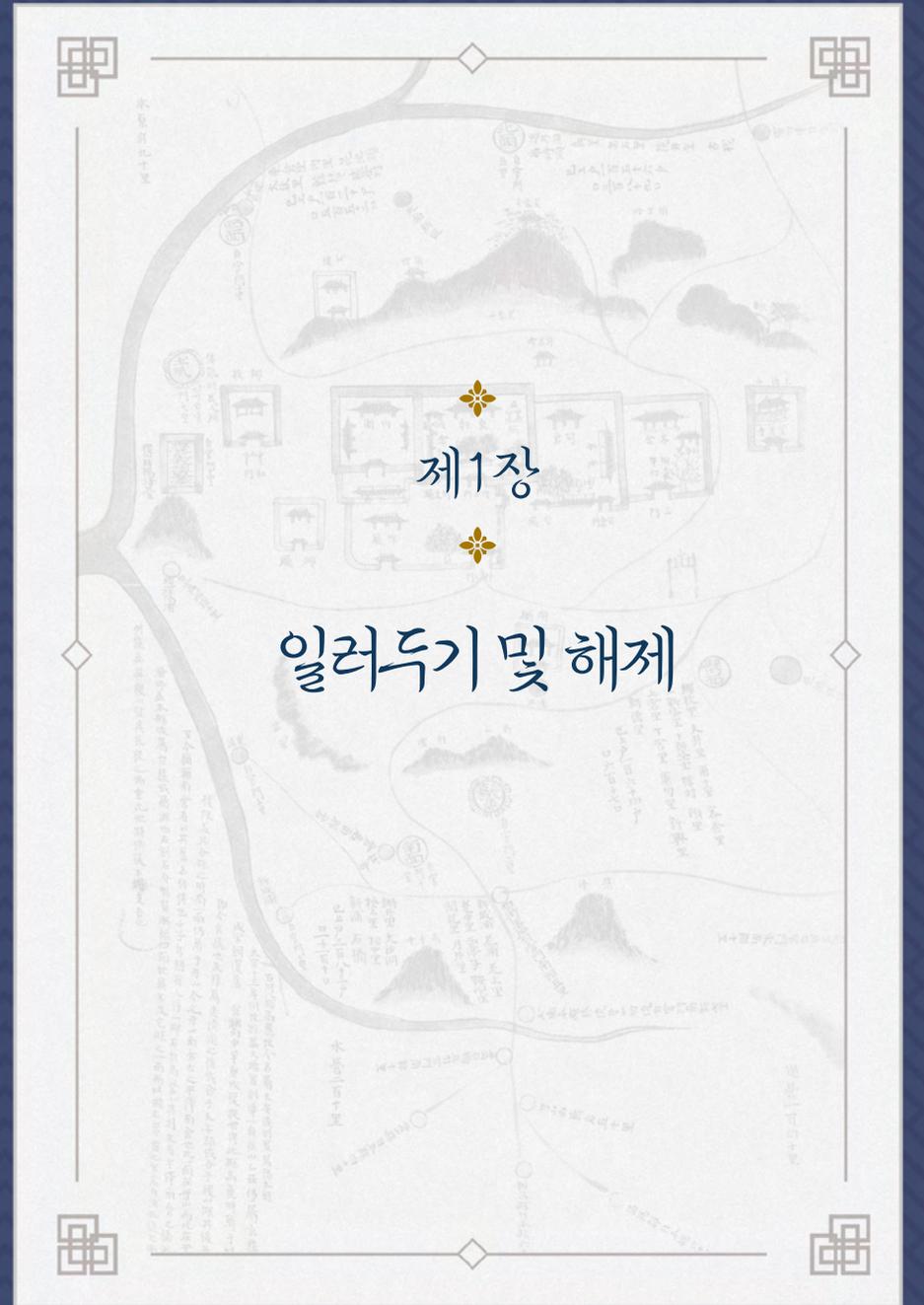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번역에 많은 힘을 기울인 허경진 교수님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평택문화원은 지역사 연구기관으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지역사 연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평택문화원장 이 보 선

❁  
목 차  
❁

제1장 일러두기 및 해제	7
1. 일러두기	8
2. 해제	9
제2장 평택 쇄언	15
1904년	
◆ 6월	16
◆ 8월	33
◆ 9월	51
◆ 10월	63
◆ 11월	75
◆ 12월	84
을사년(1905)	
◆ 1월	97
◆ 2월	102
◆ 3월	108
◆ 4월	117
◆ 5월	130
부록 평택 쇄언 영인본	145





## 제1장



# 일러두기 및 해제

### 1. 일러두기

1.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총쇄만선(叢瑣漫選)》 제1책 《평택(平澤) 쇄언(瑣言)》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하였다.
2. 장서각 소장본 《평택군 총쇄》에 시(詩)와 문(文)이 실린 것과 달리 이 책에는 일기만 실려 있으므로 《평택군수 정무일기》라고 제목을 붙였다.
3. 저본에서 줄을 바꿔 쓸 때마다 번역본에는 ○표를 표시하여 단락이 바뀌었음을 보여주었다.
4. 날짜가 모두 기록된 것은 아니어서, 날짜가 표기된 단락에서 한 줄을 띄워 구분하였다.
5. 본문 속에서 날짜가 바뀐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한 줄을 띄워서 구분하였다.
6. 원본에서 보이지 않는 글자는 공백 분량에 따라 번역문에서 ○○으로 입력하였다.
7. 일본인의 이름은 가능하면 당시에 불리던 발음을 찾아 표기하였다.
8.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주를 달았다.
9. 번역문 뒤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총쇄만선(叢瑣漫選)》 제1책 《평택(平澤) 쇄언(瑣言)》 영인본을 편집하였다.

### 2. 해제

평택군수 오횡묵의 정무일기 《평택 쇄언》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 책의 원 제목은 표제가 《총쇄만선(叢瑣漫選)》 제1책 《평택(平澤) 쇄언(瑣言)》, 권수제(卷首題)가 《평택(平澤) 쇄언(瑣言)》이다. 오횡묵의 문집이 체계있게 편집되어 간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초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대부분의 제목이 《총쇄》나 《총쇄만선》인데다가 권수제도 제각각 다르다. 평택군수 시기의 일기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총쇄만선(叢瑣漫選)》 제1권 《평택(平澤)》 뿐이어서, 다른 책들과 구분하기 위해 평택군수 오횡묵의 정무일기 《평택 쇄언》라고 제목을 붙였다.

오횡묵(吳宏默 1834-1906)의 자는 성규(聖圭), 호는 채원(菴園), 채인(菴人), 택방(澤舫), 본관은 해주(海州)인데, 41세 되던 1874년 무과에 합격하여 44세에 수문장이 되었다. 개항(開港) 이후 새로 설치된 공상소(工桑所)의 감동낭관(監董郎官)으로 문관 벼슬을 시작하여 정선군수(1887), 자인현감(1887, 통정대부), 함안군수(1889), 고성부사(1893), 지도군수(1896), 여수군수(1897), 진보군수(1899), 익산군수(1900), 평택군수(1902)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통정대부는 정3품인데, 그는 품계와 관계없이 20년 동안 군수(종4품), 현감(종6품), 부사(종3품) 등의 다양한 고을 목민관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는 평생 수많은 벼슬을 하였지만, 가장 오랜 기간 재임하였던 관직은 69세 되던 1902년 6월 23일에 군수로 임명되어 73세 되던 1906년 5월 28일에 의원면직할 때까지 4년 동안 재임하였던 평택군수이다. 그는 이 일기를 쓰던 1905년 5월 25일에 종2품으로 승자(陞資)되어 관직의 전성기를 누리고, 73세에 평택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5개월 뒤인 10월 6일에 세상을 떠났다. 넉 달 전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부부가 백년해로하고 오복을 다 누린 셈이다. 그의 호 가운데 택방(澤舫)은 평택에서 지은 것인데, 자호 택방에 대한 해설을 적은 「택방설(澤舫說)」이 장서각본 《평택군 총쇄》 제22권에 실려 있다.

오횡묵은 목민관으로 가는 곳마다 다양한 기록을 남겼는데, 크게 분류하면 일기, 시, 산문이다. 평택군수로 재임하는 기간에는 일기 1권, 시 642제(題), 산문으로는 서(序) 5편, 기(記) 7편, 발(跋) 1편, 문(文) 1편, 잠(箴) 1편, 명(銘) 1편, 찬(贊) 2편,

설(說) 4편, 해(解) 1편, 발사(跋辭) 4편, 제사(題辭) 20편, 판결서(判決書) 1편, 보고(報告) 10편, 조회(照會) 1편, 하첩(下帖) 1편, 전령(傳令) 11편, 조규(條規) 1편, 서(書) 106편을 지었는데, 4책의 《총쇄(叢瑣)》에 실려 있다.

제(題)라는 단위는 한 제목에 여러 수의 시가 실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4년 동안 날마다 일기를 쓴 외에도 날마다 1편 이상의 시나 산문을 지은 셈이다. 일기를 보면 그는 부지런히 관내를 순시하면서 공적이고 사적인 글을 썼는데, 공문서로 본다면 그 가운데 일부가 그의 문집인 《총쇄》에 실린 편이다. 그가 지은 시와 산문은 《고전문집총간 속(續)》 141-142권으로 편집하여 문집명 《총쇄(叢瑣)》로 간행하였다.

평택군수 오횡목의 정무일기 《평택 쇄언》은 1904년 6월 1일에 시작하여 1905년 5월 30일에 끝나는데, 169면 1책 분량이다. 갑오개혁(1894) 때에 공식적인 날짜를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꿨지만, 그는 여전히 음력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양력을 추가하였다. 정무일기의 제목은 ‘쇄언(瑣言)’인데, ‘자질구레한 글, 자질구레한 기록’이라는 겸양의 표현이다. 문집명을 ‘총쇄(叢瑣)’라고 하였으니, ‘자질구레한 글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겸양의 표현이다. 한나라 문장가 양웅(揚雄)이 문집명을 ‘부부(覆瓿 장독뿔개)’라고 지은 것만큼이나 겸손하면서도 해학적인 표현이다.

평택군수 오횡목의 정무일기 《평택 쇄언》을 읽어보면 그는 1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였다. 평택군 동헌에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내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민정을 살폈고, 공주관찰부나 이웃 고을에 불러다니며 도정에도 협조하였다.

조선시대 목민관이 담당해야 할 일을 수령칠사(守令七事)라고 하였는데, 농상을 장려하는 농상성(農桑盛), 학풍을 일으켜 교육을 장려하는 학교흥(學校興), 소송을 간명케 처리하는 사송간(詞訟簡), 교활하고 간사한 버릇을 그치게 하는 간활식(奸猾息), 고을 행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군정수(軍政修), 호구를 늘리는 호구증(戶口增), 부역을 고르게 부과하는 부역균(賦役均)이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이 일곱 가지 임무를 오횡목은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수행했고, 가능하면 백성의 목소리를 상부에 아뢰면서 민생을 우선순위로 행정하였다. 그러한 행적과 언행이 그의 일기에 적혀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은 글들이 그의 문

집인 《총쇄(叢瑣)》에 실려 있다. 그가 해마다 포폄 제목(褒貶題目), 즉 고과점수를 상(上)으로 받아, 이 일기를 기록하던 1905년 2월 2일자 《황성신문》에 “平澤郡守 吳 宥默 老練手段으로 何事不濟 上”이라는 포폄 기사가 실렸다. 이는 70세가 넘어도 지치지 않고 돌아다니며 민생을 보살폈던 그의 애민정신(愛民精神)의 평가이다.

그가 평택군수로 재임하던 시기(1902-1906)는 조선왕조가 아니라 대한제국 시대이어서, 그는 선배 평택군수들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했다. 하나는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어 공주관찰부에 속하던 작은 고을 평택군이 경기도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과정의 변화와 충돌이고, 다른 하나는 통감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협조를 요구하는 일본 헌병과 경찰, 일진회(一進會) 회원들의 간섭 등이다. 조선시대 지방관의 기록에서 볼 수 없는 사건들을 그는 숨기지 않고 담담하게 기록하였다.

그는 20년 동안 주로 산골과 바닷가의 작은 고을에 부임하여 넓은 행정구역을 쉬지 않고 순시하였는데, 그런 가운데도 함안군수 시절인 1892년에는 세계와 우리나라 지리를 모두 포함한 인문지리서 《여재촬요(輿載撮要)》 10권의 집필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개화기에 집필된 첫 번째 지리 교과서였기에, 그가 지도군수로 재직하던 1896년 학부(學部)에서 《여재촬요》를 1권으로 요약하여 간행하고, 전국 학교에 교과서로 보급하였다.

그는 평택군수로 재임하던 동안 《동의보감(東醫寶鑑)》을 비롯한 여러 의서(醫書)에서 필요한 내용을 뽑아 《의감집요(醫鑑集要)》 7권을 편찬했는데, 내경편(內景篇) 외형편(外形篇) 잡병편(雜病篇) 탕액편(湯液篇)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의원을 찾아가기 힘든 백성들도 읽어볼 수 있도록 약성총목(藥性總目)의 약명에 한글을 병기하였다. 1905년 6월 15일 평택에서 완성된 이 책만 보더라도 쉬지 않고 민생에 도움이 될 책을 만들려고 했던 그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평택군수 오횡목의 정무일기 《평택 쇄언》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904년

- 일본 육군헌병 히라이 우메키치(平井梅吉)와 통역교관 이능우가 경부선 인부 모

## 집차 평택군 방문

- 본(日本) 군용(軍用) 인부(人夫) 50명 모집 훈령(訓令)
- 부용산사(芙蓉山祠), 리청(吏廳) 중수(重修)
- 육영재(育英齋) 학도(學徒) 장학(獎學)
- 8월 1일. 망곡(望哭) 망궐례(望闕禮) (매달)
- 기관차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직산(稷山) 망건교에서 전복. 3명 압사(壓死)
- 대황제폐하 및 황태자 사진
- 메이지(明治) 황제폐하 사진 열람
- 평안남도 관찰사 이중하 전보 (東學 관련)
- 각면 동임(洞任)들이 향약(鄉約) 관련하여 서정자(西亭子)에서 모임
- 일본 체신대신(遞信大臣) 오우라(大浦)씨가 철도우편사업을 시찰하러 방문
- 열차가 오늘부터 평택정거장에서 상오 8시 50분, 하오 3시 12분에 떠남
- (10월) 7일 송석원(松石園)에 가서 민영린(閔泳璘)을 만나, 노일전쟁(露日戰爭) 여순(旅順) 전투 상황을 들음
- 9일 황태자비(皇太子妃) 홍서(薨逝) 훈령(1일자)이 늦게 도착함
- 일본인 발행 《대동신보(大東新報)》가 《황성신문(皇城新聞)》처럼 평택에 반포됨.
- 관아(官衙) 동쪽 담 너머에 대동고(大同庫) 사창(社倉) 관청(官廳) 등이 있던 빈터가 객사(客舍) 서쪽 담에 이어졌는데, 이번에 뽕나무 몇백 주를 심다.
- (12월) 30일 《황성신문》에 여순(旅順) 함락 보도

## 1905년

- 삼학사(三學士)를 제사하다가 훼손(毀撤)되었던 포의단(褒義壇)을 복원
- 15일 본군 수서기(首書記) 특별포상(特別褒賞)
- 27일이 생일이어서 내외 귀빈들을 접대하다.
- 청인(淸人) 한어학교(漢語學校) 교사가 방문하다.
- 17일 상오 2시 15분부터 4분 28초 동안 월식(月蝕)이 진행되었다.
- 의원(醫員)에게 진맥(診脈)을 받다.

- 2일 영국 성공회(聖公會) 회장 이세준 주사가 평택 교인들을 독려하러 방문하다.
- 일진회(一進會) 회원들이 업무차 방문하다.
- 5일 신문에 인도 대지진이 보도되었다.
- 《동의보감》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베껴서 읽다.
- 경부철도주식회사 총재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고 공문을 보내오다.
- 우체국과 전신국을 서울에서 13도에 이르기까지 일본인들이 인계하기 시작하다.
- 나에게 종2품(從二品) 가자(加資)가 내려져, 사람들이 축하하다.
- 29일(양력 7월 1일)에 13도 각군에서 신구(新舊) 화폐(貨幣)를 교환하다.

그 동안 여수, 신안(지도), 고성 등지에서 오횡목이 지방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총쇄》를 번역 출판하여 주민들에게는 물론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평택군수 오횡목의 정무일기 《평택 쇄언》의 뒤를 이어서 2권의 평택 시집과 2권의 평택 산문집까지 번역하면, 읍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평택의 종합적인 인문지리서가 될 것이다.



❖  
제 2 장  
❖

평택 쇠언  
平澤 瑣言

1904년

◆ 6월

○ 1일. 방금 인천항(仁川港) 감리(監理)<sup>1)</sup> 하상기(河相驥)의 편지를 받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항구에 주재(駐在)하는 일본 영사(日本領事)가 경고하기를, ‘제일은행권(第一銀行券)<sup>2)</sup>이

1) 1883년에 부산·인천·원산·3개소의 개항장에 감리서가 신설되고 주임관(奏任官)인 감리가 임명되었으나, 1895년 감리서는 폐지되고 그 업무는 그 지역의 지방장관에게 이관되었다. 그러나 격증하는 대외관계업무로 인하여 1896년 8월에 감리서가 다시 설치되어 감리의 권한은 전보다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부윤이 겸임하였으나 곧 분리되었고, 각국 영사와의 교섭, 개항장내의 통상사무 관장, 거주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소송문제(詞訟問題), 개항장내 경무서(警務署)의 지휘·감독 등 개항장내에서의 행정권·심판권·사법권을 관장하였다. 행정면에서 관찰사와 대등한 지위와 자격을 지녔으며, 외부대신의 지휘를 받았다. 통감부가 설치된 뒤, 1906년에 폐지되었다.

2) 일본 제일은행은 개항 이래 부산·원산·인천·한성 등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여 일본인의 무역 상업 금융을 지원해 왔으며, 1884년에는 한국 해관세(海關稅) 취급 특권을 얻었다. 해관세는 수출세·수입세·통세(噸稅)를 합쳐서 1897년 이후 매년 100만 원이 넘었는데, 한국 정부 재정 수입의 15~30%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제일은행은 해관세를 한국 정부 명의의 예금으로 예치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이 해관세를 담보로 하여 소규모 차관도 제공함으로써 한국 내 금융계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지위를 바탕으로 제일은행은 일본 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한국 정부에 한마디 통보도 없이 1902년 5월 20일부터 부산·목포·인천·한성 지점에서 1엔권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1899년에 준공된 구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舊仁川日本第一銀行支店) 건물은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

근래에 위조된 것이 많아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쉽습니다. 해당 은행권 원본(原本) 양식을 부근의 각 군(郡)에 부쳐 보내니, 바라건대 이를 대조하여 증명해서 위조를 막으십시오.’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의거해서 가지고 온 은행권 각 양식의 견본(見本) 6장을 함(函)에 넣어 보내드립니다. 바라건대 귀군(貴郡)에서 관할하는 각 상회(商會)에 널리 알려져 고루 알게 하시고, 해당 견본 6장에 대한 영수증은 오는 즉시 보내어 곧바로 일본 영사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모두 즉시 답하여 보내고, 이 일을 각 상회 3곳과 포구(浦口) 여각(旅閣) 등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다.

○ 만물은 궁(窮)하면 반드시 변하고, 귀(貴)함이 극에 달하면 천(賤)해지는 것은 몇몇한 이치이다. 우리나라는 언의(言議)로 정사를 하기 때문에 한번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게 되면 그 직임에서 떠나지 않을 수 없고, 명예와 절조를 빌미로 한번 기롱과 비판을 받게 되면 청반(淸班)으로 가는 길이 막히기 된다. 그래서 언론을 맡은 관원은 지나치게 격양하고 화려한 청직(淸職)<sup>3)</sup>은 인사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니, 이것이 바로 그 폐단이다. 이 때문에 대각(臺閣)<sup>4)</sup>의 관직이 근래 영구히 폐쇄되고 잡자기 바뀌는 지경에 이른 것이니, 이것이 어찌 궁하면 변하고 귀함이 극에 달하면 천해짐을 이룬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현 상황을 가지고 미루어보면, 외직을 중시하고 내직을 경시하는 경향이 참으로 극에 달하였다. 이전에는 화려한 청직의 명사(名士)들이 지방으로 나가 외직을 맡는 것을 반드시 ‘좌천(左遷)’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의 군(郡)도 언지 못할까 염려하여 군을 얻는 데 뻔뻔하게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왜 그런지 모르겠다.

3) 청환(淸宦), 중요한 자리라는 의미를 더하여 청요직(淸要職)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관리를 말한다. 이들 관직은 국가의 기강을 담당하고 국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시종신(侍從臣)에 해당하거나 시종신으로 나갈 수 있는 직소(職所)이므로, 능력뿐만 아니라 언행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판서 등의 당상(堂上)이나 송품(崇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청요직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청요직은 모든 관리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4) 대간(臺諫)과 같은 말로, 언론을 맡은 사헌부와 사간원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신성포(新成浦)의 거주민 양도묵(梁道默)과 묵용진(默龍鎭) 등의 소장(訴狀)에 이렇게 말하였다.

“한낮에 시장을 열어 교역을 번창시키는 것은 민생과 크게 관계된 일인데, 고을은 존재하나 시장이 없는 곳은 오직 평택(平澤)뿐입니다. 본포(本浦)에서 옛날부터 시장을 연 것이 몇십 년이 되었는지 또 몇십 차례인지는 모르지만 잠시 열었다가 곧바로 철거하고, 위해(危害)를 가하지 않는데도 절로 그만두었습니다. 현재 마을의 형편이 쇠잔하여 장차 재정이 바닥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이는 바로 민읍(民邑)의 생활과 크게 관계됩니다. 어떻게 보완해야 할런지 그 계책을 도모해 보면, 시장을 열어 장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원근의 상인들이 모두 이곳에서 교역하기를 바라다면 혹 고을의 운수가 태평시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때에 조정에서 신칙(申飭)하여 특별히 시장을 열도록 허락해서,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에 부응해 주소서.”

○ 5일. 비. 어제 진시(辰時)에 처음으로 비가 내렸는데 신시(申時) 이후부터 새벽까지 장대비가 쏟아졌다. 그래서 메마른 식물이 기름지고 윤택해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흡족하게 하였다. 이는 천신(天神)의 공로인지라 감히 무어라 명명할 수 없기에, 특별히 20냥의 돈을 이청(吏廳)에 내어 주어 기쁨을 기념하게 하였다.

○ 재임(齎任)<sup>5)</sup> 홍종운(洪鍾穩)이 와서 보고 말하였다.

“지금 비가 두루 흡족하게 내려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으니, 금일 제사 지낼 차례가 된 곤지진(昆池津)의 기우제(祈雨祭)는 정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형(公兄)<sup>6)</sup> 등을 불러 상의하여 관찰부(觀察府)에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6일에 비가 내렸다. 조정의 벼슬아치에게 들으니,

“농가(農家)에서 저마다 먼저 농사를 지으려고 하나 사람을 고용하지 못해 각자

5) 성균관이나 향교에서 숙직하는 유생으로서 그 안의 일을 맡아보던 임원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평택향교의 재임이다.

6) 조선조 각 고을의 상급 관속(官屬)인 호장(戶長)·이방(吏房)·수형리(首刑吏)를 일러 삼공형(三公兄)이라고 하였다.

자체적으로 모내기를 하는 사람이 사방 들판에 두루 가득하다. 만약 혹시라도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매일 지급해야 할 술, 음식, 건초 외에 품삯이 2냥이고,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은 경우(耕牛)이니, 그 번거로움이 아주 막심하다.”

하였다. 형세로 볼 때 진실로 그러하기에, 말을 만들어 각 면(面)에 효유(曉諭)하였다.

○ 수서기(首書記)에게 명하여 사령(使令) 등을 데리고 내아(內衙) 뒤의 총죽(叢竹)을 캐내어 십의대(十宜臺)의 대숲이 듽성듬성한 곳에 옮겨 심게 하였더니 아주 보기에 좋았다.

○ 공주(公州)에서 전최(殿最)<sup>7)</sup>가 도착하여 보니, 그 계본(啓本)에 “예전에 듣기로 누차 맡았던 고을에서 치적(治績)이 있다고 하던데, 이제 보니 작은 고을에서 놀려 있음.”이라고 하였다. 38군(郡)이 모두 ‘상(上)’을 받았다.

○ 이달 4일 해시(亥時)에 손자 유영(惟泳)<sup>8)</sup>이 남아를 낳았는데, 출산한 뒤에도 무탈하였다. 또 아들 익선(翼善)이 제용사(濟用司)<sup>9)</sup> 검찰관(檢察官)에 서임(敍任)되었다. 아직 조지(朝紙)<sup>10)</sup>에 반포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보다 더한 경사가 없다.

○ 12일. 자시(子時)부터 진시(辰時)까지 장대비가 쏟아지고 반쯤 흐렸다. 하신대(下新垓)에 사는 윤치선(尹致善)과 김성(金成)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물이 불어난 탓에 집이 쓰러지고 무너졌다”고 하였다. 그래서 집을 짓고 보수하는 데 쓰도록 돈

7) 관리의 성적을 고사하는 법으로 상(上)을 최(最), 하(下)는 전(殿)이라 한다. 9등은 상상(上上)·상중(上中)·상하(上下)·중상·중중·중하·하상·하중·하하의 9등급을 말한다.

8) 정위(正尉)를 거쳐, 1907년 11월에 금성군수로 부임하였다.

9) 국내의 포사(庖肆) 및 특종산물을 관장하기 위해 1904년에 설치한 관청인데, 관원으로는 칙임관(勅任官)인 장(長) 1인과 주임관(奏任官)인 부장(副長) 1인, 이사(理事) 2인, 그리고 주임대우(奏任待遇)인 검찰관(檢察官) 18인, 판임관(判任官)인 주사(主事) 2인이 있었다.

10) 조정의 소식을 전달하는 공보매체를 흔히 조보(朝報)라고 하였는데, 기별·기별지(寄別紙)·조지(朝紙)·저보(邸報)라고도 하였다. 승정원에서 배포 범위를 통제하기 위해 필사로만 전달하였는데, 1895년 2월에 《관보(官報)》로 바뀌면서 필사본 조보가 없어졌다.

2냥씩을 제급(題給)<sup>11)</sup>하였다.

○ “수교(首敎) 박경래(朴慶來)를 예전에 장의진(張義鎭)과 서로 싸운 일로 잡아 가두라”고 일찌기 명을 내렸었는데, 신문할 때가 되자 제멋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몸에 병이 있다”고 핑계대고 감옥에 나오지 않은지 지금 한 달이 넘었다. 이러한 사태를 생각해보니 그 무엄하고 거리낌 없는 버릇이 더 이상의 여지가 없는데다, 근래 순교(巡校)가 받들어 행하는 일이 더욱 기강과 규율이 없어 단속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수교를 제태(除汰)<sup>12)</sup>하였다.

○ 고을의 사수(社首) 홍종원(洪鍾元)이 와서 말하였다.

“사창(社倉)<sup>13)</sup>이 장마로 비가 새므로 쌓아둔 사창의 쌀이 반드시 젖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기(首書記)와 해당 색리(色吏)에게 적간(摘奸)<sup>14)</sup>하게 하였더니, 사창의 쌀 가운데 썩고 문드러진 것이 거의 수십여 섬이 된다고 하였다. 그대로 둘 수 없어 형편 상 임의대로 변통하여 분급하는 것이 좋겠기에, 해당 사창의 쌀을 내일 분급하도록 고을의 각 마을에 통보하였다.

○ 일본 사람 사쿠라이 무라오(櫻井邑雄, さくらい むらお)가 예전에 화초(花草)를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 결행하지 못하다가, 오늘 각종 화초를 캐서 유흥운(柳興雲)을 시켜 보냈다. 곧바로 회답 서신을 받았는데, 한 차례 회사(會社, 경부철도주식회사)에 놀러와 구경할 것을 간곡하게 청하였다.

11) 백성이 제출한 소장(訴狀)이나 청원서에 관청에서 판결이나 지령(指令)을 써 주는 것.

12) 군인(軍人)·하리(下吏)·하례(下隷) 따위의 칠반 천역(七般賤役)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실을 떼는 것, 즉 면직시키는 것이다.

13) 민간에서 운영하던 창고로서, 가을철에 곡식을 사들여 갈무리하였다가 봄철 춘궁기(春窮期)에 싼값으로 방출하였다. 의창의 환곡(還穀)이 모자라 군자창(軍資倉)의 곡식이 환곡으로 전용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서, 저리(低利)의 이식(利息)을 붙여 거두었다. 사수(社首)는 사창의 곡식을 나누어 주고 거두어 들이는 일을 맡아 보던 우두머리인데, 흔히 사장(社長)이라고 하였다.

14) 관리의 난잡한 행위나 부정한 사실 무무를 적발함.

○ 아침 식사에 입맛을 돋우는 음식은 송어국과 산적일 뿐이다. 요즘 위병(胃病)으로 몸이 크게 망가져 입맛을 잃은 중에 이 음식을 먹으니 갑절로 생기가 돌았다. 어제 수서기(首書記)가 내게 아뢰고 자기 집에 가서는 직접 생선 두 마리를 구해다가 보내왔는데, 이 아전이 종종 입맛을 돋우어주니 가상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고을의 모습이 껌데기도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피폐한 것은 어쩔수인가. 도리어 불안한 점이 많다.

○ 경무청(警務廳) 총순(摠巡)<sup>15)</sup> 유기량(柳冀亮)과 순검(巡檢)<sup>16)</sup> 윤하식(尹夏植)이 와서 말하였다.

“참봉 서상천(徐相天)이 갯벌을 개간하여 논을 만들어서 400여 섬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화(紙貨) 1만 6000원(元)을 일본 사람에게 저당 잡혀 내달로 상환 기한을 잡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가서 조사하라는 성상의 뜻을 받들고 내려왔습니다. 서상천은 수원(水原)에 거주하고, 해당 토지는 본군(本郡)에 있습니다.”

즉시 서상천의 집에 통보하여 와서 대기하게 하고, 별도로 색리를 차정(差定)하여 함께 가서 일을 맡아 처리하라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순교(巡校)를 차정하여 수원으로 보내 대령하게 하고, 또 해당 면(面)의 서원(書員) 박내문(朴來文)을 배정해서 내어보냈다.

○ 앓고 있는 현기증이 줄곧 차도가 없어서 널리 의약(醫藥)을 구했으나 끝내 두드러진 효과가 없었으므로 날마다 이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어떤 주민이 말하였다.

“부용산(芙蓉山) 정상에 ‘원정(元井)’이라는 샘물이 있는데, 본래 풍화증(風火症) 등을 치료하는 데 큰 효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기(首書記) 박덕순(朴德淳)에게 샘을 파내 흐르게 해서 맛보았더니,

15) 경무청(警務廳) 총순(摠巡) : 저본에는 ‘경총순(京摠巡)’으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고종 39년 7월 17일 기사에 근거하여 ‘경(京)’을 ‘경(警)’으로 바로잡았다.

16) 개항기의 경찰 관직. 갑오개혁 때 신식 경찰제도가 실시되면서 종전의 좌우포도청을 합쳐서 경무청을 신설하였는데, 경무청은 내무아문에 속하였고 서울의 경찰사무를 맡아보았다. 경무청의 관제는 경무사(警務使)·경무관(警務官)·총순(摠巡)·순검 등으로 되어 있었고, 총순이 판임관으로 순검을 지휘하였다. 순검의 명칭은 1907년 12월 27일 순사(巡查)로 바뀌었다.

그 맛이 아주 맑고 시원한데다 달고 향긋하여 보통 샘물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석으로 일상에 쓰이는 음식에는 모두 이 물을 길어다 쓰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 나는 현기증이 특히 심할 때에는 늘 후원(後園)의 토성(土城)에 올라 소요하면서 산보하였다.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이 한층 수월하였다. 하지만 오르내리는 데 불편한데다 내리쬐는 태양이 두려워 자주 거닐지는 못하였다. 수서기(首書記)가 이러한 사정을 듣고 대뜸 십의대(十宜臺)에서 위로 10여 보 되는 곳에 한 칸의 정자를 지은 뒤에 거적을 이용해 위를 덮고, 송판(松板)을 배열하여 초정(草亭) 하나를 십의대와 짝이 되게 완성하였다.

대숲이 세 그루의 소나무를 에워싸고 있는데, 전면에는 안개와 구름이 낀 바다와 산의 승경, 벼가 자라는 들판의 아름다움, 마을을 지나가는 선박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었다. 게다가 철로(鐵路)가 완공되어 열차(列車)가 나는 듯이 30리의 너른 들판을 순식간에 왕래하니, 가슴 속이 이에 따라서 후련하고 몸의 병도 거의 다 나았다.

옛사람이 “좋은 약은 의술(醫術)에 있지 않고 바로 강산(江山)의 풍광이 어떻게 공양(供養)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참으로 속일 수 없다. 이에 그 정자를 ‘강산일초정(江山一草亭)’이라고 명명하였다.

○ 정중근(鄭重根)과 정준근(鄭俊根)이 죽성(竹醒, 정은교)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말하였다.

“육영재(育英齋)의 제생(諸生)이 내산(內山)의 연꽃 못가에 예(禮)를 익히기 위한 띠풀 다발[綿叢]을 세웠는데, 높이는 너댓 길이고 너비는 2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여 어제저녁에 처음으로 올랐는데, 툭 트이고 환해서 거의 공중의 누각과 비슷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달이 뜨자 연꽃과 연잎이 은은하여 마치 푸른 유리구슬과 붉은 능라비단이 펼쳐지고 뒤섞인 듯하기에, ‘하월루(荷月樓)’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방옹(放翁, 육유)의 <등여지루(登荔枝樓)> 운자를 따다 시를 지었으니, 이 또한 제생이 간절하게 청하여 지은 것입니다. 우러러 생각건대

흐뭇하게 마음에 드실 것이니, <모춘재화(暮春栽花)><sup>17)</sup> 시처럼 화운해 주십시오.”

○ 신성포(新成浦) 백성들의 소장에,

“전날 시장을 새로 열었는데 날짜에 대해서는 근간에 농사로 인해 미쳐 여쭙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달 7일을 시작으로 씨름장을 설치하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소서.” 하였다. 그래서 인허(認許)하였다.

○ 탁지부(度支部)<sup>18)</sup>의 주사(主事) 김정진(金正眞)이 내장원(內藏院)<sup>19)</sup>에서 관할하는 각종 세금을 탁지부에 이부(移付)하는 일로 인하여, 균역청의 해세(海稅) 및 기암세(基巖稅), 고전세(庫田稅), 어염세(漁鹽稅), 광세(藿稅), 선세(船稅) 등의 세액 및 각 둔세(屯稅), 역세(驛稅), 토지세, 도세(賭稅), 그리고 갑오년(1894) 이후로 도세의 실제 수량과 납부하였는지 미납하였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관찰부(觀察府)의 훈령(訓令)을 가지고 와서 각 문서를 조사하였다. 그런데 본군은 본래 도세 등의 명목과는 상관이 없었으므로, 그 실상을 들어 조목조목 나열하여 주었다.

○ 군물포(軍勿浦)의 배삯을 함부로 많이 거둔 것에 대해 신칙한 것이 과연 어떠한데, 저들이 근래 또 함부로 토색질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는 일이 낭자하던 말인가. 그래서 도사공(都沙工)과 당번(當番)을 모두 잡아와서 각각 장(杖) 20도(度)를 치고 목에 칼을 씌웠다. 그런 뒤에 순교 김창식(金昌植)을 대동시켜 해당 나룻가로 보내 배가 있는 곳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두어 왕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고, 해가 질 때까지 다시 데리고 와서 대령하라고 신칙하였다.

17) 모춘재화(暮春栽花) : 오홍묵의 시 <육영재의 제생이 지은 재화 시속에 차운하다(次育英齋諸生栽花詩軸韻)>를 말한다. 《총쇄만선(叢瑣漫選)》 14책 《평택군(平澤郡)》

18) 1895년에 8아문(衙門)을 7부(部)로 개편할 때에 탁지아문(度支衙門)을 개칭한 중앙관청으로, 정부의 재무를 총괄하고 회계·출납·조세·국채·화폐·은행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관장하며 각 지방의 재무를 감독하였다.

19) 왕실의 보물·세전(世傳)·장원(莊園) 등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1895년에 설치한 관청.

○ 신성포(新成浦)에 이미 씨름장을 설치하도록 허락한 이상, 검사하고 살피는 인원이 없어서는 안 되겠기에, 해당 마을에서 가장 위풍과 역량이 있는 사람 네 명을 차출하였다. 무릇 싸우거나 술주정을 부리거나 노름 등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엄히 신칙하여 금단(禁斷)하는 일과 각 면(面)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달 7일에 시장을 여는 일에 대해 단단히 일러서 널리 알리게 하였다.

○ 말복(末伏), 오늘은 바로 명절이다. 그래서 이청(吏廳)에 20냥, 장청(將廳)에 7냥, 통방(通房)<sup>20)</sup> 및 사령청(使令廳)에 각 5냥, 관노방(官奴房)에 3냥, 목수 2명에게 2냥을 특별히 체하(帖下)<sup>21)</sup>하여, 명절을 즐기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갖추어 이바지하게 하였다. 그러자 이청에서는 수박 4개와 참외 5개, 통방에서는 소주(燒酒)<sup>22)</sup>, 참외, 인절미 한 소반을 이바지해 왔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각 면(面)의 도로가 장마 때문에 무너지고 떨어져 나가 전혀 도로답지 못하다고 하기에, 특별히 순교를 보내 말하였다.

“다른 지역에 들어가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도로이다. 행정상에도 아주 긴요한 일인데, 올여름 장마가 한 달이 넘도록 계속 이어져 교량은 훼손되고 도로는 무너져, 행인들이 지나가는 데 애를 먹고 우마(牛馬)도 지나가기 어렵다는 말이 매일 귀에 들어오니, 들려오는 말에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현재 농사일이 바쁘지 않아 백성의 일이 조금 한가해졌다. 이에 특별히 신칙하여 각 마을에 미리 가서 해당 동임(洞任)으로 하여금 농부들을 영솔해 한껏 새롭게 정비해서, 교량은 튼튼하게

하고 도로는 평탄하게 하라. 나온 곳은 깎아내고 들어간 곳은 메꾸며, 거친 곳은 제거하고 깨끗하게 다듬어서 잘 정비되도록 힘쓰라. 비록 나무꾼이나 소 먹이는 자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라도 남김없이 평탄하게 하라. 관(官)에서 직접 살피는 지역 중에 혹시라도 미진한 곳이 있으면, 너와 해당 동임을 특별히 엄히 징계하겠다.”

○ 일본 육군 헌병 히라이 우메키치(平井梅吉, ひらい うめきち)와 통역 교관(通譯教官) 이웅우(李熊雨)가 인부(人夫)를 모집하는 일로 와서 부탁하였다.

“역부(役夫) 만 명을 각 고을에서 모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뒤에야 개성부(開城府)에서 평양(平壤) 간 각종 군용 물품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품삯은 매일 7냥 5전씩이고, 군(郡)에서 개성으로 갈 때에 머무르는 비용은 날마다 후하게 지급하겠습니다. 모집에 응하는 사람은 각자 지계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별도로 순교(巡校)를 정해서 고시(告示)하는 중에 말미에 일본 사람의 광고지 1장을 부쳐 각지에 통지하고, 몇 사람이든 간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읍하(邑下)<sup>23)</sup>로 달려오도록 신칙하였다. 그리고 일본 사람을 내보내면서 말하였다.

“우선 며칠을 머무르면서 근처 역부들이 모여들기를 기다린 뒤에 인솔하여 가되, 참으로 유숙할 정사(精舍)가 없으면 망한사(望漢寺)에서 유숙해도 될 것입니다.”

이어 차를 마신 뒤 강산일초정(江山一草亭)에 함께 오르니, ‘시야가 탁 트이고 가슴 속이 후련하다.’는 등의 말로 상쾌해 하지않았다. 또 수박과 다품(茶品)으로 대접하니 한가하게 놀다가 갔다.

○ 오늘은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이다. 몸이 외직에 묵인 탓에 직접 제사에 참석하지 못해 서글프고 흠모하는 마음이 깊고 간절하였다. 밤 자시(子時)에 망배례(望拜禮)<sup>24)</sup>를 행하였는데, 삼반관속(三班官屬)들이 뜰을 종종걸음으로 지나와 문안

20)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부속 건물로, 수령의 잔심부름을 하던 통인(通引) 일본던 방이다. 통방을 통인방(通引房), 통청(通廳)이라고도 한다.

21) 관아에서 사용하는 문서 양식의 하나. 이두문자(吏讀文字)인데, 하급 이례(下級吏隸)에게 전곡(錢穀)을 지급할 때, 그 물품지령서(物品指令書)에 체자(帖字)의 목인(木印)을 찍어 내려 보내면 이에 따라 현물(現物)을 지급하였다.

22) 곡류를 원료로 하여 주정발효를 거쳐 숙성된 술덧을 증류하여 이슬처럼 받아내는 술이라 하여 노주(露酒)라고도 하고, 화주(火酒) 또는 한주(汗酒)라고도 한다. 고려 충렬왕 때로 몽고군을 통해서 도입되었고, 지방마다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쌀 한말을 잘 씻어 지에밥을 써서 물 두말을 부어 식힌 다음 누룩 다섯되를 섞어 빚는다. 이때 물은 끓여서 식힌 물을 사용한다. 7일이 지난 뒤 소주를 고는데, 술에 물 두 사발을 먼저 끓인 뒤에 술 세 사발을 그 물에 부어 고루고루 짓고 불을 때어 증류시켜 이슬로 받아낸다. 자주 만드는 집에서서는 쇠로 만든 소주고리를 사용하였다.

23) 조선시대에, 관찰 관아가 아닌 지방 관아가 있던 마을. 군청이 있는 동네 이름이 대개 읍하리이다.

24) 조선시대에 국가의 기념일에 먼 곳에서 절을 올리며 지냈던 의례. 명나라 마지막 황제들의 기신(忌辰)에 왕이 망배례를 하였다.

하였다. 내가 묻기를,

“오늘 이러한 예(例)는 전에 보지 못한 것인데, 지금 갑자기 일제히 나와 문안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하니, 답하기를,

“이는 아랫사람들의 정리와 예의일 뿐만이 아닙니다. 하물며 고을에서 전해 오는 전례가 있는 데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 해 동안 거행하지 않은 것은 무식한 아전이 전례에 어두워 그런 것이니, 매우 황공합니다.”

하였다.

○ 각 면(面)에 고시(告示)하였는데, 순교가 와서 말하였다.

“이미 진위(振威)와 양성(陽城) 등지에서 먼저 모집을 하였는데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이 때문에 본군의 거주민 또한 모두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모집한다고 고시하니, 비록 좋은 말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 권유하였지만 결국 한 사람도 모집에 응한 자가 없었습니다. 진위 사람 안돌쇠(安斗錐), 청주(淸州) 사람 조정지(趙正支)만이 자원하여 따라왔습니다.”

때마침 일본 사람이 자리에 있어 그들의 성명을 묻고는 인솔하여 안성(安城)으로 갔다.

○ 일본의 군사적 목적에 쓰는 인부 50명을 모집하는 일로 관찰부의 훈령이 도착하였다. 그래서 향장(鄕長) 및 공형(公兄)과 수형리(首刑吏) 등을 불러서 문제 없이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 상의하였다.

“이와 같은 군의 형편으로는 필시 달려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일이 지극히 중대하고 급하니 반드시 숫자를 채워서 넘겨주어야 끝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각 면의 면장 및 각 마을의 존위(尊位)에 있는 사람과 동장(洞長)을 불러서 각자 자기의 마을에서 공문을 따라 분배하여 모집한다면, 일이 매우 온당하여 소란한 상황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목소리로 모두 동의하기에, 즉시 단단히 타일러서 내일 동이 틀 때에 일제히 와

서 대기하도록 순교를 파송하였다. 이어 도부장(到付狀)<sup>25)</sup>을 작성하고 간략하게 근래 본군의 사정도 거론하였다.

○ 사시(巳時)에 각 면에 부른 인원이 모두 와서 대기하였다가 평이당(平易堂)에 나열하여 앉았다. 인부를 모집하는 등에 관한 일을 충분히 상의하였는데, 소견이 각자 달랐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다.

“이는 7개 도(道)-경기, 충청, 전남·북, 경남·북 각 1200명, 충북 800명.-의 공통된 일이다. 현재 조정의 명령과 관찰부의 신칙이 아주 엄중하므로 모집하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법의 취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저마다 도피하는 것을 능사로 여긴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백성 된 도리이겠는가. 원컨대 그대들은 각자 신중하게 상의해서 각 마을에 분배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라.”

그러자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신 말씀이 적절하고 타당하니, 이 일은 편한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가서 외청(外廳)에서 의논하여 타결을 본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인사하고 나갔다. 그러다가 오시(午時)에 백성들이 와서 말하였다.

“오늘 고을 관아에 온 80여 명의 사람이 이청(吏廳)에서 회의하였습니다. 본군(本郡)의 호수(戶數)는 천호(千戶) 정도 되니, 20호당 인부 1명씩을 책임지고 거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하여 성책(成冊)<sup>26)</sup>을 작성해서-읍면(邑面) 7명, 동면(東面) 8명, 서면(西面) 6명, 남면(南面) 14명, 북면(北面) 8명, 소북면(小北面) 7명.- 들어왔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배정한 것을 보니 여러 사람의 논의가 공정하다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하면 기일에 맞춰 모집하여 갈등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25) 공문(公文)을 접수하였다는 보고서이다.

26) 명단을 정리하여 기록한 책.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지금 이렇게 배정하는 것은 진실로 군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일환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일에 맞추는 것으로 말하자면 더는 괴롭게 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백성들의 논의가 이미 이와 같으니 아주 감동스럽고 또 한편으로 부끄럽다.”

○ 각 면의 장정을 모집하는 상황을 탐문해 보니, 모두 의심을 품고서 전혀 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없고, 해당 각 마을에서 급료를 후하게 지급한 뒤에야 그나마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는 정해진 기일에 맞춰 모집하기 어려워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말 것이다. 이러한 형편을 거론하여 관찰부에 보고하는 것이 좋겠기에, 보고서를 작성해 인부를 모집하는 일로 이제 막 보고를 하였다.

이전에 와서 주재하던 일본 헌병 히라이 우메키치(平井梅吉)가 3일을 머무르는 동안 겨우 2명을 모집하여 오늘 안성군(安城郡)으로 인솔하여 갔다. 만약 작은 고을을 맡았다면 민호(民戶)가 천호(千戶)도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바람 소리와 학 울음소리만 들어도 겁이 나서 새처럼 놀라고 쥐처럼 숨었을 것이다. 목하(目下)의 민심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소란한 형편이니, 지금 헤아리기로는 정해진 수대로 모집하는 것은 사세(事勢)로 볼 때 불가능하다. 다만 모집하는 대로 몇 명이든 간에 기어코 기한 내에 영솔하여 넘길 계획이므로, 조사하여 대조해서 처분하겠다고 이 일로 사람을 전적으로 보냈다.

○ 정죽성(鄭竹醒, 정은교)이 얼마 전에 직산(稷山) 우와리(牛臥里)의 사문(斯文) 임가(林哥)의 집에서 칠석날 파접례(罷接禮)<sup>27)</sup>를 행하는 일로 가겠다고 청하였는데, 오늘 비를 무릅쓰고 돌아와서 나를 찾아와 인사를 하였다. 내가 묻기를,

“선생께서는 가고 머무는 것이 모두 자유로운 나그네 신세인데, 어찌하여 빗속에 걸음을 하셨습니까?”

27) 글을 짓거나 책을 읽는 모임을 마칠 때 베풀던 잔치. 여기서는 서당에서 책을 한 권 떼고 학도들이 스승에게 대접하는 책거리를 가리킨다.

하니, 죽성이 대답하였다.

“그저께 저녁에 임가의 집에서 목다가 밤중에 갑자기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들었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사람을 시켜 탐문해 보니, 본군(本郡)의 교졸(校卒)들이 나와서 남정(男丁)을 붙잡아 결박하고 구타하여 마치 난리를 만난 듯 현 상황이 재앙의 징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모정(茅亭)으로 잠시 몸을 피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사태가 조금 안정되자 내려와서 자세한 내막을 들으니, 인부들을 모집하는 일로 마을의 장정 몇 명을 그대로 잡아갔고, 다음 날에도 또 이렇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해 들건대 마을마다 모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기에, 각지에서 인사와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오래도록 머무르지 못하고 이쪽으로 길을 돌린 것이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술을 마시면서 격조했던 회포를 푼 뒤에 춘수루(春水樓)에서 유숙하게 하였다.

○ 부용산사(芙蓉山祠)와 이청(吏廳) 및 읍하(邑下) 마을의 신위(神位)에 축문을 올리는 곳을 오늘 한껏 새롭게 중수하라고 신칙하였다. 그리고는 상하(上下)의 당(堂)에 사용되는 석회(石灰) 값 15냥 5전, 위안제(慰安祭) 때에 사용되는 전문(錢文) 20냥, 목수의 품삷 40냥을 모두 체하(帖下)<sup>28)</sup>하였다.

○ 근래 농사 형편을 보면, 논에 약간 일찍 파종한 곡식은 이제 겨우 싹이 터서 자랐지만, 마른같이 한 뒤에 늦게 옮겨 심은 곡식은 비록 푸르스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절서(節序)가 이미 지난 터라 수확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데도 낱알을 먹을 가망이 없을 듯하다. 콩과 팥 또한 비가 온 뒤에야 비로소 파종하여 겨우 싹이 나긴 했지만, 잡초를 제거할 겨를이 없어 곧 대부분 황폐해졌으니 안타깝다.

○ 신시(申時) 이후에 동면장(東面長) 이경구(李經九)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28) 관에서 사용하는 문서 양식의 하나. 이두문자(吏讀文字)로서 하급 이례(下級吏隸)에게 전금(錢裁)을 지급할 때, 그 물품 지령서(物品指令書)에 체자(帖字)의 목인(木印)을 찍어 내려 보내면 이에 따라 현물(現物)을 지급하였다.

“인부를 모집하는 인원을 줄여달라는 일로 각 면에 통문을 보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였다. 유시(酉時)에 또 들으니 남면장(南面長)은 병으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명부에 기록하였고, 그 나머지 4개 면의 백성 약간이 와서 망한사(望漢寺)에 모여 상의하며 모두 말하였다.

“부(部)와 관찰부에서 신칙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곧장 달려가 호소하는 것은 사리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게다가 먼저 관가(官家)에서 또 백성들의 사정을 진술하여 이미 관찰부에 보고한 이상, 그저 회답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또 7개 도(道)의 여러 군에서 어떻게 거행하는지를 살펴볼 뿐이다. 이 문제는 오늘 호소할 일이 아니다.”

일제히 이경구를 향해 도리에 어긋나고 난폭하다고 꾸짖고는 밖에서 흩어져 갔다고 하니 놀랍다.

○ 관찰부(觀察府)의 공문에, ‘부하(府下)<sup>29)</sup>의 명화학교(明化學校) 및 한문 외어(漢文外語) 등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실로 오늘날의 급선무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모양을 갖추려고 하여 보조금(補助金) 14원을 보낼 것.’이라고 하였다. 근간에 두 차례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으므로, 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 인부를 모집하는 일로 인하여 이제 관찰부에 보고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먼저 각 면에 다음과 같이 알리게 하였다.

“인부를 모집하는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번거롭게 호소하기만 할 뿐 전혀 모집하기를 도모하지 않으니, 조정의 명령을 거행하는 데 있어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고용한 수가 얼마 되지 않아 영솔하여 넘겨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거론하여 오늘 아침 관찰부에 보고하려고 한다. 이는 실로 백성들을 위해 기한을 늦춰주는 계책이니, 어찌 감히 전체 인원을 도로 취소하는 은택을 바랄 수 있겠는가. 관찰부에 보고한 공문이 돌아오기까지 3일이 걸릴 듯하니, 배정한 수에 대해서는 잘 독

려하여 미리 준비해서 회답이 오거든 일제히 인솔하여 대기하라. 혹시라도 인원을 빼주는 은혜를 입는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마는 어찌 감히 바라겠는가.”

○ 대체로 이 고을이 좁고 작다는 것은 국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마을이 40호에 불과하여 800명도 되지 않는데 이번에 인부 50명을 배정하였으니 어찌 많지 않겠는가. 가령 면(面)마다 1명도 책임지고 차출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마을마다 2명을 모집하는 경우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 일로 먼저 경기 진위(振威)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해 곧바로 난리가 나서, 백성들이 동요하여 고을로 달려가서 난동을 일으키는 일이 있기까지 하였다. 이 때문에 민심이 더욱 소란하기 그지없었다. 모두 말하기를 ‘사지(死地)로 부역(賦役)을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비록 한 사람당 7, 8백 냥의 값을 주고 모집하려고 해도 애초에 한 명도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고 곧바로 뿔뿔이 흩어져서 달아나 숨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므로, 도리어 타이르고 위협을 하더라도 전혀 모집할 방법이 없다. 혼란스러운 정세가 걱정되고 안타깝기 그지없어서 사람을 시켜 직산(稷山)과 아산(牙山) 두 군(郡)의 형편을 탐문하게 하였더니, 그쪽도 이쪽과 마찬가지로 모두 관찰부와 부(部)에 보고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사실을 거론하여 이 일로 전적으로 보고하였다.

○ 관아 뜰의 동쪽과 서쪽 채마밭에는 채소를 심고 동쪽 뜰에는 동백을 심었더니, 봄부터 지금까지 꽃이 활짝 피고 아름다워서 사랑스러웠다.

○ 여산(礪山) 오미동(五美洞)의 김번조(金繡祚)가 상복을 입고 와서 문안하였는데, 그의 조모는 지난 5월 1일에 유행성 감기로 별세하였고 그의 아버지 김연배(金鍊培)는 6월 3일에 작고하였다고 하니, 듣고는 매우 경악하였다. 갑작스러운 참상(慘喪)이 어찌하여 이렇게 심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그가 맡고 있는 장토(庄土) 또한 모두 빼앗겨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하니 안타까웠다. 그래서 춘수루(春水樓)에 유숙하게 한 뒤, 다음 날 돌아갈 때에 돈 50냥을 부의(賻儀)로 주어 보냈다.

29) 관찰부 관하라는 뜻인데, 이 글에서는 공주관찰부 관하를 가리킨다.

○ 육영재(育英齋)의 학도(學徒) 정중근(鄭重根)과 윤교희(尹教熙)가 죽성(竹醒)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초청하기를 ‘가까운 군(郡)의 문학(文學)하는 선비들이 수일 전부터 많이 모여 들었으니, 속히 고을의 성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해주십시오.’ 하였는데, 나는 병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고 사양하였다. 오후가 되자 국수 상을 차려왔는데, 참으로 시골 마을의 성찬(盛饌)이었다.

○ 오늘 저녁 달빛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통인(通引)들이 내가 적적하게 지내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읍하(邑下) 다섯 마을의 장정들을 불러 모아 관아의 뜰에 씨름장을 설치하였다. 승리한 두 명에게는 참외 1매(枚)를 주고, 세 명에게는 양광(洋礦 성냥) 1용(甬 통)을 더 주었으며, 네 명에게는 백전(白錢) 1문(文)을 더 주고, 다섯 명에게는 백전(白錢) 2매(枚)를 더 주었다. 최종 우승을 한 객사리(客舍里)의 동몽(童蒙) 이창운(李昌雲)에게는 돈 1냥을 더 주는 것으로 시상(施賞)하였다. 변도의(卞道義)에게 돈 6냥으로 참외를 사서 별도로 두었다가 그들이 흩어져 돌아갈 때에 모두 섬돌 앞으로 불러 모아 각자 하나씩 나누어 주게 하니 모두 1첩(帖) 반이었다. 대개 남산동(南山洞)과 누촌(樓村)에서도 일제히 왔기 때문이다.

○ 유태경(柳泰卿)이 서울에서 내려왔기에, 격조하던 끝에 위로가 되었다. 절초(切草)<sup>30</sup> 1근을 가지고 왔다. 집안 편지를 보니 모두 한결같이 평안하였다. 찻잔과 약물 및 지도군(智島郡)<sup>31</sup> 조병호(趙炳鎬)의 편지도 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에 5월 그믐쯤에 올라왔다가 6월 20일 이후에 배편으로 곧 돌아간다고 하니 매우 서글펐다.

○ 일본 헌병 이마조 텐시치(今城傳七, いまじょう てんしち)와 통역관 최준상(崔峻相)이 관찰사 이항의(李恒儀)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보니, 대체로 인부의 모집은 반드시 실효가 있게 하라는 내용이였다. 내가 그동안 모집한 상황을 일본 사람에게

30) 칼로 썰어놓은 담배.

31)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에 설치되었던 군인데, 오황목이 63세 되던 1896년에 초대 군수로 부임하였다.

자세히 설명하니, 어떻게든 잘 모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강구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군의 민심으로 볼 때 비록 감당하기 어려우나 줄곧 억지로 물리칠 수 없기에, 다만 특별히 도모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어 차를 마시고 전송하였다.

## ◆ 8월

○ 1일. 망곡례(望哭禮)와 망궐례(望闕禮)<sup>32</sup>는 현기증으로 인하여 권정례(權停例)<sup>33</sup>로 하고, 석전제(釋奠祭)<sup>34</sup>의 번육(燔肉)<sup>35</sup>은 사당에 바쳤다.

백계복(白啓福)이 어제 자신의 수원(水原) 선산(先山)을 벌초하는 일로 인하여 내려와서 나를 찾아와 위로해주니, 춘수루(春水樓)에서 하룻밤 묵게 하였다. 들으니 서울 집은 평안하고, 아들 극선(克善)이 학교 하기사험(夏期試驗)에서 포상증(褒賞証)을 받은 데다 손자 이영(怡泳) 또한 우등(優等)에 들었다고 하니, 멀리 지방에서의 기쁨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었다. 정3품 윤용성(尹容成)이 근간에 내장원 문부이정위원(內藏院文簿釐整委員)에 임명되었다고 하였다. 근래 친구 중에 죽은 사람이 많아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이는 비록 고해(苦海)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된 근심이나, 이 일은 더욱 마음을 찢어지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 조적(朝籍)에 이름이 올랐으니, 어찌 ‘친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栢悅]’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축하 편지와 공후동(工后洞) 집에 답장을 쓰고, 손자 이영(怡泳)에게 줄 돈 40냥 및 조판서(趙判書) 본가에 전할 편지를 모두 부쳤다. 노자 명목으로 20냥을 특별히 제급(題給)<sup>36</sup>하여 보냈다.

32) 외직으로 근무하는 관찰사·목사·부사·군수·첨사·만호·우후·절도사·통제사 등이 왕이나 왕비의 탄신일을 비롯하여 정월 초하루·한식·단오·추석·동지 등 명절날에 왕과 왕비, 세자의 만수무강을 축복하면서 근무지에서 궁궐을 향해 절을 하는 예식이다.

33) 편의상 정식 절차를 다 밟지 않고 거행하는 의식을 말한다.

34) 산천 묘사에 올리던 제사나 학교에서 선생선사(先聖先師)를 추모하기 위하여 지내던 유교의례이다.

35) 제사에 쓴 고기.

36) 관에서 출금을 지시하는 문서를 써서 주는 것.

○ 방금 직산군수(稷山郡守) 유병응(劉秉應)이 금광(金礦)의 연군(沿軍)<sup>37</sup>에게 화를 입었다고 하였다. 이웃 고을 간이라 경악함을 금치 못하였다.

자세히 탐문해 보니, 이름은 모르는 권가(權哥)가 그의 처를 연군의 채원실(蔡元實)에게 빼앗겼는데 권가가 하소연하자 이달 2일에 채가를 잡아와서 태(笞) 15도(度)를 치고 풀어주었다. 그 후 3일 뒤에 채가가 장독(杖毒)으로 죽자, 채가의 아우가 채금군(採金軍) 수백 명을 이끌고 시신을 들쳐 메고 저마다 돌덩이를 가지고서 읍하(邑下)로 돌진하자 관속(官屬)과 거주민들이 모두 달아나 숨었다. 곧장 군아(郡衙)로 들어가 동헌(東軒)을 부수고 군수를 마구 때리다가 칼로 군수의 옆구리와 배 사이를 찢어 그날 술시(戌時)에 숨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 즉시 범인을 잡아 때려죽이고, 남은 무리 몇 놈과 금광의 덕대(德大)<sup>38</sup>와 세감(稅監) 등을 모두 잡아 가두고, 한편으로는 관찰부에 보고하였다고 하였다. 대체로 근래의 세상인심이 거리끼는 바가 없으니 참으로 탄식스럽다.

○ 철도 기관차가 내려오는 길에 직산(稷山)의 망건교(忘愆橋)에 이르렀는데 차축(車軸)이 기우는 바람에 앞 열차는 겨우 통과하였으나 뒷 열차는 엎어졌다고 한다. 탑승해 앉아 있던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세 명은 압사(壓死)하였고, 두 명은 다행히 굴러 떨어졌는데 한 사람은 팔이 다쳤고 한 사람은 경상을 입었다고 하였다.

○ 일전에 순교(巡校) 이석연(李錫淵)이 온양(溫陽)에 사는 이재희(李載喜)를 데리고 와서 대령하며 말하였다.

“이가(李哥)가 서근리(鋤斤里)의 박현서(朴玄西)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내막을 들어보니, 지난 5월 초에 박현서가 자기의 질부(姪婦)가 실행(失行)한 일로 박인수(朴仁洙)를 구타하여 죽게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에 고발해

조사하여 밝혀달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대령한 것입니다.”

이재희가 아뢰는 말을 들어보니,

“과연 서로 싸우다가 집을 훼손하자 내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해당 면장은 망녕되고 도리에 어긋난다고 꾸짖고서 저에게 ‘박현서와 다시 만나서 부순 집기를 모두 즉시 고쳐서 주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 지난달 보름쯤에 박인수가 이질(痲疾)을 앓다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박인수의 아들은 나이가 금년 30여 세이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근거할 만하거나 잡을 만한 단서가 있었다면, 어찌 고발하여 가려달라는 한 마디 말도 없었겠습니까.”

하였는데, 아마도 이가가 개인적으로 싫어하여 무함한 것인 듯하였다. 그러나 고발하여 가려달라는 상황에서 광패(狂悖)하다고 하여 그대로 둘 수 없었다. 그래서 해당 순교를 보내 해당 마을의 두민(頭民)과 박현서 및 동장들 4인을 한꺼번에 불러 대령시켜 그 상황을 물어보니, 전혀 이치에 가깝지도 않고 도무지 잡을 만한 단서도 없었으므로 모두 심문하는 곳에서 내보냈다. 두민 인구(仁圭) 및 박현서로 말하자면 훗날을 징계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국가의 큰 제사를 만난 때라 우선 단단히 가두게 하였다. 이제 마을의 보고 및 해당 백성의 호소로 인하여 특별히 참작해서 제급(題給)하였다.

○ 근효곡(勤孝谷)에 사는 주사(主事) 정태영(鄭泰瑛)의 집에 가서 조문하고 죽성(竹醒)과 대화를 나누었다. 포도 2송이를 가지고 가서 나누어 맛보았다.

점심밥을 먹은 뒤에 발길을 돌려 통복포(通伏浦)에 있는 회사로 가서 감독 이와시타 게이자부로(巖下敬三郎, いわた けいざぶろう)와 서기 사쿠라이 무라오(櫻井邑雄)를 만나 일본군이 요양(遼陽)을 점령한 일에 대해 축하하였다. 차를 마신 뒤에 맥주를 마시면서 일본과 러시아가 교전(交戰)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잠시 후에 두 사람의 처소를 두루 보고 이어 사쿠라이(櫻井)의 곁상에 앉았다. 주인이 자신의 사진 1장을 선물로 주면서 훗날까지 계속해서 잘 지내자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례하였다.

37) 연호군(煙戶軍)이라고도 한다. 국가의 요구에 따라 각기 부역을 부담하는 민가(民家)를 연호(煙戶)라고 하는데, 이 연호에서 출역한 역군이 연호군이다.

38) 광산 입자와 계약을 맺고 광산의 일부를 떼어 맡아 광부를 데리고 광물을 캐는 사람. 또는 광산에서 한 구덩이의 작업을 감독하는 책임자.

○ 또 사진 1장을 꺼냈는데, 바로 우리 대황제폐하(大皇帝陛下) 황태자전하(皇太子殿下) 복장의 탐영본(搨影本)이었으므로, 일어나 우리러보았다. 나는 본국인(本國人)인데 일본 사람의 책상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보았으니 마음이 아주 의아하였다.

○ 또 책 한 권을 꺼냈는데 보니, 메이지(明治) 황제폐하(皇帝陛下)의 탐영본인데 진상(真相)이 빼어나고 엄숙하였다. 그 아래 수십 장은 모두 지금 조정에서 정치로 뛰어난 인물들이었는데 차례로 열람하였다.

○ 또 탐영 화첩(搨影畫帖)을 꺼냈는데 바로 일본인의 복장이었다. 군인 한 명이 땅에 쓰러져 있는데 안장을 얹은 한 마리 말이 땅에 쓰러져 있는 사람의 복장을 입에 물고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중에, 다른 한쪽에서는 다수의 군인들이 건너 나 말을 타고서 추격하고 있었다. 내가 이상해서 물어보니, 사쿠라이(櫻井)가 대답하였다.

“땅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일본 군인이고, 추격하는 사람은 러시아 군인입니다. 지난달 초에 일본 기병 5인이 정탐하기 위해 요양(遼陽)의 러시아 진지 근처에 잠입하였다가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 군인이 이를 발각하고는 250명을 거느리고 추격하였으므로 형세 상 전에 왔던 길로 돌아와 바빠 달아났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 군인 한 명이 러시아 군인의 총에 맞아 말에서 떨어져 땅에 쓰러졌습니다. 같은 일본 군인들이 구하려고 하였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을 버리고 각자 달아나 흩어졌는데, 그 말은 그 군인의 옷을 끌고 숲속으로 피하였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일본 군인들이 다시 사람과 말을 뒤미쳐 찾아서 모두 온전히 보호해서 돌아왔습니다. 매우 신기한 일이라 신문에 게재되었고, 또 그 상황을 그려 내어 세상에 전해서 기이함을 기린 것입니다.”

내가 감탄하기를,

“기이하도다. 개전(開戰)한 이래로 싸우면 이기려고 하고 공격하면 탈취하려고만 하는데, 기르는 동물이 이와 같은 일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실로 옛날에 듣지 못했던 바이고 사책(史冊)에도 있지 않은 실제 행적이다.”

하고는, 사쿠라이에게 물었다.

“현재 듣기로 메이지(明治) 황상께서 개전한 이후로 먹을 때에는 손가락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잠잘 때에는 침상에서 편안하게 눕지 못해 교의(交椅)에 앉아 지금까지 지내면서 늘 말하기를 ‘불쌍하도다. 우리 40만 장졸(將卒)이여! 만 리의 적에게 달려가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면서 사망한 사람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오히려 이것을 괴롭게 여기지 않고 그저 보국(報國)할 마음으로 충성을 바치니 경탄(驚歎)을 금치 못하겠다. 내가 어찌 차마 잠시라도 편안히 쉴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합니까?”

사쿠라이가 대답하기를,

“과연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기에, 내가 말하였다.

“임금은 불쌍히 여기고 신하는 충성하며, 윗사람은 미덥고 아랫사람은 감격시키니, 비록 이런 미물이라도 어찌 감격하는 마음이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차를 마시고 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이어 작별하고 돌아와 유상철(劉尙喆)의 처소를 둘러본 뒤에 관아로 돌아오니, 시간이 벌써 술시(戌時) 정각이었다.

○ 전해 들으니, 이달(8월) 6일 신시(申時)에 시흥군(始興郡)에서 역부(役夫)를 모집하는 일로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켰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원통함을 호소하면서 저마다 돌덩이를 든 사람 수천 명이 관아로 들이닥쳐 군수 박우양(朴嶠陽)을 때려죽이고 또 그의 아들 및 일본 사람 2명을 죽였다고 하였다. 전에 없던 괴변(怪變)이라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저녁이 지난 뒤에 마침 신문을 보았는데 이 일이 게재되어 있었다.

○ 근일 동학 의병(東學義兵)에 대해, 관서(關西), 해서(海西), 관동(關東), 경기(京畿) 등의 각 군에서 보고한 것으로 인하여 신문에 게재된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인근의 안성(安城), 양지(陽智), 죽산(竹山) 등 군에서 모은 당(黨)이 2, 3천 명이라고 한 소문이 날마다 전해 들려온다. 소요와 유언비어가 갈수록 심해지니 이것이 걱정스럽다.

○ 평남 관찰사 이중하(李重夏)<sup>39)</sup>가 전보(電報)를 보내 아뢰었다.

“각지에 잠복하고 있는 동학당(東學黨)이 경중(京中)에서 통문(通文)을 돌리고 삼등군(三登郡)에 집결하여 국사(國事)라고 하면서 장차 서울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동학당이 고시문(告示文)을 시장에 게시해 붙이고 붉은 깃발을 세우고 ‘인(仁)자’와 ‘주(周)자’를 쓰고는, 경중의 대선생(大先生) 박남수(朴南壽)를 통해 통문을 돌려 거의(擧義)하여 상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령관이 3명을 붙잡아 평남부에 단단히 가두었습니다.”

○ 오늘 각 면리(面里)의 사리(事理)를 아는 사람 및 존위(尊位)의 동임(洞任)이 향약(鄉約)의 일로 서정자(西亭子)에서 일제히 모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전을 보내 탐문해 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일본 사람이 역부의 일로 각 군을 두루 다닌 탓에 소요가 다방면으로 일어나 앞으로의 폐단이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만 다시 오기를 기다려 모집하든 모집하지 않든 간에 충분히 의논하여 조처할 것, 그리고 관찰부의 훈령에 따라 도적을 막는 것으로 작통(作統)하고 조규(條規)를 시행할 것, 또 약장(約長)이 군수로 천망(薦望)되는 것’ 등이었다. 응교 홍사필(洪思弼)이 말하였다.

“금번 향약은 바로 인부 등의 일로 인한 것인데, 관장(官長)이 무릇 조정의 명령과 관찰부의 훈령을 조치하는 데 있어 절로 방해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헤아려 의논할 수 없다.”

백성들이 말하였다.

“이는 공론이니, 일을 만나게 되면 관에 고하여 조처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온당합니다.”

○ 수확하는 일을 살피기 위해 일전에 동면(東面)과 북면(北面) 두 면으로 나가서

39) 이중하(1846-1917)의 자는 후경(厚卿), 호는 규당(圭堂)·탄재(坦齋)인데, 1885년 공조참의·안변부사가 되었다가 토문감계사(土門勘界使)로서 청국측 대표 덕옥(德玉)·기원계(貫元桂)·진영(秦瑛) 등과 백두산에서 백두산정계비와 토문강지계(土門江地界)를 심사하였다. 평안남도관찰사·경상북도관찰사·공내부 특진관을 거쳐 장례원경(掌禮院卿)이 되었다. 1909년 일진회(一進會)가 대한제국과 일본의 합방론(合邦論)을 주장하자 민영소(閔泳韶)·김종한(金宗漢) 등과 국시유세단(國是遊說團)을 조직하여 그 해 12월 5일 원각사(圓覺社)에서 임시국민대연설회를 열고, 그 주장이 부당함을 공격하였다. 1910년 규장각 제학으로 한일합방에 극렬히 반대하였다.

농사 형편을 자세히 보았더니, 논밭이 모두 풍년이었다. 오늘 또 서면(西面)과 남면(南面) 두 면으로 갔다가 경정리(鯨井里) 흥 응교(洪應教)의 집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의 어린 아들 2명과 그의 당숙 승유씨(承裕氏)도 와서 보았다. 점심을 차려서 대접하였고 데리고 온 사람에게도 술을 주었다.

곧이어 일어나 발길을 돌려 노하리(老下里)로 가니, 앞길에 펼쳐진 들은 모두 비가 온 뒤라 늦모가 다 이삭이 패어 여물어 가고 있었다. 간간이 옮겨 심지 않은 곳도 있고, 더러 옮겨 심었으나 싹이 자라지 않거나 이삭이 패지 않은 곡식도 있었다. 하지만 만약 서리가 물러가는 상황이 오면 낱알을 먹는 데 염려가 없을 것이다. 금년의 기쁨과 비교해보면 과연 의외의 풍년이니, 백성과 사직(社稷)에 천만다행이다.

이어 해당 면장 이윤직(李允植)의 집에 들어가니 주인이 정성스레 대접해 주었고, 그의 아들 상규(尙珪) 또한 그 자리에 참석하여 보았다. 국수 상을 차려 오고, 하례(下隸)들에게는 새 쌀로 지은 밥과 탁주(濁酒)를 나누어 주었다.

○ 향약(鄉約)의 일에 대해 말이 나오자 주인이 향약의 절목을 내보였는데, 도약장(都約長)은 이윤직(李允植)이고 부약장(副約長)은 각 면의 면장이 겸임하며, 향약에 대한 논의 모두 11조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한 조목이 없었다. 내가 물었다.

“이는 대개 각 면의 면장들이 해야 할 일인데, 하필 향약이 사람들을 모두 번거롭게 한단 말인가.”

이윤직이 대답하였다.

“지금 이 향약은 이웃 고을의 불만에서 말미암은 것이라 형세 상 부득이하게 모이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작고 쇠잔한 군(郡)은 고을의 규례를 스스로 이행하고 힘쓸 뿐, 범사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말하자면 다른 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피되, 조용하게 조처해서 반드시 일에 임하여 그르치거나 잘못이 없게 해야 한다. 또 그중에 도적을 막는 한 가지 일은 관찰부의 훈령이 정중할 뿐만 아니라 바로 백성을 보호하는 방침이니, 이 한 조목은 충분히 상의해서 향약에 보태어 넣어 기어코 실효가 있게 해야

한다.”

이윤직이 대답하였다.

“이미 가르침을 받았으니 삼가 마땅히 의논하여서 부지런히 행하도록 힘쓰겠습니다.”

○ 이어 발길을 돌려 송하리(松下里) 참봉 홍종은(洪鍾穩)의 집에 가서 회포를 풀었는데, 열여섯 먹은 그의 아들 학(鶴)이 나와 절하고 이웃에 사는 감찰 이한영(李漢英)이 와서 보았다. 잠시 후에 국수 상을 차려 올리기에, 내가 물었다.

“이것을 어떻게 갑자기 준비하였는가?”

주인이 대답하였다.

“명절이 모레라 시장에서 사다가 준비해 두었고, 일전에 또 들판을 살피러 오신다고 전해 들었는데 지나는 길에 반드시 찾아오시겠기에 미리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오늘 행차에 찾아오리라 예상하였으니, 예리한 통찰력이 있다고 할 만하다.”

이어 함께 이 감찰의 집에 가니 외사(外舍)에 서재(書齋)를 마련하였는데, 학동(學童) 네 명이 차례대로 와서 절하였다. 그중 학동 두 명은 바로 주인의 손자였다. 나 이를 묻고, “많이 읽고 많이 쓰라”고 일러주었다. 이어 훈장과 정답게 이야기할 때에 날이 이미 저물었다. 하리(下吏) 변도의(卞道義)가 등롱(燈籠)을 가지고 와서 기다렸다.

○ 송죽리(松竹里) 이현우(李顯宇)를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하였다. 도훈장(都訓長) 이종돈(李鍾敦)의 집에 이르자 주인옹이 계단에서 내려와 환영하고 맞이하였다. 청사(廳舍)로 올라가 술상을 마련하여 술을 권하였고, 계속해서 국수 상을 차려 왔다. 내가 물었다.

“이것을 어떻게 불시에 준비하였는가?”

주인이 대답하였다.

“이번에 홍사필의 전장(田莊)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돌아가시는 길이 반드시 이 마을을 거치게 되니 이곳에 들러 저희 집에 찾아오시리라 생각하였습니다. 마침 명절에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찬은 비록 변변치 못하지만 감히 작은 정성을

바치니 조금도 껄념치 마십시오.”

서로 껄껄 웃었다. 주인옹의 아들은 목구멍에 종기가 돌아 병석에 누워 있었으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였다.

이어 길에 올라 또 안현리(鞍峴里)를 지나가는데 이태관(李泰寬)이 길에 나와 기다리고 있어서 그의 집에 들어갔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태관 또한 술상을 차려 대접하려고 하기에 극구 사양하였고, 하례(下隸)들도 주량이 약해 더는 마시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작별하고 문을 나서니 이 때에 달이 이미 중천에 떠서 달빛이 환하게 비추었다.

마현읍(馬峴邑) 서대정리(西大井里)에 이르니 거군(炬軍)<sup>40</sup> 8명이 와서 기다렸다가 앞에서 인도하였다. 향교 앞길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가 다시 길을 가서 관아로 돌아오니, 시간이 해시(亥時) 초각(初刻)이었다.

○ 어제 들판을 살필 때에 홍 응교(洪應教)의 전장(田莊)을 찾아갔다가, 순교(巡校) 김창식(金昌植)과 이석연(李錫淵)이 월정리(月井里) 양규환(梁奎煥)의 종형제(從兄弟) 간에 불목(不睦)한 일로 트집 잡아 읍하(邑下)로 잡아들여 엄중하게 징계하기까지 하였다고 하였다. 갖가지 방법으로 위협하였으므로 그 당시 홍 응교와 이 면장이 잘 신칙해서 풀어 보냈다고 했으나, 너무도 해괴한 일이어서 순교 이석연과 김창식을 잡아들여 각각 태(笞) 20도를 치고 말하였다.

“너희들은 관의 명령도 없이 멋대로 행패를 부렸으니 놀랍기 그지없다. 목에 칼을 씌우고 가두어 나쁜 버릇을 징치(懲治)해야 마땅하나, 지금은 명절이라 우선 보석(保釋)<sup>41</sup>하게 하니, 다시 이 일에 대해 처리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 전날 제태(除汰)한 수교(首校) 박경래(朴慶來)와 서기 김영제(金榮濟)를 잡아들여 각각 태(笞) 20도를 친 뒤에 신칙하였다.

40) 행차의 앞뒤에서 횃불을 밝혀 들고 가는 인부.

41) 죄수(罪囚)를 석방할 때 연구자의 보증(保證)을 받고 풀어 주던 제도인데, 보방(保放)이라고도 하였다.

“너희들이 저지른 나쁜 버릇은 참으로 알밋기 그지없다. 관안(官案)<sup>42)</sup>에서 삭제하고서 한 달이 넘으면 아마도 잘못을 알아 고칠 수 있을 것이니, 특별히 인정을 생각해서 용서하여 관안에 회복하겠다. 반드시 십분 유념하여 다시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 전 수교(首校) 장덕환(張德煥)이 비록 죄를 지어 태거(汰去)<sup>43)</sup>되었으나 근래 그의 정세(情勢)를 들어보니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참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 특별히 좌병교(左兵校)로 차출하고, 순교 2명은 자리가 빈 지 오래이니 특별히 감당할 만한 사람을 택하여 거행하게 하도록 수교 및 공형(公兇)에게 분부하였다.

○ 관아 서쪽 뜰에 심은 담배를 근간에 따다가 100묶음을 엮은 뒤에 말려서 들이마시니 맛이 매우 향긋했다. 그래서 향장(鄉長) 및 여러 관속(官屬)에게 나누어 주고 나니, 남은 것이 20여 묶음뿐이었다.

○ 내가 군수가 된 뒤로 늘 명절을 만나면 여관에서 외로이 지냈다. 비록 단란하게 노는 즐거움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기뻐 즐기는 것을 보면 스스로 애써 일어나 남과 함께 어울렸다. 하지만 근래 신병(身病)이 내 몸에 침투하여 기력이 쇠해졌다. 이후로 몸이 약해져 어떤 일을 만나면 감정이 많아져서 도리어 평상시 심상하게 보내는 것만도 못하였다.

○ 전의(全義) 북면(北面) 상노곡(上老谷) 윤상설(尹相說)이 이곳에 왔다. 밖에서 전해오는 말을 들으니, 그의 친족 윤창진(尹昌鎭)이 김상열(金相烈)의 옥사에서 간

범(干犯)하였는데, 내가 삼검관(三檢官)<sup>44)</sup>으로 차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전적으로 이 일로 온 모양새라고 하였다. 그래서 신병으로 만나보지 못하고 밖에서 전송하였다.

○ 전의군(全義郡) 옥사에 대한 삼검관(三檢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회답 서신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오후에 문서가 도착해서 보니 ‘검관(檢官)은 아주 신중히 처신해야 하는 직임인데 작은 병을 가지고 어찌 탈이 있다고 보고한단 말인가? 하루 속히 간술하게 행장을 꾸려 달려갈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그간에 이미 여러 날이 지나 형세 상 다시 탈이 있다고 할 수 없기에, 출발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널리 가마꾼을 구하였으나 헛되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김창식(金昌植)에게 정거장 회사 감독인 이와시타 게이자브로(巖下敬三郎)에게 가서 의논하게 하였더니 회답하였다.

“현재 객차(客車)는 없고 목판차(木板車)만 있습니다. 노인이 오르고 내리는 데 아주 불편하니 모쪼록 헤아려서 하십시오.”

다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모르는 건 아니나 대체로 왕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필시 400여 냥에 이를 것인데, 이러한 때에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고 이것을 타지 않으면 실로 빠른 시일 내에 길에 오를 가망이 없어서 열차를 타고 가기로 결정하였다.

○ 본군(本郡)의 갑진년(1904) 뭇의 대개장(大概狀)<sup>45)</sup>을 이달 29일에 내로 처리하라고 훈령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모내기 비가 조금 늦게 온 탓에 농사가 때를 놓쳐 이앙하지 못한 곡식과 만생종(晩生種)<sup>46)</sup>이 태반이 뒤섞였다. 그래서 부득불 직접 가

44)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자세한 부검을 위해 초검관(初檢官)부터 삼검관(三檢官)까지 거치는데, 삼검관은 이웃 고을의 수령이 담당하였다.

45) 개략적인 중요 내용을 적은 문서인데, 주로 군현에서 매년 토지의 연분(年分) 등급을 기록하여 보고하는 문서를 말한다. 각 지방 수령은 매년 추수 뒤 관할 지역의 재해 총액과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실제 결수(結數)를 조사하여 감영에 보고하였는데, 이 대개장이 국가에서 각 도의 면세율을 책정하는 기본 자료가 되었다.

46) 법씨의 성격에 따라 일찍 수확하거나 늦게 수확하는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동(種)은 조생종(早生種) 벼의 이름이고, 육(稔)은 만생종(晩生種) 벼의 이름이다.

42) 각 관청의 소관 사무 및 소속 관원의 품계와 정원 등을 기록한 일종의 관직표이다. 관안의 내용은 이를 배대로 하여 임명 형식과 관원의 성명을 기록하기도 한다.

43) 죄과가 있거나 필요하지 않은 관원, 또는 구실아치 등을 가려내어 쫓아 내는 일.

서 더위에 탄 곡식을 가려 뽑은 뒤에야 품질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인데, 현재 전의(全義) 삼검관(三檢官)으로 달려가고 있어서 검험하기를 기다린 뒤에 마무리를 하고 관아에 돌아와 직접 살펴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우선 감히 정확하게 기한을 보고 할 수 없어서 대개장을 처리할 일자를 보름까지 물려 정하겠다고 관찰부에 보고하였다.

○ 묘시(卯時)<sup>47)</sup>에 향장(鄕長) 박준화(朴準華), 통인(通引) 박희룡(朴喜龍), 수형리(首刑吏) 박계순(朴啓淳), 형리(刑吏) 김영제(金榮濟)·박화옥(朴樺昱), 관노 만석(萬石), 사령 이기석(李己石)·유흥운(劉興運)을 데리고 길에 올라 나루를 건너 회사에 도착해서 이와시타 게이자브로(巖下敬三郎), 서기 사쿠라이 무라오(櫻井邑雄), 순검 이상철(劉尙喆)을 만나 상의하여 열차로 갈 것을 정하고 표를 얻었다. 이어 세 사람과 동행하여 정거장으로 나섰다. 사시(巳時) 2각(刻)에 열차가 내려왔는데 다행히 객차 한 자리가 있어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열차에 앉았다. 데리고 온 9인도 모두 승차하여 앉았다. 감독, 서기, 순검을 향해 사례하였다.

○ 또 20분이 되자 출발하여 간포교(間浦橋), 망건교(忘愆橋), 가동교(可同橋), 농촌(農村) 삼리교(三里橋), 우와리교(牛臥里橋), 대정리촌(大井里村), 성환(成歡) 정거장, 매곡(梅谷) 정거장, 수힐리촌(愁歎里村) 직산(稷山) 삼거리(三街里) 정거장, 업성리교(業成里橋), 연봉정촌(延奉亭村), 부토리촌(富士里村), 신주점(新酒店), 울포교(栗浦橋), 천안 읍하(天安邑下) 육벌(陸泐) 정거장, 원거리촌(院巨里村), 와야촌(臥野村), 웅리촌(熊里村), 금제역촌(金蹄驛村), 온양가촌(溫陽街村), 쇠정리(釧丁里) 정거장, 소정교(小釘橋), 두지곡(斗之谷) 정거장, 도평촌(桃坪村), 전의읍(全義邑) 정거장을 거쳐 오시(午時) 15분에 도착하였다. 군에서 여기까지는 90리이고, 승차한 뒤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25분이었다.

47) 오전 5시부터 7시 사이.

○ 연로(沿路)에 설치된 다리는 8개이고, 정거장은 6개였다. 그중에 소소한 교량은 몇 십 곳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또 벼랑을 깎고 돌 고개를 뚫은 곳은 9곳이었는데, 예를 들면 가동리(可同里), 매곡(梅谷), 신주점(新酒店), 울포(栗浦), 와야(臥野), 온양가(溫陽街) 두 곳, 쇠정리(釧丁里) 등이었다. 그밖에는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다. 나열된 봉우리들이 번개처럼 눈을 스쳐가고, 원근의 벼들은 구름을 펼친 듯 들에 가득하였다. 이날 하늘은 높고 기운은 맑으며 구름은 옅고 노을은 타올랐다. 바로 '세월은 수레바퀴 돌 듯 바쁘게 흘러가고, 고금은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아득하구나.[日月忽忽雙轉轂, 古今杳杳一飛鴻.]'라는 모습이였다. 이어 열차에서 내렸다.

○ 마침 전의 군수(全義郡守) 권택수(權宅洙)가 나와 길가의 서로 바라보이는 곳에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였다. 데리고 온 사람들은 전의 군수가 일전에 평택(平澤)에 들렀기 때문에 모두 가서 알현하였다. 이에 걸어가서 관문(官門) 앞길에 이르니, 이른바 연봉(延奉)이 앞에서 인도하여 이청(吏廳)으로 들어가 이청의 북쪽 방에 거처하게 하였고, 데리고 온 관속(官屬)을 머물게 하여 대접하였다. 조금 있다가 본 고을의 공형(公兄)이 와서 알현하였다.

○ 고을의 형편을 두루 살펴보니, 주산(主山)의 이름은 모봉(帽峯)이고, 증산(甌山)부터 남쪽으로 5리에는 작성산(鵲城山)이 군수의 집무실과 마주하고 있으며, 산들이 빙 둘러 있었다. 두 물줄기는 서쪽과 북쪽에서 흘러나와 모두 동남쪽에 이르러 합류하는데 중간에 평야가 펼쳐져 있었다. 아사(衙舍)는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제금당(製錦堂)이라 편액하였고, 작은 못이 있고 그 앞에 내삼문(內三門)이 있는데 금지(金池)라 편액하였다. 내문(內門)의 동쪽 사령청(使令廳) 및 장청(將廳)은 무학당(武學堂)이라 편액하였고, 또 그 밖으로 달힌 문루(門樓)는 좌소루(坐嘯樓)라 편액하였다. 아사의 남쪽에는 이청이 있는데 금지연방(金池椽房)이라 편액하였고, 서쪽에는 추청(秋廳)과 아연청(亞掾廳)이 있으며, 북쪽에는 관노청(官奴廳)이 있었다. 객사(客舍) 동쪽에는 향교가 있고, 서쪽에는 읍내의 마을이 있는데 모두 10호이고 200명이다. 시장은 동쪽에 있는데 장은 2일과 7일에 열린다. 전의군은 6개 면에 호수(戶數)

가 1,382호이고, 결총(結摠)은 854결(結) 23부(負) 1속(束)이다. 대개 산이 많고 들이 적은 고을이다.

○ 철로가 관문(官門) 앞길을 횡단하고 있었다. 열차가 지금 회덕(懷德)에 도착했는데 그 거리가 120리이다. 영등포(永登浦)에서 곧장 회덕까지 통과하는데 매일 두 차례 목재와 철궤(鐵軌)를 교환하고, 또 이곳에 전차 2좌(座)가 있어 전날 수송해 와서 쌓아둔 목재와 철궤를 수시로 수송해 간다.

이 아래로 선로(線路)의 형편을 자세히 들어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남쪽으로 30리쯤 가면 의현(蟻峴)인데 산을 뚫어 길을 만들었다. 연기(燕岐), 청주(淸州), 조치원(鳥致院)을 거쳐 공주(公州)의 부강(扶江)에 교량을 설치하였고, 회덕 등지에는 이미 완공하여 기차가 통과한다. 그 아래 옥천(沃川), 영동(永同), 황간(黃澗) 등 통하지 못한 곳이 70리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항(釜山港)에서 금산(金山)까지는 완공했으나 아직 황간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 일본 사람 오오카 도쿠조(大岡徳三, おおおか とくぞう)가 아직도 군청에 머무르고 있어서 박희룡(朴喜龍)에게 명첩(名帖)을 보내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자 오오카(大岡)가 곧바로 들어와 격조했던 회포를 풀고 해당 장소에 함께 가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옥사(獄事)는 형세 상 한가하게 출입할 수 없다.”고 대답하고 사양하였다.

○ 본군의 아전들이 옥사(獄事)가 생소하기 때문에, 내려올 때 향장(鄕長)과 박계순(朴啓淳)이 오위장(五衛將) 전후식(田后植)을 오도록 초청하는 일로 천안군 정거장에 도착하여 편지를 발송하였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애타게 기다렸다.

○ 해시(亥時) 정각에 열차가 부르짖는 듯한 소리를 듣고 사람을 시켜 탐문하게 하니, 술시(戌時) 초각(初刻)에 열차가 이곳 부강(扶江)에 이르렀는데 화용(火甬) 화통, 굴뚝이 고장 나서 전화로 영등포에 기별을 보내니, 해당 사무소에서 기차를 수리하기 위해 끌고 가려고 내려 보냈다고 하였다.

○ 일본 체신 대신(遞信大臣) 오우라씨(大浦氏, おおうら)가 철도 우편 사무를 시찰하는 일로 부산항(釜山港)에서 올라와 지금 군청 사무소에 있으므로 본군의 군수가 나가서 영접하였다. 공주의 우체 사장(郵遞司長)이 부강(扶江)48에서 함께 왔다가 여기에서 돌아갔다. 미시(未時)에 체신 대신이 발길을 돌려 앞참 정거장으로 갔다고 하였다.

○ 미시(未時) 초각에 향장(鄕長)과 박계순(朴啓淳)이 초청한 전령(田令, 전후식(田后植))이 오자 격조했던 회포를 풀고 사례를 하였다. 미시 정각에 시신을 검안(檢案)하기 위해 나갔다. 출발할 때에, 데리고 온 사람 및 본군의 공형(公兄) 등을 불러 모아 한 치의 실수도 없이 거행하도록 특별히 신칙하고, 4인이 드는 가마를 타고 길에 올랐다가 1리를 지나 전별하여 보냈다.

바윗길 옆에는 넓고 편편한 바위 대여섯 덩이가 있고 암석에는 느티나무 그늘이 져 있었으므로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었다. 이어 마두산평(馬頭山坪)을 지나 5리를 가니 하대부리(下大夫里)가 있었는데, 길가에는 사관정(四觀亭)이 우뚝하게 홀로 서 있었다. 마을은 수십 호이고 정자 가에 작은 못이 있었는데 이타우(李打愚, 이상(李翔))가 축조하였다. 그 윗마을은 바로 상대부리(上大夫里)인데 뇌암(雷巖)이 있고, 또 4리를 가니 중대부리(中大夫里)가 있었다.

이어 옷을 바꿔 입고 검시소(檢尸所)에 가서 김상렬(金相烈)의 시체를 검험(檢驗)하였다. 마치고 방으로 도로 들어가 회봉(灰封)하고 해당 동임(洞任)의 수령 증서를 받으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대개 이 마을은 바위에 기대 지은 집이 10여 호였다. 이전에 조신(朝臣)이 많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전해져서 ‘대부’라는 마을 이름으로 불린 것이다. 지나는 연로(沿路)에는 산들이 겹쳐있고, 중간에 전답이 펼쳐져 있었는데 곡식이 잘 여물고 있었다. 이어 햇불을 밝히고 군으로 돌아왔다.

48)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강 상류지역에 있었던 금강 수운의 기항 종점 부강(美江)을 표기한 듯하다. 황해에서 생산되는 어염(魚鹽)과 일용잡화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주변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집산되었던 경제의 중심지였는데,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고 충북선이 조치원에서부터 설치되면서 중심지적 기능이 조치원으로 옮겨가자 이 무렵부터 부강의 발전이 침체되었다.

○ 관보(官報)를 보니, 지난 11일에 손자 진영(璉泳)을 육군 보병 정위(陸軍步兵正尉)에 임용하고 육군 무관학교 교관(陸軍武官學校教官) 겸 연성학교 교관(研成學校教官)에 보(補)하고 교성대 중대장(敎成隊中隊長)에 겸보(兼補)하였다.

○ 오시(午時)에 문안사(問安使) 전영철(全永哲)이 공형(公兄)이 올린 고목(告目) 및 수서기(首書記)가 드린 소주 1병과 별찬(別饌) 한 단지를 가지고서 열차를 타고 내려 왔다. 이어 조금 맛보고 전령(田令) 등에게 나누어 맛보게 하였다. 이기석(李己石)은 아이의 병 때문에 교체되어 돌아갔다. 사모(紗帽)와 목화(木靴) 등을 부쳐 열차편으로 올려 보내려고 하였는데, 하필이면 열차가 운행을 꺼리는 날이어서 중지하였다.

○ 왜의 사당(肆黨)<sup>49)</sup>이 유읍점(遊邑店)을 열어서 징과 북을 치자, 근청 근처의 노소(老小)들이 너도나도 달려가 구경하였는데, 백전(白錢) 1푼을 지급한 뒤에 문에 들어가도록 허여하였다. 그 유희(遊戱)하는 모습을 보면, 모두 환술(幻術)이어서 사람의 눈을 미혹시키는데도 모두들 신기하다고 하니, 어리석다.

○ 관보에, 이달 14일에 손자 유영(惟泳)을 육군일등군사(陸軍一等軍司)에 임용하고 시위 1연대 포병 제1화대 향관(侍衛一聯隊砲兵第一火隊餉官)에 보(補)하였다. 다만 생각건대, 진영과 유영 두 손자 중에 한 사람은 정위에 임용하고 한 사람은 일등군사에 임용한 것은, 다만 함부로 직임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처지에서 그저 조심하기를 간절히 바란 것일 뿐이다.

○ 지금 잠시 휴가 중에 의현(蟻峴)을 구경하기 위해 남여(藍輿)를 타고 나가니 향장(鄉長)이 따라왔다. 시장을 지나는데 고목(古木)이 횡으로 우거졌고 물을 따라 내려가니 도착한 곳에는 산수(山水)가 밝고 아름다웠으며 곡물이 풍성하였다. 3리쯤

가서 의현에 도착한 뒤에 남여에서 내려 형세를 두루 보니 다음과 같았다.

수백 길 되는 하나의 작은 산이 횡으로 뻗어 도로를 끊고, 산의 서쪽에는 큰 내가 곁에서 흐르는데다, 또 좌우의 산이 바짝 붙어 있어 달리 변통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1리쯤 산을 뚫었는데 그 높이는 다섯 길이고 넓이는 일곱 아름 정도 되었다. 서쪽과 동쪽 양 끝에 돌을 쌓아 무지개 모양으로 문을 만들고, 문 안의 좌우 문설주는 돌덩이로 맞물려 쌓았다. 아래에서 중간 정도에는 벽면 몇 곳에 또 둥근 구멍을 만들어 혹시라도 행인들이 피하기 어려울 경우 상황에 따라 피신하게 하였으니 미리 헤아린 것이다. 또 그 위에서 중간 정도에는 벽단(碧團)의 돌을 사용해 둥글게 축조하였고 그 아래에 철도를 만들어 통행하게 하였다. 문밖 서쪽은 높이 수십 길의 벼랑이 산을 끊어 벽면을 노출한 곳에 돌덩이를 사방으로 펼쳐서 축조하였고, 문의 동쪽은 벼랑이 조금 낮아 축조하지 않았다. 한 번 지나가면 산을 뚫은 것이 마치 활 모양과 같아 굴을 형성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르면 백주대낮에도 어두웠다. 벽면에는 샘물이 흘러 내려오니 형세로 볼 때 당연한 이치이다.

옛날에 의현이라고 명명한 것은 오늘날 굴을 뚫어 구멍을 만들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대개 철로를 놓는 비용이 몇 천 만원이 드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들로 말하자면 비용을 어찌 몇 만 원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겠는가. 지모(智謀)가 아주 밝은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착수하겠는가. 쉽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 오시(午時) 초각(初刻)에 본군의 군수가 나와 함께 회사에 가서 감독 다카기(高木, たかぎ)와 통역관 히비(日比, ひび)를 만나 인사를 하였다. 열차를 오늘 오후 2시에 교환한다고 하였다. 형세 상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었는데 마침 읍하(邑下)에 사는 의관(議官) 황두연(黃斗淵)이 자리에 있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여수(麗水)에서 재직 시에 이미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잠시 자기 집으로 가자고 굳게 청하였다. 그래서 발길을 돌려 황두연의 전장(田莊)으로 가니, 그의 아들 주사(主事) 지수(芝秀)와 그의 손자 의환(義煥), 예환(禮煥), 지환(智煥)이 와서 절하였다. 잠시 후에 술을 올리고 울무죽을 소반에 차려 왔다. 향장(鄉長) 및 전령(田

49) 왜의 사당(肆黨): 일본 사당패 인듯하다.

승)<sup>50</sup>에게도 술을 대접하였다.

○ 오후 2시에 주인과 회사로 걸어 나가 다카기(高木)를 만나서 차표를 얻었다. 작별하고 정거장으로 나가 함께 열차를 타려 할 적에, 데리고 온 사람과 본군의 공형(公兄) 이하가 모두 이미 열차가 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데리고 온 사람들과 모두 열차에 타려고 하였다. 얼마 후에 각 열차에 타려는 일본 사람들이 각기 짐 꾸러미를 들고 모두 급히 움직이자 박희룡(朴喜龍)에게 탐지하게 하였더니, 곧바로 돌아와서는 ‘기수(旗手) 마쓰노(松野, まつの)가 내게 맨 앞 차로 자리를 옮길 것을 청하였다’고 하였다. 즉시 일어나서 가는데 무려 수백 명이 각각 짐 꾸러미 등을 가지고 이미 먼저 타 있었다.

일본 사람 히비(日比)와 마쓰노(松野)가 앞에서 인도하여 간신히 옮겨 들어갔으나, 열차 위에는 전혀 서 있을 만한 곳이 없었다. 일본 사람이 공갈을 놓고 도로 나오자, 히비와 마쓰노가 평택 군수(平澤郡守)라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다. 그제야 인과가 갈라졌고 박희룡과 만석도 탈 수 있었다. 마쓰노는 전차(電車)로 들어가고 히비는 작별하고 열차에서 내렸다. 그때 열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타려고 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타려다가 쫓겨났다. 한바탕 큰 소란을 겪어서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과 짐 꾸러미 또한 실을 수 없었다.

신초(申初) 2각(刻)에 기차가 출발하였는데, 하필이면 서리가 내린 뒤에 서북풍이 불어 또한 견디기 어려웠다. 통복포(通伏浦)에 이르니 시간은 바로 유시(酉時) 초각이었다. 본군의 교리 이하 수십 명이 남여(藍輿)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열차가 바로 출발하였다. 그때 길 동쪽에 향장이 의룡(衣籠)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아까 전령(田令)과 동쪽 한 모퉁이에 댔는데, 평택 관아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여 내쫓김을 면하였습니다. 전령은 천안 읍하에 이르러 내려보냈습니다.”

하였다. 가다가 군물포(軍物浦)에 도착하니 수서기(首書記)가 술과 과일을 올렸다.

잠시 쉬다가 관아로 돌아오니 동산의 국화가 막 피어 있었고, 뜰의 꽃도 예전 같았다. 벌써 날이 저물었다.

## ◆ 9월

○ 1일. 한로(寒露). 망곡례(望哭禮)는 현기증으로 인하여 권정례(權停例)로 행하였다. 소나무로 판자를 만들 때에 머리 관절을 써서 나무 의자를 만드니 마치 호로(胡蘆) 모양과 같았다. 칠을 할 때에 두 번 감나무 즙을 칠하니 흡사 실제로 옷칠을 한 것처럼 광택이 났다. 침실에 두고 늘 기대앉았었는데, 수서기(首書記)가 내가 전의(全義)에 간 사이에 초록색과 아청색(鵝青色) 양모(羊毛) 본단(本緞)을 사용하여 안감과 겹감을 만들고, 또 탄면(彈綿)으로 안을 깎고 밖을 썼다. 또 색실로 꽃과 새를 삼면에 수놓아 온후(穩厚)하고 온윤(溫潤)하여 곧 아주 좋은 물건이 되었다.

무릇 물건이 완성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솜씨를 발휘하느냐에 따른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흰 바탕에 무늬가 없이 노쇠한 근력을 지탱하는 데 쓰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데다 특별히 높고 쉬는 데 편하고 좋은 점이 많으니,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 본군(本郡)에서 도로를 정비하라고 신칙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순교(巡校)가 감독하기를 흐지부지하여 기강과 규율이 없었다. 관문(官門) 앞길도 지금까지 정비하지 않고 있으니, 하물며 각 면에 있어서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일전에 길을 왕래하면서 또한 엄하게 신칙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순교 2명 및 논머리를 만든 자 4명, 그리고 제대로 조치하고 신칙하지 못한 수순교(首巡校)를 잡아들여 각각 태(笞) 20도를 친 뒤에 엄하게 신칙하고 풀어주었다.

50) 농지를 관장하여 경작과 수확을 담당하는 임시 관직이다.

○ 김덕기(金德基)가 주사(主事) 현봉주(玄鳳柱)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대개 작년 겨울에 시장(柴場)<sup>51)</sup>과 산판(山坂)<sup>52)</sup>을 수매(收買)하고 미진한 곳에 대해서는 값을 건네준 뒤에 표(標)를 받겠다고 고시(告示)해 주기를 부탁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순교 김창식(金昌植)을 대동하여 내보냈다.

○ 오늘부터 부강(扶江)에서 평택 정거장까지 가는 표를 팔았는데, 열차는 오전 8시 50분과 오후 3시 12분에 출발한다.

○ 아전들에게 들으니, 지난 그믐쯤에 무뢰배(無賴輩) 6, 7백 명이 온양(溫陽) 지역에 모여들어 일진회(一進會)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흩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 전의군(全義郡) 김상렬(金相烈)의 삼검(三檢) 옥안(獄案)에 대해 공주부(公州府) 재판소에서 지령이 도착했다. 초검관(初檢官) 전의 군수 권택수(權宅洙), 복검관(覆檢官) 회덕 군수(懷德郡守) 조동준(趙東濬) 앞으로 온 재판소 지령까지 모두 공문으로 받아 조회(照會)<sup>53)</sup>하였다.

천안(天安) 엄리(嚴里)의 오위장(五衛將) 전후식(田后植) 앞으로 편지 한 통을 쓰고 돈 50냥을 보내주었다. 일본 사람 이와시타(巖下), 사쿠라이(櫻井)에게는 닭 두 마리씩, 유상철(柳尙喆)에게는 염통(廉通) 1개를 보내 주어 시혜(施惠)하였다.

○ 공주의 연명(延命)에 가는 행차는 근간에 전의군(全義郡)의 옥사로 지금까지 조금 늦어졌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한번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열차가 출발하므로 사령 이기석(李己石)과 관노 만석(萬石)이 배종(陪從)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사시(巳時)에 관찰부의 비밀 훈령이 도착해서 보니, 직산군(稷山郡)에 안핵사

(按覈使)<sup>54)</sup> 안중진(安鍾眞)이 이달 13일에 도착하였으므로 군수를 참핵관(參覈官)으로 특별히 차정하여 급히 가서 참핵하라는 일이었다.

아침에 도리(都吏)<sup>55)</sup> 박화옥(朴樺昱)이 올해 대개장(大概狀)<sup>56)</sup>을 마감하기 위해 공주부(公州府)에 달려갔으므로 그 편에 먼저 관대(冠帶)를 담은 상자를 부쳐 보냈었다. 현재 상황이 이러하니 관대 상자가 돌아온 뒤에야 직산으로 달려갈 수 있는 형편이다. 전영철(全永哲)을 이 일로 전적으로 보내 찾아오도록 분부하였다.

○ 형리 박계순(朴啓淳)·김영제(金榮濟), 통인 박희룡(朴喜龍), 사령 유흥운(柳興雲), 관노 만석(萬石)의 배종(陪從)을 받아 진시(辰時) 초각에 출발하여 20리 밖 성환(成歡)에 도착하니, 이기석(李己石)과 전영철(全永哲)이 전의(全義)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어 남쪽 대로(大路)를 놔두고 동쪽 길을 취하여 가다가 8리에 이르러 성황현(城隍峴)을 넘었는데 고개가 매우 높았다. 또 2리를 가서 직산 군치(郡治)에 도착해서 군사(郡司)에 들어가 묵었다.

○ 직산 군수(稷山郡守) 곽찬(郭燦)이 수서기(首書記)를 보내 전달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으로 본군의 호장(戶長) 한규동(韓奎東)을 보냈더니 수서기 윤계진(尹啓鎭)이 와서 알현하였다. 잠시 후에 직산 군수가 밖으로 나와서 제반 사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직산 군수의 집은 수원(水原) 안중리(安中里)에 있다고 한다. 천안 군수 김용래(金用來)도 또한 참핵관(參覈官)으로 차정되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54) 조선 후기 지방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 파견한 임시 관직이다. 주로 민란이 발생하였을 때에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파견되었는데, 목사·군수 등 인접 지역의 수령이 주로 임명되었고, 때로는 경관(京官)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민란이 극성하였던 19세기 철종·고종조에 자주 파견되었다.

55) 정부 각 관서에 소속된 서리(書吏)·연리(掾吏)·전리(典吏)·영사(令史) 등을 말하는데, 《태조실록(太祖實錄)》 제1권을 보면 이들의 위계(位階)는 7,8품이었다. 이 글에서는 평택군의 우두머리 아전을 가리키는 듯하다.

56) 개략적인 중요 내용을 적은 문서인데, 주로 군현에서 매년 토지의 연분(年分) 등급을 기록하여 보고하는 문서를 말한다. 각 지방 수령은 해마다 추수한 뒤 관찰 지역의 재해 총액과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실제 결수(結數)를 조사하여 감영에 보고하였는데, 이 대개장이 국가에서 각 도의 면세율을 책정하는 기본 자료가 되었다.

51) 국가에서 각 관아에 뿔나무를 장만하도록 지정한 숲. 서울의 각 관사는 강변에 일정한 면적의 시장(柴場)을 두었다. 뿔나무를 파는 시장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서울의 뿔나무 시장은 지금의 종로5가 광장시장 앞에 있었다.

52) 나무를 찍어내는 일판. 벌목 허가를 받은 숲이다.

53) 대등한 관아 사이에 주고받는 문서.

○ 안핵사(按覈使)가 동헌(東軒)에서 묵고 있었으므로 이에 치진장(馳進狀)을 드리고, 평상복을 입고 들어가 안핵사 안종진(安鍾眞)을 뵈었다. 각자 10여 년 동안의 쌓인 회포를 풀고 또 시흥(始興)과 직산(稷山)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검안(檢案)<sup>57)</sup>은 이미 첫 번째 공초를 받았고, 지금은 두 번째 공초를 받는 중이었다.

○ 점심 식사를 마친 뒤에 남아 있는 죄인이 공초를 바치겠다고 하였다. 내 직분상 직접 나아가 옆에서 참관하는 옹기에 즉시 동헌에 나아가 참관하였다.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광소(礦所)의 상민(商民) 채원실(蔡元實)이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은 죄로 태(笞) 15도를 맞고 5일이 지난 뒤에 죽었다. 그러자 그의 아우 인석(仁石)이 8월 1일에 무리를 거느리고 읍하(邑下)가 전 군수를 내아(內衙) 뜰로 잡아와서 돌로 마구 때리고 칼로 배를 찢러 2일에 운명하게 하였다. 그래서 고을의 백성 수천 명이 통문을 발송해서 와서 모여 채인석을 잡아서 밧아 죽였다고 천안 군수가 이미 조사하여 보고한 일이었다. 안핵사가 그들이 바친 공초를 직접 재결하고 문안(文案)을 작성하였는데, 모두 5인이 두 번째 공초를 바쳤다.

○ 직산(稷山)의 읍기(邑基)는 높고 넓은 성거산(聖居山)에서 뻗어 와서 성(城)이 되었다. 산이 하나의 작은 형국을 열었다. 동쪽으로 3후(幙)<sup>58)</sup>를 달린 곳에 아사(衙舍 관아)를 세워 옥녀봉(玉女峯)과 빈주(賓主)가 되었는데 그 거리가 또한 3리이다. 전면의 정상에는 총석(叢石)이 깎아지르듯 서 있는데 마치 우마(牛馬)와 인물(人物)의 형상과 같았다. 중간에 작은 들이 펼쳐져 있고, 한천(漢川)이 황으로 휘감고서 22리 떨어진 평택(平澤) 경계의 맹간교(盲看橋)로 돌아간다. 정당(政堂)인 부자좌(負子坐)는 주홀루(柱笏樓)라 편액하였고, 안팎으로 3개의 문은 호서계(湖西界)라 편액하

였다. 수아문(首衙門) 옆에 사령간(使令間)이 있고, 관아의 북쪽에는 책실(冊室)이 있었다. 동쪽에는 내아정(內衙庭)이 있고 그 동쪽에는 추청(秋廳)이 있으며, 그 동쪽에는 객사가 있었다. 또 10보 되는 곳엔 영치정(靈治亭)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그저 석축(石築)만 있어 정비 중이었다. 그 아래에는 순교청(巡校廳)이 있는데 관덕당(觀德堂)이라 편액하였고, 향청(鄉廳)의 남쪽 이청(吏廳)은 예성연방(禮城椽房)이라 편액하였다. 군사(郡司)에는 우체사(郵遞司)를 겸하여 설치하였다. 서쪽에는 군기청(軍器廳) 사창(司倉)이 있고 또 그 서쪽에는 향교가 있었다.

성과 가까운 산 아래의 읍호는 200여 호이고, 고을의 호적은 총 3300호이며, 결총(結摠)<sup>59)</sup>은 1748결(結) 25부(負) 5속(束)이다. 시장은 두 곳인데 이곳에서 10리 떨어진 성환(成歡)은 1일과 6일에, 10리 떨어진 입장(笠場)은 4일과 9일에 장이 열린다. 사방으로 산이 빙 둘러싸고 있고, 앞 시내는 서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간다.

○ 천안 군수가 급히 도착하여 동헌에서 대면하였다. 죄인의 세 번째 공초는 전 군수의 아노(衙奴) 조성재(趙性才)가 발송하였으므로 순검이 어제 저녁에 잡아 와서 길찬실(吉贊實)과 대질시켜 공초를 받았고, 세감(稅監) 김종익(金鍾益)을 잡아 와서 공초를 받았다. 수감 중에 있던 길찬실, 김창준(金昌俊), 김성권(金聖權) 외에 광군(礦軍) 7명은 따로 더 물을 것이 없었으므로 특별히 신칙하고 풀어주었다.

○ 동헌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청(吏廳)<sup>60)</sup>과 천안 군수의 처소를 차례로 들러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뒤에 죄인의 세 번째 공초를 직접 보고 모두 서역(書役)에게 맡겼다. 안핵사(按覈使)가 삼곡리(三谷里) 금광(金礦) 등지의 형편을 시찰하기 위해 본관(本官)과 함께 나갔다가 두루 돌아본 뒤에 곧 돌아왔다.

57) 살인 사건에 대해서 시체의 검험(檢驗)에서부터 사건 관련 피의자·증인 등의 심리(審理) 내용을 기록한 문서.

58) 후(幙)는 활을 쏠 때 표적을 걸어 두는 베를 말하는데, 사포(射布)라고도 한다. 축변을 호랑이, 곰, 표범, 순록의 가죽으로 장식하였다. 후의 한가운데를 곡(鶴)이라 하고, 곡의 한가운데를 정(正)이라 하며, 여기서 다시 정의 한가운데를 질(質)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 '후(幙)'는 '사후(射幙)'로 활을 쏘아 살이 미치는 거리를 의미하며, 우리말로 '바탕'이라고 한다. 3후는 세 바탕이다.

59) 결복(結卜), 곧 전지(田地)의 총 면적.

60) 아전들이 집무를 보는 청사로, 길청 또는 질청이라고도 한다.

○ 안핵사(按覈使)와 참핵관(參覈官) 및 본관(本官)이 객관(客館)에 나아가 망곡례(望哭禮)를 행한 뒤에 망궐례(望闕禮)를 행하였다. 안핵한 문안을 정서(正書)해서 성첩(成帖)<sup>61</sup>하여 발송한 뒤 오시에 발행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게 하였다. 나는 천안 군수와 참핵한 전말과 발행장(發行狀)을 작성하여 공주부(公州府)로 보냈다. 이어 각자 작별하고 길에 올랐다.

○ 공주의 연명(延命)<sup>62</sup>에 가는 것은 반드시 지금 행해야 하므로, 즉시 성환(成歡) 정거장에 박계순(朴啓淳), 박화옥(朴樺昱), 박희룡(朴喜龍) 등을 도로 보내라고 명하였다. 시간이 아직 일렀으나 순검 이상원(李相源)을 불러 보았다.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일본 사람 와타나베(渡邊, わたなべ), 주사 임명호(林明浩), 통변 감독(通辯監督) 도이(戸井, とい)가 출타하였으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였다. 이때에 오가타(尾形, おがた)가 들어왔으므로 서로 격조했던 회포를 풀었다.

○ 매표소로 나가 만석(萬石)과 이기석(李己石)을 대동하고 표 3장을 샀는데, 한 장 값이 4냥 4전이였다. 신시(申時) 초각 30분에 열차를 탔다가 이와시타(巖下)와 사쿠라이(櫻井)를 만나 격조했던 회포를 풀고 곧 작별하였다. 이어 전의(全義)를 출발하여 60리를 가니 신시(申時) 정각 22분이였다.

열차에서 내려 회사에 들어가 일본 사람 다카기(高木)와 히비(日比)를 찾았는데 모두 출타하였으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였다. 그래서 곧 회사 앞 객점에 숙소를 정하였다.

○ 영평(永平) 광덕(廣德)에 사는 신극환(申極煥)이 맡은 일이 있어 같은 열차로 공주에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 함께 오오카 도쿠조(大岡徳三)의 처소에 가니, 주인이 맛있는 술과 민물고기, 송이버섯 등의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였다. 술

을 마신 뒤에 거처로 돌아왔다. 저녁식사를 할 때에 오오카가 또 생선을 주어 입맛을 돋우니 저녁 밥맛이 아주 달고 향긋하여 매우 감사하였다.

○ 의관(議官) 황두연(黃斗淵)·최두환(崔斗煥)·최정성(崔正星), 수서기(首書記) 황민식(黃敏植)이 와서 보았다. 그래서 가마와 가마꾼을 부탁하여, 다음날 이른 아침에 공주로 출발하겠다고 말하였다.

본관(本官)은 일전에 연명(延命)에 행차하였다가 연산(連山)의 본가로 곧장 갔다고 하였다.

○ 16일, 상강(霜降). 수서기(首書記)가 가마꾼 등을 인솔하고 기다렸다. 가마꾼은 한 사람당 품삯이 10리에 1냥 5전인데, 왕복 120리이므로 도합 돈 72냥을 내어 주었다. 또 신극환(申極煥)이 동무가 되어 말을 탔는데 품삯이 18냥이였다. 진시(辰時)에 출발하여 곡부(鵠阜)와 사기소현(砂器所峴)까지 각 10리였고, 공주 경계까지 또 9리였다. 홍현점(弘峴店)을 넘어 5리를 가니 동혈현(銅穴峴)이었는데 아주 높고 험준하였다. 또 5리를 가니 내동중화(內洞中火)였고, 12리를 가니 비로소 큰 길로 통하였다. 3리를 가니 금강(錦江)이었고, 5리를 가니 공주부(公州府)의 주인집이였다.

○ 연명장(延命狀)을 드린 뒤에 연명(延命)을 위해 공복(公服)을 입고 관찰사 심건택(沈健澤)을 만나 제반 사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관찰사가 말하기를,

“이번 두 차례 수고하신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처리하신 일을 보니 ‘늬을 수록 더욱 강장하다.[老當益壯]’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로 혹시라도 도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말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기에, 내가 답하였다.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몸에 현기증을 앓고 있고, 둘째는 아전 중에 숙련된 사람이 적으며, 셋째는 고을에 여비(旅費)가 부족합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실로 명을 받들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더욱 아량을 베푸시어 일을 처리할 때에 그르치거나 잘못되지 않게 하소서.”

61) 문서에 수결(手決)을 두고 관인을 찍어서 마무리함. 또는 완성된 문서. 성첩(成帖)이라고도 한다.

62) 도내 각 군(郡)의 수령이 사안을 가지고 감영(監營)에 가서 감사(監司)를 만나 명을 듣는 것을 말한다. 새로 부임한 고을 원이 소속 감사(監司)를 찾아가 인사하는 의식, 또는 h를 원이 새로 부임한 감사를 찾아가 인사하는 이식도 연명이라 한다.

누누이 말하고 나오니, 밤이 이미 술시(戌時) 정각 30분이었다. 정산(定山)에 사는 윤영구(尹永久)가 금년 6월 모일에 공주 총순(公州總巡)에 서임(敍任)되었는데 내가 공주에 왔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선화당(宣化堂)에 들어가 작별을 고한 뒤 징청각(澄淸閣)에 머물면서 자벽(自僻)<sup>63</sup>한 참봉 소태영(蘇台永)을 보고 고을의 일을 부탁하였다. 주사 이한용(李漢容)을 찾아가 전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경무서(警務署)의 현(現) 총순(總巡) 윤영구(尹永久)가 술과 안주를 마련해 정성껏 대접하였다. 곧 사처(私處)로 돌아왔다.

오시(午時) 정각에 길에 올라 주사 신숙희(申肅熙)의 집에 들어갔다 곧바로 나와 공북문(拱北門) 앞길을 경유하여 금강(錦江)을 건넜다. 10리를 가서 주점(酒店)에 내렸다. 북쪽으로 가는 대로(大路)를 놔두고 동남쪽의 간로(間路)를 택해 시내를 따라 갔다. 80리를 가니 긴 골짜기가 구불구불 빙빙 돌고, 돌 비탈과 숲 골짜기가 걸음 걸음마다 위에서 위협하는 듯하였다.

머리 위에 하나의 커다란 산이 있었는데 ‘동혈산(銅穴山)’이라고 하였다. 산 정상에는 총석(叢石)이 두어 리(里)를 벌려 서있고, 가장 아래 머리에는 하나의 커다란 바위가 우뚝 서 있었다. 그 아래 석벽은 수백 아름을 병풍처럼 비껴 펼쳐져 있었다. 또 그 아래 작은 암자 하나가 있었고 하늘에 닿을 듯한 큰 나무가 서리를 맞아 울긋불긋 물들어 있었다. 밝게 비추는 석양 속에 길을 가다보니 동혈현(銅穴峴) 위에 이르렀다. 위로 작은 암자가 멀지 않은 곳에 바라보였다. 마침 그 지방 사람을 만나 물으니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산 정상의 총석은 백여 개이고 그 중에 가장 커다란 바위는 ‘오십장암(五十丈巖)’이라고 불립니다. 그 나머지 총석과 석벽은 모두 적색이고 또 구멍이 나 있어 마치 동(銅)으로 만든 솥에 구멍이 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혈산’이라고 하고, 작은 암자를 ‘동혈사(銅穴寺)’라고 합니다.”

63) 이조(吏曹)와 병조(兵曹) 등의 전조(銓曹)에서 인사 행정 절차를 거쳐 서임(敍任)을 하지 않고, 해당 장관이 임의로 추천해서 관직에 임명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자기가 데리고 일할 종사관(從事官)을 선임할 때 이 방식을 적용한다.

너럭바위 석면에 절을 짓고 위에 큰 바위를 덮은 것이 마치 굴 모양과 같았다. 대개 삼한(三韓) 시대 고찰(古刹)의 승려 하나가 늘 석벽에 머물렀으므로 ‘금라 절벽(錦羅絕壁)’이라고 했다고 한다. 곁에는 작은 샘물이 하나 있었다. 어제 이곳을 지났으나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가 오늘 행차에 비로소 이러한 경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갈 길이 급해 한껏 감상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다.

○ 가다가 유시(酉時) 정각에 전의군(全義郡) 치소(治所)에 도착하여, 의관(議官) 황두연(黃斗淵)의 집에 들어가 묵었다. 마침 본관(本官) 권택수(權宅洙)도 임소로 돌아와 있었으므로, 하례(下隸)를 보내 전달하게 하였다. 주인이 조석반(朝夕飯)을 대접해 주었는데 마음이 매우 편치 않았다. 밤에 주인 및 훈장 이재협(李在協)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밥을 먹고 들어가 본관(本官)을 만났는데, 이때 열차가 도착하였으므로 곧바로 정거장으로 나가 표를 구매하였다. 통복포(通伏浦)까지는, 90리인데 표 한 장에 5냥 7전 5푼이었다. 이때 황두연(黃斗淵)과 황민식(黃敏植)이 와서 기다렸으므로 내가 극구 칭찬하며 사례하였다. 이어 열차를 탔다. 7시 19분에 출발하여 통복포에 도착하니 8시 27분이었다.

열차에서 내려 유상철(劉尙喆)을 만났다. 발길을 돌려 회사로 가서 사쿠라이(櫻井)를 만나 회포를 풀었는데, 오래도록 돈독하게 잘 지내자고 말하기에 마침내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오시(午時) 초각에 본군의 수리(首吏)가 남여(藍輿) 등을 가지고 함께 와서 기다렸다. 이어 곧 작별하고 군물포(軍勿浦)에 이르니 이교(吏校) 아무개 등이 와서 기다렸다. 동장의 집에 들어가니 수서기(首書記)가 단술과 감 등을 올렸다. 나무를 건너 관아로 돌아오니, 시간이 바로 오시(午時) 정3각(正三刻)이었다.

○ 우편을 통해 온 서울 집의 편지를 보니 집안은 무고하나, 조용호(趙龍鎬)가 추수를 살피는 일로 지난달 평양(平壤)으로 내려갔다고 하였는데, 근간에 병에 걸려

이달 5일에 평양에서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하였다. 어찌 이리도 나쁜 소식이란 말인가. 내가 이렇게 늙은 나이에 이런 차마 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으니, 비참하여 애통한 마음을 형언할 수 없다. 죽은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청상과부와 어린 자식은 장차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마음이 혼란스러워 안정되지 않았다.

○ 관보(官報)를 보니, 황태자비궁(皇太子妃宮)이 이달 10일부터 체증(滯症)으로 편치 못한 증세가 있었다. 그래서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인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이 구전(口傳)으로 주청(奏請)하여 의관을 거느리고 입진(入診)해서 증상을 자세히 살핀 뒤에 탕제(湯劑)를 의논하여 정하겠다고 계품(啓稟)하였고, 11일에 구전으로 모두 직속(直宿)하겠다고 계청(啓請)하였다고 하였다. 무엇이 원인이 되어 이런 증상이 발생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일이 있기까지 하였으니, 듣고는 황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다. 전서(磚西)의 대소(大小) 사랑(舍廊)에 두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

○ 21일, 작부(作夫)<sup>64</sup>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은, 추수가 끝나면 척장(滌場)<sup>65</sup>이 곧 이어 있기 때문에 결과장(結把掌)<sup>66</sup>을 낼 때에는 반드시 5일을 배정하여 그 안에 남김없이 기준에 맞추어 납부하게 해야 한다. 비록 배정한 날이 하루더라도 배당 받은 돈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동장(洞長) 및 주비(注備)가 단연코 잡아와서 납부하기를 독촉해야 한다. 이 때 절대로 군교(軍校)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관아의 뜰에서 직접 납부하고 관인(官印)을 찍은 자문(尺文)<sup>67</sup>을 받아 가라고 각 면에 고시(告示)하였다. 이 일로 관청색(官廳色) 박내희(朴來熙)와 도봉색(都

捧色) 박계순(朴啓淳)을 차출하고 아울러 수서기(首書記)로 하여금 살피고 검사하게 하였다.

○ 일본 사람 사쿠라이(櫻井)와 유상철(劉尙喆)이 찾아와서 차와 술상을 대접하였다. 사쿠라이가 북해도(北海道)에서 생산되는 어염(魚鹽) 2통을 가지고 와서 선물로 주었다. 이 귀한 물건을 즉시 통을 열어 맛보니 과연 특이한 맛이였다.

○ 20일, 황태자비궁(皇太子妃宮)의 환후(患候)가 아직까지도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아, 심지어 태의원(太醫院)의 의원들이 모두 직속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였다. 나는 외직에 있어서 증세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랫사람으로서 황공한 마음이 들어 직속하는 여러 신하에게 아울러 편지를 썼는데, 원동(園洞)의 대신(大臣) 이지용(李址鎔)이 답장을 써서 보내 주었다.

○ 전후식(田后植)이 작별을 고하였다. 그래서 국화 베개 한 개를 선물로 주었다. 이것은 그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어 홍 응교(洪應教)를 송별하였는데 집안의 장례가 내일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순교(巡校) 지용하(池龍夏), 색리(色吏) 후창수(后昌洙), 사령(使令) 양순철(梁順哲)·김만득(金萬得)을 별도로 차정하여 호장(護葬) 차 보내도록 명하였다.

○ 매년 겨울이 되면 매화와 두견화 등을 토분(土盆)에 심어다가 책상 위에 배치해서 밤낮으로 꼭 가까이 두고 보는데, 그 꽃망울이 터진 모습을 사랑하여 조화옹이 사물을 만들어낸 오묘한 이치에 흠뻑 빠졌다.

이 군(郡)에서는 애당초 이러한 꽃이 없고 종류도 드문데다가 사리를 아는 자가 스스로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았다. 뜰 앞 총림(叢林)에 가서 동백꽃 한 뿌리를 캐어 질그릇 화분에 심어 가꾸고, 또 파초(芭蕉)와 한련(旱蓮) 두 종을 재배 방법에 따라 가꾸고 물 주어 겨울철 완상하는 거리로 삼았다.

○ 관아의 뜰 서쪽 담장 아래 앞담배를 저변에 이미 따다 바짝 말렸더니, 양이 두

64) 조선 시대 결세(結稅)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이다. 팔결 작부(八結作夫)라면 토지 8결마다 1명씩의 부(夫)를 두어 각종 부역(賦役)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65) 농사일이 다 끝나 타작마당을 청소한다는 말로 10월을 뜻한다. 《시경(詩經)》〈칠월(七月)〉에 “구월에 서리가 내리면 시월에 타작마당을 정소한다.[九月肅霜 十月滌場]”라고 하였다.

66) 결세액(結稅額)과 납세자의 명단을 양안(量案)에서 가려 적는 부책(簿冊)을 이른다.

67) 관아에서 조세 따위를 받아들이고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파(把)나 되었다. 맛이 자못 강렬하여 빨아들일 수 없었다. 향장(鄕長)이 연기 나는 물건을 가장 좋아해 모두 즉시 보내 주었다. 살담배 한 근을 선물로 주었으니, 이는 세속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 뜰 앞의 화훼(花卉)는 서리를 맞아 시들어서 오래도록 버틸 수 없었다. 그래서 황백국(黃白菊) 및 당국(唐菊), 금사화(禁蛇花), 계관화(鷄冠花), 당현(唐莧) 몇 종을 유리병에 나란히 꽂고 물을 담아 가지를 적시니, 그 무성하고 고운 모습이 뜰의 섬돌에서 시들어 있을 때보다 배나 나았으므로 관방(官房) 및 춘수루(春水樓)에 두었다.

○ 지난번 직산(稷山)에서 참핵(參覈)할 때에 안핵사(按覈使) 안중진(安鍾眞)이 이미 전남(全南)을 순찰하라는 명을 받은 터라 나에게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기에, 고성(固城)의 박진국(朴鎭國)이 적임자라고 응대하였었다. 이유는 이 사람이 사리를 잘 알고 문장에 능숙하며 자세히 살피고 두루 뛰어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영남의 인재라고 일컬을 만하고, 내가 고성에 있을 때<sup>68)</sup> 이미 써본 자였기 때문이다. 그때 순찰사가 곧바로 전보로 초치(招致)하려 했다고 하였다.

지금 각도의 순찰사가 반드시 머지않아 길에 오를 것이고, 또 박 아무개는 얼마 전에 기회에 응하기로 했으므로, 편지를 써서 격조했던 회포를 풀 뒤에 책임이 중요하다고 경계하고, 겸하여 여수(麗水) 무술년(1898) 공전(公錢)에 대한 상황을 진술하여 며칠 내로 독려하여 거두어들이도록 거듭 부탁하였다.<sup>69)</sup> 또 순찰사에게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고, 겸하여 집에도 편지를 부쳤다.

○ 24일, 조서를 내려 직숙(直宿)하는 일을 그만두고 윤직(輪直)하는 것으로 바꾸

었다고<sup>70)</sup> 하였다. 태자비궁(太子妃宮)의 환후(患候)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참으로 기뻐 손뼉 치는 심정을 가누지 못하겠다.

○ 본도 순찰사 김성규(金星圭)를 정3품 이시영(李始榮)<sup>71)</sup>으로 교체하라고 명하였다.

○ 26일, 태의원(太醫院) 도제조(都提調)가 구전(口傳)으로 아뢰기를, “방금 삼가 입진(入診)한 의관(醫官)이 전하는 말을 들으니, 태자비궁(太子妃宮)의 환후(患候)가 이제 또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신들은 지극히 놀랍고 염려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모두 입직(入直)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알았다. 우선 본원에 모두 입직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들은 오늘부터 태자비궁 차비(太子妃宮差備) 근처로 옮겨 입직하겠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는 비답을 받들었다.

## ◆ 10월

○ 1일, 망곡례(望哭禮)를 행한 뒤에 망궐례(望闕禮)를 행하였다. 이어 옷을 갈아 입고 대성전(大成殿)에 나아가 분향하였다. 저번에 국화를 말려 정갈하게 할 때 일본 사람 사쿠라이(櫻井)가 마침 왔다가 묻기를,

70) 관아(官衙)에서 낮에 당번하여 지키는 것을 직(直), 밤에 지키는 것을 숙(宿)이라 하는데, 긴급 상황을 넘겼으므로 담당 관원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게 되었다는 뜻이다.

71) 이시영(1869-1953)은 이후 평안남도 관찰사, 한성재판소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서간도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설치하였다.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초대 법무총장을 역임하고, 1947년 대한민국 부통령에 취임하였다.

68) 오형묵이 1893년 1월에 고성 부사로 부임하여, 1894년 10월에 사임하였다.

69) 오형묵이 1897년 4월에 여수 군수로 부임하여, 1899년 6월에 진보 군수로 전임하였다. 여수 군수 재임 중의 공무 처리를 위한 부탁이다.

“국화는 향기를 맡으면 심목(心目)이 기빠지는 물건인데 지금 이를 따서 말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이는 무슨 주견(主見)입니까?”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공은 그저 보고 감상하며 술잔에 띄우는 것만 알고, 건강을 지키고 병을 치료하는 좋은 처방임을 모르는군요. 국화가 시들기 전에 따다가 말려 베개를 만들면 이부자리 가까운 곳에 향기가 절로 풍겨, 다음날이 되면 거풍(祛風)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보고 감상하고서 버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였다. 사쿠라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남아 있는 베개 2개를 사용하면 아주 좋겠군요.”

하였다. 일전에 감독 이와시타(巖下)가 두풍(頭風)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기에, 국화 베개 3개를 만들어서 2개는 사쿠라이에게 주고 하나는 이와시타에게 주면서 편지와 함께 이 일로 전적으로 보냈다.

○ 동지(同知) 김창섭(金昌燮)은 바로 이동(泥洞) 취석(翠石) 대감의 종중손(從曾孫)이다. 처음 내수사(內需司)<sup>72)</sup> 마름의 신분으로 공문을 가지고 내려 왔을 때, 군에 서는 눈을 소유한 북면(北面)의 작인(作人)들에게 ‘일전에 전 마름 주서(注書) 최한웅(崔漢膺)이 장난질을 한 것으로 인하여 형세 상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시(告示)하였다. 그런데 이제 또 공문을 가지고 내려 와서 들어와 보고는, 순교를 정해 별도로 곡진히 보호해주도록 누누히 부탁하였다. 그래서 별도로 순교를 정해서 해당 면장 및 여러 작인들에게 고시하였다.

○ 우편을 통해 온 아들 극선(克善)의 편지를 보니, 황태자비궁(皇太子妃宮)께서 숙환(宿患)으로 지난 28일 술시(戌時)에 홍서(薨逝)하였다고 하였다.<sup>73)</sup> 나라의 운명

72) 조선시대 왕실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이조 소속의 정5품 아문(衙門)으로 왕실의 쌀·배·잡화 및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조선 개국 초에는 함경도 함흥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성계(李成桂) 기문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내수사를 본궁(本宮)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73) 황태자비는 여은부원군 민태호의 딸인데, 1904년 9월 28일(양력 11월 5일)에 31세로 세상을 떠났다. 뒤에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로 추존되었다.

이 심히 어려운데 어찌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하물며 황태자께서는 한창 젊은데 이런 뜻밖의 부음(訃音)을 들으니 더욱 망극하기 그지없다.

○ 일전에 수교의 아들 돌용(鬲用)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박홍래(朴鴻來) 집의 고용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그때에 박홍래의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서 싸움을 말리다가 밀쳐져 땅에 넘어져서 팔이 다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래서 잡아다가 장(杖) 20도를 엄하게 치고 칼을 씌어 단단히 가두었다. 이제 향장(鄕長)의 말을 들으니, 팔의 상처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강에도 흠이 있고, 또 그의 부자(父子)가 밖에서 저지르는 행태가 또한 듣기에 놀랍다고 하였다. 그래서 모두 제태(除汰)하고, 돌용은 태(笞) 17도를 치고 이어 단단히 가두었다.

○ 도약장(都約長)<sup>74)</sup>인 도사(都事) 이윤직(李允植)이 향약의 조규(條規)를 성첩(成貼)하는 일로 각 면의 면장 양주칠(梁柱七), 이경구(李經久), 조화순(趙和淳), 이병좌(李炳佐)와 들어왔다. 그래서 관인(官印)을 찍어 각 면과 동에 내어 주어, 조약의 내용을 영구히 바꾸지 말고 지켜서 기어코 효과를 내라고 신유(申諭)하였다.

○ 6일. 신시(申時)에 굵은비가 살짝 뿌렸다. 비궁(妃宮)이 홍서(薨逝)한 뒤에 한 차례 상경하여 아무개 등을 위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당일 만석(萬石)을 데리고 출발하려는데, 유태경(柳泰卿), 이영로(李永老), 편장현(片章鉉)이 상납해야 할 돈 2500냥을 가지고 간다기에 동행하였다.

정거장으로 나가서 영등포(永登浦)까지 가는 표 5장을 구매하였는데, 한 장 값이 9냥 7전이었다. 8시 45분에 열차에 올랐는데, 일본 사람 오오카 도쿠조(大岡徳三)도 상경하는 길이라 서로 만나 기쁨을 나누었다. 11시 5분에 영등포에 도착해서 열차에서 내렸다가 용인(龍仁)에 사는 사과(司果) 박재곤(朴載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인천항으로 가는 열차 또한 도착하였다. 그래서 또 값이 2냥 3전

74) 여러 마을 향약(鄕約)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대표이다.

5푼인 2등 칸 1장과 값이 1냥 2전인 3등 칸 1장을 구매하였다. 11시 40분에 열차를 탔다.

이날 일본 전진(戰陣)의 위문사<sup>75)</sup> 권중현(權重顯)<sup>76)</sup>이 돌아와서 군인들이 많이 나와 영접하였다. 이어 새문[新門] 밖에 도착하니<sup>77)</sup> 시간이 이미 12시쯤이었다. 또 전차를 타고 황토현(黃土峴)<sup>78)</sup>에 도착해 내려서 걸어가 공후동(工後洞)<sup>79)</sup> 집에 이르니 자식과 손자들이 단란하게 모여 환영하였다. 권속(眷屬)들이 모두 평온하니 매우 위로가 되었는데, 늙은 아내는 근래 감기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 전서 대감(磚西台監, 민영소(閔泳韶))<sup>80)</sup>의 소재를 탐문해 보니 현재 대궐 안에 있다고 하였다. 저녁을 먹고 전서에 갔더니 대감은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었다. 아무개 친구들이 자리에 있어 격조했던 회포를 풀고, 또 참서(參書) 민충식(閔忠植)을 만나 위문하고 오순도순 이야기하다가 12시가 되었다. 주인 대감이 나가지 않아서 부득이 집으로 돌아왔다.

75) 권중현이 러일전쟁 발발 직후인 1904년 3월에 한국을 방문한 일본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영접하는 영접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4월 임시 궁내부대신, 5월 육군부장으로 승진하였다. 그해 7월 일본 육·해군 위문사로 랴오양(遼陽), 위순(旅順)에 특파되어 일본군을 위문하였으며, 그 공로로 8월에 일본 정부가 주는 훈1등 서보대수장(瑞寶大綬章)을 받았다.

76) 본명은 권재형(權在衡 1854-1934)이었으나, 1903년 5월에 권중현(權重顯)으로 개명하였다. 대한제국기에 농상공부대신, 의정부찬정, 군부대신 등을 역임하였으며 ‘을사오적(乙巳五賊)’으로 지탄을 받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자작의 작위를 받았으며, 중추원 고문 조선사편수회 고문 등으로 활동하였다.

77) 돈의문인 서대문을 새문, 또는 신문(新門)이라고도 불렀다. 초기 경인선과 경부선의 종점인 경성역이 서대문에 있어서, 서대문역이라고도 하였다.

78)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육조거리를 가다가 종로와 만나는 자점에 있던 낮은 연덕인데, 지금 이 일대에 고종 어극 40년칭경기념비각(高宗御極四十年稱慶紀念碑閣)과 동아일보사가 있다.

79) 지금의 서울시 종로구 도림동에 있던 옛 동네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공후동 일부는 도림동에 편입되고, 일부는 광화문동에 편입되었다. 지금은 모두 사적동 관할이다.

80) 전서대감은 전동(磚洞) 서쪽 마을에 사는 대감이라는 뜻인데, 전동은 한성부 중부(中部) 건평방(堅平坊) 부근에 있던 지명이다. 행정구역명에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조선 후기 지도에는 전동(磚洞), 또는 박동(礮洞)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원래는 박석(礮石)고개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원문 그대로 ‘礮洞’으로 표기하였다. 민영소(1852-1917)는 민태호의 양자로 육조 판서를 거쳤다. 1894년 병조판서로 재직하면서 홍중우를 시켜 망명중인 개화파 김옥균을 암살하라고 사주했다. 한일합병 공로로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 7일, 비, 점심을 먹고 송석원(松石園)<sup>81)</sup>에 가서 참관 민영린(閔泳麟)<sup>82)</sup>을 만나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 참령(參領)<sup>83)</sup> 김현태(金顯台)를 만나 일본과 러시아가 교전(交戰)하고 있는 여순(旅順)의 상황에 대해 들었는데, 자중지란(自中之亂)이 거듭 생겨나 필시 오래 지나지 않아 함락될 것이라고 하였다. 대개 위문사가 돌아온 뒤에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 발길을 돌려 대동(帶洞) 집에 가서 사당에 참배하였다. 또 막 태어난 증손의 모습을 보았는데 특이하였으므로, 결론을 내려 기린아(麒麟兒)라고 흔쾌히 칭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이제야 남아를 낳았고 나 또한 71세인데 이 장손이 태어나는 경사를 보았으니,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기쁨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그래서 ‘명증(命曾)’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어 손자 제영(梯泳)의 집에 갔다가 곧바로 공후동(工后洞) 집에 돌아오니 판관 이기정(李基禎)이 와서 앉아 있어,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였다. 장중군(張中軍)의 집에서 술상을 차려 와 조금 마신 뒤에 젊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구곡동(久曲洞) 김실(金室)에게 돈 4원을 주어 보냈다.

저녁에 참령 민영선(閔泳璇)의 집에 갔다가 만나지 못해 명첩(名帖)을 남겨두고 돌아왔다.

○ 저녁밥을 먹은 뒤에 전서(磚西) 대감이 나가 직숙(直宿)한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원소(園所)에 가서 위문하니, 아직도 (황태자비의) 장지(葬地)를 확실히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처음 의논할 때는 마장리(馬場里) 용마봉(龍馬峯) 아래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했으니 금년 12월내로 할 모양새지만, 아직 확실하게 헤아리지 못했다

81) 종로구 옥인동에 있던 별서(別墅)로 천수경(千壽慶 1758-1818)이 살면서 위향시인들이 모여들어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로 이름이 났다. 왕실의 외척이 바뀔 때마다 장동감씨, 여흥민씨, 해평윤씨 네가 대를 이어 소유하였으며, 순정효황후의 백부인 윤덕영이 마지막 막으로 소유하였다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분할 등기되었다.

82) 민영린(1872-1935)은 민태호의 양자로, 순종비인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의 아우이다. 대한제국으로부터 1906년에 태극장(勳2등)을, 1910년 한일합병의 공으로 조선귀족령에 의거하여 일본정부로부터 백작 작위를 받았다.

83) 대한제국 주임관(奏任官) 3등 무관인데, 12계급 가운데 제6위이다.

고 하였다. 이어 대소 사랑(舍廊)에 작별을 고하고 비를 무릅쓰고 집으로 돌아오니, 밤이 이미 자시(子時) 초각이었다.

○ 8일. 성복(成服)<sup>84</sup>하였다. 여러 물품들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북포(北布)<sup>85</sup> 1필 값이 40여 원이라고 하였으므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가는 중에 오늘 입소에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유태경(柳泰卿)과 편장현(片章鉉)으로 하여금 가져온 돈을 탁지부(度支部)에 영납(領納)하게 한 뒤에, 즉시 인천항으로 가서 상납할 몫을 구별하여 오고, 아울러 자문(尺文)을 발급 받아 내려오라고 효유(曉諭)하였다.

○ 이어 길에 올라 새문 밖을 나가니 유영(惟泳)과 제영(梯泳) 두 손자 및 유태경(柳泰卿)과 편장현(片章鉉) 두 사람도 따라 왔다. 이어 표를 구매하고 만석(萬石)을 데리고 열차에 탑승한 뒤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9시 45분에 출발하여 영등포(永登浦)에 도착하니 시간이 바로 11시 5분이었다. 12시 50분이 되어 표를 구매하고 열차에 오르자 바로 출발하였다. 수원(水原) 한진(漢津)에 사는 주사(主事) 이민화(李敏和)도 동승하여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민화는 서정자(西井子)에 도착해서 내려갔다. 여기에서 한진까지의 거리는 40리라고 하였다.

통복포(通伏浦)에 도착해서 열차에서 내리니 시간이 이미 오후 3시 12분이었다. 읍속(邑屬)이 아직 기다리고 있지 않아 곧장 회사로 향하여 이와시타(巖下)와 사쿠라이(櫻井)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 사쿠라이(櫻井)가 말하였다.

“경부 철도는 이달 3일부터 영동(永同)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었으니, 그렇다면 이달 내로 충분히 부산항까지 열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금년 12월내로 공역

84) 상례(喪禮)에서 대렴(大殮)을 한 다음날 상제들이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喪服)을 입는 절차로, 죽은 날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입는다.

85) 관북(關北)의 마포(麻布)라는 뜻으로, 함경도에서 생산되는 울이 가늘고 고운 삼베를 말한다. 그중에서도 육진(六鎭)에서 나는 삼베가 가장 세밀해서, 한 필의 베를 발우(鉢盂) 안에 담을 수 있었으므로, 속칭 발내포(鉢內布)라고 하였다.

을 마치는 것을 미리 계산한 것이니, 그 사이에 철저히 감독해서 이제 완공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들어간 비용은 6천만 원 가량입니다.”

○ 잠시 후, 남여(藍輿)가 도착하려 관아로 돌아갔다. 금번 이 행차는 부득이하게 임의대로 개인적인 여행을 한 것이다. 대체로 3일 동안 300여 리의 여정을 왕복했는데 마치 이웃마을을 다니듯 하였다. 서울에서 이틀 밤을 묵으면서 해야 할 일을 마쳤으니, 이보다 더 기분 좋게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에 열차, 전차, 인력거가 걸음을 대신해 달린 탓에 절로 어지럽고 고단하였다. 지금 쇠 퇴하여 소진된 기운을 떨치기 어려우니 참으로 괴롭다.

○ 9일. 오시(午時)에 흐림. 황태자비궁(皇太子妃宮)께서 흥서(薨逝)한 데 대한 관찰부의 훈령이 미시(未時)에 도착하였다. 이 훈령은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이달 1일에 나온 것이 이제야 도착한다 말인가. 이른바 우체(郵遞)가 규정을 어기고 소홀하게 일을 처리한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망곡례(望哭禮)<sup>86</sup>를 행하기 위해 즉시 학교에 체문(帖文)<sup>87</sup>을 내려 보내고, 신시(申時) 정각에 포단령(布團領)과 모대(帽帶)를 가지고 객관(客館)에 나아가 망곡례를 행하였다. 아들 익선(翼善)과 향장(鄕長) 이하 여러 관속(官屬)이 참석하였고, 교임(校任) 등은 모두 망곡례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 손자 지영(志泳)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그가 가지고 온 아들 극선(克善)의 편지를 보니, 바로 아들 익선(翼善)을 불러 올라오도록 하는 일이었다.

10일. 새벽에 살짝 눈이 내리고 흐렸다. 도유사(都宥司) 이윤직(李允植)과 장의(掌

86) 임금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서울에서는 대궐 문 앞에 모여 곡하고, 지방에서는 서울 쪽을 바라보면서 곡하는 의식이다.

87) 수령(守令)이 관하의 면임(面任)·훈장(訓長), 향교(鄕校)의 유생(儒生) 등에게 유시하는 문서.

議)<sup>88)</sup> 장규진(張奎鎭)이 망곡례(望哭禮)를 행하고 와서 보았다. 오후 3시에 아들 익선과 손자 지영이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 비궁(妃宮)의 시호(諡號)는 기열(紀烈), 전호(殿號)는 의효(懿孝), 원호(園號)는 유강(裕康)이다. 공제 기간(公除期間)<sup>89)</sup>은 금년 10월 4일부터 성복(成服)을 시작하여 동월(同月) 16일까지 계산하니, 만 13일이었다.

각 아문에서는 개좌(開坐)<sup>90)</sup>하고, 재궁(梓宮)<sup>91)</sup>의 은정(銀釘) 위에 가칠(加漆)<sup>92)</sup>하는 것은 이달 5일부터 시작하여 이를 간격으로 10도(度)에 준해서 하며, 태의원에 직속하는 것은 전례대로 직속을 폐지하고 물러가게 하였다.

○ 《대동신보(大東新報)》<sup>93)</sup>는 바로 일본 사람 무라사키 주타로(村崎重太朗, むらさき じゅうたろう)가 발행하고 에토 도시히코(衛藤俊彦, えとう としひこ)가 편집하고 있는데, 금년 2월 모일에 창간하여 169호에 이르렀다. 《황성신보(皇城新報)》<sup>94)</sup>의 전례대로 이달 6일을 시작으로 각 군에 반행(頒行)하였다.

○ 농상공부(農商工部)의 훈령이 내려왔다. ‘뽕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는 일은 누차 각 군에 권면하고 신칙하였지만 향촌의 물정은 매년 대수롭지 않게 보았다. 그래

88) 성군관과 향교의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에 기숙하는 유생, 즉 재생(齋生)들의 재회(齋會)를 주재하는 대표자이다. 정의를 보좌하는 임원을 색장(色掌)이라고 하는데, 이 장의와 색장 등을 재임(齋任)이라고 한다.

89) 국상(國喪)을 당하여 조의를 표하는 뜻으로 일정 기간 공무를 보지 않다가 그 기간이 지나 상복을 벗는 기간을 말한다.

90) 관서에서 공사(公事)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원들이 자리를 정하고 기구를 갖추어 벌여 앉는 것.

91) 월이나 왕후의 시신을 넣는 널로서, 내재궁은 빈전의 안에, 외재궁은 능에 설치한다. 가래나무로 관을 만들었으므로, 재궁(梓宮)이라고 하였다.

92) 재궁의 전체에 가칠하는 것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모두 세 차례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776년 정조가 예(禮)를 후한 쪽을 따라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섯 차례 칠하도록 명한 적이 있다.

93) 일본인이 운영하던 신문인데, 1906년 9월에 이토 히로부미가 《한성신보》와 합병하여 통감부 기관지 《경성일보》로 창간하였다. 초기에는 국한문판과 일본어판을 병행하여 발행하였으나, 1907년 4월부터 국한문판을 폐지하였다.

94) 서울에서 남궁억 등이 국민지식의 계발과 외세침입에 대한 항쟁의 기치 아래 1898년에 창간한 일간신문인 《황성신문》을 가리킨다. 국한문혼용체 기사를 써서 독자가 많았는데, 이 무렵에는 구독료 미수금이 많아져서, 광고와 유지들의 성금으로 간신히 유지되다가 1910년 국권능탈 이후에 폐간되었다.

서 잠업과 기수(蠶業課技手)를 전적으로 파견해서 어린 뽕나무 25만주(株)를 각 지방으로 가지고 가서 뽕나무 묘목을 퍼트릴 수 있도록 방법을 지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각 군에서는 사리를 아는 한 사람을 특별히 택하고 유사를 차정한 뒤, 음력 9월 20일이 되면 날짜에 맞추어 와서 부하(府下)에서 기다렸다가 일제히 받게 하라. 고을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고 따져서 나누어 주어 심고 가꾸어 이 일을 힘쓰게 하라. 그러면 잠농(蠶農)의 가치가 3년 뒤에는 한 그루당 동전(銅錢) 3푼씩이 될 것이니, 이를 거두어 모아 올려 보내서 상환하라.’라는 내용으로 도착하였다.

전에 이미 장규진(張奎鎭)을 파송했는데 뽕나무 묘목이 오지 않아 헛걸음으로 돌아왔고, 또 지령이 와서 즉시 전의군(全義郡)에 사람을 보내 비로소 8천 그루와 뽕나무 가꾸는 규정을 받아오게 하였는데, 오늘 도착하였으므로 각 면장으로 하여금 각 면에 분배하게 하였다.

○ 아사(衙舍)의 동쪽 담장 밖에 예전 대동고(大同庫), 사창(社倉), 관청(官廳) 등의 유희와 빈터가 객사의 서쪽 담장과 맞닿아 있었다. 이번에 뽕나무 묘목 수백 그루를 심고 가꾼 것은 오로지 민생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생각건대 뽕나무는 국가의 계획과 백성의 산업에 가장 관계가 깊어 누에를 먹여 고치실을 만들면 이익이 매우 크므로 보통 나무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식견으로 옛 관습에 젖어 대수롭지 않게 보아 효과를 거두는 것이 조금 더뎠으니 어찌 개탄하지 않겠는가. 특별히 300뿌리를 가져다 직접 검사하고 살핀 뒤 가장 먼저 방법에 맞게 심고 가꾸어, 온 군의 백성들로 하여금 본받아서 보고 듣게 할 계획이다.<sup>95)</sup>

오늘 뽕나무 심는 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해서 공역을 마쳤는데, 군에 있는 여러 이교(吏校)가 함께 와서 일을 처리하였다. 그 중에 순교 이시현(李時鉉)은 처음에는 와서 참여하였다가 얼마 지나 다른 데로 가서 더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의 나쁜 버릇을 생각하니 너무도 놀람기에 즉시 제태(除汰)하였다.

95) 오황묵은 51세 되던 1884년에 공상소(工叢所) 감동낭관(監董郎官)으로 부임하였고, 62세 되던 1895년에도 공상소 감동(監董)으로 부임하였으므로, 뽕나무 재배에 관한 식견이 있었다.

○ 13일, 새벽에 비가 와서 먼지가 씻기고 흐림. 오늘 비궁(妃宮)이 홍서(薨逝)하였다는 부음(訃音)을 들은 지 5일이 되었으므로, 제복(祭服)을 입고 객관에 나아가 성복례(成服禮)를 행하였는데, 여러 관속(官屬) 및 향인(鄉人) 이윤직(李允植), 이경구(李經九), 장규진(張奎鎭)이 참석하였다.

○ 편장현(片章鉉)이 열차를 타고 내려왔다. 계묘년(1903) 뭇의 세금 2432냥에 대한 자문(尺文) 및 김치 항아리 하나를 가져 왔다. 들으니 열차가 어제부터 영등포(永登浦)를 6시에 출발하여 대구(大邱)에 도착하였다가 돌아서 오후 5시 30분에 통복포(通伏浦)에 도착하는데, 매일 한 차례 왕복한다고 하였다.

○ 근일 이 근처의 도적이 근심된다는 소문이 종종 귀에 들어와, 아사(衙舍)와 민가가 약간 밤이 깊어지면 아주 적막하였다. 그래서 이청(吏廳)에서 별도로 교리(校吏) 각 1인을 정해 저녁마다 위중(衛中)을 수직(守直)하게 하였다.

○ 16일, 어제 집안 편지를 보니, 늙은 아내가 병으로 여러 날 동안 아주 위중하였다가 어제 아침부터 조금 차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듣고는 매우 놀랍고 염려되어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다.

○ 지난번에 뽕나무 묘목을 나누어 줄 때, 관찰부의 훈령으로 각 면의 면장에게 신칙하여, 살림이 넉넉한 민호에 분배하여 방법대로 심어서 기어코 실효가 있게 하도록 효유(曉諭)하였다. 그런데 지금 전하는 말을 들으니, 심지어 매호마다 분배하였다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말을 만들어 각 면의 면장에게 신칙하였다.

“뽕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는 것은 오로지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다. 백성들이 만약 조금이라도 마음을 연다면 어찌 신칙하기를 기다린 뒤에야 권면되고 따르겠는가. 지금 상황은 위로 농상공부와 관찰부에서 백성들의 이익을 강구하여 몇 만 그루의 뽕나무 묘목을 비용을 들여 배송(排送)하되, 기한을 넉넉히 잡아 싼 값으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힘써 권면하고 있다. 그러니 결단코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방금 들으니 뽕나무 묘목을 분배하는 것이 곧 점을 치듯이 근만(勤慢)과 대소(大小)의 민호를 가리지 않고 모든 민호에 나누어 주고, 그들이 대강대강 가꾸고 심도록 방치하여 전혀 규정이 없다고 한다. 앞으로의 이익은 지금 우선 논하지 않더라도 위원(委員)이 조사하고 검사하는 상황에 이르면 장차 무어라고 대답하겠는가. 부득불 규정을 세우고 법을 만들어 기어코 착실하게 가꾸고 심도록 도모해야 한다. 또 각각 그 마을에 신칙해서 별도로 유사 한 사람을 정해서 각 민호를 통솔하여 가꾸고 심는 일을 전적으로 감독하게 하고, 모든 민호에 분배하는 것은 즉시 중지하라. 별도로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초실(稍實)한 민호를 택해서 해당 마을에 분배할 숫자를 알맞게 분정(分定)하여 재배하게 하라. 그러한 뒤에 유사 및 호주(戶主)의 성명과 뽕나무 몇 그루를 심었는지 성책(成冊)<sup>96)</sup>을 작성하여 군에 보고해서 관찰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통지하라.”

○ “일찍이 도적이 경보를 방어하기 위해 철창(鐵槍)과 나무 몽둥이를 집집마다 준비하라고 이미 관찰부의 훈령이 있어 규례를 정하였다. 또 향약에서 별도로 세운 규모와 앞에서 말한 도적이 방어 준비는 이미 하나하나 점검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유독 읍내 면의 각 마을은 전혀 듣지 않고 훈령을 받들어 이행하는 데 자기 멋대로 대강대강 하고 있다. 향약은 공공(公共)의 논의인데 어찌 유독 어긴단 말인가. 일의 체모를 생각해 보건대 아주 개탄스럽다. 훈령이 이르는 대로 즉시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읍내 면의 면장에게 고시하라.”

○ 측간 앞에 얼굴을 가리기 위해 신이화(辛夷花) 나무를 나란히 심었는데, 들성들 성해서 가릴 수 없었다. 그래서 두죽(杜竹) 두 떨기를 캐다가 메꿔 심고, 열기설기 엮어서 푸른 병풍을 만드니 보기에 아주 좋았다.

○ 20일, 유태경(柳泰卿)이 서울 새문 밖에서 5시 반에 열차를 타고 출발하여 6시

96) 어떤 사안에 따른 인적 사항이나 세부 조목 등을 분류하여 정리한 명단이나 목록을 말한다.

에 영등포(永登浦)에 도착하였고, 7시 15분에 또 출발하여 내려왔다. 그가 가져온 집안 편지를 보니 늙은 아내의 병은 바로 감기로 인해 손상된 것인데, 요즘 사물탕(四物湯)<sup>97)</sup> 등의 약제를 복용하여 어제부터 쾌차하여 나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여러 날 근심하던 터라 이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없었다. 계묘년(1903) 뭇의 세금 3935냥 3전 5푼에 대한 자문 한 장이 내려왔다.

○ 서울 소식에 특별히 조서가 내려와, 의정부 대신들이 빈청(賓廳)에 모여 비궁(妃宮)의 시호를 다시 의논하여 정해 ‘순명(純明)’으로 조칙을 받들었다고 한다. 유강원(裕康園)은 마장리(馬場里) 용마산(龍馬山) 아래 내동(內洞)으로 결정하였다. 15일에 세 차례 간심(看審)한 뒤에 봉표(封標)하고, 17일에 공역을 시작하여 11월 29일 묘시에 현궁(玄宮)<sup>98)</sup>에 내릴 계획으로, 빈청에서 날짜를 택하였다고 하였다.

○ 계묘년(1903) 뭇의 세금과 남은 뭇 540냥, 추호전(秋戶錢), 갑진년(1904) 춘호전(春戶錢)을 마감하기 위해 하리(下吏) 편장현(片章鉉)을 서울 집으로 올려 보냈다. 박건모(朴健模)도 인천항(仁川港)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함께 올라갔다.

○ 동창(東倉)의 사미(社米)를 직접 거두기 위해 밖으로 나가서 18섬의 쌀을 거두었는데, 빗갈이 작년에 비해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별도로 신칙하여 아직 납부하지 못한 소작인을 뽑아 보고하도록 분부하였다. 발길을 돌려 읍창(邑倉)으로 가다가 도중에 복통으로 관아로 돌아왔다. 해당 색리를 대신 보내 일체 감독하게 하였다.

○ 들으니, 경대정리(慶大井里) 오원근(吳元根)이 그 아버지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근래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오래도록 편찮으시다고 하면서 집에서 만든

97) 모든 혈병 및 월경 관련 증상에 사용하는 처방. 당귀·천궁·백작약·속지황 각 5g으로 되어 있으며, 이 처방에다 인삼·백출·백복령·감초 각 5g을 보태면 기(氣)와 혈(血)을 보해주는 팔진탕(八珍湯)이 되고, 사물탕에 황금·황백·감초를 보태면 음허조열(陰虛燥熱)을 치료하는 삼황사물탕(三黃四物湯)이 된다. 이 처방은 혈병의 모든 증상을 치료하며, 한방에서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다.

98) 왕이나 왕비의 관을 묻는 광중(壙中)을 말한다. 재궁(梓宮)이 들어가므로 현궁이라고 한다.

담배 20파(把)를 부쳐 왔다고 하였다. 낮때 순교청(巡校廳)에서 시사(時祀)를 지낸 음식을 들여왔으므로 오원근과 함께 먹었다. 돌아갈 때에 필요한 노자 10냥, 소금 3말, 석화염(石花鹽)<sup>99)</sup> 3기(器) 1항(缸), 양황(洋黃) 1봉(封)을 편지와 함께 주면서 사례하였다.

○ 박건모(朴健模)가 인천항(仁川港)에서 영등포(永登浦)에 도착하여 편장현(片章鉉)을 만나서 인천항에 대신 보내고, 들고 온 집안 편지 및 계묘년(1903) 세금과 남은 뭇 520냥, 계묘년 추호전(秋戶錢)과 갑진년(1904) 춘호전(春戶錢) 각 1233냥에 대한 자문 도합 4장, 사물탕(四物湯)<sup>100)</sup> 20첩(貼)을 가지고 왔다. 아들 극선(克善)의 편지를 보니 늙은 아내의 병이 근래 회복되었다고 하니 아주 다행이다.

○ 전서(磚西) 노안당(老安堂) 정경부인(貞敬夫人)이 어제 신시(申時)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였다. 깜짝 놀란 나머지 절로 기가 막혀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 문안하고 위로하였다.

## ◆ 11월

○ 1일. 지난번 도적을 방어하는 일로 각 면의 면장과 만나 면유(面諭)하고, 또 온 군에 신칙하여 향중(鄉中)에서 좋은 계책을 충분히 상의하여 각각 자신의 마을에서 별도로 철창과 몽둥이를 만들고 또 절목을 완성하여 각 마을에 나누어 주게 하였다. 그랬더니 지난달 초에 각 면의 약장(約長)이 철창과 몽둥이를 하나하나 점검하였다고 하였다.

99) 석화염이란 소금으로 끓인 굴껍데기를 불에 구워 가루로 만든 것이다. 이 가루는 도한(盜汗·잠자는 동안 저절로 나오는 식은 땀), 몽설(夢泄·잠자는 동안 정액을 흘리는 증세·泄精), 여자의 대하 치료 등에 쓰였다.

100) 속지황·백작약·천궁·당귀를 넣어 달여 만든 탕약인데, 보혈(補血) 작용을 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부인병 치료에 쓴다.

그런데 유독 읍내 다섯 마을에는 애초에 통제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해당 면장에게 고시하여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신칙하였다. 그런데 또 보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으니 그 나쁜 버릇이 놀라울 정도였다. 해당 면장을 우선 별도로 부과(附過)<sup>101</sup>하고, 교리들로 하여금 철창과 몽둥이 만드는 것을 감독하여 일체 준비하고 간품(看品)하게 하도록 분부하였다.

○ 춘천(春川) 광덕(廣德)의 김택수(金宅洙)가 와서 보았다. 순칠(舜七), 평백(平伯) 무리와 종종 종유하고, 몇 해 전에 광악산(廣岳山)에 인삼을 심었는데 올가을에 캐다 말려서 방매(放賣)하기 위해 가지고 왔다고 하였다. 그래서 오십편삼(五十片參) 1근을 35냥에, 무편삼(無片參) 1근을 9냥에 구매하였다.

○ 승려 우룡(雨龍)과 잠이(岑二)가 다시마와 산적 1그릇을 가지고 왔다. 우룡이 말하였다.

“올봄에 하동(河東) 쌍계사(雙溪寺)에서 출발하여 기호(畿湖)의 이름난 사찰을 두루 보다가 이 절에 도착하였는데, 이 절의 주지 잠이는 바로 스승과 형제간이었습니다. 장차 함께 머물며 염불(念佛)하면서 겨울을 보내고 산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상이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또 몇 해 전에 도적의 번고를 여러 차례 만나 금상(金像)의 상태가 사중(師衆)들이 차마 우리러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장차 재물을 모아 금을 바꾸려고 하였으나 관령(官令)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공덕(功德)을 쌓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대답하였다.

“작년 가을 경엽(慶燁)이 감히 불량한 마음을 내어 재물 천여 금을 거두어들인 뒤에 도주하였소. 또 내가 예전 여수(麗水)에 있을 때 흥국사(興國寺) 강사인 각해당(覺海堂)과 도(道)를 묻고 강론을 들으면서 아주 잘 지냈네. 마침 영선암(靈仙庵)이 불에 타서 재물을 모을 방법을 강구하여, 사찰을 건축하고 불상(佛像)·가사(袈裟)를

한껏 새롭게 하기 위해 특별히 권연(勸緣)<sup>102</sup>하는 글을 보내 3천여 금의 재물을 모아 겨우 암자를 수리하였소. 그런데 추후에 들으니, 기꺼이 따르는 자가 많지 않아서 금을 바꾸고 가사를 제작하는 일이 중지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소. 이러한 일들이 아주 좋은 일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먼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즐거워하는지 궁구한 뒤에 서서히 도모하는 것이 좋겠소.”

○ 우룡(雨龍) 선사의 깊은 지혜와 오묘한 뜻은 진솔하고 온축되어 들을 만한 것이 많았고, 또 산천을 유람하면서 명승을 실컷 보았다고 하였다. 일찍이 명사(名士)와 고승(高僧)들과 서로 종유하며 자못 강해(講解)하고 수창(酬唱)한 시가 이미 여러 권이나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가 암송한 황매천(黃梅泉, 황현)의 시에 차운하여 읊시 한 수를 지어 주었다.

○ 내리창(內里倉)에 직접 사미(社米)를 거두기 위해 나가자, 수서기(首書記)가 배종(陪從)하였다. 경정리(鯨井里)에 들어가 홍 응교(洪應教)를 문상(問喪)하고, 이어 사창에 가니 거두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이 8섬이었다. 2시각을 앉아서 기다렸는데 와서 바친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사수(社首) 등과 마주하여 특별히 엄하게 신칙하였다.

밭길을 돌려 두정리(斗井里) 김용상(金容商)의 집으로 가서 잠시 쉬다가, 여러 김씨(金氏)와 회포를 풀고 저물녘에 관아로 돌아왔다. 읍창(邑倉)에서 지금까지 거둔 것이 14섬이고 거두지 못한 것이 7섬이라고 보고해 왔다. 그래서 앞으로 날을 배정하여 거두도록 독려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 김용상(金容商)의 집에서 국수 상을 춘수루(春水樓)에 들여와 또한 함께 먹었으니, 뜻밖이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 사례하고, 수서기(首書記) 및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01) 관리나 군병의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에 곧 처벌하지 않고 관원 명부에 적어 두는 일. 6월과 12월의 고적 시(考績時)에 이것을 참고 하였다.

102) 권연(勸緣)이 저본에는 '권연(勸演)'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고려하여 '연(演)'을 '연(緣)'으로 수정하였다.

○ 수서기(首書記)가 찹쌀과 식염(食鹽) 한 항아리를 이바지해 왔는데 맛이 아주 달았다. 한번 현기증을 앓은 뒤로 늘 낮잠이나 한밤중에 위(胃)가 허하고 입이 말라 종종 땀가 먹고 싶었지만 특별히 먹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서글프게 외로운 관사에서 또한 괴로움이 더해졌는데, 이번에 보내준 음식은 나의 마음을 잘 헤아린 것이었다.

○ 전서(磚西) 노안당(老安堂) 정경부인(貞敬夫人)의 장례(葬禮)는 이달 22일 진시(辰時)로 잡아서 용인(龍仁) 하동촌(下東村) 쌍괴정(雙槐亭) 황사 상공(黃史相公, 민규호(閔奎鎬))의 선영에 합장(合葬)한다고 하였다.

○ 12일, 미시(未時) 정각에 삭발한 나그네 두 명이 명첩(名帖)을 가지고 와서 만나 보기를 요구하였다. 그래서 접견하였더니 한 사람은 사동(寺洞)에 사는 박용윤(朴容允)이고, 한 사람은 필동(筆洞)에 사는 김완섭(金完燮)이었다.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누며 말하기를,

“본인은 바로 일진회(一進會) 회원으로, 13도(道) 각 군(郡)에 지사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 본 회사의 공함(公函)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는 공함을 내보이며 또 말하였다.

“회원들이 오늘 단란하게 모였으니 사람들에게 연설(演說)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미 지회 사무소를 설립한 이상, 회원들은 종당(從當) 군하(郡下)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무릇 관민(官民) 간에 시행하는 일에는 상호 규칙이 있으니, 반드시 갈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나갔다.

○ 신시(申時)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일진회의 지사(支社) 회원으로 삭발한 사람 26명이 일제히 객사(客舍) 앞에 모였고, 또 신입 회원 3명이 마당에서 삭발하였다. 또 4대 강령과 조목을 썼다. 그날 오후 2시에 개회(開會)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이 왔다. 요청하는 문건 2장을 가게 벽에 걸어 붙인 뒤에, 일제히 관(冠)을 벗었

다. 그리고는 머리를 조아린 뒤에 이렇게 연설했다고 한다.

“황실(皇室)을 존중하고 독립의 기초를 공고히 다져야 합니다. 우리 황실은 당당한 독립국인데, 밖으로는 독립국이라는 이름이 있으면서도 안으로는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이는 어째서이겠습니까? 정부의 압제가 너무 심한 탓에 백성들의 원기(元氣)가 이미 고갈되어, 민심이 저마다 흩어져서 나라를 사랑하는 정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일심으로 단결하여 일체 단합한다면 어찌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본이 견고하면 독립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 자연 공고해질 것입니다.

정치를 개선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개선이라는 것은 오직 정부의 수단에 달려 있지, 백성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도탄(塗炭)에 빠진 생명(生靈)들은 오직 정부가 우리 백성들을 물과 불 속에서 구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실시하도록 청원하고 권고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생명과 재산으로 말하자면 백성들이 건강을 지키고 재산을 늘리려고 한지가 오래입니다. 정부의 압제를 논하지 않더라도 탐학을 일삼는 상황에서는 생명이 억울하게 죽거나 재산을 강제로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13부(府)의 백성을 통틀어 계산해보면, 모래알을 세고 바닷물을 헤아리는 것처럼 이루 셀 수 없이 많지만, 개명(開明)한 나라의 정치 체제에 견주어보면 그 정치가 과연 어떻습니까. 그래서 개명한 나라의 정치 체제를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동맹국 간의 일은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이는 동양 3국의 대의(大義)입니다. 동맹국의 의리로 볼 때 마음과 힘을 다하여 비록 아주 작은 힘이라도 의리로써 서로 도와야 합니다. 단발(斷髮)은 일심으로 단결하여 개명한 바탕에서 진보하기 위한 제일의 첫걸음입니다.”

○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 회원은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13도 각 군에서 차례대로 응하여 나와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2천만 동포가 절로 하나로 단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집에서 한 줄기의 벚꽃을 모아다가 한 단을 이룬 뒤

에 엮어서 새끼줄을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비록 끊으려고 해도 어찌 쉽겠습니까.

일본과 러시아가 개전(開戰)한 이래로 허다한 비용을 민회(民會)에서 맡아서 보조하고 있으니, 이는 실로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정성이고, 또한 순망치한(辱亡齒寒)의 형세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들이 맨손으로 하늘을 들고 있어 마치 우매한 듯 보이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 성(城)을 이룬다면 한쪽은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노잣돈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한다면, 또한 애국의 한 방법입니다. 설령 무기를 쥐고서 총 기술을 단련한다면 생각건대 생각지도 못한 일이 그 안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속담에서 말한 ‘매를 잡아 길들여 잡아두면 반드시 꿩이 닭을 다 잡아채간다.’라는 비유가 이것입니다. 또 고운 옷을 새로 입으면 반드시 깨끗한 곳을 택하여 생활하고, 오래도록 때가 낀 옷을 입은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스스로를 내맡기기 십상이니, 이것은 우리들이 경계하고 조심하여 새겨 간직해야 할 것들입니다. 다만 원컨대 여러 분들은 일심으로 나라에 보답하여 기어코 기초를 공고히 다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어 폐회(閉會)하였다고 한다.

○ 박희룡(朴喜龍)이 중화학교(中化學校) 학원(學員)으로 참여하게 되어 오늘 상경하는데,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의복과 음식을 친지에게 의탁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집에 편지를 써서 부쳐 보낼 계획이었는데, 이미 출발하여 인편을 놓쳤으므로 우편으로 부쳐 보냈다.

○ 일진회(一進會) 지회장(支會長) 한세교(韓世敎), 부장(副長) 김흥렬(金興烈) 이하 5인은 우선 사무소에 머무르고, 나머지는 혹 상경하거나 목천(木川)으로 갔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실대로 관찰부에 보고하였다.

○ 15일. 오늘은 명헌태후(明憲太后)<sup>103)</sup>의 연제일(練祭日)<sup>104)</sup>이다. 순명비궁(純明妃宮)의 졸곡(卒哭) 전에는 제사를 지낼 수 없어서, 다시 졸곡이 끝난 뒤에 날짜를 잡아 예를 행하겠다고 하였다. 근간에 현기증으로 근 10일 의관을 정제하지 못해 망곡례(望哭禮)의 절차를 부득이 권정례(權停例)로 행하였으니, 너무도 송구하고 한탄스러운 마음 간절하다.

○ 충남 진보회장(進步會長) 장정환(張靖煥)과 부회장 김태식(金泰植)이 공함(公函)에, ‘또 통문 한 통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공함으로 전하니, 청(廳)을 만들면 등사(謄寫)하여 귀 군의 각 면에 배포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널리 퍼트리지 않는다면 조사하는 날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 신시(申時)에 이윤직(李允植)이 와서 말하였다.

“각 면에서 만든 창과 몽둥이를 관아 앞에서 한 차례 점고(點考)하지 않을 수 없기에 오늘 와서 모이라고 통지하였습니다. 4개 면은 모두 모였지만, 오직 읍내의 면과 소북면(小北面) 2개의 면은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2개 면 때문에 시일을 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점고한 뒤에 효유(曉諭)하여 내 보내게 하였다.

○ 내가 각 면의 면장을 보고 말하였다.

“읍내의 면은 다른 면과 현격히 다르지만, 당초에 창과 몽둥이를 마련하도록 통지할 때 해당 면장이 읍하의 사람들에게 신칙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득이 내가 직접 신칙하고 해당 면장은 별도로 부과(附過)하였다. 그런데 오늘도 와서 참여하지 않으니 해당 면장의 행태가 심히 해괴망측하다. 또 소북면(小北面)은 10리의 땅에 불과하지만 다른 면과 동일하기에 다방면으로 신칙하였는데 한 번도 거행하지 않으니,

103) 현종의 계비(繼妃).

104) 기년(期年)에 지내는 제사이니, 초상에서 13개월 만에 지낸다.

해당 면장을 심상하게 둘 수 없다. 특별히 향약에서 초치한 두 면장을 별도로 단속하라.”

○ 이윤직(李允植)이 그의 재종(再從) 이민직(李敏植)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민직이 평소에 의약(醫藥)에 밝아 나를 위해 병을 장차 진맥(診脈)하고서 처방해 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날이 이미 저물어 진맥할 수 없을 듯하기에 춘수루(春水樓)에 유숙하게 하였다.

다음날 일찍 진맥한 뒤에, ‘풍화(風火)로 인해 수(水)의 기운이 마르고 목(木)의 기운이 저린다’고 하면서 삼재부정음(三才扶正飲) 20첩을 처방해 주었다. 그래서 약을 지어 복용하기 위해 우편으로 서울 집에 편지를 부쳤다.

○ 전서(磚西) (정경부인의) 용인(龍仁) 장례 때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근래 현기증이 더 심해져 방문을 출입하는 것도 실로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부득이 편지로 대신 마음을 전하고, 또 제수(祭需) 한 소반을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형편상 또한 마련할 수 없었다.

어제 듣기로 ‘강원석(姜畹石)이 내일 출발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편지 세 통을 쓰고, 또 제수를 준비하는 대신 돈 1백 냥을 아들 익선(翼善)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강원석의 집에 가서 직접 만나 사정을 진술하라고 부쳐 보냈다.

○ 박건모(朴健模)가 등자(橙子) 1개를 가지고 왔다. 등자는 귤과 비슷한 종류로, 크기는 술잔만 하고 꽃은 황색이며 껍질은 두껍고 향기는 짙었다. 어떤 방법으로 생산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처음 보고 처음 맛보는 과일이었다. 옛 사람의 시에 “가냘픈 손으로 쪼갤 때에는 향이 가지지 않고, 황금 속살이 나뉜 곳에는 맛이 살짝 시구나.[纖手擘時香不去, 金穰分處味微酸.]”라고 한 것이 이 등자를 묘사한 것이다.

○ 지난달 20일 쯤에 근효곡(勤孝谷)의 정태신(鄭泰新)이 정태형(鄭泰亨) 처의 장지(葬地)를 사굴(私掘)한 일이 있었다. 원고가 소송하였으므로 피고를 잡아 가둔 뒤

에, 법대로 관찰부에 보고하여 감처(勘處)<sup>105</sup>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 족인(族人) 정태영(鄭泰瑛)이 누차 와서 말하였다.

“문중 내에서 소송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해서 안 되겠기에, 종중(宗中)에서 회의를 하여 개인끼리 좋게 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또 ‘개인끼리 좋게 풀라고 했다’고 정장(呈狀)<sup>106</sup>하였다. 그러나 원래 사굴에 대한 안건은 아주 신중히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안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고, 또 문중에서 정단(呈單)<sup>107</sup>하였다. 그래서 특별히 소송이 없도록 하는 뜻을 생각하여 피고 정태신과 타결을 보아 풀어 보내겠다는 판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오늘 손시(巽時)는 바로 순명비 전하(純明妃殿下)의 발인(發引) 일시이다. 마땅히 객사에서 망곡례(望哭禮)를 행해야 하는데, 끝내 상부(上府)의 지시를 받지 못하였으니 매우 의아스럽다.

29일. 오늘 묘시에 하관(下棺)을 하였다. 미처 공문이 도착하지는 않았으나, 인정과 예의상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워 객사에 나아가 망곡례(望哭禮)를 행하였다.

○ 순명비 전하(純明妃殿下)의 발인(發引) 때 및 하관(下棺) 때와 내달 3일 졸곡(卒哭) 때에 망곡례(望哭禮)에 관한 일로 훈령이 이제야 도착하였다. 이러한 전례(典禮)는 과연 얼마나 중대한데 상부의 지시가 이렇게 허술하단 말인가. 깊이 개탄스럽다.

○ 관찰부의 비밀 훈령에, ‘아산군(牙山郡)의 공세창(貢稅倉)에서 죽은 남자 박정보(朴正甫)의 옥사(獄事)는 이미 초검을 시행하였으니, 복검관은 군수로 차정해서 속히 가라’고 하였다.

105) 형률(刑律)에 비추어 죄목을 감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06) 관청에 내는 소장(訴狀)으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사유를 써서 올리는 글을 말한다.

107) 관아에 명단이나 단자를 제출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형식이 달라진다.

현재 현기증으로 한 달 넘게 신음하고 고생하느라 공무를 폐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검관으로 가라는 기별이 있었다. 형편상 사실대로 탈(頓)을 보고한 뒤에 그만두어야 하나, 번번이 이렇게 보고하면 마치 피혐(避嫌)을 피하는 점이 있을 듯하였다. 내 직분을 생각해보건대 매우 근심스럽기 그지없다.

○ 유태경(柳泰卿)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그가 가져온 집안 편지를 보니 대체로 편안하였다. 그와 함께 세금 중 5877냥 3전 5푼에 대한 자문 1장 및 삼재부정음(三才扶正飮) 약재가 내려왔다.

## ◆ 12월

○ 1일(을사). 소한(小寒). 공주(公州)에서 전해 온 이야기를 들으니 다음과 같았다. 지난달 20일쯤에 일진회(一進會) 회원 수백 명이 부하(府下)에 모여든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다. 그러자 해당 군의 유회(儒會)에서 모집한 무뢰배 수백 명이 저마다 모가 난 몽둥이를 들고 일진회 회원들을 때렸다. 회원들이 일제히 출행량을 쳐서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고 숨었는데, 그 과정에서 금강(錦江)을 건너려고 하다가 위급하여 물에 떨어져서 죽은 자가 있었고, 회장 이하 중상을 입은 자도 매우 많았다. 의복과 물건, 노жат돈을 전부 잃었고, 심지어는 해당 회원이 머무르고 있는 점막(店幕)도 모두 때려 부수었다고 하였다.

○ (11월) 30일 《황성신보(皇城新報)》에 실린 여순(旅順) 함락에 대한 기사를 보니 다음과 같았다. 양력 1월 1일 오후 8시에 일본군이 이고산(二孤山)을 점령하여 포탄이 비처럼 퍼붓자 러시아 여순 수장(守將) 스티셀 장군이 그날 9시쯤에 일본군에 항복서를 보냈다. 이후에 남아 있는 수뢰정(水雷艇) 4척에 석유를 부어 일제히 폭침(爆沈)시키고, 군사(軍舍), 방고(房庫), 군기(軍器), 물건을 모조리 폭발시켰다. 이어 화

약고 위에 앉아 불을 질러 타 죽었다. 항복서 중에는 일본군에 청구한 두어 항목이 있었다. 일본군 사령부에서 모두 전보로 일본 천황 폐하께 전달하자, 전보로 신칙하였다.

“러시아 장군이 수개월 동안 성을 닫고 굳게 지켰으니 지극히 가상하다. 특별히 보호하라.”

그저께 오후 3시에 천황 폐하가 또 전보로 일본군 사령부에 신칙한 내용이 일본 공관(公館)에 도착하였다.

그날 니현(泥岬)에 사는 일본 사람들이 여순을 항복 받은 일로 축첩회(祝捷會)를 행하였다. 소나무 가지를 가져다 길거리에 높다랗게 얹어서 엮고 태양기(太陽旗)를 올렸는데, 거기에 특별히 ‘여순함락축첩회(旅順陷落祝捷會)’ 7자를 썼다. 또 각색의 채색 등(燈)을 널리 걸어 놓으니 상하가 온통 붉은 빛이라 마치 태양과 같았다. 또 불을 밝혀 공놀이를 하고 창기(娼妓)가 음악을 연주하며 종과 북소리가 진동하니, 몰려든 남녀노소가 길거리에 가득하여 천지를 들썩이게 하고 관광하는 모습이 굉장하였다. 일진회(一進會) 회원들이 일제히 손으로 수박 모양의 등을 들고 축첩의 기쁨을 표시하였다고 하였다.

○ 4일. 김지수(金智洙)가 서울에서 왔기에, 손자 유영(惟泳)이 쓴 편지를 보았다. 삼재부정음(三才扶正飮)을 지금까지 8첩을 먹었는데 조금도 두드러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태관(李泰寬)을 오도록 청하여 진맥하게 하였다. 이태관이 진맥한 뒤에 다시 ‘가미이진탕(加味二陳湯) 5첩을 달여 복용하라.’고 처방하였다.

○ 5일. 아산(牙山)의 복검(覆檢)에 대해 탈(頓)이 있다고 보고한<sup>108)</sup> 문서에 대한 회답을 보니, 탈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현재의 병 상태로는 펼쳐 일어날 수 없지만 여러 차례 논의에서 모두 안 된다고 말하였으므로 더는 탈이 있다고 보고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며칠간 병이 조금 차도가 있기를 기다린 뒤에 속히 가서

108) 어떤 사정에 의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상사(上司)에게 청하는 일.

일을 처리하겠다고 우선 안전을 보류하고, 복검하기 위해 서신을 보내 천안(天安)의 전후식(田后植)에게 요청하였다.

○ 6일에 전후식이 열차를 타고 도착하였다. 그래서 그를 향장(鄕長)의 집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 포의단(褒義壇, 포의사)은 바로 삼학사(三學士)를 위해 사원(祠院)을 세워 향사(享祀)하는 곳인데, 한번 훼손된 뒤로는 그저 유허만 남아 있어서 개탄한 지 오래였다. 그 뒤에 다시 조정의 명을 받아 제단을 설치하였는데, 사림(士林)들이 봄가을로 분향하고부터는 또 올봄에 담을 쌓고 문을 설치하였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록해서 붙여 게시하고 관각하였으니, 지난 자취를 생각함에 어찌 현인을 흠모하는 정성이 없겠는가. 이에 10원의 은(銀)을 출연하여 계모임에 넘겨주어 본전은 두고 이자를 불려서 보태 쓰도록 유사 등에게 효유(曉諭)하였다.

○ 9일, 아산(牙山) 복검관(覆檢官)의 지령에 대한 안전을 보류한 지 지금 여러 날이 지났으므로, 형편상 지금 가서 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시(巳時)에 출발하여 아산군으로 가다가 10리 떨어져 있는 신성리(新成里) 박건모(朴健模)의 집에 도착하여 잠시 쉬고 있는데 점심을 차려 왔다. 그의 아들 상봉(祥鳳)이 와서 절하고 과일을 나누어 주었다.

○ 아산군(牙山郡)의 치소(治所) 앞에는 큰 숲이 있고, 길옆에는 한 길 남짓의 석미륵(石彌勒)이 드러난 채로 서 있었다. 지나는 곳 30리 사이에는 산들이 도로를 끼고 뺨뺨이 서 있고 별도로 인가는 없으며 전답은 척박하였다. 숲을 지나 정문각(旌門閣) 앞에 이르니 고을 사람들이 맞이하여 봉행(奉行)하였다. 백여 보를 가니 바로 시장이었다. 마침 장날이었는데 특별히 볼 만한 것이 없고 모인 사람도 거의 없었다. 계속해서 인가가 있고 좁은 길로 수백여 보(步) 땅에는 간간이 유애비(遺愛碑)가 있었다. 달힌 문루(門樓)에 도착하니 ‘여민루(慮民樓)’ 세 글자로 편액하였고, 북쪽 옆

에는 바로 객사인데 아주관(牙州館)이라 편액하였다. 또 그 앞에 추청(秋廳)이 있었다. 관문(官門)을 지나 장청(將廳)에 들어가 여장을 풀었는데 좌치당(佐治堂)이라 편액하였다. 바로 관문의 남쪽 측면이었다.

잠시 후에 본군의 수교(首校)와 수서기(首書記) 등이 함께 와서 알현하였다. 본관(本官) 이병협(李秉協)은 지난달 10일쯤에 의효전(懿孝殿)<sup>109</sup> 진향 차사원(進香差使員)으로 상경하였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온양 군수(溫陽郡守) 권중억(權重億)이 겸직하고 있었다. 관청에서 술상을 올렸다. 데리고 온 일행은 추청에 여장을 풀었다.

○ 10리 떨어진 공세창(貢稅倉)으로 나가니, 바로 전날 각 고을에서 봉납(捧納)한 세미(稅米)를 꾸러 싣고 있었다. 인가는 꼭 100호이고 인물이 번성하였다. 내가 예전에 이곳을 지나가다가 조 진사(曹進士)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 전에 비해 썰렁한 모습이였다.

뒤 언덕에는 집 하나를 건축하였는데, 담장 안에 조성한 기와집은 서너 개이고 지붕 가장 앞 머리에는 2층 집을 건축하였는데 한 곳은 ‘요망대(瞭望臺)’라고 하였다. 대개 조성한 집이 그다지 굉장하지는 않았다. 프랑스 선교사(宣教師) 성일론(成一論)<sup>110</sup>이 거주하는 곳인데, 이 마을은 서교(西教)에 입학한 사람이 수십여 호라고 하였다.

이어 내려와서 김석희(金錫熙)의 집에 머물렀다. 주인이 들어와 보고 정성스럽게 대해주었다. 술상을 차려 올리고 계속에서 점심을 제공하였다. 대개 이 사람은 평소 안면이 없는데도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대해주었고, 또 데리고 온 사람들의 점심 요기도 모두 해결해 주었다고 하였다. 폐가 될까 편치 않았지만 매우 다감하였다.

109) 황태자비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 민씨(閔氏)의 신주를 모시고 혼전 의례를 거행한 전각이라 의효전이라 불렀다. 처음에는 경북 공북서쪽에 있는 문경전에 설치하였는데, 시기에 따라 경운궁(덕수궁), 창덕궁으로 정소를 옮겼다.

110)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천주교 사제인 에밀 피에르 드비즈(Emile Pierre Devise 1871~1933, 세례명 에밀리오) 신부인데, 충청남도 아산시 공세리 성당 주임신부로 재직하였다.

○ 현재 검시 약물(檢尸藥物)을 즉시 대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이어 신칙하였는데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본군의 수형리(首刑吏)를 잡아들여 별도로 엄하게 신칙하였다. 이른바 해당 아전은 만취하여 인사불성이라 엄하게 장(杖)을 쳐 나쁜 버릇을 징계해야 하지만, 우선 그대로 두게 하였다. 신시(申時) 초각(初刻)에 처음으로 검험(檢驗)<sup>111)</sup>을 행하여 저녁이 다 되어서야 마치고 도로 봉쇄(封鎖)하였다.

○ 수직(守直) 등의 발괄(白活)<sup>112)</sup>에 ‘우리들이 시신을 맡고 있는 지가 지금까지 20여 일이 되었으므로 감내하지 못하겠으니, 교대하여 돌아가면서 맡게 해 주소서.’ 하고 하소연하였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다.

“수직 등의 일은 본래 검관이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반드시 본 고을에서 별도로 정해 살펴 검사해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변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들이 줄곧 애처롭게 하소연하기에 즉시 본군의 수형리를 불렀더니, 술에 취하여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다시 말하였다.

“수직 등의 일은 마땅히 너희 군에서 신칙해야 하나, 저들이 누차 사정(私情)을 아뢰니 듣기에 너무도 안타깝다. 즉시 변통하여 돌아가면서 맡도록 하라.”

하고 분부할 즈음에, 문득 두 사람이 바깥에서 갑자기 뛰어 들어왔다고 하였다. 그 중 한 사람이 ‘옥변(獄變) 이후로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 숨고 가산을 탕진하여 거처를 마련할 수 없어, 과연 바꾸어 세울 방도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다.

“이번에 검관이 이곳에 와서 애초에 어느 한 사람에게도 초대하라는 명을 내린 일이 없었고, 검험을 행할 때에는 온 마을이 모여서 구경한 사람이 거의 백여 명에 가깝다. 만약 너의 마을에 폐를 끼쳤다면 어찌 한 사람이라도 볼 면목이 있겠느냐. 저들의 하소연을 듣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이미 들은 이상, 이 또한 불쌍하다. 반드시

잘 조치하여 기어코 돌아가면서 교대하여 정하라.”

하고 분부하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허다하게 드는 비용을 실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과연 개차(改差)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말뜻이 아주 공손치 못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너도 이 마을 사람이다. 이곳에 들어온 자로 즉시 교체하여 세우도록 다짐을 받아라.”

하니, 좌우에서 구경하는 자들이 아주 통쾌해 하였다. 이어 군으로 돌아왔다.

○ 11일, 죄인을 문초(問招)하였다. 죽음에 이른 남자는 양성(陽城)에 사는 박정보(朴正甫)이다. 지난 달 ○○일에 현내면(縣內面)의 조세를 내는 곳에서 박치관(朴致官) 부자(父子)에게 구타를 당하여 16일에 죽게 된 일이었다.

○ 이 고을의 형세를 두루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주산(主山)인 학교산(鶴橋山)은 영인산(靈仁山)을 마주 보고 수천(蓴川)은 동쪽에서 흘러나와 서쪽으로 돌아간다.

고을의 정당(政堂)은 자방(子方 북쪽)을 등지고 자리하였는데 근민당(近民堂)이라 편액하였고, 또 인민당(仁民堂), 개제현(凱梯軒)이라고 하였다. 정당의 서쪽 뜰에는 반송(盤松) 한 그루가 있는데 10여 칸을 가지가 뒤덮었고, 또 화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각 둘레가 두어 파(把 발)<sup>113)</sup>나 된다. 정당의 동쪽에는 책실(冊室)이 있고, 그 동쪽에는 내아당(內衙堂)이 있으며, 앞에는 내삼문(內三門)이 있고 또 중삼문(中三門)이 있는데 아주아문(牙州衙門)이라 편액하였다. 또 그 밖에는 여민루(慮民樓)가 있고, 안쪽에는 사령간(使令間)이 있으며, 관아의 북쪽에는 인리청(人吏廳)이 있다. 향교(鄕校)는 그 남쪽에 있고 그 아래에 사창(司倉)이 있다.

읍내의 5개 동(洞)은 153호이다. 아산군은 11개 면(面) 280개 동(洞)으로 호수(戶

111) 사람이 죽었을 때 사인(死因)을 밝혀내기 위해 담당 관원이 시체를 검시(檢屍)하고 검안서(檢案書)를 작성하던 일.

112) 관아에 억울한 사정을 글이나 말로 호소하는 것을 뜻하는 이두인데, 진정서나 청원서를 뜻한다.

113) 두 팔을 펴서 벌린 길이의 단위인데, 1파(把)는 10척(尺)이다.

數)는 총 2900호이고, 결총(結摠)<sup>114)</sup>은 총 2433결 63부(負) 3속(束)이다.<sup>115)</sup>

각 면(面)은 장시(場市)가 4곳, 포구(浦口)가 4곳이다. 아산군의 각 포구에서는 미곡(米穀)과 어염(漁鹽) 등을 판매하는데, 오직 백석포(白石浦) 한 곳만 일본의 증기선(蒸氣船)이 인천항(仁川港)에서 수시로 왕래한다고 한다.

사방으로 산이 겹쳐있고 중간에는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토질이 비옥하고, 남쪽에서 북쪽까지 바닷물이 서로 이어져 있어 배들이 몰려들므로 생활하기에 매우 좋아 백성들이 살기 좋은 곳이다. 인물로 보더라도 사대부(士大夫)의 고장이라고 이를 만하다.

읍지(邑誌)는 갑오전쟁에 청(淸)나라와 교전할 때 분실되어 사적(史蹟)을 상고할 수 없으니, 한탄스럽다.

○ “김성운(金聖云), 김영선(金永先), 김성순(金成順), 이명운(李明云)이 강두영(姜斗永) 등을 복종하여 섬겼다”는 말이 구두(口頭) 공초(供招)<sup>116)</sup>에서 나와 즉시 찾아내어 붙잡게 하였다. 그런데 선교사(宣敎師) 성일론(成一論)으로부터 공함(公函)이 왔는데, 잡아가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옥사의 체모는 매우 중대한데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공초에 따라 곡절을 조사하여 신문한 뒤에야 옥사가 바르게 되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숨겨지는 혐의가 없을 것이니, 막지 말고 즉시 압송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공함에 답하였다.

○ 15일, 본군(本郡)의 수서기(首書記)가 포폄 제목(褒貶題目)<sup>117)</sup>을 가지고 와서 보니, 본군은 중(中)을 맞았고, 평택(平澤)은 “노련한 수단으로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

114) 결복(結卜)이라고도 하니, 논밭의 총 면적이다.

115) 결(結), 부(負), 속(束)은 옛날 우리나라에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토지의 면적 단위이다. 신라 때에는 벼 한 줌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0부를 1결(結)이라 하였다. 고려 때에는 6치[寸]를 1분[分], 10분을 1척(尺), 6척을 1보(步)로 하여 35보 평방을 1결로 하였는데, 조선시대에는 1결을 35보 평방으로 확대하고 보척(步尺)의 기준을 주척(周尺)으로 정하였으며,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두어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에 따른 양전척(量田尺)을 정하였다.

116) 공사(供辭)라고도 하는데,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한 사연이다.

117) 수령의 치적에 대한 평가서인데, 각도의 관찰사가 평가하였다.

하겠는가.”라고 하여 ‘상(上)을 받았다. 생각건대, 내가 근일 정신이 어둡고 기력이 쇠하였는데도 이러한 포폄 제목을 받았으니<sup>118)</sup>—褒○○○-, 부끄러울 뿐이다.

○ 검안(檢案)을 다 쓰고 성첩(成貼)<sup>119)</sup>하여 공주부(公州府)로 보냈다. 전후식(田后植)의 집은 이곳에서 40리 떨어져 있어 형세상 곧바로 보내야 했는데, 본래 가난하고 한미한 사람으로 여러 날 고생하였으므로 마음이 매우 편치 않았다. 가져온 노자가 39냥만 남았으므로 그대로 주어 보냈다.

○ 오각(午刻)에 출발하여 쇠재점(釧載店)에 도착하여 잠시 쉬었다. 쇠재점 뒤에 하나의 돌산이 웅크리고 있어 ○○○에게 물었다.

“고용산(高聳山)인가? 내가 일찍이 《여지도설(輿地圖說)》<sup>120)</sup>을 통해 아산(牙山)의 고용산에서 옥돌이 생산된다고 알고 있어서 묻는 것이다. 이 산에 옥돌이 있는가?”

그 지방 사람이 대답하였다.

“저같이 어리석은 식견으로 옥돌이 곁에 있더라도 어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예로부터 기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토정 선생(土亭先生, 이지함)이 이 고을에 부임하였을 때 군(郡)의 치소(治所)가 건너편의 명내동(名內洞)에 있었으므로 아침저녁으로 항상 바라보며 매번 ‘재물 창고[財庫]’라고 칭하였습니다. 하루는 밤에 통인(通引) 1명을 데리고 몰래 이 산에 가서 몇 곳을 지적하며 말하기를, ‘이곳은 금맥[金穴]이고, 저곳은 은광(銀礦)이다.’라고 하자, 통인이 묻기를,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아시면 어찌 채굴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하니, 토정 선생이 대답하기를, ‘비록 산에 보관한 물건이지만 재물 주인이 맡아 쓰는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니, 갑자기 옥심을 부러서는 안 된다. 주인이 아닌데도 차지한다면 필시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118) 1905년 2월 2일자 《황성신문》에 “平澤郡守 吳竒默 老練手段으로 何事不濟肅上”이라는 포폄 기사가 실렸다.

119) 문서에 수결(手決)을 두고 관인을 찍어서 마무리하는 것, 또는 완성된 문서를 말한다. 성첩(成貼)이라고도 한다.

120) 《여지도설(輿地圖說)》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지리책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제목의 지리책은 없다. 오형묵이 세계와 우리나라에 관하여 1893년에 편찬한 지리서 《여재촬요(輿載撮要)》를 가리킨다. 10권으로 된 사본과 5권으로 축소된 사본, 1권으로 요약된 목판본 등이 전한다.

너도 이 일을 소문내지 말거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누차 말했는데, 통인이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다가 혼자 가서 몰래 그 지형을 몇 차례 살핀 뒤에 시험 삼아 혈(穴) 한 곳을 캐보니, 은가루가 나와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정 선생의 신명(神明)함 때문에 감히 욕심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토정 선생은 항상 지네 즙(蜈蚣汁)을 복용한 뒤에 생밤 1개를 먹어 지네의 독을 제거하였는데, 통인이 감히 음흉한 마음을 품고 피를 내어 버드나무를 생밤 모양으로 깎아서 지네 즙을 올릴 때 이것도 같이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토정 선생이 죽고 말았습니다.<sup>121)</sup> 이 때문에 오늘날 군의 치소로 옮겼다고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토정 선생의 땅인데,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 이어 가다가 신시(申時)에 신성리(新成里) 박건모(朴健模)의 집에 도착하였다. 공형(公兄) 이하 서기(書記) 및 순교(巡校) 등이 모두 와서 기다렸다가 공주(公州)에서 온 포퓰 제목(褒貶題目)을 바친 뒤에 문안하고, 이어 술과 음식을 올렸다. 잠시 쉬다가 곧바로 출발하여-○○里- 동구에서 박내희(朴來熙)를 보내 박인규(朴仁圭)를 문안하게 하였다. 사거리(四巨里)에 이르렀을 때 향장(鄕長)<sup>122)</sup>이 말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하므로 사람을 시켜 위문하게 하였다. 사거리의 가게는 본래 두 집이었는데, 매년 도적의 근심으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나갈 때는 1호(戶)만 남아 있었는데, 그사이 또 빈 집이 되었다. 이는 도적들의 침략을 견디지 못해서라고 하니, 한탄스러운 일이다. 이어 관아에 돌아오니 시간은 바로 유시(酉時) 초2각(刻)이었다.

121) 이치함이 1578년에 아산현감으로 부임하여 결인청(乞人廳)을 만들어 일정한 정착지가 없는 결인들을 구제하였으며, 노약자와 기인(飢人)을 구호하였다. 그가 아산현감 재임중에 세상을 떠난 것은 사실인데, 《선조실록》 1578년 7월 1일 기사에 실린 그의 졸기(卒記)에 병이 들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다.

122) 조선시대에 지방의 자치 기구인 향청(鄕廳)의 우두머리로 수향(首鄕)·아관(亞官)이라고도 한다.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수령의 권력을 견제하면서 향원(鄕員)의 인사권과 행정 실무의 일부를 맡아보았다. 1895년에 향장(鄕長)으로 고치면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 내수사(內需司)<sup>123)</sup>의 사검관(查檢官) 현상국(玄相國)이 관찰부(觀察府)의 훈령(訓令)을 가지고 와서 보니, 바로-北○○○- 수원(水原) 재촌(梓村)의 교리(校理)<sup>124)</sup> 최한응(崔漢膺)의 장토(庄土)<sup>125)</sup>를 검사하는 일이었다. 공문(公文)대로 순교(巡校)와 색리(色吏) 각각 1명을 별도로 정하여 보냈다.

새해 전에 상경(上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관찰부에 휴가를 청하고, 또 관찰사 및 관찰부의 주인(主人)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 주사(主事) 김도묵(金道默)이 총판(摠辦)<sup>126)</sup> 윤택영(尹澤永)<sup>127)</sup>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감동(監董) 김영규(金永圭)를 통해 매입한 소북면(小北面) 서상천(徐相天)의 갯벌을 개간하여 만든 논 33만 4000냥 어치의 장토(庄土)에 대한 완문(完文)<sup>128)</sup>을 부탁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입안(立案)을 작성하여 주었다.

○ 일본 사람 무라카미 에이지로(村上榮治郎)와 요시카와 분지로(吉川文治郎) 두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근래 통복포(通伏浦) 보선사(保線社)에 머물고 있는데, 이와시타 게이자부로(巖下敬三郎)는 부강(美江)<sup>129)</sup>으로 이주(移住)하였고, 사쿠라이 무라오(櫻井邑雄)는 지난 달 그믐쯤에 영등포(永登浦)에서 죽었습니다.”

123) 조선시대 왕실 재정의 관리를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이조 소속의 정5품 아문(衙門)으로 왕실의 쌀·배·접화 및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124) 조선시대 집현전·홍문관·승문원·교서관 등의 정·종5품의 관직.

125) 논과 밭이다. 조선시대에 궁실과 왕실에서 분가한 궁가에 지급한 전토는 따로 궁장토(宮庄土)라고 하였다.

126) 조선 말기 통신원(通信院)의 최고관직. 1895년 의정부 관제개혁으로 농상공부에 속한 통신국(通信局)이 1900년 3월 통신원으로 변경되면서 최고책임자를 총판이라 하였다. 칙임관(勅任官) 1등 혹은 2등관이 이에 임용되어, 우체·전신·전화 및 그 보존건설, 선박·해원(海員) 및 항로표지와 정부가 보호하는 수운회사(水運會社) 및 그 밖의 수륙운수사업감독에 관한 법률, 칙령의 제정·폐지 및 개정과 기타 조약 등에 대하여 정부에 직접 제의하였다.

127) 윤택영(1876-1935)은 대한제국기 법무협판, 지돈령사사, 육군 참장 등을 역임한 관료이다. 대한제국 순종의 장인으로 조선의 마지막 부원군이며, 순정효황후의 친정아버지이자 윤덕영의 동생이다.

128) 증명·허가·명령 등 처분에 관하여 관사(官司)에서 공증하여 발급하는 문서.

129)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강 상류지역에 있었던 금강 수운의 가장 종점. 경부선을 가설할 때에 역을 설치했으며, 지금도 무궁화호가 정차하고, 부강화물선의 종점이다.

매우 참담하고 놀라웠다.

○ 승려 우룡(雨龍)이 곤포적(昆布炙)<sup>130)</sup>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근간에 정죽성(鄭竹醒)의 사관(私館)에 가서 수일 동안 정겹게 이야기 하고 시를 짓고 경서를 담론하였습니다.”

나는 달리 줄 만한 것이 없었기에 두루마리종이 2축(軸), 간필(簡筆) 2자루[柄], 진묵(眞墨) 1정(丁), 양황(洋黃) 1봉(封)을 주어 성의를 표시하였다.

○ 김계조(金繼祚)가 엇그제 서울에서 내려왔다가 오늘 아침에 돌아간다가에 돌아갈 때 쓸 노자 14냥을 주어 보냈다. 방벽하(方碧下) 아내의 소기(小期)<sup>131)</sup>가 엇그제 있었기 때문에 돈 2냥, 포(脯) 1첩(貼), 육촉(肉燭) 10자루와 편지를 써서 위문하였다.

○ 교임(校任)<sup>132)</sup>부터 각 면의 사수(社首)가 해당 면(面)의 면장(面長)을 검사하고 찰임(察任)하겠다고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물은 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 관찰부에 올린 휴가를 청한 문서에 대한 회답에, 15일을 기한으로 정하고 그동안 직산(稷山)<sup>133)</sup>에서 직무를 대행하게 하였으며, 답서(答書)도 함께 보내왔다.

○ 서면(西面)과 북면(北面) 대소(大小)의 백성을 대표하여 권백숙(權伯淑)과 최대원(崔大元) 등이 소장(訴狀)을 올렸다.

“북면 원정리(院井里)의 앞 들판과 서면 내리(內里)의 뒤 들판은 본래 육지로 만든

논인데 돌아가며 서로 매매하여-○○○于今日- 내수사(內需司) 소유의 논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일전에 사검관(查檢官)이 내려와 옛 갯벌을 개간하여 육지로 만든 3, 40섬지기의 백성 논을 일일이 측량한다고 하면서 빼앗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 사검관 현상국(玄相國)이 들어왔기에 내가 백성이 올린 소장(訴狀)의 일을 언급하니, 그가 말하였다.

“이번에 검사한 전답(田畓)은 바로 명혜공주방(明惠公主房)<sup>134)</sup>의 땅인데, 옛 양안(量案)<sup>135)</sup>대로 측량하니, 동쪽과 서쪽 4곳의 표시가 분명하였습니다. 흑석(黑石) 앞 들판과 24섬 7두 5되지기는 내리(內里), 동창(東倉), 원정(院井), 흑석의 4개 마을에 사는 각 사람들의 전답이고, 원봉(院峯) 동쪽 4섬 5마지기와 신환포 평(新換浦坪) 6섬 9마지기는 이상 최한웅(崔漢鷹) 집안의 장토(庄土)입니다. 각 마을의 사리를 아는 사람들과 공문에 따라 조사하여 집행하였으니, 어찌 원통하다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어 새 양안(量案)에 성첩(成貼)하고 갔다.

○ 올해 겨울 날씨는 춘삼월의 절기처럼 온화하고 또 눈 한 점도 내리지 않아 스스로 생각하기를, ‘노쇠한 병을 조리하여 떨치고 일어나기에 알맞다.’라고 여겼는데, 지금 연일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려 추위가 맹렬하니, 대개 이 세말의 극심한 추위가 그다지 괴이할 것이 없다. 그러나 마침 내일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때인데 우선 기한을 물려 정할 수 없으니, 어떻게 추위를 감내해야 할런지 모르겠다.

○ 유태경(柳泰卿)이 직산군(稷山郡)에서 작별인사를 하러 왔는데, 유태경도 26일

130) 다시마 구이이다. 다시마는 《재물보(才物譜)》 권7 “물보 2”에, “동해에서 나는데, 잎의 크기가 손만 하며, 황흑색이다. 우리말로 ‘곤포’라 한다.” 하였다

131) 1년간의 기년상(壽年喪)을 말한다.

132) 향교(鄕校)나 서원(書院)의 직원.

133) 직산군수를 가리킨다.

134) 현종의 딸로서 시집가기 전에 요절한 명혜공주의 궁방(宮房)이다. 궁방은 조선시대에 대군(大君)·왕자군(王子君)·공주(公主)·옹주(翁主) 등이 거처하는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35) 조선시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논밭을 측량하여 만든 토지 대장(土地臺帳). 지주의 토지 소유 상황, 농가 소득 정도, 계층 분획의 정도 따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논밭의 소재지, 자호(字號), 위치, 등급, 형상, 면적, 사표(四標), 소유주 따위가 기록되어 있다.

에 상경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에서 온 사람에게 경강(京江 한강(漢江))이 아직까지 얼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니, 매우 괴이한 일이다.

○ 이미 직산(稷山)에서 직무를 대행하게 하였기 때문에 조회(照會)<sup>136</sup>를 작성하고 인장(印章)과 편지를 주어 교리(校吏)로 하여금 내일 가져가도록 신칙하였다. 이어 행장을 꾸리고 있는데 우룡(雨龍)이 당(堂)에 작별하는 시장(詩章)을 가져왔기에 붓을 달려 그 운에 차운하여 주었다.

○ 25일, 사시(巳時) 초각(初刻)에 출발하여 아들 익선(翼善)을 데리고 정거장에 도착하였는데, 관속(官屬)들 아무개 등이 모두 와서 전별하였다. 오시(午時) 정각에 열차를 타고 영등포(永登浦)에 도착하니, 시간이 이미 오후 1시 30분이었다. -○- 인천항(仁川港) 열차가 4시 15분에 올라왔다. 이어 차를 타고 새문 밖에 도착하니, 관노 만석(萬石)이 어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전차(電車)로 갈아타고 야주개(夜珠峴)<sup>137</sup>에 도착하여 전차에서 내려 공후동(工后洞)<sup>138</sup> 집에 도착하니, 시간이 바로 4시 53분이었다. 모든 집안의 권속(眷屬)들이 아울러 단란하게 모였는데, 모두 한결같이 편안하고 아이들도 탈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기뻐했다.

○ 27일,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이날 내외 손님과 친척으로서 찾아온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국수 상(床)을 차리고 즐겼는데, 데려온 두 종에게는 각각 돈 3원(元)을 지급하고 도로 내려 보냈다. 그리고 아무개 등 향인(鄉人)과 관속(官屬) 아무개 등에게 세육(歲肉)<sup>139</sup> 한두 근(斤) 정도와 달력 1권씩 주도록 방자(房子)에게 적어 보냈는데, 이것은 보류해 두게 하였다.

136) 대등한 관아 사이에 주고받는 문서.

137) 야주개(夜晝介), 야주현(夜晝峴)이라고도 표기하는데, 경덕궁(慶德宮) 앞의 거리 이름으로 서부(西部) 적선방(積善坊)에 속해 있다. 야주개라는 고개가 지금의 종로구 신문로 1가와 당주동에 걸쳐 있었다. 경운궁에 머물던 고종이 홍릉에 행차하기 위해 전차를 도입하였으며, 1899년부터 서대문부터 종로, 동대문을 거쳐 청량리까지 전차가 다니게 되었다.

138) 지금의 서울특별시 도렴동(都染洞)의 한 동네인데, 육조거리 공조(工曹) 뒤에 있어서 공후동이라 하였다.

139) 설에 쓰는 고기.

○ 28일, 아들 익선(翼善) 및 손자 지영(志泳)이 시골집으로 내려갔다. 사시(巳時)에 유태경(柳泰卿)이 직산(稷山)에서 어제 올라왔다가 지금 막 본가로 출발하였다고 했다. 저녁 늦게 큰택에 걸어가서 사우(祠宇)<sup>140</sup>에 참배하였다.

29일, 전서(磚西)에 가서 금래(琴來) 대감을 조문한 뒤에 발길을 돌려 대동(帶洞)<sup>141</sup>의 집으로 가 가묘(家廟)에 참배하고, 이어 유숙하였다.

## 을사년(1905)

### ◆ 1월

○ 1일(갑술). 입춘(立春)은 바로 양력으로 2월 4일이다. 새해 아침의 다례(茶禮)를 행하고 오후에 큰택에 가서 사당에 참배하였으며, 발길을 돌려 전서(磚西)로 가서 금래(琴來) 대감을 위문하였다.

상경한 뒤로 현기증이 줄곧 낫지 않아 형세상 대궐에 나아가 문안할 수 없었으므로 高知○○○氏에게 요청하여 그에게 대내(大內)<sup>142</sup>에 아뢰게 하였다.

○ 3일, 신시(申時) 이후에 천둥이 작게 쳤다. 이날 순명비(純明妃)의 졸곡례(卒哭禮)를 행하였는데, 현기증으로 인하여 대궐에 나아가 반열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140) 조상의 신주를 모셔 놓은 집. 사당(祠堂), 가묘(家廟).

141) 지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에 있던 동네이다.

142) 황궁(皇宮)을 말한다. 당(唐)나라 한유(韓愈)의 《논불골표(論佛骨表)》에 “지금 신이 들은 바에 의하면, 폐하께서 불골(佛骨)을 봉상(鳳翔)에서 맞아오도록 하여, 누대에 납시어 보시고, 대내(大內)로 들여오도록 하신다고 합니다.”라고 한데서 유래하였다.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대전(大殿), 왕비가 거처하는 곳을 중전(中殿), 대비가 거처하는 곳을 대비전(大妃殿)이라 하는데, 대내는 이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평택(平澤) 변도의(卞道義)의 편지가 우편을 통해 왔고, 박덕순(朴德淳), 편우현(片禹鉉), 이기석(李己石)이 문안하기 위해 올라왔으므로 머물게 하여 접대하였는데, 지난 달 25일 아산(牙山) 옥사(獄事)를 밝히고 조사한 직산(稷山) 군수의 문안(文案)을 가져왔다.

5일. 평택 관속(官屬)들이 모두 도로 내려가므로 돈 4원을 돌아갈 때 쓸 노자로 주었다. -○○○資-

○ 7일. 어제 저녁 때 전서(磚西)의 금래(琴來) 대감으로부터 인삼 2근(斤)을 약으로 쓰도록 보내왔다. 그래서 아침에 가서 사례를 하였는데, 마침 용인(龍仁)으로 성묘(省墓)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작별 인사를 하고 곧바로 돌아왔다.

8일. 오후 9시 30분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 효자 고(故) 부사과(副司果) 이현성(李顯惺)<sup>143)</sup>은 관향(貫鄉)이 경주(慶州)이다. 이 사람은 탁지부 사세국장(度支部司稅局長) 이건영(李健榮)의 부친으로서 효행으로 기록되어 지난 해 12월쯤에 이미 사운을 입었다. 그 후 도성의 인사가 모두 글을 지어 찬미하고 축하하여 권질(卷秩)을 이루었으므로 지금 판각을 맡겨 영구히 전하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그 집에서 내가 상경했다는 말을 듣고 한 편의 글을 부탁하였다. 풍교(風教)를 세운 사람을 찬양하는 것은 글 솜씨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으므로 시(詩) 1수를 지어 축하하였다.

신시(申時) 이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한어(漢語) 학교 교사인 청나라 보정부(保定府)<sup>144)</sup> 사람 두방역(杜方域)이 방문하였으므로 아들 극선(克善)이 안부를 묻

는 과정에서 이 효자(李孝子)의 일에 대해 칭찬하고 이어 시 1수를 청하자, 두씨가 이어 율시(律詩) 1수를 지었는데, 내용이 정중하였다. 이어 편지와 함께 보냈다.

○ 9일. 유태경(柳泰卿)이 올라왔다. 아들 익선(翼善)의 편지를 보니, “아이들이 글을 익힐 때 사용하는 종이, 붓, 먹 세 개를 답송(答送)하니, 덕선(德善)과 유사건(柳士健)에게도 붓과 먹을 넉넉히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7촌 조카 기선(箕善)이 찾아왔는데, 지난 계묘년(1903) 10월 17일에 모친상을 당하여 -以○緡錢○○○- 평택 수서기(首書記)가 올린 고목(告目) 우편을 통해 왔는데, 지난 달 28일 아산(牙山)에서 복검(覆檢)하여 밝게 조사한 뒤에 나온 지령(指令)을 베껴 왔다.

○ 근래 내가 서울로 올라온 뒤로 마침 세시(歲時)가 되었으므로 친척과 손님과 친구로서 방문한 사람들을 날마다 술로 접대하였는데, 현기증이 따라서 심해졌다. 어떤 사람이

“자인(慈仁)<sup>145)</sup>에 사는 감찰(監察)<sup>146)</sup> 윤봉규(尹鳳奎)가 현재 같은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데, 의학(醫學)으로 칭송을 받고 있으니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찾아가서 진맥(診脈)을 받아보니,

“밝은 실(實)하지만 안은 허(虛)하여 수갈(水渴) -之○○○邪- 천마(天麻)가 아니면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천마 1근을 우선 처방대로 조제하여 호환(糊丸)을 만들어 매일 1냥쥬(重) 가량 삼켜 오랜 기간 복용하면, 신체는 강해지고 기운은 충만해져 저절로 평상시의 건강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또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실린 약재(藥材)의 성질을 다스리는 조항 등을 보여주며 복용하기를 권하였다. 이어 돌아오는 길에 천마를 사다 처방대로 약

143) 1904년 11월 1일(음력)에 고사과(司果) 이현성에게 비서원 승(秘書院丞)을 추증하였으며, 1907년 4월 22일(음력) 증(贈) 비서원 승 이현성에게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 내부 협판(內部協辦)을 추증하였다. 이건영이 4월 2일 충청남도 관찰사에 임명되지 부친에게도 그에 맞게 추증한 것이다.

144) 중국 하북성 중부에 위치한 주도이다. 북경에서 남쪽으로 15킬로미터에 위치한 지역으로 정치의 중심지이다. 1882년 임오군란 직후 흥선대원군이 청(淸)나라의 천진(天津)으로 끌려가 보정부(保定府)에 4년간 유폐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지방이다.

145) 자인현(慈仁縣)은 본디 경주부(慶州府)에 속했던 곳인데, 병자호란이 일어난 다음 해인 1637년에 떨어져 나와 독립되었다. 오환목이 55세 되던 1888년에 자인 현감(慈仁縣監)으로 부임하고, 통정대부(정3품)에 올랐다.

146) 조선시대 사헌부의 정6품 관직.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감찰 실무를 담당하였다. 고려시대 어사대(御史臺)의 감찰어사(監察御史) 직을 계승한 것이다.

을 조제하여 달여서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 15일. 명헌태후(明憲太后)<sup>147)</sup>의 연제례(練祭禮)<sup>148)</sup>를 행하였다. 유명초(柳命初), 유괴천(劉槐泉), 양범산(梁凡山)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저녁 달빛이 대낮 처럼 밝았는데, 병든 터라 늙은이의 회포가 젊고 건강했을 때의 감상(感想)보다 줄지 않아 아들 익선(翼善)을 데리고 답송교(畚松橋) 아래 쪽을 갔다가 돌아왔다.

○ 17일. 이날 오전 2시 15분에 4분 28초 동안 월식(月蝕) 현상이 있었다. 월식이 생긴 것은 동북쪽이고 다시 둥글게 된 것은 서북쪽이었다.

○ 19일. 윤 의원(醫員 윤봉규)을 찾아가서 근일의 병세를 언급하고 다시 진맥을 받았다.

“결맥(結脈)<sup>149)</sup>이 또 변하여 대맥(代脈)<sup>150)</sup>이 된 이유는 비(脾)와 폐(肺), 대장(大腸)로 관계된 것으로, 풍사(風邪)<sup>151)</sup>와 조사(燥邪)의 침입을 당한 것이 발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도(脈度)는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만일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크게 건강을 해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인삼황기탕(人蔘黃芪湯)<sup>152)</sup>을 내어 주며,

“매일 1첩(貼)을 달여 복용하다가, 맥도가 정상시와 같아지면 중지하십시오. 귀가

떡떡한 것은 바로 기(氣)가 막힌 것이 발미가 된 것이니, 창출(蒼朮)<sup>153)</sup>을 복용하면 막힌 귀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마환(天麻丸)을 많이 오랫동안 복용하면 현기증이 시원하게 사라지고, 귀가 잘 들리고 눈이 밝아질 것이니, 근력을 강하게 하는 훌륭한 약입니다. 병세에 맞는 약으로 논하면 산삼(山蔘)보다 월등히 뛰어나니, 부디 범범하게 듣지 말고 연속해서 복용해 보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어 사례하고 돌아와 인삼황기탕을 오늘부터 달여 복용하였다.

○ 참봉(參奉) 김행건(金行健)씨는 매우 한미하고 가난한 데다 풍병(風病)으로 한 달이 넘도록 몹시 앓고 있었는데, 내가 서울로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그 아들 김헌성(金憲成)을 보내 전갈(傳囑)하였으므로 돈 2원(元)을 주어 사례하였다.

유태경(柳泰卿)이 직산(稷山)에서 올라왔는데, 법률학교(法律學校)<sup>154)</sup>에서 오늘부터 저동(苧洞)<sup>155)</sup>에서 야학(夜學)을 시작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들 극선(克善)을 입학시키기 위해 가서 참석하였는데, 오후 6시부터 시작하여 12시에 이르러 끝났다.

○ 석성(石醒)이 이달 17일에 보낸 편지가 우편을 통해 부쳐 왔다. 대체로 한결같이 편안하고, 그의 아들 석중현(石琮鉉)은 작년에 유람하기 위해 미국에 가서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답장을 부쳤다.

○ 윤 의원(尹醫員 윤봉규)의 진맥을 받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맥도(脈度)가 전일에 비해 조금 느려졌으니, 차도를 보이는 조짐을 알 수 있습니다.”

147) 헌종의 계비(繼妃).

148)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소상(小祥)을 말한다. 연(練)은 삼베를 마진, 즉 빨아서 벌에 말리는 것을 뜻하는데, 초상이 나면 처음에는 마진하지 않은 거친 삼베로 두건을 만들어 쓰다가 1년이 지나 소상이 되면 마진한 삼베로 만든 두건으로 바꿔 쓰기 때문에 소상을 연체라고 한다.

149) 환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28맥(脈) 가운데 하나이다. 맥상(脈象)이 느리고 완만하면서 불규칙하게 멎는 맥이다.

150) 간격이 긴 맥박.

151) 육음(六淫)의 하나로, 바람이 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이른다.

152) 기허로 몸이 허약하여 지고 식욕이 부진 할 때 사용하는 처방. 《동의보감》에는 내경편(內景篇)에는 기(氣)에 인용되어 있다. 서군자탕(西君子湯: 인삼·백출·백복령·감초)에 황기(黃芪) 7.5~8.0g, 당귀 4.0g을 가한 것이다. 인삼과 황기는 보기약(補氣藥)의 대표적인 약이므로 지금까지 한방에서는 즐겨 사용하고 있다.

153) 삼주의 결구(結球)되지 아니한 뿌리로, 백출(白朮)보다 땅을 내는 힘이 세어서 소화가에 범한 고뿌를 푸는 데에 많이 쓴다.

154) 갑오개혁 때에 법부대신 서광범이 건의하여 1895년에 설립된 법관양성소인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신이다. 법부대신 신 서광범이 아뢰기를 “법률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인재를 배양하고 법률을 분명히 익혀 후일 지방 재판관으로 뽑아 보충하는 데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때에 맞추어 재판관이 취학하도록 하여 법률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경비를 적당히 계산하여 탁지아문에서 마련하여 나눠주도록 할 뜻으로 삼가 아뢰입니다.” 하였다. 개국 503년 12월 16일에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를 받들었다. -法部 飭, 《奏本》(奎 17276) 제1책, 개국 503년(1894) 12월 16일, “奏本 제17호” 사법관은 법률 학교(法律學校) 졸업인으로 법부(法部) 시험을 거쳐 서임한다. -《고종실록》 7년(1900) 3월 27일(양력)

155)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충무로2가·명동1가·명동2가·을지로2가 장교동에 걸쳐 있던 마을로서, 모시와 삼베를 파는 저포전이 있었으므로 모시전골이라 하였다. 한자명으로 저포전동·저전동으로 하였으며 줄여서 저동이라고 한 데서 동네 이름이 유래되었다.

다. 앞으로는 매일 대추 20매를 식후에 달여 드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래서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 30일, 오전 5시에 출발하자, 유태경(柳泰卿), 이기석(李己石), 김창언(金昌彦)이 수행하여 따랐다. 새문 밖 정거장으로 나가 평택(平澤)으로 가는 표를 사서 7시 30분에 열차를 탄 뒤에 아들 극선(克善)과 손자 제영(梯泳) 등을 모두 송별하였다. 살피보니, 이곳에서 동래(東萊)까지는 정거장이 모두 52곳이었다. 이어 열차가 출발하여 영등포(永登浦)에 이르러 잠시 정차하였고, 또 출발하여 10시에 통복포(通伏浦)에 도착하였다. 열차에서 내려 곧장 나루를 건너 그 대가로 돈 1냥을 사공 등에게 상으로 주고 관아로 돌아왔는데, 아들 익선(翼善)이 먼저 와서 여러 날 관아에 있었다. 이날 갑작스런 추위에 신기(神氣)가 편치 않았으니, 이는 모두 매우 노쇠해진 탓이었다.

유시(酉時)에 순교(巡校) 지용하(池龍夏)와 병방(兵房) 편창수(片昌洙)가 직산군(稷山郡)에 급히 가서 인장(印章)을 찾아왔기 때문에 수령한 뒤에 관찰부에 보고하였다.

○ 어제 저녁 참봉인 만운(晩雲) 김행건(金行健)이 을시 1수를 지어 그 아들을 통해 보내주고 안부 편지까지 써서 부쳐 주었기 때문에 편지에 대해서는 답서를 보냈다. 그러나 시도 화답해 주는 것이 좋겠기에 나의 현재 상황을 서술하여 차운하여 지어 놓고 인편을 기다리고 있다.

## ◆ 2월

○ 1일, 하례(賀禮) 후에 망곡례(望哭禮)와 알성례(謁聖禮)를 행하였다. 영감 이운초(李雲樵), 참봉 홍종운(洪鍾穩), 그리고 김장옥(金章玉)이 와서 보았다. 김장옥은

지난 달 초에 체차된 장의(掌議) 김규진(金圭鎭)의 후임으로 채워 차출되었다고 하였다. 교궁(校宮)<sup>156</sup> 석전제(釋奠祭)의 각 차비관(差備官)을 차출하였다.

○ 영국(英國) 성교회(聖教會)<sup>157</sup> 회장인 주사(主事) 송세준(宋世俊)이 명첩(名帖)으로 통자(通刺)하였으므로 맞이하여 접대하였는데, 이는 읍하(邑下)의 교인(敎人)들을 곡진히 보호한 일 때문이다.

○ 3일, 흐림. 내일은 석전대제(釋奠大祭)<sup>158</sup>를 지내는 날이다. 포우(脯牛)를 감봉(監封)<sup>159</sup>하고, 제향 때의 초헌관(初獻官)<sup>160</sup>은 감기로 현기증이 나서 참석할 수 없었으므로 예차(預差)<sup>161</sup>로 채워 대신하게 하였다.

○ 양지군(陽智郡)<sup>162</sup> 학일(學日)<sup>163</sup>에 사는 종인(宗人) 오유묵(吳有默)이 주사(主事) 오경묵(吳敬默)의 편지를 가져왔는데, 수년 동안 노쇠함이 이어지고 속세의 근심까지 더해져 매우 어렵다고 하였다. 오유묵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초필(抄筆) 2자루와 진묵(眞墨) 1정(丁)과 노자로 돈 3민(緡)을 주어 성의를 표시하였다. 또 나의 근일의 현 상황을 언급하다가 지금 천마환(天麻丸)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 약을 근래 사기가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제가 태어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년 2, 3월에 캐어 말려

156) 각 고을에 있는 향교, 또는 향교에 있는 문묘(文廟)를 가리킨다. 공주를 당나라 현종(玄宗)이 문선왕(文宣王)이라 추존하고, 원나라 성종(成宗)이 대성지성(大成至聖)님 자를 더하였으므로 향교의 문묘를 교궁(校宮)이라 한 것이다.

157) 영국 국교인 The Holy Catholic Church를 번역한 명칭인데, 이 시기에 정식 명칭을 종교성교회(宗古聖敎會)라고 하였다. 대한성공회, 조선성공회를 거쳐 지금의 공식 명칭은 대한성공회이다.

158) 문묘에서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인데, 매년 2월·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올리는 것이 규례이다.

159) 관리가 공물(貢物)을 쌀 때에 상관이 직접 감독하여 봉(封)하던 일.

160) 제례에서 직접 제례를 주관하는 사람들. 삼헌관은 초헌관(初獻官)·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 육집사는 집례(執禮)·축(祝)·진설(陳設)·봉향(奉香)·봉로(奉爐)·전작(奠爵).

161) 모든 제례에는 우두머리가 첫 술잔을 따랐으니, 여기서 평택 석전대제의 초헌관은 오형묵이다.

162) 지금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양지면에 있던 조선시대 군이다.

163) 지금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학일리가 있다.

서 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10근(斤)에 한하여 제때 캐어서 법대로 깨끗이 말려 가져오면 쇠가로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부탁하였다.

○ 신시(申時)에 집례(執禮) 장규진(張圭鎭)과 향장(鄉長) 박준화(朴準華)가 객관(客館)에 나아가 제물(祭物)을 감봉(監封)하였다. 술시(戌時)에 아들 익선(翼善)이 이윤직(李允植)의 요청으로 인해 관광차 수서기(首書記)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갔다. 향교에서 자시(子時) 초각(初刻)에 제례(祭禮)를 행하였다.

내일은 바로 사직대제(社稷大祭)<sup>164</sup>를 지내는 날이다. 병이 아직까지 낫지 않아 헌관(獻官)은 예차(預差)로 대신 행하게 하도록 정하였다.

석채(釋采)<sup>165</sup>의 제사를 지낸 뒤의 번육(燔肉)<sup>166</sup>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신시(申時)에 교임(校任)이 제물을 감봉하였다. 자시(子時) 초각에 예를 마쳤다.

5일. 기곡대제(祈穀大祭)<sup>167</sup>를 지낸 뒤의 번육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 일진회(一進會) 회원인 노병규(盧秉奎)와 한필석(韓弼錫)이 통자(通刺)<sup>168</sup>하였는데, 병세 때문에 맞이하여 접대하지 못하였다. 이어 사무소(事務所) 회장(會長) 한세교(韓世敎)의 공함(公函)이 있었는데, 그 공함의 내용에,

“경회소(京會所)의 통지로 인하여 귀군(貴郡) 각 면(面)의 집터 자리를 근간에 얼

164) 조선시대의 제사를 대사·중사·소사로 나누며, 규모가 가장 큰 대사(大祀)는 종묘(宗廟)·영녕전(永寧殿)·사직(社稷)의 제사이다.

165) 고대에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갈 때 선사(先師)에게 예물로 채소류를 바치던 일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균관과 향교, 서원과 서당에서 선성(先聖)과 선사에게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166) 제사에 사용된 익힌 고기를 말한다. 《사기(史記)》 47권 〈공자세가(孔子世家)〉에 이르기를, “얼마 안 있어 노(魯)나라에서 교제(郊祭)를 드리는데, 임금이 번육(燔肉)을 대부(大夫)들에게 주는 예법만이라도 지킨다면 좀 더 노나라에 머물겠다.”라고 하였듯이 제사가 끝나면 모든 번육을 대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음복함으로써 하늘이 주는 혜택을 나누어 갖는 것이 당시 예법이었다.

167) 토지신(土地神)인 사(社)와 곡신(穀神)인 직(稷)을 모신 사직단에서 매년 음력 정월 첫 신일(辛日)에 그해의 풍년을 빌기 위하여 임금이 친히 지내는 제사이다.

168) 명함(名銜)을 보내어 면회를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을 문안(問安)하는 것.

마나 되는지 적간(摘奸)<sup>169</sup>하였는데, 유독 근내동(近內洞), 원정리(院井里), 동창리(東倉里), 석교(石橋) 4개 마을에 대해서는 애당초 관령(官令)이 없어 조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군수께서 관소를 비운 것으로 인하여 마치지 못하였으니, 즉시 해당 마을에 효유(曉諭)하여 일을 마치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답변하였다.

“귀하의 회원이 집터 자리를 적간하는 일에 대해서는 애당초 관령이 없었는데도 밖에서 멋대로 조사한 것이므로, 4개 마을이 관령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또한 공론(公論)입니다. 본관(本官)이 일에 따라 비호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실로 부(部)와 부(府)의 인허(認許)가 없는 이상, 실로 제가 멋대로 백성들에게 효유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궤이하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 직산 군수(稷山郡守)가 중리(中里) 정경삼(鄭敬三)이 관반(官班)<sup>170</sup>에 이름이 오른 사람을 구타한 일로 근간에 세 차례 편지를 보내왔다. 이달 초에 즉시 백성 정경삼을 잡아들여 조사하여 공초를 받으니, 직산 군수가 한 말과 달랐다. 그리고 또 효유하니, 해당 면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에,

“정씨의 누이가 둔포(屯浦)로 출가(出嫁)하였는데, 일전에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 아이 1명을 데리고 걸어서 친가로 가던 도중에 수원(水原)에 사는 임씨(林氏), 김씨(金氏), 유씨(柳氏) 3명이 술에 취해 갑자기 뛰쳐나와 바람난 여자라고 하며 그 허리춤을 끌어안고 더할 나위 없이 희롱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동인(洞人)의 도움으로 큰 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였다. 이것이 과연 관반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차마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두 명의 공초를 뽑아 직산 군수에게 답서를 보내고, 검하여 유태경(柳泰卿)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169) 관리의 난잡한 행위나 부정한 사실 유무를 적발함.

170) 관리들의 명단이나 석차, 서열.

○ 영변군(寧邊郡)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태어났는데, 머리는 2개가 달리고 몸은 뱀과 같았으니, 이 무슨 요상한 징조란 말인가. 매우 괴이한 일이다.

○ 관보(官報)를 보니, 이달 7일에 손자 유영(惟泳)을 시위 제1연대 제2대대 향관(侍衛第一聯隊第二大隊餉官)에 보(補)하였다.<sup>171)</sup> 또 15일에 육군 연성학교(陸軍研成學校)<sup>172)</sup> 교관에 보하였는데 그 조서(詔書)에 이르기를,

“표훈원(表勳院)<sup>173)</sup>을 창설한 이후로 관료들의 공로가 상당히 많으니, 포상의 은전이 없어서는 안 된다. 기수(技手) 오제영(吳梯泳)을 특별히 7등에 서훈(敍勳)하고, 팔괘장(八卦章)을 하사하라.”

하였다.

○ 뜰 동쪽 포도(葡萄)가 시령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여 시령을 만들 재목을 강 참봉(姜參奉), 정 주사(鄭主事), 방벽하(方碧下)에게서 구해 왔다. 그래서 관속(官屬)에게 명하여 시령 4칸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 즉시 넝쿨을 올려주게 하였다. 그리고 또 수서기(首書記)에게 어린 소나무 7그루를 캐오게 하고 또 십의대(十宜臺)의 시를 짓는 곳 좌우에 안배하여 심도록 명하여 훗날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 앞으로 십의대의 풍경이 배로 될 테니 어찌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꾸몄다고 남들은 나를 오할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훗날 부임한 자들이 공관(公官)에서 물러나 쉬기에 좋은 곳이 될 것이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171) 또 아래기를 “육군의 군사(軍司) 가운데 ... 오유영(吳惟泳) ... 등은 모두 보병과 학도(步兵科學徒) 출신이니, 주향(籌餉)의 사무를 책임 지우는 것은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모두 보병 위관(步兵尉官)을 도로 맡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승정원일기》 고종 42년(1905) 2월 13일

172) 대한제국 때 설치되었던 현역장교 및 하사관의 재교육기관. 1904년 9월 교육부가 설치되면서 그 산하에 설치되었다. 현역장교나 하사관을 대상으로 전술·사격술 및 체조·검술 등의 학술을 숙달하게 하고, 그 원리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교육연한은 위관이나 하사를 막론하고 6개월 이상으로 정하였다. 이 학교는 그 목적이 현역장교 및 하사관의 자질과 군사적 기능을 높이는 데 있었으나, 이 때는 이미 일제의 침략정책이 적극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173) 대한제국 때에 훈장·포장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청. 훈위(勳位)·훈등(勳等)·연금·훈장·포장·외국훈장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1894년에 충훈부(忠勳府)를 기공국(紀功局)으로 고쳐 의정부에 예속시켰으나, 1900년에 표훈원을 설치하여 독립시켰다.

○ 일본 사람 오이시 가즈(大石一)가 와서 보고 말하기를,

“저는 본래 평양(平壤)의 철도건축감부원(鐵道建築監部員)으로 휴가를 얻어 귀 지방 근처를 유람하고 있는데, 여비가 떨어졌으니 5원(元)만 빌려주십시오.”

하였다. 형세상 모른 척할 수 없기에 돈 2원을 주어 보냈다.

○ 관보(官報)를 보니, 19일에 특별히 조서(詔書)를 내린 것은, 전주군(全州郡)의 송교문(宋敎文) 등이 통문(通文)을 돌려 수천 명을 모으고, 또 일진회(一進會) 회원 1만여 명이 결전(結錢)<sup>174)</sup>에 대해 순백동(純白銅)으로 바쳐야 한다고 하면서 관아의 문밖에 모인 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자 전주의 이속(吏屬)들이 각 고을에 통문을 돌려 ‘창의(倡義)<sup>175)</sup>’라고 명분을 내세우고서 배척한 것은 일진회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었다.

○ 내리(內里)의 조병균(趙秉均)은 바로 조창순(趙暢淳)의 아들이다. 그가 와서 말하였다.

“남아 있는 결전(結錢) 몫을 며칠 동안만 기한을 물려주십시오, ……”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지금 이 어느 때인데 감히 세전(稅錢)에 대한 기한을 물려달라고 말하는가. 너무나 당돌한 일이다.”

하고 거듭 엄하게 꾸짖었다.

174) 1750년에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하여 양포(良布)를 2필(匹)에서 1필로 줄이고 부족분을 전결(田結)의 부가세로 1결당 50전(錢)을 내게 하였는데, 이를 말한다.

175) 관군(官軍)에 속하지 않은 민간인이 의용병(義勇兵)을 선창(先倡)하여 모집하는 것이다.

◆ 3월

○ 1일(갑술). 청명(淸明). 근일 이래로 날씨가 변덕스러워 비가 조금 늦어진데다가 찬바람도 여전히 매섭다. 청명의 절기가 되었지만 밭의 가을보리는 전혀 푸른 빛이 없고 봄 뒤에 경작한 보리는 아직까지 싹이 자라지 않고 있으니, 곤궁한 백성들의 근심이 자기도 모르게 눈썹이 올라간다. 또 언덕의 버들과 뜰의 꽃도 피지 않아 전혀 3월의 변화한 기상이 없다. 고시(古詩)에 ‘10일 동안 먹구름이 매우 쌀쌀하였던 터라, 꽃과 버들 꺾어 잘 있었는지 묻노라.[十日陰雲料峭寒, 試取花柳問平安.]’라고 하였다.

○ 관찰사 이건하(李乾夏)<sup>176)</sup>가 이달 21일에 부임하는데, 공함(公函)을 보니, “본부(本府)의 명화학교(明化學校)<sup>177)</sup>를 확장하고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좋은 방법을 강론해야 하므로 좌하(座下 오횡묵)를 찬성(贊成) 인원으로 선정합니다.” 하였다.

○ 석성(石醒)이 보낸 편지에, “상서(尙書) 이현영(李[金+憲]榮)이 (공께서 지은) 《여재촬요(輿載撮要)》 서문에, ‘마음가짐이 터럭처럼 세심하고 재주가 바다처럼 크다.’라고 하였고, 참판 이명선(李鳴善)이 위원(委員) 이교혁(李喬赫)에게 보낸 편지에, ‘오횡묵의 성품이 너그럽고 후덕하며 장자(長者)의 풍도가 있어 남의 근심을 자신의 근심처럼 근심한다는 것을 알겠다. 백운산(白雲山) 명묘(名墓)를 봄에 미쳐서는 그가 정성으로 선조를 받드는 모습에 더욱 탄복하였다. 그리고 인자함으로 아전을 대하니 함안(咸安)의 아전들이 말하기를,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온화하다.」라고 하였으

니, 이는 사람들이 미칠 수 없는 공(公)의 훌륭한 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비록 문자(文字)가 확실하다고 하지만 모두 칭송하고 찬미하는 말이니, 내가 어찌 이러한 칭송을 받을 수 있겠는가.

○ 죽산(竹山)에 사는 종인(宗人) 오유묵(吳有默)이 성간(聖懇)의 편지를 가져왔는데, 아들의 혼례를 정하여 이달 15일에 혼례를 치른다고 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일이었다. 춘수루(春水樓)에서 유숙하다가 돌아가는 인편을 통해 돈 6원(元)을 보답하는 의미로 사례를 하고, 노자로 1냥을 주어 보냈다.

○ 신보(新報, 황성신문)를 보니, 양력 5일에 인도(印度)는 아구라 북방 지역에서부터 섬라까지 격렬한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이 지진으로 심지어 인명이 손상되어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심한 것은 건축물이 모두 무너졌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회회교(回回敎 이슬람교) 사원이 또한 손상되었다고 하였다.

○ 12일. 흐림. 영감 이운초(李雲樵)의 손녀가 남산동(南山洞) 유정윤(柳定胤)의 아들 유명옥(柳炳燾)과 오늘 혼인을 하는데, 교자(轎子) 등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여러 물품을 보내고, 관노(官奴)와 사령(使令) 등이 시중을 들도록 하기 위해 보내라고 명하였다. 또 10민(緡)의 동(銅)과 10자루 촛대로 혼수를 도왔다. 사시(巳時)에 잠시 가서 축하하고 곧바로 돌아왔는데, 잠시 뒤에 혼수 1상(床)을 갖추어 보내와서 편지로 사례하였다.

○ 서울의 오위장(五衛將) 유희봉(劉熙鳳)이 소북면(小北面)에 소재한 수어청(守禦廳)<sup>178)</sup> 소유의 땅인 환포답(換浦答)의 일로 와서 보았다. 이야기를 나누고 곧바로 돌아갔기 때문에 편창수(片昌洙)를 특별히 보내 적간(摘奸)하여 경계를 정하도록 분부

178) 조선 후기에 설치된 중앙 군영. 당초에는 경기병사 겸 총융사 이서(李曙)가 남한산성 축성을 주관하는 형태로 출발되었다. 정묘호란 후 1632년 무렵에 처음으로 수어사(守禦使)의 직함이 생기고, 1636년 병자호란 후에 수어사 중심의 남한산성 수어체제가 확립되었다. 수어청의 재정은 둔전(屯田)의 개설, 불부조수미 또는 군수보(軍需寶) 등의 자체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하였다. 정조 때 남한산성으로 영구히 출진했던 당시에는 경청에서 옮겨온 표하군·야병·별파진·훈어군(訓御軍) 승군 및 각종 병종이 거의 수포군으로 바뀌었으며, 군관 명목에 속하는 병종이 무려 5,000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모두 불납미(不納米)·불입번(不入番)·불부조(不赴操)하는가 하면 미를 납부해 군역을 때우는 대우군(待遇軍)들이어서 정조 이후의 수어군은 사실상 그 명목만 유지하였다.

176) 이건하(1835-1913)는 대한제국 태의원 경, 학부대신, 중추원 찬의 등을 역임한 관료이다. 1905년 홍문관 학사를 거쳐 충청남도 관찰사·중추원 부의장·중추원 찬의 등에 임명되었고, 훈2등 팔괘장을 받았다. 국권 피탈 이후 1910년 10월 7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의 공로로 남작 작위를 받았다.

177) 공주에 설립되었던 사립학교이다.

하였다.

○ 근래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초록(抄錄)하는 일로 아들 익선(翼善) 및 변도의(卞道義), 유용명(柳容明)과 날마다 초록하느라 골치가 아프고 쓰는 일이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김장옥(金章玉)을 불러 약간을 베껴 내도록 거듭 부탁하였다.

○ 재장(齋長) 이종돈(李鍾敦)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장의 회갑이 이달 17일인데, 나에게 와달라고 부탁하였기에 마침내 그리하겠다고 하였다. 유시(酉時)에 아들 익선(翼善)이 돌아왔는데, 그가 가져온 집안 편지를 보니 ‘대동(帶洞)의 집을 2만 냥에 방매(放賣)하겠다’고 하였다.

○ 16일. 비가 가볍게 오다가 곧바로 그쳤는데, 사시(巳時)에 반쯤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근효곡(勤孝谷) 서재(書齋)에서 꽃씨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각종 꽃씨를 갖추어 보내주었다.

근일에 신기(神氣)가 편치 않아 여러 날 공무를 폐기하였다. 연명(延命)에 가는 행차는 처음에 오늘로 정했지만 형세상 갈 수 없어 연기하였으니, 이 또한 노쇠한 소치이다.

○ 《황성신보(皇城新報)》를 보니, 3월 1일 인도(印度) 지역에 격렬한 지진이 발생하여 그 피해가 예사롭지 않고, 게다가 죽은 사람이 1만 3000명이라고 하였다. 이 또한 큰 변괴이다.

○ 18일. 새벽에 싸라기눈이 내리고 또 비가 내렸다. 작년 겨울부터 한 차례도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은 탓에, 봄이 다 끝나 가는데도 가을보리는 자라지 않고 봄보리는 아직도 싹이 나지 않아 곤궁한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비가 내리기만을 날마다 간절히 바랐다. 그런데 수일 전부터 서북풍(西北風)이 크게 불어 갑자기 초겨울처럼 서리가 내리고 추웠다. 새벽에 싸라기눈과 비가 섞여 한바탕 내리다 곧바

로 그치고 찬바람이 또 불어 날씨가 매우 변덕스러웠으니,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근심스럽기 그지없다. 공주(公州)에 가려던 것은 또 정지하였다.

○ 19일. 오후 2시에 관노(官奴) 만석(萬石)을 데리고 공주(公州)의 연명(延命)<sup>179)</sup> 길에 올랐다. 군물진(軍勿津)에 이르니, 나루의 상황은 전과 다르게 물이 불어난 흔적이 있었다. 그래서 사공들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말하였다.

“어제 새벽에 크게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리다 묘시(卯時)에 본 고을의 서면(西面), 남면(南面), 북면(北面), 소북면(小北面)에 해일(海溢)이 일어 각 제방이 모두 터졌습니다. 이 때문에 가을보리와 건파(乾播)한 곡식은 완전히 수몰되어 형체가 없고 잔물이 잔뜩 불어, 금년 경작은 더 이상 남은 가망이 없습니다. 게다가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인가(人家)는 정확한 수조차 알 수 없습니다. 원봉(院峰) 이상에 거주하는 백성 2, 3백 명은 각자 나와 제방을 보호하여 다행히 무너짐을 면할 수 있었지만, 연해(沿海)의 각 군(郡)은 모두 피해를 입어 해변에 사는 백성들이 거의 뿔뿔이 흩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매우 놀랐는데, 마침 여러 관속(官屬)이 전별하는 일로 모두 왔다가 서로 돌아보며 경악하였다. 사리 상 직접 상황을 살피고 위문해야 하지만 연명(延命)의 행차를 더는 미룰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서원(書員)과 순교(巡校)들로 하여금 재해를 입은 각 면(面)과 동(洞)에 나누어 가서 자세히 적간하도록 신칙하였다.

○ 이어 회사(會社)를<sup>180)</sup> 방문하였는데, 한 사람도 없어 적막하였다. 그리고 또 정거장에 이르러 일본 순사(巡査) 다케사코 나오타로(竹迫直太郎)를 만나 격조하던 회포를 풀었다.

4시가 된 뒤에 전차가 내려왔다. 표 2장을 샀는데, 1장에 6냥 3전이었다. 이어 전차에 타서 관속들을 도로 보냈다. 차가 출발하여 5시 40분에 전의군(全義郡)에 도착

179) 새로 부임한 고을 원이 소속 감사(監司)를 찾아가 인사하는 의식. 이 글에서는 오형목이 새로 부임한 감사 이견허를 찾아가 인사하는 것이다.

180) 경부철도주식회사 평택 사무실을 가리킨다.

하여 차에서 내렸다. 사령(使令) 이기석(李己石)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주막에 들어가 본 아문에 이기석을 보내 전갈(傳囑)하도록 명하였다.

잠시 뒤에 최두환(崔斗煥)과 수서기(首書記) 황희수(黃喜秀)가 와서 보았다. 교자(轎子)와 교군(轎軍) 등에 대해서는 모두 교정(轎丁) 박선칠(朴善七), 염성보(廉聖甫), 김성관(金聖寬), 이청도(李清道)에게 거듭 부탁을 하였다. 품삯은 공주(公州)까지 60리를 왕복하므로 1명 당 18냥씩이었고, 교자를 빌린 값 5냥도 내어 주었다.

밤쯤에 본관(本官) 최택수(崔宅洙 최태용(崔泰容)으로 개명함)와 의관(議官) 황두연(黃斗淵), 연산(連山)에 사는 위원(委員) 최정휘(崔鼎輝)가 와서 문안하였으므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 위원은 이어 함께 유숙하였다.

○ 21일. 흐림. 오시(午時) 정각(正刻)에 공주부(公州府) 주인집에 도착하여 잠시 쉬다가 치진장(馳進狀)을 올려 연명(延命)을 면제 받고, 평복을 입고 선화당(宣化堂)에 들어가 관찰사 이건하(李乾夏)씨를 만나 안부를 물었다. 관찰사가 요사이 황달(黃疸)에 걸려 괴롭게 지내다가 오늘 조금 나았고, 올해 나이는 71세라고 하였다. 이어 본군(本郡)의 상황과 이달 18일 아침에 해일(海溢)이 발생한 상황을 자세히 말하였다.

작별 인사를 하고 발길을 돌려 징청각(澄淸閣)<sup>181</sup>에 가서 여산(礪山) 정관희(鄭觀喜)를 만났는데, 바로 여산의 임소에 부임했을 때 알아서 평소 일면식이 있던 사이 인지라 여러 가지 일을 모두 거듭 부탁하였다. 주사(主事) 이한용(李漢容)을 방문한 뒤에 주인집에서 나왔다.

○ 미시(未時) 초각(初刻)에 전의군(全義郡) 관아에 이르렀는데, 본관(本官)이 관시(觀市)를 신칙하는 일로 나갔기 때문에 바로 주막으로 가서 최 위원(崔委員 최정휘)를 만났더니 그가 말하였다.

“본관이 아까 동촌(東村)으로 갔으니 조금 뒤에 다시 올 것입니다.”

181) 충정 감영의 안채 건물 이름인데, “세상의 어지러움을 다스려 맑게 하려는 집”이라는 뜻이다.

이어 주막이 번거롭고 소란스러워 발길을 돌려 황 의관(議官 황두연)의 집에 가서 잠시 쉬고 있는데, 주인이 칩가루 죽과 청주(淸酒)를 대접해 주어 마음이 매우 편치 않았다. 또 점심을 준비한다고 하기에 극구 사양하였다. 교정(轎丁)이 물러가겠다고 고하므로 4명에게 돈 8냥을 상으로 주었다.

○ 오후 4시 46분에 표 3장을 구매하였는데, 1장에 6냥 3전이였다. 이어 차를 타려고 할 때에 황 의관(議官 황두연)과 최두환(崔斗煥)이 마침 와서 작별인사를 하였다. 전주(全州)의 우체 주사(郵遞主事) 윤순의(尹舜儀)<sup>182</sup>라는 청년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서울 북송현(北松峴)에 산다고 하였다.

평택(平澤) 정거장에 이르러 차에서 내리니, 여러 관속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 이어 관아로 돌아왔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다.

○ 해일(海溢)이 발생한 뒤에 해당 마을에서 보고 문서를 올려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6, 7일이 되도록 보고한 일이 없었다. 관찰부(觀察府)에 보고하는 것이 늦어지면 불미스러운 일이 곧바로 생기기 때문에, 나쁜 버릇을 징계하기 위해 북면(北面), 서면(西面), 소북면(小北面)의 세 면장을 잡아오도록 분부하였다.

그런데 서면과 북면의 두 면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버릇을 추궁하였다. 별도로 엄하게 그 죄를 다스려야 하지만,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던 자리에서 주의를 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칙하고 풀어주었다.

○ 이윤직(李允植)과 김장옥(金章玉)이 공주(公州) 향약(鄉約)<sup>183</sup>을 바로잡는 사무로 인하여 와서 보았다. 소북면(小北面) 면장(面長) 송학수(宋學洙)가 병을 핑계대고

182) 이 무렵에 성진(城津) 우체 주사였으며, 나중에 맹산 군수까지 승진한 인물이다.

183) 향촌규약(鄕村規約)의 준말로, 지방의 향인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약속. 향촌규약, 향규(鄕規), 일향약속(一鄕約束), 향약계(鄕約契), 향안(鄕案), 동약(洞約), 동계(洞契), 동안(洞安), 족계(族契), 약속조목(約束條目)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원칙적으로 향약은 조선시대 양반들의 향촌자치와 이를 통해 하층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송유배불정책에 의하여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향촌사회에 보급하여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며 각종 재난(災難)을 당했을 때 상부상조하기 위한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잡혀오는 데 응하지 않았으므로 놀랍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기어코 잡아다 대기시키도록 분부하였다.

대사(大使)<sup>184</sup> 일행이 이달 20일에 도로 서울에 도착함을 축하하였다.

○ 4개 면(面)에 해일(海溢)이 발생한 곳을 한 차례 직접 살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마를 준비하게 명하고 아침 일찍 출발하였는데, 수서기(首書記) 편창수(片昌洙)와 전희복(全喜福)이 따랐다. 근효곡(勤孝谷)의 정죽성(鄭竹醒)을 방문하였다가 곧바로 작별한 뒤에 원봉진(院峰津)을 건넜다. 또 수어청진(守禦廳津)을 건너 중대리(中垵里)의 안언(鞍堰)과 안두언(安頭堰)에 도착하니, 두 마을의 두민(頭民)<sup>185</sup>들이 모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바닷물에 침수된 상황을 두루 살펴보니, 원봉의 5, 6섬지기와 신환포(新換浦)·안두언의 온 들판은 침수되었고, 수어청의 4, 5섬지기와 중대리의 7, 80섬지기, 그리고 안언의 3분의 2가 침수되었다.

이 근처의 온 들판은 모두 서울 각 사람들의 전답인데, 그중에 윤 의정(尹議政) 집안의 전지가 400여 섬지기이다. 이는 작년 엽전 38만 냥으로 서상천(徐相天)의 바다를 개간한 전답을 매입한 것이다. 이번에 침수된 곳을 어렵짐작해 보니 40섬지기가 되는데, 이는 각자 경작하는 사람들이 사적으로 쌓은 제방이 견고하지 않은 탓에 터진 것이다. 심었던 보리는 모두 바닷물에 침수되고, 그 외에는 지금 전답을 정비하여 볍씨를 건파(乾播)<sup>186</sup>한 곳으로 하나의 큰 장토(庄土)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처음 건파하였다고 하였다.

마을 백성들을 불러서 일일이 위로한 뒤에 이어 흑석진(黑石津)을 건너 내리(內里)로 들어가 면장 조창순(趙暢淳) 집에서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경정리(鯨井里)를 지나다가 노하리(蘆下里), 노중리(蘆中里), 신성리(新成里)에 도

184) 노일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러 일본에 파견되었던 축첩대사(祝捷大使) 의양군(義陽君) 이재각(李載覺)을 가리킨다. 4월 21일 일기에 관련 기사가 실려 있다.

185) '우두머리 백성'이라는 뜻인데, 나이가 많고 식견이 있어 한 마을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토호(土豪)를 말한다.

186) 건담 직파(乾澗直播)라고도 한다. 마른논에 볍씨를 뿌려 밭곡식처럼 기르다가 비가 내리기를 기다려 물을 대 주는 농사법이다.

착했는데, 흑석리에서 침수된 전답이 또 수십여 섬지기가 되었다. 각지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두 위문하고 도사(都事) 이윤직(李尹植)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였다. 잠시 뒤에 국수 상(床)을 내오고 하속(下屬)들에게도 술과 음식물을 주었다. 또 승어 2마리를 관청에 보내 주면서 저녁 반찬으로 하라고 말하니, 마음이 매우 편치 않았다.

○ 돌아오는 길에 송하리(松下里)에 들어가 이한영(李漢英)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이어 홍종온(洪鍾穩)과 김장옥(金章玉)을 방문하여 잠시 회포를 풀고, 또 송중리(松中里)로 가서 의관(議官) 이종돈(李鍾敦)을 만나 그의 회갑을 축하한 뒤에 축수시(祝壽詩)를 열람하였다. 잠시 뒤에 술상을 차려주어 조금 마시다가 해가 저물어 길에 올라 돌아오니, 시간이 벌써 포시(晡時)였다.

두루 살펴보니, 각 면(面)의 피해를 입은 전답이 꼭 수백 섬지기가 되는데, 가을 보리와 봄보리가 모두 매몰되었고 각 마을의 채마(菜麻)도 침수당한 곳이 있었다. 대체로 오랫동안 가물어 전답이 마른 터라 짠 물이 전답에 상당히 깊이 배었으므로 여러 해가 지나더라도 곡식을 심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니, 굶주림에 허덕일 백성의 사정이 매우 측은하였다. 이어 실상을 진달하는 문서를 관찰부(觀察府)에 보고하였다.

○ 26일. 비가 가볍게 내리고, 이른 아침에 우레가 쳤다. 어제 흑석리(黑石里) 나루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전하기를, '유희봉(劉喜鳳)이 해일(海溢)이 발생한 일 때문에 어제 내려와서 다시 제방을 쌓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내가 재해를 입은 상황을 순찰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전갈(傳囑)하고 만나자고 굳이 청하였다. 하지만 이곳에서부터 진위(振威) 신대(新垵)까지는 10리나 된다고 하므로, 가서 회포를 풀 수 없다고 답장을 보냈다.

오늘 박성욱(朴聖旭)이 바다를 개간한 곳을 살피기 위해 또 소북면(小北面)에 갔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다.

○ 신문을 보니, 전남 강진(康津)과 해남(海南) 등지에서 지난달 19일에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흰 기운이 해를 관통해 있다가 그날 밤 흑색(黑色)으로 변하여 이를 밤 낮이나 기운이 뻗쳐 있었으므로, 모두 상서롭지 않은 조짐이라 여겨 각 고을의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다고 하였다.

○ 28일. 어제는 양력 5월 1일이었다. 경부철도(京釜鐵道)가 이날부터 13시간에 걸쳐 직통하고, 또 하루에 4차례 운행한다.

○ 《동의보감(東醫寶鑑)》을 근간에 초록(抄錄)하려고 하였는데, 다만 쓸 사람이 부족하여 한스럽게 여겼다. 지난번에 정죽성(鄭竹醒)에게 들으니, “본 서재(書齋)의 제생(諸生) 중에 서사(書寫)할 수 있는 자가 10여 명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시켜 초록하려고 하였는데, 본 책 중에 산삭(刪削)한 부분이 많아 직접 자세히 알려준 뒤에야 거의 잘못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동의보감》 9책을 가지고 근효곡(勤孝谷)에 가서 제생을 직접 대면하여 조목조목 분명하게 일러주고, 붓 9자루와 먹 3정(丁)을 나누어 주었다.

서재에 들어가니, 양쪽에 방(房)이 있고 중간에 대청(大廳)이 있었다. 모두 7칸인데, 큰 방 2칸은 정죽성 자신이 거처하는 곳으로 삼았고, 건너 방 1칸은 재력이 넉넉하지 못해 수리하여 꾸미지 못했으므로, 학생 30명이 한 방에 같이 거처하기에는 비좁아 견디기 어렵다고 하였다. 작년 이 집을 지을 때 돈을 주어 성의를 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돈 20냥을 내어 주어 수리하여 거처하게 하라고 거듭 말하였다. 발길을 돌려 이병좌(李炳佐)의 집으로 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왔다.

○ 일진회(一進會) 총대(總代) 안태영(安台榮)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명목에 없는 잡세(雜稅)를 혁파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들어왔다’고 하였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이 고을에는 본래 시장이 없고 그저 포구 하나 뿐입니다. 정공(正供)<sup>187</sup>과 잡세를

막론하고 모두 관찰부(觀察府)에서 관할하는데, 일전에 훈령(訓令)<sup>188</sup>으로 인하여 이미 혁파하였습니다. 우피세(牛皮稅)는 일찍이 제용사(濟用司)의 훈령으로 인하여 명령을 시행한 것인데, 지금은 이미 푸줏간을 철거하였으니 돌아가서는 이 일에 대해 논하지 마십시오.”

하고 돌려보냈다.

○ 오늘은 바로 전춘(餞春)<sup>189</sup>인 3월 마지막 날이다. 천천히 걸어 십의대(十宜臺)에 오르니,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이미 떨어졌으므로 봄의 경치가 다 끝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동백나무와 옥매(玉梅) 등은 한창 봄빛을 띠어 곱고 예쁜 꽃을 모두 피웠으니, 또한 분에 넘치는 봄 경치를 만났다고 할 수 있다. 또 근일에는 날씨가 좋지 않아 뜰 앞의 해나무와 버드나무는 아직도 잎이 무성하지 않았고, 십의대 가의 풀꽃은 이제야 겨우 싹이 났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웠다.

#### ◆ 4월

○ 1일. 반쯤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포의단(褒義壇) 향사(香舍)에 담을 쌓는 등의 공역이 지금 체계가 잡혔다. 단임(壇任) 이병좌(李炳佐)·이한영(李漢英)·한검리(韓檢履), 단장(壇長) 이종돈(李鍾敦), 별유사(別有司) 이윤직(李允植)·권혁규(權赫圭)가 영구히 제향하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한 끝에, 기문(記文)을 걸려고 나에게 글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때문에 이 일의 대략을 다 기록하여 판각하도록 맡겼다.

188)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로 훈시나 명령을 내림. 또는 그 훈시나 명령.

189) '봄을 전별(餞別)하는 날'이라는 뜻으로 음력 3월 그믐이다.

187) 정식으로 조정에 바치는 부세(賦稅)와 방물(方物)을 말한다.

○ 며칠 전에 근효곡(勤孝谷)의 육영재(育英齋)에 들어가 두루 살펴보니, 뜰에 약간의 풀꽃들이 나란히 심어져 있었는데, 실로 일컬을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포도(葡萄)와 산다화(山茶花) 각 한 그루에서 씨를 받아 보내고, 또 변도의(卞道義)에게 명하여 ‘가서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초록한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일러주어 바로잡으라’고 하였다.

○ 방금 서면 장(西面長)의 보고서를 보니, ‘본 면의 한사곡(寒沙谷)은 바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40세쯤 되는 남자가 상의가 벗겨진데다 베 한 가닥으로 그 수족이 묶여[裹足布] 있었으며 또 한 가닥으로 목이 묶이고 입을 다문 채 목에 칼이 찔러 죽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듣고는 매우 놀랍고 두려웠다. 그래서 급히 가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상황을 관찰부(觀察府)에 보고하였다.

○ 경부철도주식회사(京釜鐵道株式會社)의 총재(總裁) 후루이치 고이(古市公威)가 공함(公函)을 보내왔다.

“우리 회사가 철도를 속히 공사하여 이미 완공하였으므로 올 1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니, 실로 다행입니다. 이에 오는 5월 25일에 경성(京城)의 남대문(南大門) 밖에서 개통식(開通式)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당신을 초청하기를 간절히 바라노니, 이날 꼭 왕림해 주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두루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또 회사의 개통식에 와달라는 초대장 1장 및 왕래할 때 탈 개통식 우대 승차권과 5월 10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1등표(標) 각 1장을 보내왔다.

근래 신문을 보니, 일본 후시미노미야 히로야스친왕 전하(伏見宮博恭親王殿下)가 개통예식을 구경하기 위해 이달 15일에 출발하여 20일에 서울에 도착하였고, 천하에 뜻이 있는 자로서 큰 소리로 외치며 반열에 참석한 자들이 10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였다. 스스로 돌아보건대, 노쇠함이 이처럼 심한 상황이지만 한 차례 가서 구경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휴가를 얻기 위해 공주(公州) 징청각(澄淸閣)에 머물고 있는 여산(礪山) 정관희(鄭觀喜)에게 편지를 썼다.

○ 본군(本郡)에는 2일에 처음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3일 묘시(卯時)에 이르러 개었는데, 밭을 갈기에 꼭 알맞게 내렸다. 농사로 말하면 작년 가을 이후로 너무 가물어 가을보리는 싹이 패지 않았는데도 불타는 듯이 누렇게 되었고, 봄보리도 겨우겨우 싹이 난 것은 아직까지 겹겹질을 벗지 못하여 모두 열매를 먹을 가망이 없다.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그저 걱정스럽기 그지없어 농사일에 대해 관찰부(觀察府)에 보고하였다.

○ 오늘은 욕불일(浴佛日 8일)<sup>190)</sup>이다. 국상(國喪) 때문에 연등(燃燈) 장식의 기쁨을 보지 못해 매우 적적하였다. 정오쯤에 걸어서 망한사(望漢寺)에 갔는데, 한산하였다. 주지승 잠이(岑二)는 지난 3월 모일에 유람하러 강원도 금강산(金剛山)에 갔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승려 두찬(斗讚), 계원(繼圓), 성문(聖文), 창흠(昌洽) 등은 또 유람하러 지금 강릉 내산(內山 내금강) 등지에 간다고 하면서 나에게 신표(信標)를 요구하므로 그들에게 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향장(鄉長)의 집에 들어가 집안의 공역 상황을 두루 보니, 토목공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또 영감 이운초(李雲樵)를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다. 이 또한 답답한 심정을 푸는 방법이다.

○ 일진회(一進會) 사무소가 설치된 이후로 연이어 현기증 때문에 한번 가서 대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날 잠시 해당 사무소에 갔더니, 사무원(事務員) 송태호(宋泰湖)와 양재선(梁在善)이 머무르게 하여 접대하였다. 이어 일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에 관아로 들어왔다.

○ 올해 보리농사가 이미 흉년으로 판가름 나서 백미(白米) 1말 값이 9냥 남짓이나 되었으므로, 사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도 지금 시기에는 모두 끊어졌으니, 이렇게 농사를 짓는 때에 더욱 염려스럽고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때에 미쳐 사창(社

190) 불상을 목욕시키는 날이라는 뜻으로, ‘초파일’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倉)<sup>191)</sup>의 쌀을 떼어 달라고 청하는 것이 좋겠기에 이렇게 말을 만들었다.

“곤궁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든 것이 어느 때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올해는 거듭 흉년이 든 나머지 쌀독이 모두 텅텅 비고, 해일(海溢)이 발생한 뒤에 보리가 모두 수몰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제할 일은 오히려 차치하더라도 지금 당장 굶주림에 허덕이는 상황이 참혹하여 차마 볼 수 없습니다. 본군에서는 사창의 환미(還米)를 지금 즉시 분급하여 양식을 도와주어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급선무에 맞을 듯합니다.”

그러고는 관찰부(觀察府)에 보고하였다.

○ 오늘은 바로 아버지의 기신(忌辰)이다. 처음에는 몰래 상경하여 직접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으나, 근일 현기증이 끝내 차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성을 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들 익선(翼善)에게 명하여 3시에 열차를 타고 올려 보내게 하였고, 밤 자시(子時)에 망배례(望拜禮)를 행하였다.

○ 도사(都事) 이윤직(李允植)이 승어 4마리를 가지고 와서 뵈었으므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승어를 모두 내어 주어 국을 조리하는 재료로 공급하여, 서사(書寫)하는 아전 및 방자(房子) 등에게 국을 나누어 주었다.

○ 안현리(鞍峴里) 거주민들이 글을 올려 정소(呈訴)<sup>192)</sup>하였다.

“신덕리(新德里) 김교철(金敎哲)이 작년 11월에 본 마을의 단백호(單白虎)<sup>193)</sup>에 입장(入葬)하였는데, 이후로 온 마을에 우환이 계속 이어져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6, 7 명입니다. 즉시 신칙하여 파내어 이장하도록 해주소서.”

그래서 즉시 대면하여 일을 처리하고 파내는 일을 감독할 사람을 해당 마을의 백성과 함께 내어 보냈다.

191) 조선시대 각 지방 군현의 촌락에 설치된 곡물 대여 기관. 향촌 자체의 민간 빈민 구호기관의 성격을 지녔다.

192) 소장(訴狀) · 고장(告狀) · 소지(所志) 등을 관청에 바치는 것.

193) 뒷자리 주맥에서 한 가닥으로 갈려나간 오른쪽의 산맥이다. 여러 가닥이 중첩된 경우에는 내백호(內白虎) · 외백호(外白虎)로 나뉜다.

○ 고을 사창(社倉)의 사미(社米)는 모두 곡(斛)<sup>194)</sup>으로 헤아려 분급하는데, 각 마을의 사미에 흠축(欠縮)이 났다. 작년 가을 환자(還子)<sup>195)</sup>를 거둘 때 곡마다 공평하게 거두어 둔 것으로, 나누어 주는 날에 미쳐 각 마을의 사미는 별달리 흠축난 것이 없었지만 고을의 각 마을에서 거둔 것은 이처럼 흠축이 났으니, 이는 창고지기들이 농간을 부린 것이다. 옛 관습을 따라 엄히 신칙하고 말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일일이 징수하여 각 마을에 도로 돌려주도록 분부하였다.

○ 21일, 저번에 일본 황실에서 우리나라의 축첩대사(祝捷大使) 의양군(義陽君) 이재각(李載覺)<sup>196)</sup>씨가 파견 온 데 대한 성대한 뜻에 특별히 감동하여 극진히 환영하고 우대하였다. 지리궁(芝離宮)에 숙소를 정해 주고, 심지어 어전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 특별히 대훈장 격인 동화대수장(桐花大綬章)을 내리고 주일공관(駐日公館)에서 연향을 베풀었다. 또 황족과 여러 나라의 공사들이 모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표하여 특별히 원유회(園遊會)를 베풀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예의상 사신을 보내 보빙(報聘)하지 않을 수 없어 황족인 해군 소좌(海軍少佐) 후시미노미야 히로야스 친왕전하(伏見若宮博恭親王殿下)를 선발해 파견하여, 축하에 대한 답례의 임무를 맡고 한국에 왔다. 수행원은 칙임(勅任) 식부관(式部官) 니와 류노스케(丹羽龍之助), 주임(奏任) 해군 중좌(海軍中佐) 세키노 겐키치(關野謙吉)와 육군 소좌(陸軍少佐) 다케 다다타카(伊達紀隆), 가령(家令) 미마키 겐키(御牧賢基), 판임(判任) 시나가와 주이치로(品川十一郎)와 우타가와 다이슈(宇田川泰秀)이고, 동반(同伴)은 체신대신(遞信大臣) 오우라(大浦) 외 여러 사람이었다.

194) 열 말, 즉 한섬이다.

195) 봄에 관곡(官穀)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다가 가을에 이식(利息)을 붙여서 거둬들이는 것. 또는 그 곡식, 즉 환자곡(還子穀)의 준말로도 쓴다.

196) 대한제국기 공내부특진관, 특명영국대사, 종정원경 등을 역임한 관료. 1905년 종정원경(宗正院卿)에 이르렀고, 같은 해 3월 러일전쟁 전승을 축하하는 특파대사로 일본에 파견되어 1개월간 머물렀으며, 7월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취임하였다. 일제 강점 이후 1910년 10월 「조선귀족령」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았고, 이듬해 한일병합에 관한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16만 8천원의 은사공채를 받았으며, 1912년 8월 1일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도쿄(東京)에서 이번 양력 5월 13일에 출발하였는데, 명을 받고 국경을 나와 20일에 부산항(釜山港)을 건너고 21일에 부산항에서 오전 7시 20분에 어용(御用)인 황옥열차(黃屋列車)를 타고 오후 5시 10분에 본군(本郡)의 정거장을 지났으며, 또 7시 20분에 남대문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연화포(煙火炮)를 십 수차례 시끄럽게 쏘았다. 반접관(伴接官) 김용제(金鎔濟), 윤치호(尹致昊), 박용화(朴鏞和), 이근상(李根湘) 및 문무 관원과 여러 사람이 영접하여 곧바로 경운궁(慶運宮)<sup>197)</sup> 돈덕전(敦德殿)<sup>198)</sup>으로 들어갔다.

공수(供需)는 독일의 고등(高等) 부인 손탁(孫擇)<sup>199)</sup> 양에게 위임하고, 접대(接待) 의례(儀禮)는 궁내부 고문관(宮內府顧問官)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및 농상대신(農商大臣)인 예식원 서리(禮式院署理) 박제순(朴齊純)과 궁내부 참서관(宮內府參書官) 김용제(金鎔濟)에게 전담시켰다.

22일에 수옥헌(漱玉軒)에서 황상폐하(皇上陛下)를 알현하고 국서(國書)를 올린 뒤, 같은 날 어전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 23일에 황상폐하께서 돈덕전에 납시어 회사례(回謝禮)를 행한다.<sup>200)</sup>

25일에 경부철도(京釜鐵道)의 개통예식(開通禮式)에 참석하고, 26일에 창덕궁(昌德宮) 옥류천(玉流川)의 비원(祕園)에서 원유회(園遊會)를 베푀다.

○ 대개 이번 영접(迎接)은 오로지 우리가 (러일전쟁) 축첩대사를 파견해준 것에 대해 우대하고 환영하는 마음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반접관(伴接官)인 궁내부 고문관(宮內府顧問官) 가토 마스오(加藤增雄) 및 예식원(禮式院)의 예식관(禮式官) 고희경(高羲敬)·현백운(玄百運)·고희준(高羲駿), 무관 현

보운(玄普運), 예식원 주사(禮式院主事) 이영규(李榮圭)가 먼저 부산항(釜山港)에 갔는데, 이는 일본 사람 경부철도(京釜鐵道) 총재(總裁) 후루이치 고이(古市公威)를 영접하기 위해 앞서 부산항에 간 것이다.

또 부산에서 경성(京城)까지 경유하는 곳에는 각 도(道) 관찰사 이하 각 지방관이 소학교(小學校) 생도(生徒)를 데리고 소례복(小禮服) 차림으로 정거장에 나와 머리를 숙여 경례하며 환영한 뒤에 즉시 명첩(名帖)을 바치고 이어 호송하라는 내부(內部)의 훈칙(訓飭)을 거행해야 했다. 그래서 나도 오후 1시에 정거장에 나갔다가 일본 순사(巡査) 다케사코 나오타로(竹迫直太郎)를 만났다. 그에게 보빙(報聘)하는 대사(大使)를 영접하는 절차와 몇 시에 도착하는지를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오늘 오후 5시 10분에 이곳을 지나는데, 정차(停車)하지 않아 명첩을 바칠 틈이 없습니다. 그저 단신(單身)으로 길가에 서서 기다리다가 열차가 지나갈 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지금 날씨도 좋지 않고 시간도 이른데, 노인이 어찌 광활한 곳에서 서성거리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어 나에게 청하여 매표소에 이르게 하니, 바로 오후 2시 15분이었다. 평택역 역장(驛長) 허배리차랑(許裴里次郎)과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실 때 근읍(近邑)에서 구경하러 모인 수십여 명이 모두 찬바람을 견디지 못해 매표소 근처로 몰려들어 곧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므로 매우 혼란스러웠다.

4시 20분에 일본사람들이 이들을 모두 정거장 동쪽 철로의 수십 보 밖으로 지시하여 보내고 나서, 나무 말뚝을 박고 새끼줄을 가로로 길게 쳐서 경계선을 만든 다음 늘어섰다. 내가 데리고 온 수십 명에 대해서는 바람을 피할 곳을 택해 모여 있게 하고 몰아낸 사람들 틈에 뒤섞이지 않도록 하였으니, 또한 참으로 감사하였다.

○ 또 통역 및 두어 명의 일본 사람과 만났는데, 그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다. 또 5시에 성환(成歡) 정거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대사(大使)가 지금 도착하여 잠시 정차하고 있다고 하고, 또 5시 5분에 전화가 왔는데 방금 출발하였다고 하였다. 일본사람들이 나에게 청하여 관복(官服)으로 갈아입고 함께 나갔다가 철로의 동쪽 자리를 펼쳐둔 곳에 단신으로 홀로 서있었다.

197) 당시에 고종이 머물던 정궁(正宮)인데, 1907년에 순종에게 양위(讓位)한 뒤에 태상황(太上皇)으로 계속 머물게 되자 고종의 장수를 빈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덕수궁(德壽宮)이라고 바꾸었다.

198) 고종 즉위 40주년을 맞아 칭경(稱慶, 축하의 의미) 예식을 하기 위한 서양식 연회장 용도로 지은 건물이다. 그 뒤에도 이곳에서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였으며, 순종이 이 건물에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199) 경운궁 옆 지금의 이화여고 자리에서 서양식 호텔인 손탁호텔을 경영하던 손탁(Sontag, A. 孫澤, 1854 1925)을 말하는데, 1885년 10월 초대 주한 러시아공사 웨베르(Waeber, K.)를 따라 내한하여 25년간 한국에서 생활하였다.

200) 기차가 평택을 지나가는 날은 5월 21일이다 이후에 정해진 일정을 21일 일기에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이다.

잠시 뒤에 열차가 올라왔는데, 화통차(火桶車) 앞에 국기(國旗) 두 개를 꽂고, 이어 또 열차 4칸 중에 앞 2개 칸에는 모두 일본 병사 수백 명이 타고 있었으며 3번째 칸에는 대사가 타고 있었고, 4번째 칸에는 한국과 일본의 접반관(接伴官)들이 타고 있었다. 3번째 칸 열차에 황색 빛깔을 칠한 것을 보니, 틀림없이 대사가 타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고 영접하였는데 잠깐 사이에 지나가버렸다. 어떻게 생긴 인물인지, 또 탑승하는 절차와 제도를 자세히 볼 틈이 없었다. 이에 도로 대표소로 들어갔는데, 그사이 걸린 시간은 15분이었다. 이어 옷을 갈아입고 여러 일본 사람과 작별인사를 하고 관아로 돌아왔다.

○ 사시(巳時)에 동창(東倉)에 나가 사환(社還)을 분급하고, 내리창(內里倉)에 가서 사환미(社還米)를 일일이 곡(斛)으로 헤아려 분급하였다. 각 면(面)의 흙축난 쌀로 말하면 남면(南面)은 20말 4되이고, 서면(西面)은 5말 7되이며, 북면(北面)은 6말 6되였다. 해당 사수(社首)에게 엄히 신칙하여 기한을 맞춰 채워 바치게 하여, 각 해당 마을에 도로 분급하도록 분부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두정리(斗井里)에 들어가 김인수(金仁洙)를 방문하고 곧바로 돌아왔다.

○ 소북면(小北面) 창고에 수서기(首書記)와 해당 색리(色吏)를 보내 사미(社米)를 분급하게 하였다. 지난번 해일(海溢)을 보고하지 않은 일로 해당 면장(面長)을 잡아다 대령시키도록 신칙하였는데도 병을 핑계대어 대령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한 달이 되도록 자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순교(巡校)를 파견하여 잡아오게 하였는데, 해당 면장이 그동안 죄를 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못된 버릇을 엄히 다스려 후일을 경계시켜야 했다. 곧바로 매로 20도(度)를 치고 칼을 씌워 단단히 가두었다.

○ 지난달 보름쯤에 평소 ‘이 사람은 학자(學者)의 명색에 가깝다.’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직산(稷山) 우와리(牛臥里) 정문교(鄭文教)가 유생의 복장을 입고 구정(毬

庭)<sup>201</sup>에 들어와 무릎 꿇고 앉아 정장(呈狀)하였다.

알아 보니, 와야동(瓦也洞) 백성이 무덤가에 심은 나무 5그루를 베어 간 일이었다. 대질(對質)시키자 서로 시비를 따졌다.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을 꾸짖어 타이르고 개인적으로 화해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정씨 양반이 대신(大臣) 김가진(金嘉鎭)씨의 글을 첨부하여 뜰에 들어와 정소(呈訴)하고 횡설수설하며 패악한 말을 날조하니, 이른바 학자라고 칭송 받는 사람이 진실로 이와 같단 말인가. 그래서 제사(題辭)에 ‘전답(田畓)은 이미 때가 늦어 예전에 경작하던 사람에게 돌려주고, 소나무에 관해서는 또 개인적으로 서로 합당하게 논의하여 화해하였으니, 굳이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정씨가 또 무릎 꿇고 아뢰기를, ‘그중에 10마지기는 부득불 새로 차출한 모지기에게 특별히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분간하여 처리하고 정씨를 내보냈다.

○ 소북 면장(小北面長)이 법령을 태만히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철창(鐵槍)과 몽둥이를 점고(點考)하는 데 참석하지 않았고, 해일(海溢)의 상황에 대해 보고기한을 어긴 것은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아는 사실이다. 게다가 관령(官令)을 내어 잡아대령시키게 했는데도 병을 핑계 대고 나오지 않아 잘못을 답습함이 더욱 심하였다. 해당 면장을 이번에 잡아 가두고 징계하는 것 또한 향약(鄉約)에서 충분히 상의하여 의견을 수렴한 다음 별도로 경계시켜 그로 하여금 잘못을 깨우칠 것을 다짐하여 다시는 전처럼 행동하지 말도록 신칙하였다.

○ 신문(新聞)을 보니, 일전에 경부철도(京釜鐵道) 개통식장(開通式場)의 여러 의절(儀節)이 과연 장대하였다. 그래서 대략 뽑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개통식장은 남대문 밖 정거장에 설치하였다. 열 길이나 되는 녹문(綠門)을 세우고 ‘개통식(開通式)’ 3자로 편액하였으며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고 또 오

201) 궁중(宮中)이나 부호(富豪)·귀족(貴族)들의 집안에 있었던 격구(擊毬)를 하는 크고 넓은 마당을 이른다. 고려 때에는 격구가 성행하여 궁정을 둔 집이 많았다. 이 글에서는 격구를 할 정도의 넓은 마당을 말한다.

색의 꽃으로 장식하였다. 전등(電燈)을 칭칭 감아서 빙 둘러 붙여 휘황찬란하게 밝혀서 야간을 대비하니, 불야성(不夜城) 같은 광경이었다. 녹문 안쪽 우측에는 군마(軍馬)의 대식소(待食所)와 헌병(憲兵)의 출장소(出張所)를 설치하고, 좌측에는 식품점(食物店)을 설치하였으며, 또 내빈들의 휴게소를 설치하였다. 정면(正面)의 대식당(大食堂)은 길이와 너비가 약 40칸이었는데, 솔잎으로 장식하고 크고 작은 나라들의 국기를 게양하였으며, 1200여 명의 빈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 옆에는 군악소(軍樂所)를 설치하고, 식당의 뒤에는 21칸의 건물을 지었으며, 식당의 뒷산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중간에는 다정(茶亭)과 맥주정(麥酒亭)이 있었다. 기타 각종 설비 시설에서도 내빈들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또 그 밖에 조화(造花)와 인형에 대해서는 형용할 겨를이 없다.

내빈이 술가지로 장식한 문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응접원이 있는데, 명함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통식기념 회화엽서(開通式紀念繪畫葉書) 5매, 쌍계(雙鷄)와 후지산(富士山)을 그린 부채 1자루, 경부철도 선로안내도(京釜鐵道線路案内圖) 1본, 선로약도(線路略圖) 1본, 《경영개요(經營概要)》 1책을 증정하였다. 좌측 응접원은 개통식순서 1본, 좌차도(坐次圖) 1본, 능악재예부(能樂才藝部) 1개를 증정하였다. 뒤로 내문(內門)으로 들어가면 두 개의 처마가 나는 듯하고 3개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데, 푸른 소나무로 장식하고 황굴(黃橋)로 연결하였으며, 국기(國旗) 1000장과 동근 등 1만 점(點)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큰 깃발과 교차한다.

내빈이 이곳을 거쳐 식당을 통과하여 좌측으로 돌아 식당에 이르면 1만 그루의 앵두꽃들이 좌우로 활짝 피어 방산(芳山)의 봄 풍경과 흡사하였다. 한 자리는 푸른 난간과 붉은 천막이 높고 넓어 흰하고, 천막에는 각 나라의 깃발을 달았으며, 땅바닥에는 백포(白布)를 펼쳐 두고, 좌탁(坐卓)에는 ‘식장(式場)’ 2자로 편액을 하였다. 좌측에서는 칙임(勅任), 외교관, 고등관, 귀족원(貴族院)과 중의원(衆議院)의 의원(議員), 외국과 일본의 귀부인들이, 우측에서는 모든 신사와 내빈이 후시미노미야 히로야스친왕(伏見宮博恭親王)과 의양군(義陽君 이재각)을 기다렸다.

○ 식당의 동쪽 위에는 새로 만든 누각 하나가 있고, 벽화에는 푸른 소나무와 초록

대나무가 붉은 비단에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었다. 돈의자(墩椅子) 한 쌍이 있는데, 왼쪽 의자의 뒷자리는 바로 후시미노미야 히로야스친왕(伏見宮博恭親王)의 자리이다. 무관(武官) 및 오우라 체상(大浦遞相), 하세가와(長谷川) 대장(大將), 하야시 공사(林公使)와 여러 사람이 함께하였다. 우측 의자의 뒷자리는 바로 의양군(義陽君 이재각)의 자리인데, 심 참정(沈參政)과 박 농상(朴農相)이 함께하며, 그 나머지 각 대신은 난간 밖 남쪽 뒷자리에 줄지어 앉고, 각 나라의 공사와 각 고문관도 줄지어 앉았다.

오전 10시 15분에 한국 군악대가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였는데, 독일 악사(樂師)<sup>202)</sup>가 중앙에서 지휘하였다. 10시 45분에 폭죽을 터트리고 음악을 멈추었다. 총재(總裁) 후루이치 고이(古市公威)가 머리를 숙여 경례하고 식사(式辭)를 낭독하였으며, 후시미노미야 히로야스친왕이 해군(海軍)의 정복(正服) 차림으로 일어서서 경의(敬義)를 표하였다. 의양군이 문관의 예장(禮裝) 차림으로 일어나 자리에서 내려와 영지(令旨)를 낭독하자 여러 내빈이 모두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였다.

미국 공사 안련(安連 알렌)씨가 정성을 다해 한마음으로 축사를 하였고, 체신대신(遞信大臣) 오우라 가네타케(大浦武兼)씨와 농상대신(農商大臣) 박제순(朴齊純)씨가 축사를 낭독하였다. 내빈들의 인도를 받아 연석(宴席)에 이르자 모두 자리로 나아갔다.

○ 대개 식당을 만든 곳에는 채색 꽃이 총총히 꽃혀있고, 비단 탁자는 겹겹이 놓여있으며, ‘환영(歡迎)’ 2자로 편액을 하였다. 육일기(旭日旗)와 태극기(太極旗) 양국의 국기가 교차되어 있고, 산해진미(山海珍味)가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후시미노미야 히로야스친왕(伏見宮博恭親王)은 한국의 황제를 위하여, 의양군(義陽君)은 일본 황제를 위하여 각자 잔을 들고 만세를 세 번 불렀다.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고 여러 내빈이 모두 한 목소리로 화응(和應)하자 모자를 벗고 경례하였다.

202) 고종이 1900년 12월에 군악대 설치령을 내리고, 이듬해 2월에 독일 출신의 음악가 프란츠 에케르트가 대장으로 부임하여 대한제국 군악대를 지도하였다. 일본제국의 국가인 기미가요를 작곡했던 그가 대한제국의 국가도 작곡하였다. 그는 뒷날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묘지에 안장되었다.

순서대로 물러나갈 때는 흑 채색 꽃을 모자에 꽂기도 하고, 경부철도 기념 잔 1구(具)와 황금 기념 치아개(齒牙箇) 1구를 각자 품에 안고 나갔다. 능악당(能樂堂)에서 여흥(餘興)을 한창 거행할 때 친왕과 의양군이 여러 내빈과 자리에 나아가 그 예술품을 구경하였는데, 형형색색의 물품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 원유회(園遊會)는 능악당(能樂堂)의 뒤에서 베풀었는데, 산속 계곡이 굽어 있고, 채색 꽃이 나무에 가득하며, 그윽한 감상이 맑고도 하사하여 곳곳마다 정교하게 꾸몄다.

첫 번째 굽이에는 상심정(爽心亭)이 있는데, 옛날 기물을 진열하여 박물관(博物會場)과 흡사하였다. 두 번째 굽이에는 삽화정(插花亭)이 있는데, 오래된 소나무와 기이한 꽃이 서로 봄빛을 뽐내고 있었다. 세 번째 굽이에는 다화석(茶話席), 석정품(石鼎品), 천옥잔(泉玉盞), 명향(名香)이 있었다. 네 번째 굽이에는 망원대(望遠臺)가 있는데, 진흙으로 만든 인물 형상이 있었다. 다섯 번째 굽이에는 등화정(藤花亭)이 있었다. 여섯 번째 굽이에는 맥주점(麥酒店)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곳곳에 술상을 차려 놓고 마음껏 담배를 피우며 무한히 즐기고 마시니, 야유원(冶遊園)의 즐거움이 있었다.

○ 대신악(大神樂)은 녹문(綠門) 안쪽에 설치하였는데, 공을 치고 북을 울리는 것이 매우 신묘하여 박수갈채를 보내며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경기구(輕氣球 애드벌룬)에는 ‘경부철도개통식(京釜鐵道開通式)’ 7자를 달았고, 아래에는 해군한 명이 손으로 쥔 일장기(日章旗)를 달았는데, 표표히 허공을 날아가 아득히 구름 속으로 들어가 그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폭죽은 녹문 밖 서쪽에 설치하였는데, 한번 터질 때마다 사람, 물고기, 날짐승, 길짐승이 바람을 타고 허공에서 놀다가 소리 없이 내려앉는 듯하여, 갖가지 모습이 매우 볼만 하였다.

힘을 겨루는 놀이는 녹문 밖 남쪽에서 열렸는데, 꽃 같고 달 같은 궁궐의 기녀 수십 명이 정돈한 채로 채삼(彩衫) 차림을 하고 있었다. 검무(劍舞), 남무(男舞), 승무

(僧舞) 등은 놀란 기러기와 나는 제비처럼 붉은 소매를 나부꼈는데, 이는 한국의 운사(運社)에서 볼거리를 제공한 것이다.

홍촉(紅燭)을 밝히고 기쁘게 즐겼는데 밤이 되니 아름다웠다. 오후 7시에 전등(電燈)과 구등(球燈)을 일시에 켜니, 성수해(星宿海 은하수)처럼 찬란하였다. 가운데에 희극 무대가 있는데, 꼭두각시[曲頭閣氏]가 알록달록한 옷으로 분장을 하고서 음악을 섞어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여흥을 도왔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비처럼 땀을 흘렸으니, 동서양에서 천 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 또 화성대(和城臺)에서 환영회가 있었고, 옥류천(玉溜泉)에서 원유회(園遊會)가 있었다. 농상대신(農商大臣) 박제순(朴齊純)씨가 동궐(東闕 창덕궁) 안 비원(秘苑)에서 원유회를 열어 후시미노미야 히로야스친왕(伏見宮博恭親王)과 의양군(義陽君), 그 다음으로 귀족원 중의원 두 의원(議院)의 의원(議員)들과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여 맞이하였다.

26일, 오후 3시에 여러 내빈을 맞이하여 영화당(映花堂)에서 잠시 쉬다가 또 주합루(宙合樓)에 나아가 연회를 열었는데, 음악 소리가 맑게 울렸다.<sup>203)</sup> 요리는 한국 음식이었다. 각 나라의 공사 및 가족들과 내외 문무관 및 신사 400여 명이 연경당(演慶堂), 옥류천(玉溜泉), 금마문(金馬門), 부용정(芙蓉亭), 존덕정(尊德亭), 취한정(翠寒亭), 농산정(籠山亭) 등 여러 장소에 많은 요리를 차려 놓고 내빈들이 자유롭게 가서 먹었다.

이날 오전에 조금 비가 내리고 오후에 하늘이 맑게 개였으므로 녹음과 꽃들이 한층 더 아름다웠으며, 비원(秘苑)에서 화기(和氣)가 넘쳐났다.

○ 27일, 후시미노미야 히로야스친왕(伏見宮博恭親王)이 이날 오전 10시 돌아갔는데, 열차로 인천항(仁川港)에 도착했다가 만주 등지로 가서 전사(戰士)들을 위문

203) 맑게 울렸다 : 저본에는 ‘유량(劉嘯)’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에 근거할 때 ‘류(劉)’는 ‘료(嘯)’가 되어야 할 듯하다.

한다고 하였다. 송별할 때의 여러 절차는 모두 도착하던 날과 같았다.

○ 앞 점포의 여아들이 담의 무너진 곳을 통해 몰래 들어와 작약(芍藥) 4송이를 꺾어 갔다. 저들은 그저 꽃이 곱고 예뻐서 볼만 하다는 것만 알고 이 늙은이가 밤낮으로 보호하고 기른 것은 헤아리지 않았으니, 아 또한 한탄스럽다.

○ 오는 3일은 의관(議官) 강영원(姜永元)씨의 생일이다. 내가 이곳에 온 뒤로 그에게 연일 술과 국수를 대접 받아 마음속으로 매우 염치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5냥의 값을 치르고 승어 4마리를 사다가 편지로 문안하니, 강원석(姜畹石)<sup>204</sup>이 마침 상경했으므로 봉표(捧標)만 보내왔다.

## ◆ 5월

○ 1일. 우리나라(조선)가 기원(紀元)한지 500년 이래로 법률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법률이 없는 것과 같은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근세에 이르러서는 더욱 여지없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권세가와 재력가는 법률에 거리가 없고, 어리석은 자는 엄중한 줄을 모르고 함부로 범하며, 교활한 자는 엄중함을 알면서도 방자하게 행동하여, 나라의 법이 문란해져 행하는 데 힘쓰지 못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지금 이른바 법률을 본받아 행한다는 것은 바로 《대명률(大明律)》 등의 약간의 책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자질구레하고 가혹한 데 치우쳐 시국(時局)의 요령에 맞지 않는다. 근래 들으니, 지방 재판소의 고문하는 신장(訊杖)과 여러 악형(惡刑)이 문명주의(文明主意)에 매우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논할 것도 없으니, 어찌

204) 원석(畹石)은 강영원의 호인 듯하다.

해야 한단 말인가.

법을 맡은 관리가 권세가를 두려워하고 금품을 좋아하여 아침에 판결한 것을 저녁에 뒤집으며, 잘못된 사람에 대해 승소 판결을 하고 정직한 사람에 대해 패소 판결을 한다. 그러므로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소송에 대해 모두 사리에 맞아도 패소로 처리하는 것은 형세상 필연적인 것이니, 이는 나라에 떳떳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우리 대황제폐하(大皇帝陛下)께서 이러한 상황을 통촉하고 법부(法部)에 특령(特令)을 내려 법전을 새로 만들게 하고 이름을 《형법대전(刑法大全)》이라고 명한 뒤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도록 하였다.

○ 관동(官僮 관아의 어린 종)에게 명하여 뒤섞여 있는 화단에서 각종 꽃을 캐다가 각 청(廳)과 고을의 각 마을 및 강원석(姜畹石)의 집과 육영재(育英齋)에 나누어 주게 하고, 정죽성(鄭竹醒) 사백(詞伯)에게 편지를 썼다.

○ 오늘은 바로 천중절(天中節)<sup>205</sup>이다. 전에는 난탕(蘭湯)에 목욕하고, 창포(菖蒲)를 술에 띄우며 재미있게 놀던 명절이다. 또 건청궁(乾淸宮)<sup>206</sup>에서 은혜로운 명을 받아 시복(時服 계절 옷)을 하사 받고 분단(粉團)<sup>207</sup>과 앵도(櫻桃) 등의 음식물을 나누어 받고 물러나와 공상소(工桑所)<sup>208</sup>의 여러 동료에게 주어, 두터운 임금의 은혜를 흠뻑 받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먼 지방에서 외롭게 살고 노쇠함이 침범한 탓에, 한 고을을 맡아 풍속을 양성하는 데 오히려 완전히 어둡고 온갖 일들이 쓸쓸하고 처량하니, 어

205) 음력 5월 5일 단오절의 별칭인데, 송나라 진원정(陳元靚)의 《세시광기(歲時廣記)》에 “5월 5일은 곧 천수에 부합하므로 오시가 천중절이 된다.[五月五日 乃符天數也 午時爲天中節]”고 하였다. 초나라 충신 굴원이 소상강(瀟湘江)의 먹라연(汨羅淵)에 몸을 던져 죽은 날이 5월 5일이었으므로 이날을 추모하기 위해 생긴 명절이다

206)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에 있는 조선후기 왕과 왕비의 거처 및 외교관 접대 장소로 이용된 궁궐건물. 경복궁 중건이 끝난 지 한 해 뒤인 1873년에 궁궐 안에서 가장 깊숙한 자리에 창건되었으며, 국왕과 왕비의 거처로 이용되거나 외교관 접대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207) 찹쌀로 만든 떡의 일종으로, 찹쌀가루를 식물의 잎으로 싼 뒤에 기름에 튀겨서 만든다. 수단(水團) 또는 백단(白團)이라고도 하는데, 단오날에 분단을 만들어 작은 소반에 담아놓고 화살을 쏘아 맞히는 자가 먹으며 놀기도 하였다.

208) 오형목이 51세 되던 1884년에 공상소(工桑所) 감동낭관(監董郎官)으로 근무하였다.

떻게 마음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 관직을 만든 법의 취지는 매우 엄중한데도 근래에 경거망동하여 인륜을 저버리는 자들이 감히 속임수를 써서 관고(官誥)를 위조한다. 그래서 ‘차함(借銜)<sup>209)</sup>이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백성을 선동하여 관직을 팔 곳을 찾으므로 무고한 잔민(殘民)들이 살아가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폐단이 점점 늘어나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관아에 이를 뿐만 아니라 또한 들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일이 많은데, 서울에서 지방까지 금지하지 못하고 예사롭게 보기만 한다. 세속에서 숭상함이 과연 어떠한가에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 일본 육군 헌병 소장(陸軍憲兵曹長)으로 훈7등(勳七等)에 서훈된 세토 도모아키(瀬戸口智章)와 통사(通辭) 이원상(李源常)이 와서 보고 말하였다.

“올 봄에 성환(成歡) 정거장(停車場)에 와서 머물며, 보호하는 일 등을 겸하여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볼 때 이웃 고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방문하였습니다.”

여러 사무를 이야기 한 다음 곧바로 갔다. 그 마음 씀이 매우 고마웠다.

○ 근래 일정한 직업 없는 폐악한 무리가 서울과 지방에 출몰하며 남의 자제들을 꼬드쳐 음모를 만들어 내고 있다. 호강(豪強)한 자들에게 의탁하기도 하고 외인(外人)과 결탁하기도 하여, 문권(文券)을 위조해서 전답을 훔쳐 팔거나 몰래 사채(私債)를 쓰게 한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주색(酒色)과 노름에 흥청망청 쓰다가 돈이 탕진되면 그 액수를 늘리거나 표기(標記)를 꾸며서, 마침내 그 자식에게 횡징(橫徵)하다가 그 아버지나 아우, 더 나아가 그 형에게 손을 뻗치며, 혹은 친척에게까지 손을 뻗친다. 이를 타일러도 되지 않고 금하려 해도 방법이 없어 신문에 광고(廣告)를 내니, 모두 이런 괴로운 사정들뿐이다.

209) 외국에 사신을 보낼 때에 그 사람의 관직이 높지 못하면 국가의 체면상 임시로 높은 직함을 붙여 주는 것을 가리킨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근무하는 벼슬이 아닌 명목상의 벼슬을 가리킨다.

전답을 사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훔쳐 파는 전답을 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빚을 거두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횡징으로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손해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는 법과 기강이 해이해지고 풍속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또 신문에 광고하는 것으로 말하면 진실로 예방하여 가산(家産)을 보전하려는 방법이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악행을 드러내고 형이 아우의 허물을 드러내어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마침내 가족 간에 은혜를 상하고 인륜을 멸하는 데 이른다. 그러니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말이 여기까지 미치니, 참으로 한심하다.

○ 근래에 오늘날처럼 도적들이 치성한 적이 없었다. 남의 재물을 약탈하는 근심과 사람을 죽이는 변고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남의 가옥에 불을 지르고 남의 무덤을 파며 못하는 짓이 없다. 게다가 의병(義兵)이라고 칭하는 자들은 먼저 관서(關西)에서부터 12도(道)의 여러 군에 만연하여 수백 명이나 혹은 일이천 명의 당을 모아 끝도 없이 불법을 자행하고 부민(富民)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강도보다 심하다. 이들이 마구 날뛰어 마을이 텅 비게 되고 나그네들의 발길이 끊기는 데 이르렀으니, 듣고는 마음이 서늘해지고 모골이 송연해진다. 가여운 저 백성들이 어떻게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그 원인을 따져보면 지방관에게 책임이 있다. 백성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자가 만일 성심으로 백성을 위하여 괴로움이 자신의 몸에 있는 듯이 여기고 이해가 자신의 피부에 절실한 것처럼 여겨, 특별한 뜻으로 법을 만들어 도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편안히 모여 살게 한다면, 어찌 방법이 없는 것을 근심하겠는가. 하지만 근래 관원의 규율이 해이해지고 법과 기강이 무너져 자신을 살찌우려는 욕심으로 백성을 편안히 할 계책을 생각하지 않는다. 혹 심하게 탐욕스러운 자는 무고한 사람을 해치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 유량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들이 분하고 원통함을 참지 못하고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양심을 잃고 나쁜 무리에 빠져들어 그 무리가 날로 늘어나서, 결국 만연하여 어떻게 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

나도 수령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맡은 군(郡)에 이르러서는 아직 불량한 무리와 의병이 일어나 시끄러운 상황은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안성(安城)과 죽산(竹山) 같은 군은 4, 50리 떨어져 있는 이웃 고을인데, 나쁜 무리가 창궐하여 소란스럽지 않은 날이 없다고 하는데도 이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어찌 물이 점차 스며드는 듯한 근심을 면할 수 있겠는가. 고을의 상태가 쇠잔하고 나의 노병이 이어지고 있으니, 지혜로운 자가 있더라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가의(賈誼)<sup>210</sup>가 말한 장탄식할 만한 일이 이것이다.

○ 아산(牙山) 남면(南面) 창북리(蒼北里)의 이성철(李聖喆)이 와서 뵈었는데, 바로 나의 스승인 증(贈) 동몽교관(童蒙敎官) 이규열(李奎烈)씨의 증손이었다. 그의 조부 이운식(李運植)은 임진년(1892)에 성안군(成安郡)에서 올라와 12월에 별세하였고, 그의 부친 이종진(李鍾震)은 작년 2월에 작고하였으므로, 가세(家勢)가 영락해져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하였다. 곧이어 물러가겠다고 하기에 돈 5냥을 주어 성의를 표하고 작별하였다.

○ 본도(本道)의 관찰사(觀察使 이건하)가 중추원 부의장(中樞院副議長)으로 옮겨 가고, 이달 4일에 육군 부장(陸軍部將) 권중현(權重顯)을 명하여 본도 관찰사에 서임하였다. 성주 군수(星州郡守) 남궁억(南宮億)은 근간에 이미 부임하였으므로 안부 편지를 작성하여 축하하고 겸하여 석성(石醒)에게도 아울러 편지를 부쳐달라고 부탁하였다.

○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초략(抄略)한 내용을 등사(謄寫)한 것을 합하여 엮으니, 모두 7책이었다. 박내희(朴來熙)로 하여금 장광(粧纘)하게 하고 《의감집요(醫鑑

210) 한(漢)나라의 대부 가의(賈誼)가 문제(文帝)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 중에 “당금의 형세를 보건대, 통곡(慟哭)할 만한 일이 한 가지이고,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 두 가지이고, 크게 탄식할 만한 일이 여섯 가지입니다.”라고 하고, 이어 그 내용을 진달하였다. 《한서(漢書)》 48권 《가의전(賈誼傳)》

集要》<sup>211</sup>라고 이름을 지었다.

○ 오늘은 아들 학선(學善)<sup>212</sup>의 생일이다. 슬프고 그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후원(後園)에 올라가 서울을 바라보고 도로 내려왔다. 내가 수령이 된 뒤로 지방에 있는 지 지금 19년이 되었다. 매번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어찌 서글픈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나이가 72세이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근래 또 병으로 인한 괴로움이 날마다 밀려들어 정신이 어둡고 정력이 떨어져 더는 전일의 기력을 바랄 수 없으니, 그저 스스로 크게 탄식할 뿐이다.

○ 15일, 오전 8시에 손자 이영(怡泳)이 열차를 타고 내려왔기에 만나보니, 아들 극선(克善)<sup>213</sup>의 편지를 가져왔다.

“늙은 어머니께서 어제 해뜨기 전부터 광란(霍亂)으로 수십 차례 구토와 설사를 하여 기력이 크게 떨어지고 맥박이 약하고 정신이 혼미합니다. 의원은 감찰(監察) 윤봉규(尹鳳奎)와 은진(恩津) 김중원(金鍾遠)으로, ○○○독삼탕(○○○獨蓼湯)과 삼강탕(蓼薑湯) 등의 약을 연이어 올렸지만 별달리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랫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여 아버지께 소식을 전합니다. ……”

듣고는 매우 경악하였다. 형세상 몰래 가서 직접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오후 3시에 손자 이영을 데리고 열차를 타고 상경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어 이기석(李己石)을 데리고 정거장으로 나가 오후 7시 표를 사서 열차를 타고 가다 남대문 밖에 도착하니, 곧 9시 30분이었다. 이날 저녁 달빛이 밝아 대낮 같았다. 이에 열차에서 내려 전차(電車)로 갈아타고 남대문으로 들어가 발길을 돌려

211) 여러 문헌에서 치료법 및 약물을 발췌하여 수록한 의서. 7권 7책 필사본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의서에서 진료에 필요한 치료법과 약물을 발췌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엮은 책. 내용은 내경편(內景篇)·외형편(外形篇)·잡병편(雜病篇)·탕액편(湯液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성총목(藥性總目)에는 약재 개개의 약성과 효능에 대하여 씌어져 있고, 그 약명에 한글을 병기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식물명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이다.

212) 1904년 12월 26일에 6품 회천군수에 임명되어, 오형목과 떨어져 살았다.

213) 1900년 11월 27일에 외국어학교 부교관(副敎官)으로 임명되어 서울에 살고 있었다.

황토현(黃土峴)에 도착하여 도보로 공후동(工後洞) 집에 들어가니, 여러 자질(子姪)과 친척들이 모두 일제히 모여 있었다.

곧바로 병소(病所)에 들어가 증세를 자세히 살피니, 원기가 크게 떨어지고 정신과 정력이 완전히 소모되었으며, 수족(手足)은 차갑고 흉격(胸膈)은 번열(煩熱)이 있으며, 혀는 검게 타고 목은 마르며 맥박은 가라앉아 미약하였다. 어제 아침부터 구토와 설사는 멈추었지만 먹은 것은 좁쌀 미음(米飮) 너댓 숟갈에 지나지 않고, 약물은 독삼탕(獨蓼湯)<sup>214</sup> 뿐이었으므로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75세의 노인이 갑자기 폭병(暴病)에 걸려 증세가 위태롭고 다급하였으므로, 아들, 손자들과 여러 가지 상태를 자세히 논의하다보니, 시간이 이미 오전 2시가 되었다. 나도 피로와 현기증이 배로 심해져 과연 수습하기 어려웠으므로 잠시 쉬었다.

16일. 반쯤 흐리다가 하늘이 환해졌다. 윤 의원(尹醫員 윤봉규)과 김 의원(金醫員 김종원)을 불러 상의하니, 소견이 대략 같았다. 생맥산(生脈散)<sup>215</sup> 등의 약제를 연이어 쓰니, 오후가 되자 조금 움직임이 있고 손과 발에 온기가 돌아왔다. 그러나 눈을 뜨고도 사물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려고 해도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며 목이 마르고 입이 타자 비로소 입을 가리킬 뿐이었다. 게다가 대소변을 보지 못하여 또 청심원(淸心元)<sup>216</sup> 1환(丸)을 썼다.

저녁이 지난 뒤에야 대소변을 보았지만 뒤가 무지근하였고, 변에는 조금씩 또 백담(白痰)이 나왔으니, 이와 같아서 이질(痢疾)이 염려가 되었다. 신시(申時) 이후에 아들 익선(翼善)이 영평(永平)에서 올라오고, 전서(磚西)에서 사람을 보내 전갈(傳

214) 원기를 몹시 손상하여 양기가 심하게 결여되고, 인연이 창백하고 정신이 흐릿하며, 사지가 시리면서 땀을 흘리고, 맥과 호흡이 미약한 증상을 치료할 때에 이 처방을 쓴다. 기절하여 죽을지 모를 위급한 상황에 종종 급히 사용했던 처방이다. 허준(許浚)의 《연해구급방》 「상기(上氣)」 조항에 갑자기 기운이 위로 치밀어 목구멍이 닫히고 코가 막힌 소리가 나며 가래 끓는 소리를 내는 경우 이는 숨이 끊어지는 증후이므로 속히 인삼고(人蔘膏)로 구해야 하며, 인삼고가 없을 경우 독삼탕을 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열에 한 명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인삼(人蔘) 한 냇을 거칠게 썰어 대추 다섯 개와 함께 물에 달여 수시로 복용한다.

215) 원기 쇠약(元氣衰弱)과 번조(煩燥)에 쓰는 탕약(湯藥). 인삼(人蔘)· 맥문동(麥門冬)· 오미자(吳味子)가 주재(主材)인데, 여름에 승능 대신으로 먹기도 한다.

216) 심경(心經)의 열을 푸는 데에 쓰이는 환약(丸藥)의 이름. 청심환(淸心丸). 해마다 날일(臘日)에 임금이 내의원(內醫院)에서 조제하여 가까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囑)하고 인삼 1근을 보내왔다. 밤에 전서에 가서 격조했던 회포를 풀고 잠시 뒤에 돌아왔다.

17일. 흐림. 병세가 어제보다 훨씬 나아졌다. 두 의원(醫員)을 불러 삼령차(蔘苓茶)를 쓰고, 위기(胃氣)가 오랫동안 손상된 것으로 인해 속미(粟米) 한 보시기를 썼다. 인삼 1냥, 황숙(黃粟)과 대자(大棗) 각 10매(枚), 생강 5잔(錢)을 넣고 함께 달여 수시로 먹게 하였다.

18일. 반쯤 흐림. 또 청심원 1환을 썼다.

19일. 흐림. 윤봉규(尹鳳奎)는 이렇게 말하였다.

“가슴과 배가 답답하고 -○○- 목이 마르며 대변을 보고 뒤가 무지근한 것은 모두 허번(虛煩) 때문입니다. 모조록 육미탕(六味湯)<sup>217</sup>을 쓴 뒤에 이러한 잡증(雜症)을 없앨 수 있습니다.”

김종원(金鍾遠)은 이렇게 말하였다.

“가슴과 복부 사이에 열이 맺혔으니, 생맥산(生脈散)이 제일 좋습니다.”

아들들의 논의하여 김 의원의 논의를 따랐으니, 이는 혹 이질을 염려해서이다.

20일. 하지(夏至). 살짝 비가 내리다 곧바로 그쳤다. 오늘 새벽부터 감기에 걸려 몸에 열이 나고 숨이 차서 답답해하였다.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sup>218</sup>을 써야 한다는 김 의원의 말로 인하여 오늘은 몇 종자 기 양의 좁쌀 미음을 4, 5차례 복용하게 하였는데, 왕왕 혼미해져 인사불성이 되기

217) 속지황· 산약· 산수유· 백복령· 목단피· 택사 등의 여섯 가지 약재를 넣어 짓는 가장 흔히 쓰는 보약. 지황탕(地黃湯).

218) 복통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처방. 1894년 이제마(李濟馬)가 지은 《동의수세보원》에서는 소음인(少陰人)의 이한병(裡寒病) 가운데 태음복통증(太陰腹痛症)의 가벼운 증세 등에 곽향정기산을 사용하였다. 《화제국방(和劑局方)》의 곽향정기산에서 길경(桔梗)· 백지(白芷)· 후박· 복령을 빼고, 창출· 청피(靑皮)· 계피· 건강(乾薑)· 익지인(益智仁)을 첨가한 것이다. 이 처방에 목향(木香)과 남성(南星)을 첨가하면 성향정기산(星香正氣散)이 되니, 소음인의 중풍· 중기(中氣)· 담결(痰厥)· 식결(食厥) 등을 치료하며, 또 부인의 포의별하의 증세를 치료할 때에는 진피를 5배 증량하여 쓴다.

도 하고, 눈을 뜨거나 말을 하여도 끝내 보는 것이 명확하지 못하고 말도 매우 어눌하였다.

정오쯤에 대동(帶洞) 집에 가서 사우(祠宇)에 참배하였다. 이 집은 근간에 팔아서 고간동(古澗洞)<sup>219</sup>에 집을 샀기 때문에 내려올 때 두루 보았다. 또 공후동(工後洞) 집은 이달 24일에 이사 가기로 정하였기 때문에 가서 살펴본 뒤에 내일부터 약간 수리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오영선(吳永善)이 선동(仙洞)에 전배(展拜)하고서 병세에 대한 기별을 듣고 올라왔다.

21일. 오후에 비가 내렸다. 비서원 승(秘書院丞) 민충식(閔忠植)이 와서 아내의 병세를 물었다. 그 사이에 아무개 등 여러 사람이 모두 와서 문병하였으므로 매우 어수선하였다.

○ 나의 이번 행차는 형세상 어쩔 수 없이 권도(權道)를 따른 것인데<sup>220</sup> 이미 여러 날이 지났다. 또 하지(夏至)도 이미 지나 근래 가뭄이 매우 심하니, 기우제(祈雨祭) 등의 일 또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재 병세는 조금 줄었지만 백성의 농사를 생각하면 형세상 고을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래서 곧바로 전서(磚西)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상주(喪主)로 있는 대감이 또 인삼 1근(斤), 청심원(淸心元) 1환(丸), 소합원(蘇合元) 10환을 주었으므로 너무나 감사하였다. 윤 의원(尹醫員)을 만나 육미탕(六味湯) 1첩(貼)을 복용하게 하였다.

22일. 병세가 밤이 지나 조금 누그러졌으므로 연이어 육미탕(六味湯)을 쓰도록 거듭 말하였다. 오전 5시에 이기석(李己石)을 데리고 정거장으로 나갔는데, 아들 익선(翼善)과 손자 유영(惟泳)도 따라왔다. 이어 차표를 사고 7시 20분에 열차를 탄 뒤

219)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에 있던 동네인데, 지금의 종교교회 일대이다.

220) 권도(權道)는 임시로 경우에 따라 변통하는 방법이고, 경도(經道)는 평상시에 행하는 정상적(正常的)인 도리이다. 군수인 자신이 황급하다보니 출장신청을 내지 않고 올라와 며칠이 지났으므로,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공직생활로 복귀하려 생각한 것이다.

익선과 유영을 돌려보냈다. 열차를 타고 가는 중에 사마(司馬) 김필상(金弼商)을 만나 격조했던 회포를 풀고 9시에 평택(平澤) 정거장에 도착하여 내렸다.

일본 사람과 통역 김창모(金昌模) 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또 걸어서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우체국(郵遞局)에 가서 잠시 쉬다가 명을 내려 이기석을 포감(浦監)에게 보내서 고을의 남여꾼에게 기별하여 나오도록 통보하게 하였다. 이어 가다가 나무를 건너 수십 리쯤 가니, 수서기(首書記)가 가마꾼들을 데리고 먼저 와 있었고, 이어 여러 관속(官屬) 아무개 아무개가 도착하였다.

관아로 돌아오니, 시간이 바로 11시쯤 되었다. 들으니, 군(郡)에서 문안사(問安使) 전영철(全永喆)을 특별히 보내 연계(軟鷄) 10마리를 보냈다고 하는데, 내가 열차를 타고 내려올 때 수원(水原)에 이르러서 북행(北行) 열차와 엇갈렸으니, 그때 서로 어긋난 듯하다. 어찌하겠는가.

○ 미시(未時) 초각(初刻)에 일본 사람 서유태(西惟德)이 와서 보고 말하기를,

“저는 직산(稷山) 신대(新垓)의 농토(農土)를 시찰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함께 온 3명이 모두 걷기를 어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가마꾼을 변통해야 하는데, 밖에서 마련하기 어려우니 꼭 변통해서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청하였다. 그래서 이 군(郡)의 사정을 자세히 말해주고 결국 들어주지 않았다. 다만 변통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령(使令) 2명 및 남여(藍輿)로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라고 명하고 보냈다.

나중에 들으니, 곧바로 10리 떨어진 신대 지역에 가서 상황을 두루 살펴본 뒤에 읍하(邑下)로 돌아왔는데, 가마꾼의 품삯으로 3원을 주고 발길을 돌려 정거장으로 가서 상경하였다고 한다.

○ 24일. 비가 내리다가 그치고 흐렸는데, 밤에 또 비가 내렸다. 미시(未時)에 직산(稷山)의 순교(巡校) 한영우(韓英愚)와 색리(色吏) 양완수(梁完洙)가 인신(印信)인 도장(圖章)과 조회(照會)를 가지고 왔으므로 바로 수령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본관(本官)<sup>221)</sup>이 오늘 말미를 받아 상경하였으므로 관찰부(觀察府)에서 군수님을 겸관(兼官)으로 차정(差定)하였습니다. 우리 군(郡)의 향장(鄕長)은 정양석(鄭養錫)이고, 수서기(首書記)는 윤계진(尹啓鎭)이며, 호장(戶長)은 한규동(韓奎東)입니다.”

○ 그동안 아내의 병이 지금까지 차도가 없으니 반드시 서울의 기별이 어떤지를 기다려 다시 한 번 잠행(潛行)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하나의 막중한 책임을 겸하게 되었으므로 내 뜻대로 경계를 자유롭게 넘어 다닐 수 없으니, 매우 슬프다.

내가 이 군에 돌아온 지 지금 3일이 지났으니, 아내의 병세는 실로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 약물과 미음을 먹고 또한 조금 나아졌는가. 오늘은 바로 공후동(工後洞)의 집이 이사 가는 날이다. 병든 사람이 이사를 가는 일 등도 마음에 걸리는데, 전영철(全永喆)이 올라간 지 3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답신이 없으니, 참으로 놀랍고 답답하다.

○ 이달 초에 개성부(開城府)에 큰 비가 쏟아진 뒤에 날개와 몸집이 다른 수백 만 마리의 나비들이 어지러이 날아 성 안의 가가호호에 떨어졌으니, 이는 괴이한 일이다. 호사가들이 서로 말하기를,

“나비와 나방은 똑같으니, 이는 러시아가 한국 지방에서 패할 조짐이다.”

하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남송(南宋) 말기에 큰 나비와 작은 나비 수백 만 마리가 남해(南海)에 빠져 죽었다. ....”

하였다. 이는 호사가들이 맹목적으로 믿고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아무튼 괴이한 일이다.

221) 직산 군수를 가리킨다.

○ 우체사(郵遞司)<sup>222)</sup>와 전보사(電報司)<sup>223)</sup>는 서울에서 13도(道)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람에게 위원장(委員長)을 인계(引繼)하고, 체신 서기관(遞信書記官) 이케다 주자부로(池田十三郎)가 이달 10일부터 차례대로 사무를 계속하였다.

7월 1일부터 대한제국의 우표와 엽서를 폐지하고 일본의 기념우표를 판매하는데, 우표 값은 본래 3전(錢)이었지만 값을 더해 6전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경무청(警務廳)이 경성(京城)의 각 관서를 시찰하는 것은 지난달부터 실시하였는데, 각 도(道)는 8도로 구역을 정하여 이달 안에 모두 부임하겠다고 하였다.

○ 27일, 전영철(全永喆)이 서울에서 와서 보았다. 24일에 보낸 집안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세군(細君)<sup>224)</sup>의 병이 줄곧 낫지 않고 있지만 지난날에 비해 차도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병세가 예사롭지 않아 연이어 생맥산(生脈散)과 또 익원산(益元散)을 복용하고 있지만, 아침에는 병세가 가라앉고 정신이 조금 맑다가 밤이 되면 답답해하고 헛소리를 하며 앉아서나 누워서나 편치 않고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이는 필시 관격(關格)<sup>225)</sup>을 앓은 뒤에 감기에 걸린 증세 때문일 것입니다. 매일 의원 김종원(金鍾遠)에게 물어 의논하고 있습니다.”

늙은이의 기력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너무나 염려스럽고 답답하다. 그리고 또 살림을 오늘 수동(壽洞) 집으로 옮겼다고 하였다.

222) 1895년 6월 1일에 설치하여 근대적 우편업무를 관장하던 관청. 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郵政總局)이 없어지고 우리나라의 근대적 우편제도의 실시가 중단된 지 10년 만에 지난 뒤에 우편사업이 재개되었다. 우체사의 조직과 인원으로는 사장(司長)·우체주사(郵遞主事)·우체기수(郵遞技手)·우체기수보(郵遞技手補)가 있고, 우체사업은 국영을 원칙으로 하였다.

223) 1896년에 전기통신을 관장하기 위해 농상공부 산하에 설치한 관청. 등급에 따라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되어 전국에 설치되었는데,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부산·원산·개성·평양·의주 등 8개 지역이 1등급에 속하고 그 밖의 지역은 2등급에 속하였다.

224) 원래 제후(諸侯)의 부인을 뜻하였는데, 동방삭(東方朔)이 자신의 처를 세군이라고 해학적으로 표현한 뒤로 남에게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한나라 무제(武帝)가 관원들에게 하사한 고기를 동방삭이 허락도 받지 않고 갈라 질라 집으로 가져가자, 무제가 자책(自責)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동방삭이 “삭아! 삭아! 하사를 받고 조서도 기다리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무례한가. 칼을 뽑아 고기를 찢었으니, 이 얼마나 씩씩한가. 배어 가되 많이 가져가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청렴한가. 돌아가서 세군(細君)에게 주었으니, 이 얼마나 인자한가.”라고 하자, 무제가 그만 웃고 말았다. 여기에서 자기 아내를 남에게 세군(細君)이라 칭한다는 유래가 시작되었다. 《한서(漢書)》 권65 「동방삭전(東方朔傳)」, 여기서는 오형목이 집에서 온 편지를 옮겨 쓰면서 아내를 세군(細君)이라고 고쳐 쓴 것이다.

225) 관(關)은 대소변이 통하지 않는 증상이고, 격(格)은 음식물이 들어가면 토하는 증상인데, 한편으로는 대소변이 통하지 않는 증상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 지난 경자년(1900) 여름에 춘우실(春雨室)의 사적(事蹟) 및 산천과 지형의 실기(實記)를 가려 모으고 별도로 시구(詩句)에 주해(註解)를 달았으며, 그 이듬해 익산(益山)에 부임하였을 때 기문(記文)이 완성되었다. 또 석성(石醒)이 시(詩)마다 평을 달고 발문을 지어 별도로 1책을 완성하였는데,<sup>226)</sup> 미처 《총쇄(叢瑣)》에 베껴 기록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가져와서 맡겼다.

○ 어제 서울 집에서 우편으로 온 편지를 보니, 아내의 병세가 어제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오늘은 여러 가지 일에 대해 두루 다 물어 알고고 혹은 일어나 앉기도 하였으며, 약은 그저 삼굴차(蔘橋茶)만 연이어 복용하고 있으므로 기쁘고 다행스럽기 그지없다고 하였다.

○ 또 나를 종2품에 가자(加資)하도록 엿그제 계하(啓下)<sup>227)</sup>를 받았으므로,<sup>228)</sup>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였다. 금권(金圈)<sup>229)</sup>은 오늘 내려보내 나에게 바꾸어 달게 하려고 했지만, 좋은 인편(人便)을 얻지 못해 우선 며칠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이번 임금의 은혜는 세상에 없는 특별한 은전이다. 얼마 전에 손자 제영(梯泳)에게 들으니,

“대내(大內)에서 저를 인견하여 ‘너의 조부는 나이가 칠순이 넘고 여러 고을을 잘 다스린 치적까지 넉넉하게 드러났다. 포상을 해야 하지만 표창할 길이 없으므로 특별히 한 자급을 올려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삼가 하교를 받드니 감격스럽고 황송한데 무슨 수로 보답할 수 있겠는가. 그저 두렵고 떨릴 뿐이다.

226) 오형묵이 아버지 오산수(吳山秀)의 묘를 영평(永平) 백운산(白雲山)에 모시고 병사(丙舍 재실)를 지은 뒤에 춘우실(春雨室)이라 편액하고, 춘우실에 관한 모든 글을 편집하였다. 익산군수로 있던 1901년에 김인길(金寅吉)의 발문을 받아 《춘우실실기(春雨室實記)》라고 하였다.

227) 신하가 상주(上奏)한 문건을 임금이 본 뒤에 재가(裁可)한다는 뜻으로 계(啓) 자의 인(印)을 찍어서 해당 부서(部署)로 내리는 것을 말한다.

228) 《승정원일기》 고종 42년(1905) 5월 25일에 “종3품 오형묵 ...을 모두 가자(加資)하라.”는 기사가 실려, 이날 종2품으로 승자(陞資)되었음이 확인된다.

229) 금(金)으로 만든 관자(貫子)로, 정2품이나 종2품의 벼슬아치가 사용한다.

○ 29일. 반쯤 흐림. 오늘은 양력으로 7월 1일이다. 대한제국(大韓帝國) 13개 도(道) 각 군(郡)의 새 화폐와 구(舊) 화폐를 교환하는 일, 일본 사람이 경시청 경부(警視廳警部)의 각 임소에 부임하는 일, 또 전보사(電報司)와 우체사(郵遞司)의 사무를 실시하는 일들을 모두 오늘 비로소 시행한다고 하였다.

○ 남산동(南山洞) 인편(人便)을 통해 온 손자 유영(惟泳)의 편지를 보니, 아내의 병세가 점차 차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여 매우 다행이다. 또 엿그제 사시(巳時)에 대동(帶洞)의 집 사우(祠宇)를 옮겨 모시고, 어제 모두 고간동(古澗洞)으로 이사하여 정돈하였다고 하였다.

○ 30일. 흐리다가 유시(酉時)에 비가 내렸다. 일곱 종의 풀꽃을 캐어 일본 순사 다케사코 나오타로(竹迫直太郎)와 정거장 역장(驛長) 허배리차랑(許裴里次郎)에게 보냈다. 일본 사람 마쓰시마(松島)가 와서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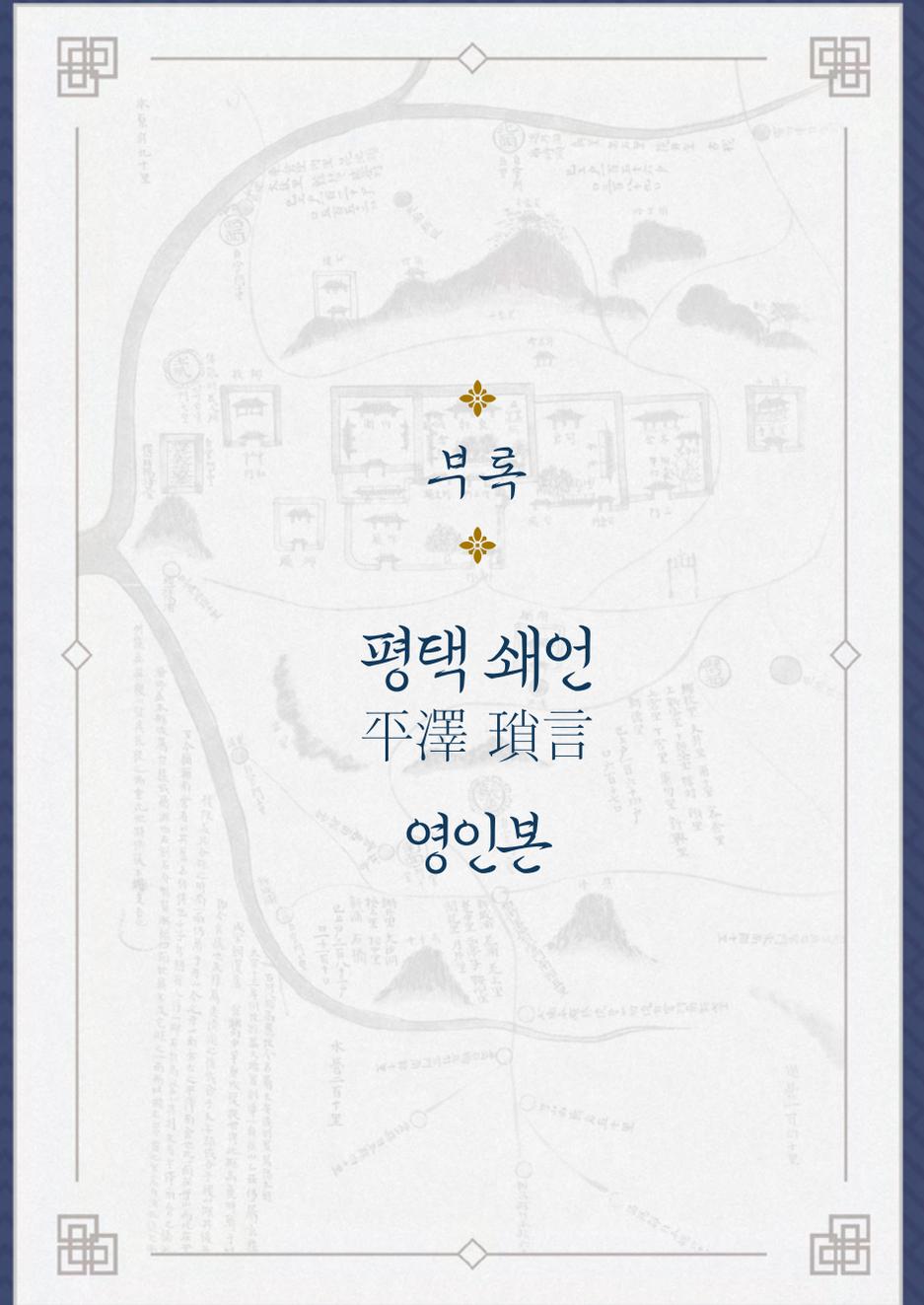
“의술(醫術)을 시험하기 위해 경내(境內)의 환자(患者)를 찾고 있습니다.”

하기에,

“없습니다.”

하고 답하니, 곧바로 돌아갔다.<sup>230)</sup>

230) 이후 일기는 남아 있지 않다. 《승정원일기》 고종 43년(1906) 5월 28일 기사에 “평택 군수 오형묵 ... 등의 본관을 의원면직하였다.”는 기사가 실려 있으나, 평택 군수로 1년 더 있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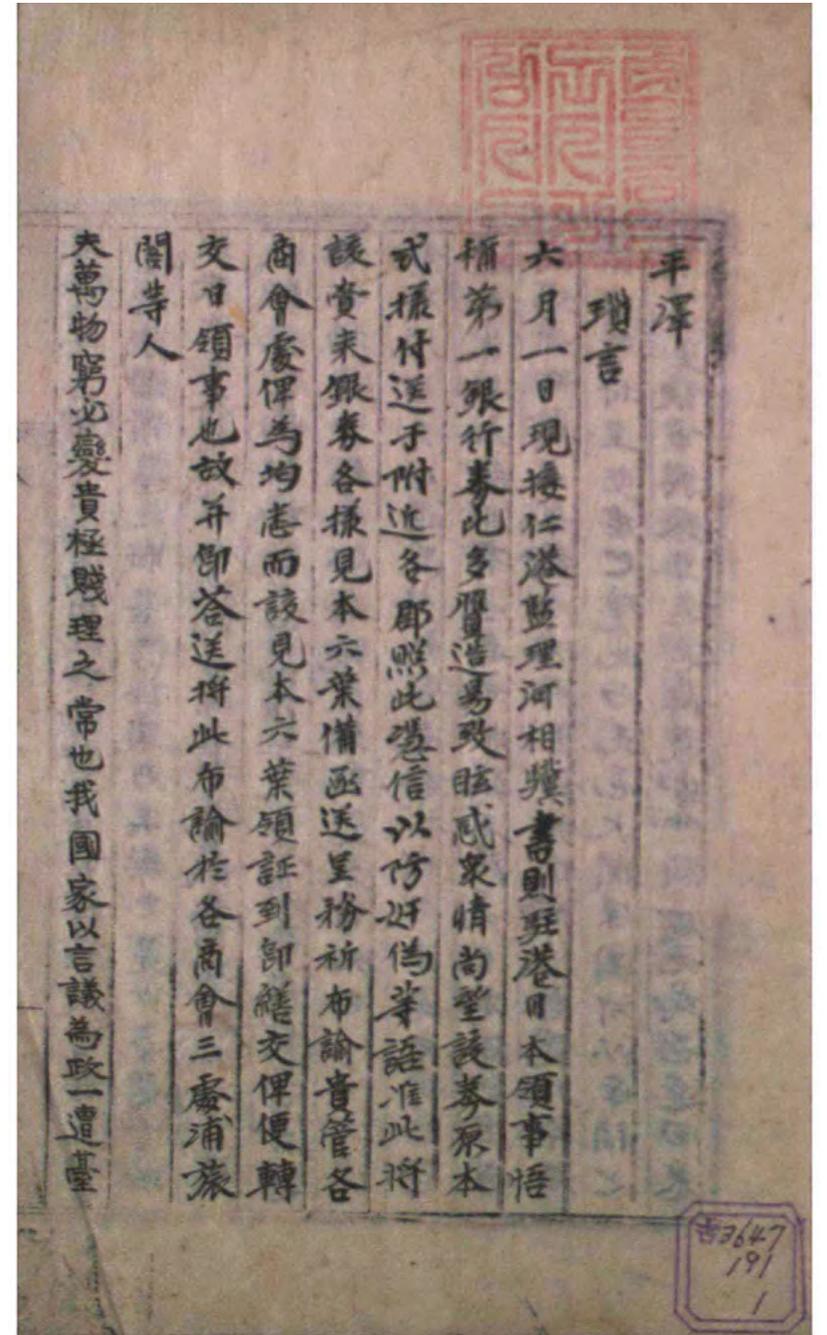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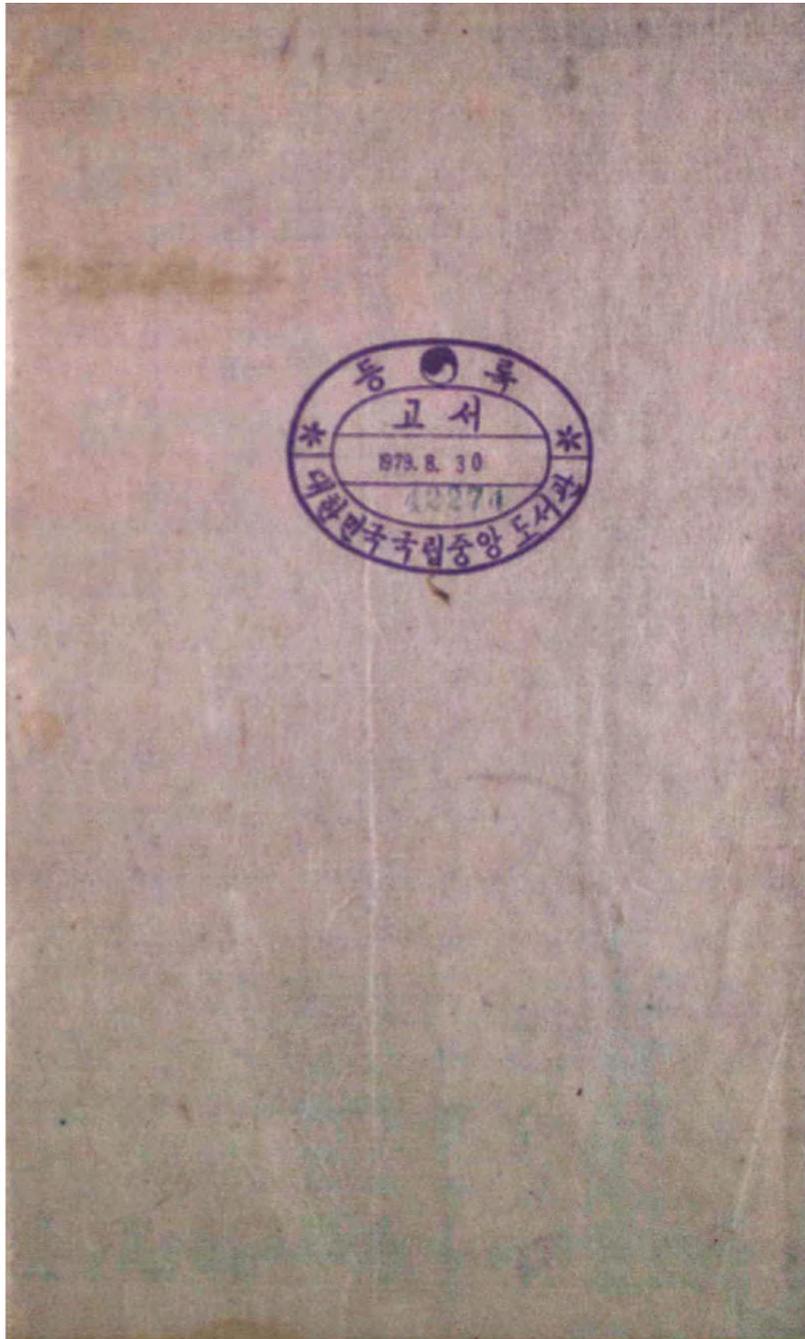


부록

평택쇄언  
平澤瑣言

영인본





彈不得去職以名節為崇一被譏評見塞於清班故言議之官  
 過於激揚清華之職甚於詮選乃其弊也是以臺閣官班  
 以致近日永開頓革之境此豈非窮變貴賤之謂耶試將今日現  
 狀推之外重內輕誠極矣前此清華之名士出為外任必曰左遷  
 今也猶惡一郡之不得覲然不愧是未可知也  
 新成浦居瓦梁道點句龍鎮等訴狀內日中為市交易懋  
 運死生之大聞而有邑無市惟獨平澤是已本浦之自昔  
 設場不知幾十年幾十次而弊設旋撤不攻自罷現今洞  
 採凋殘將且空虛之境此乃瓦邑大聞係國所以幸補之  
 策莫若設市與販且遠近商賈皆欲願歲此瓦邑運回卷

歟迨此商業發達之 朝家申飭特許設市以副羣情之  
 願望  
 五日丙昨日辰刻始雨自申後霽然通曉膏潤焦枯慰洽  
 衆情是神之功不敢名焉特以二十兩錢出給吏廳使之  
 識喜  
 齊任洪鍾穩未見現今兩事周洽民情歡忻今日當次昆  
 池津祈雨祭仍令停止為好云故招公兄等商議報府敦  
 定六日酉聞於朝仕班則農家各爭為先未得雇人各為  
 自家務穡徧滿四野如或有雇人則每日所給酒食草外  
 雇價為二兩而第一難得者耕牛其紛竟莫甚云勢野固

然也因措辭令飭於各面  
 命首書記率使令等探出內衙後叢竹移種子十宜莖竹  
 林疎濶處尤為者好也  
 公州殿最來到見是昔聞屢典之績以今見斗邑之屈  
 善三十八郡皆上題也  
 今月初四日亥時惟孫生男產後無煩翼善叙任濟用司  
 檢察官姑未領諸朝紙現際慶幸莫過於此也  
 十二日自子至辰大雨半陰聞下新堂尹致善全成云家  
 為潦漲頓壓云故結構補用次錢二兩式題給  
 首校朴慶來向以張義鎮相關事曾有捉囚之屬而及其推

閱時攪歸其家稱以身病不為訖因今為一朔又餘言愈  
 事狀其無廢無牌之習無復餘地而近日巡校之舉行尤  
 無紀律難以措束故首校除汰  
 邑社首洪鍾元來言社倉為潦而滲漏野置社米必有露  
 濕之慮云故使首書記及該邑摘奸則社米朽爛者為近  
 數十餘石云則不可仍置勢將從權分給為好故該倉米  
 以明日分給事知委邑各洞  
 日人櫻井邑雄曾以草花分與事有托以未雨未果是日  
 採得各種使與雲擔送即接回書固請一次遊覽會社吳  
 朝旣佐得秀魚羹及炙耳蓋近日病胃積敗失味之中一

人曰芙蓉山頂有一泉名曰元井自來治風火毒症大有  
 效驗云故使首書記朴善淳瀆試嘗則味極清冽甘香  
 非比凡泉自今日朝夕茶飯凡用井以沒用事申飭  
 余於眩暈尤甚時每上後園土城道遂閣散則輒勝動作  
 然因井降難便且畏暴陽未能頻涉矣首書記聞此事狀  
 遂結構一間椽于十宜臺上十步地覆用草茆鋪排松板  
 儼成一草亭竹林擁三松樹前面烟雲海山之勝未稼原  
 野之美村閭艇帆一寓目而盡得之又况鐵路工訖列車  
 如飛三十里長野瞬息往來心神隨以暢豁身痒處有方  
 便古人所謂良藥不在刀圭乃在於江山供養之為如何

倍生新昨日首書記告往渠家自以求得二尾鮮送納者  
 也此吏種種補味極庸嘉尚然邑標之皮之不存何哉還  
 多不安  
 京摠巡柳冀亮巡檢尹夏植來言徐泰奉相天掘浦作苗  
 四百餘石鹿以餼貨一萬六千元典執於日人來月為限  
 云則即往調查事奉承 旨意下來徐相天則居在水原  
 苗土則本郡云即為知委於徐家使之來待別定色吏以  
 為伴往幹事為言故定巡校發送水原使之待令且以該  
 面書負計來文把定出送  
 所患眩暈一直無減廣探醫藥終無顯效日以苦惱矣居

度支印主事金正鎮因內藏院所管各稅務付度支部以  
 均役海稅及葦葦庫田漁鹽釐船等稅額及各屯驛土賭  
 稅自甲午以後賭稅實數與納未納調查事持觀察有訓  
 令來到各文簿調查則本郡本無相關於賭稅等節舉其  
 實狀逐條臚列以給  
 軍勿浦船價濫捧之飭果何如而彼輩近又濫討呼冤浪  
 藉故都沙工與當番者并為捉來各杖二十度着枷後眼  
 同巡校金昌植出送該津頭露置艇所使往來人舉皆知  
 得限日暮更為率待事申飭  
 新成浦既許脚戲場則不可無檢察人員故以該洞最風

者信不誣也乃名其亭曰江山一草亭  
 鄭重根鄭俊根持竹醒書來書曰英齋諸生起綿葦於乃  
 山荷塘畔高可數仞廣容二十負不日成之昨夕始攀躋  
 軒豁通暢幾與空中閣頡頏少焉月出荷花荷葉隱映若  
 碧玻璃赤綾羅撒鋪交錯錫名曰荷月樓拈放翁荔枝樓  
 韻此亦諸生所懸之請呈者仰想怡然會神如暮春栽花  
 詩俯和矣  
 新成浦民人奉狀前日新設場市日字間因農務未及請  
 東吳第以未初七日為始設脚戲場例特為許苑云故因  
 為詔許

各洞使該洞任領率田父一新修治橋梁焉完固道路焉  
平坦削凸填凹除荒就淨務從鮮治雖樵徑牧路無遺坦  
治官於親審之地或有未盡處則汝矣及該洞任別設嚴  
懲事

日本陸軍憲兵平井梅吉通譯教官李能兩因人夫募集  
事未云後夫萬名不得不募集於各邑然後自開城府至  
平壤間各種軍用輸運而雇價每日七兩五錢式自郡赴  
開城時留延費逐日厚給矣應募人各持支械來待事為  
托故別定巡校告示中尾附日人廣告一張知委于各處  
幾人間如有自願者來赴邑下事申飭出送日人曰姑留

力者四名差出凡於闔閭酌酒雜技等另加嚴飭禁斷事  
及各面大小民慶以今月初七日設場事令飭布喻  
未伏今日即令節也故吏廳二十兩將廳七兩通房及使  
令廳各五兩官奴房三兩木手二名二兩別為帖下使之  
備供酬節之需自吏廳水朴四箇真瓜五箇通房燒酒真  
瓜仁切餅一盤供來故分饋在傍諸人

各面遂路為潦水頓落萬不成樣云故別遣巡校曰入境  
先問者道路也行政上亦一繁務而今夏潦水跨朔類仍  
橋梁毀頹道路破落行旅病涉牛馬難通式日入聞聽聞  
所及尋刻可閱現今農務向歇民事稍閒茲庸別飭前往

以好言百端佈諭終無一箇應募者只以振威人安死到  
 清州人趙正支自願從來云適時日人在座問其姓名率  
 向安城去  
 日本軍用人夫五十名募執事府訓來到招鄉長及公兄  
 與首刑吏等以無樂募執事商議以若此郡形便必無願  
 赴之人事係至重且急必當充數交付乃已必招致各面  
 長及各洞尊位洞長自各只洞從公議分排募集事甚穩  
 當可免騷驚之意一辭皆同故即為令飭以明日開東時  
 一齊來待事派送巡校因修到付狀畧舉近日本郡事狀  
 已刻各面所招人員并來待列坐平易堂爛商募集等事

幾日待聚會近處役夫後率去而固無精舍將為留宿於  
 望漢寺云因茶罷登一草亭以眼界通暢心神爽豁等說  
 稱快不已又以水朴及茶品待之閑散而去  
 是日即先妣忌日也身縻外官未得親執將事愴慕深  
 切夜子刻竹望拜禮見三班官屬趨庭問安余曰今日此  
 例前所未見今忽齊進有何所據也答曰此是非但下輩  
 情禮况有邑傳來之例乎數年來未得舉行蓋因首吏昧  
 例而然甚涉懼惡云矣  
 各面告示巡校來言已有振威陽城等地先行募集四方  
 逃散以是本郡居民亦皆騷驚唐院中又營募集告示雖

寔由愛民一段至於赴期日更不至貽惱矣余曰民論既如是甚感且愧也

探聞各面募丁事狀則舉皆懷疑都無應募者自該各洞厚給餼料而後或有自願者云以此事狀難以如期募執將生梗乃已舉其事狀報府為好故修報以人夫募集總已報告而前此未駐日本憲兵平井梅吉留連三日僅募二名今日率往于安城郡矣如掌小邑戶不滿千而風聲鶴唳鳥驚鼠竄目下民情騷擾無常以今所料如數募集事勢末由第當隨募幾許間期於限內願付計料查照處分事專送

野見各自不同故余曰此是京畿忠南全南北慶南北各一道統同之事現今朝令府飭十分嚴重不得不募集乃已無知愚氓不念法意各自逃避為能事云是豈為民道理乎願諸君各自惕念商議分排於各洞無至生梗可也

齊民曰野教切當事可從便就緒第當出議于外廳妥辦後更稟矣因辭出午刺齊民來言今日赴邑者為八十餘名會議于吏廳此郡戶數可量千戶則每二十戶人夫一名式搭當舉行第一方便故以此數定修成毋蠅面八名西面六名南面十四名北面八名山北面七名入來矣余曰見此野排可知衆謀之公正如此則趨期募執俾無葛藤耶齊民曰今此排定

下堂野用石灰價十五兩五錢慰安祭野用錢文二十兩  
 木手工價四十兩并帖下  
 近日農形水畜之如干旱種者今綠茁長乾耕後晚移者  
 雖日向青節序已晚秋期漸迫似無食實之望豆木亦兩  
 後始播僅得立苗未遑除草便多養荒可悶也  
 申後聞東面長李經九謂以人夫募集請減事發通各面  
 聚會多民云酉刻又聞則南面長以病不參懸錄其餘四  
 面民如午未會望漢寺商議皆云都府申飭之下輕旋赴  
 訴事理不當况先自官家且陳民情已為報府則若俟下  
 回且觀七道列郡如何舉行而已此非今日呼訴之事齊

鄭雅竹醒間以稷山牛卧里林斯文家七夕日竹罷接禮  
 事請往今日冒雨還未歷訪寒暄余曰先生去留都是客  
 也而胡為雨中作竹醒曰再昨夕宿於林庄夜中忽有  
 喧鬧之聲一洞踴呼奔波使人探問則本郡校卒輩出來  
 捉執男丁縛之敲之禍色迫頭見狀如逢亂離乃與主人  
 暫避于茅亭矣頃稍定因下來詳聞則以人夫募執事  
 洞丁幾名仍為捉去且於翌日又如是傳聞洞洞皆然客  
 地人事甚涉唐虞不可久留於彼迨此回程勢野末由也  
 因酌酒叙阻留宿于春水樓  
 芙蓉山祠吏廳及邑洞位祀處是日一新重修事申飭上

大抵此邑偏小國內共知也洞不過四十戶木滿八百而  
 今此人夫五十名排定豈非夥然武假使每面一名難以  
 責立而況每洞二名之境乎以此事先自京畿振威交像  
 大起便成亂雜諸民至於作擾赴邑恃亂之舉以此民情  
 尤極騷擾者云死地赴後雖給價每名七八百兩求募初  
 無一名願赴旋為沒散奔竄呼訴還至論之威之萬無募  
 集之方殘局情勢極為憂悶使之探問於稷山牙山兩郡  
 彼此一般舉省報府部云故本郡亦為舉其事實專報  
 官庭東西圃播菜種東庭山茶花自春至于今爛開鮮妍  
 可愛也

向李經九貴以狂悖而有外散去云可駭也  
 觀察府公札府下明化學校及漢文外語等學校實為今  
 日之急務故期圖成樣補助金十四元交送事間有二次  
 請助勢不得已送之  
 因人夫事今將報府故為先令諭各面人夫募集期限已  
 過徒煩呼訴了無謀集 朝陽舉行不其悚懼乎以其若  
 于雇立之數果難領付舉此事狀今朝報府此實為民緩  
 限之計也豈敢望全數還寢之澤乎報府回還似在三日  
 排定之數董憲預備待回一齊率待如或蒙頌何幸何幸  
 而豈敢望乎

里童蒙李昌雲處加一兩錢施實使卞道義買瓜用六兩  
 錢別置及其散歸時并招集於砌前每名許派給一枚凡  
 一貼半蓋南山洞樓村亦齊赴故也  
 柳泰卿自京下來阻餘慰豁功草一斤帶來矣見家書渾  
 度一安茶鍾與藥物及智島趙雅炳鑄書五月晦間上來  
 六月念後紅便卸運云甚帳也  
 日本憲兵今城傳七通辭崔峻相持觀察使李恒儀書來  
 見蓋人夫募集期有實效事也余以前後募集事狀備說  
 日人則期於善為募集事爛熳酬酢自郡之民情雖涉難  
 堪不可一向強斥故第當另圖事為答因茶罷送之

礪山五美洞金舖祚曳裹而來問是渠祖母去五月一日以  
 翰感別世渠父鍊培六月初三日作故聞甚驚愕猝地膝喪  
 胡至此極耶野幹在土亦皆見奪生道沒策云可憫也因  
 留宿于春水樓翌日還去時錢五十兩以贖儀給送  
 育英齋學徒鄭重根尹教熙持竹醒書來請邀聞近郡文  
 學之士自數日前濟濟來會至圖一鄉咸會云矣余緣病  
 未果而謝之至午後榻床供來真鄉曲感饌也  
 是夕月色正佳通引輩欄余漆寂招集邑五洞壯丁設脚  
 戲場于官庭勝二人者真瓜一枚三人者加洋礦一兩四  
 人者加白錢一文五人者加白錢二枚終場屠魁者客舍

驚得委核探知則名不知權哥見奪其妻於沿軍蔡元實  
 慶而因權民之呼訴今月初二日捉致蔡哥等十五度放  
 釋矣過三日蔡以杖毒致斃蔡之弟率金軍屢百名擔擧  
 尸身各抱石塊突入邑下官屬居民舉皆奔竄直入郡衙  
 破碎東軒亂打郡守至於刀刺脅腹之間當日戌時奄忽  
 而民人共起即捉犯者打殺餘徒幾漢與金鑛德大稅監  
 等并捉囚一邊報府云云大抵近日物情無所顧忌吁可  
 歎也  
 鐵道機關車下來之路到稷山地忘愆橋因鐵釘之傾仄  
 前車繞過後車傾覆搭坐我人中三名壓死二名幸為轉

八月一日望哭望 闕禮因眩暈權停 釋奠祭燔肉未  
 納白啓福昨因渠水原地先山伐草事下來歷訪慰滿使  
 之一宿于春水樓聞京第安信克兒以學校夏期試驗得  
 褒賞証怡孫亦以參優等云遠外嘉悅莫過於此也尹三  
 品容成間任內藏院文簿厘正委負云近來知舊間經過  
 有多不堪聽者此雖苦海無人我之通患然此令尤有甚  
 焉今乃得伸名籍豈不為相悅者哉因修賀書工后洞答  
 書與怡孫慶錢四十兩及趙判書本第貯傳書并付之路  
 需條二十四特為題給以送  
 即因稷山伴劉東憲被禍於金鑛沿軍云隣比之間不勝

42274

落一則傷臂一則輕傷云  
 日前巡校李錫淵率待溫陽居李載喜云李哥與鋤斤里  
 朴玄西相詰聞其裡許則去五月初玄西以其姪婦失行  
 事歐打朴仁洙至有致斃等說故告官查明事率待云聞  
 其所告則果有相聞毀家出送之事其時該面長責諭妾  
 恃使之運接破碎汁物并卸改備以給事為定其後去月  
 望間以痢疾不幸云而况仁洙之子年今三十餘歲朴之  
 不幸若有可據可執之端豈無一辭告辨者乎蓋因李之  
 私嫌而措証然其在告辨之地不可以狂悖而置之發送  
 該巡校該洞頭民與玄西及洞長輩四人一并招待問其

事狀萬不達理都無可執之端并當場出送至於頭民仁  
 圭及玄西不可無懲後之舉時值大享姑令牢囚矣今因  
 洞報及該民訴特為參量題給  
 往吊勤孝谷鄭主事恭球家與竹暉叙話葡萄二朶帶去  
 分味午飯後轉向通伏浦會社見監督巖下敬三郎及書  
 記櫻井邑雄致辭遠陽占頤茶罷進麥酒叙話日俄交戰  
 諸般事狀少後周覽西人處所仍坐櫻井榻上主人以渠  
 寫真一張贈遺結後修好事為言因謝之  
 又出寫真一張即我 大皇帝陛下 皇太子殿下服裝  
 搨影本也因起居仰瞻我是本國人始見於日人察上心

衣而避于林中其後幾日為日軍更延尋人馬俱得完歸  
 事甚神異因揭載新聞且揭出事狀傳之褒異者也余曰  
 奇異哉自開戰以來戰勝攻取至於畜物得有如此寶古  
 未聞史未有之寶蹟也余問於櫻井曰現聞 明治皇上  
 自開戰以後食不正起寢不安床坐于交椅上至今經過  
 常曰哀我四十萬將卒萬里赴敵風餐露宿死亡相屬尚  
 不為苦惱而只效報國為丹衷極可警歎吾何忍以暫時  
 休安為哉云云果然否耶櫻井曰果如所言也余曰君惟  
 臣忠上孚下格雖此微物豈得無激感乎由耶茶罷日已  
 西沉因辭歸歷覽劉尚結處所後還衙日已戌正刻

甚訝然也

又出一冊見是明治 皇帝陛下攝影本真相英肅其下  
 數十張皆政治當朝英傑次第閱覽

又出攝影畫帖是日本服裝一軍人卧地一鞍具馬口啣  
 卧地人服裝曹入林藪中又這一邊多數軍人或步或騎  
 而退之余惟而問之則櫻井曰卧地者日軍也退之者俄  
 軍也去月初日騎兵五人以偵探決潛入遼陽俄陣近處  
 因失路彷徨之際俄軍覺之率二百五十名追之勢將復  
 舊路奔走之際一日軍為俄軍彈丸所射落馬仆地同日  
 軍雖欲救之勢沒奈何因素而各自逃散其馬曳其軍人

壽通文舉義上京云而日本司令官捉得三名牢囚于平南府

今日各面里知事人及尊洞任以鄉約事齊會西亭子云故送吏探聞則謂以日人以後夫事遍行各郡騷擾多端來頭之弊將不知何境第待更來其募不募間爛議措處事且因觀察府訓飭以戰盜作統條規施行事且約長以郡守薦望事洪應教思弼曰今番鄉約即因人夫等事而至若官長允在 朝令府訓施措之地自有掣碍事面則不可擬議矣諸民曰此是公談至於遇事告官措處甚為穩當云云

傳聞今初六日申時始興郡以後夫募集事人民起擾會集呼冤各抱石塊者數千名突入官衙打殺郡守朴岾陽又殺其子及日人二名云無前恠變聞甚驚愕晚後的見新聞揭載

近日東學義兵之因關西海西關東畿甸等各郡之報告揭載於新聞者種種有之且隣近安城陽智竹山等郡聚黨二三千名云者日以傳聞駭訛轉甚是可悶也

平南觀察使李重夏電報各處潜伏之東學謂有京中通文都會于三登郡稱以為國事將向京城云且東黨告示文揭付場市豎立紅旗書仁字周字因京中大先生朴南

此蓋各面面長應行事而何尤鄉約都致煩屑於羣聽乎  
 李曰今此鄉約蓋由隣郡之嘖勢不得已約會也余曰似  
 此十室殘鄰只自修勵邑規至於凡事難堪之境則觀其  
 他郡如何辦理就其雍容措處必無臨事債誤且其中戰  
 盜一款非但府訓鄭重乃是生民保有之方針此一條爛  
 商添入期有實效也李曰既承教意謹當就議俾圖略勤矣  
 因轉向松下里洪叅奉鍾穩家叙懷其胤十六歲鶴兒出  
 拜此隣李監察漢英來見少頃榻床供陳余曰此何倉卒  
 需也主人曰明節隔日果備於市日且傳聞者坪之行則  
 過路尤當歷臨故預為備待云余曰今日之行能料歷訪

為者秋事日前出往東北西面觀說農形則田畝俱為大  
 登今日又往西南西面歷人鯨井里洪應教家叙話其子  
 二童及其堂叔承裕氏亦來見具午飯接待野率饋以酒  
 卸起身轉往老下里前路一坪省是兩後晚秧舉皆發穗  
 向熟間間有未移處或有移而未能茁長發穗者然如得  
 暹霜之境則無慮食實較着今年之早果是料外豐稔為  
 民社萬幸也因入該面長李允植家主人款接其子尚珪  
 亦參見榻床供來下饋輩以新稻飯濁醪馭饋  
 語到鄉約事主人以鄉約節目出示都約長李允植副約  
 是各面面長兼之約議凡十一條別無特別條目余問曰

可謂屏照也因偕往李監察家外舍設書齋學童四人次第  
 來拜其中二童即主人之孫也問年期曉諭多讀多書因與  
 訓長相晤時日已西沉下吏卞道義持燈籠來待  
 歷訪松竹里李雅顯字不遇至李都訓長鍾敦家主翁下  
 階歡迎要上廳舍以酒案勸進繼以榻床余曰是何不時  
 之需也主人曰今聞來臨洪庄消息則歸路必由此洞過  
 于此尊問鄰屋矣適有名節需品饌雖不腆敢酬微情少  
 勿為恠也因相與大噓主翁胤氏以咽喉瘡卧席未晤因  
 登程又過鞍峴里李雅泰寬出待路在因入其第暫話李  
 雅亦欲以酒物供待力辭之至於下隸輩亦以量窄不能

更飲為辭云乃叙別出門時月已天心先輝照耀至馬峴  
 邑西大井里炬軍八名來待前導抵鄉杖前路下馬復行  
 還衙時已亥初刻  
 昨日看坪時歷訪洪應教庄得聞巡校金昌植李錫淵以  
 月井里梁奎煥從兄弟不睦事執頃至於捉入邑下嚴懲  
 云而威脅多端雖因其時洪應教李面長之餘喻解送云  
 然事甚駭惡捉入巡校李錫淵金昌植各笞二十度汝輩  
 之無官令恣意行恃極甚駭然所當加囚懲習而時值名  
 節姑令保囚更當有處辦之日矣  
 前日除汰首杖朴慶來書記金榮濟捉入各笞二十度後

衰耗自有弱緒觸物多感反不如平日尋常度了也  
 全義北面上老各尹相說來此自外聞之則渠族尹昌鎮  
 以全相烈獄事干犯事聞余三檢官差定而專來樣云故  
 以身病不能接見自外送之  
 全義郡獄事三檢官防報回題徒却便午後到付見是檢  
 官莫重審慎以微細之崇何可報頃乎問夜簡率馳往事  
 也現今間已多日勢不得更頃故因報發行狀廣求轎丁  
 未免虛還乃使金昌植往議停車場會社監督巖下敬三  
 卽處回報曰現無客車只是木板車老人升降第一難便  
 須諒為之云矣第非不知難堪事狀多率往來盤費必至

賜諭曰汝輩邪習極可痛憎除案以至踰月則庶可知過  
 改善特合情地分揀復案必須十分惕念更無至大戾可  
 也  
 前首校張德燮雖因罪犯而汰去然延間情勢萬無生道  
 云故亦不無矜憐之心特以左兵校差出巡校者有關已久  
 另擇可堪人使之舉行事首校及公兄處分付  
 官西庭野種香莢間已摘取編百毛音乾晒試吸味甚香  
 測仍派分鄉長及諸官屬野餘者只二十餘編也  
 自我作宰後每逢令辰孤寄旅館雖無團聚之樂及見他  
 人權娛自是強作與人同之情況而近來身總侵尋氣力

人同行出停車場已初二刻輪車下來幸有客車一座因  
 緣踏梯升坐于載鐵車上所率九人并乘坐向監督書記  
 巡檢致謝  
 又至二十分發村間浦橋忘愁橋可同橋農村三里橋牛  
 卧里橋大井里村成歡停車場梅谷停車場愁歇里村穰  
 山三街里停車場業成里橋延奉亭村富上里村新酒店  
 栗浦橋天安邑下陸泐停車場院巨里村卧野村熊里村  
 金蹄驛村温陽街村釧丁里停車場小釘橋斗之谷停車  
 場桃坪村全義邑停車場午初十五分抵達自郡至此九  
 十里乘車後到看時間則一時二十五分

四百餘兩際茲辦出無計捨此則實無速期登途之望因  
 以輪車教定  
 本郡甲辰條大業狀以今二十九日來勘事承訓然至於  
 今年秋兩差晚穰事失時未移晚種太半相雜不得不躬  
 行抄災然後可以精實現今以全義三檢官方將馳往待  
 檢後出稍還官躬審姑不敢指的報限勘緊日子限一望  
 退定事報府  
 卽刻率鄉長朴準華通引朴喜龍首刑吏朴啓淳利妻金榮濟朴樺  
 星官奴萬石使令李己石劉興雲登程渡津抵會社見嚴下  
 敬三卽書記櫻井邑雄巡檢劉尚喆商確車行得票仍與三

沿路之設橋八停車場六其中小小橋梁的未知幾十處  
 且截崖穿石磴處尤如可同里梅谷新酒店栗浦卧野温  
 陽街二處到亭里等處餘外不可一一彈記羅列峯巒過  
 目如電速迅未極滿地鋪雲是日也天高氣清雲淡霞暎  
 正是日月忽忽旋轉較古今杳杳一飛鴻因下車  
 適時本伴權宅洙出在路左相望地有碍事面未得接晤  
 而率則本伴曾經平澤改并皆往現矣乃步行至官門前  
 路所謂迎奉前導八吏廳下處廳之北房以耶率官屬留  
 接少頃本邑公兄來現  
 周覽形便則主山名曰帽峯自觀山而來以南五里鶴城

山對紫泉山環繞兩水自西自北而出并至東南合流中  
 開平野衙舍向南扁製錦堂有小池前面內三門扁金池  
 內門東使令廳及將廳扁武學堂又其外開門樓扁坐哺  
 樓衙南吏廳扁金池掾房西秋廳亞掾廳北官奴廳客舍  
 東鄉校西邑內洞凡十戶凡二百場市在東市二七日一  
 邑六面戶數一千三百八十二戶結摠八百五十四結二  
 十三負一束蓋山多野少之邑也  
 鐵路橫貫官門前路輪車今至懷德一百二十里自永登  
 浦直通懷德每日二次交搜木柯鐵軌又此處有電車二  
 座前日輸來積置木鍊無時輸去詳聞此以下線路形便

則南去三里許蟻峴穿山作路歷巖岐清州烏致院公州  
 扶江設橋懷德等地已為完等通車其下沃川永同黃澗  
 之未通者為七十里方將修等自釜港至金山完等而未  
 及黃澗云矣  
 日人大岡德三尙留郡底故使朴喜龍送名帖傳喝矣大  
 岡旋即入來叙阻要請同往該野然以微事勢不得汗漫  
 出入答謝  
 本郡吏輩以微事生疎下來時郡長與朴啓淳以田五衛  
 將后植請未事至天安郡停車場發送尙未到著甚苦  
 企也

亥正刻聞輪車蹄聲使人探問則戌初刻扶江輪車到此  
 火甬受傷以電話通奇于永登浦自該事務所下送輪車  
 修補次牽去云  
 日本通信大臣大浦氏以鐵道卸便事務視察事自釜港  
 上來方在郡底事務所本倅出往迎接公州卸通司長自  
 扶江倅來自此還去未刻通信大臣轉向前站停車場  
 云矣  
 未初刻鄉長朴啓淳請來田令因叙阻致謝未正刻檢尸  
 次出往臨發招集帶來所率及本郡公兄等以毫分無弊  
 舉行事別般申喻以四人轎登途過一里餞送巖路傍有

一瓶別饋一缸乘輪車下來因少嚼使田令等分味李已  
 石有兇病替運付紗帽靴子等從輪上送矣巧值輪車忌  
 管日因中止  
 倭肆黨設遊邑店金鼓相擋郡底老少爭赴觀觀以白錢  
 一分賞給然後許其入門及其遊戲舉措無非幻術迷惑  
 人眼舉稱神奇愚疾哉  
 官報今十四日惟孫任陸軍一等軍司補侍衛一聯隊砲  
 兵第一大隊餉官第念璉惟西孫之一任正尉一任一等  
 軍司者非徒濫叨其在戒懼之地只切兢惕而已也  
 現方暫暇觀玩蟻峴次藍輿出往鄉長隨之過場壩古木

盤陀五六塊巖石有槐陰可坐數十人仍過馬頭山坪至  
 五里下大夫里路邊有四觀亭巋然獨立村可數十戶亭  
 之畔小池李打愚所築其上村即上大夫里有雷巖又至  
 四里中大夫里因改服往檢尸所檢驗全相烈尸體後還  
 入房及對受該洞任願証日已昏況蓋此洞依崖結構十  
 餘戶前時朝官多居故傳稱大夫之里名所經沿路山嶂  
 層疊中開田苗未穀大熟矣因舉火還郡  
 得見官報去十一日總孫任陸軍步兵正尉補陸軍武官  
 學校教官兼研成學校教官兼補教隊中隊長  
 午刻問安使金永哲帶持公兄告目及首書記所呈燒酒

謂歟量鐵路建等費不知為幾十萬元而至於此等生費  
豈以幾萬元可擬議而如非智謀擅明者烏得以着手  
乎不可以容易看過也

午初刻本倅出來偕往會社見監督高木通辭日比寒暄  
輪車今日下午二點鐘支搜云勢難久坐適時邑下居黃  
議官斗淵在座相晤余在麗水時已經相面固請暫往渠  
家故轉向黃庄其子主事芝秀又其孫義煥禮煥智煥來  
拜少頃進酒盤蓋粥鄉長及田令亦以待酒

午後二點鐘與主人步出會社見高木得車標叙別出停  
車場偕乘野率及本郡公兄以下并已待候車又到着與

橫數隨水而下野至山水明麗禾穀豐登行至三里許蟻  
峴因下與周覽形便一數百丈小山橫亘路斷山之西大  
川傍流且左右山逼迤無他變通因穿山一里許高可五  
丈廣可七把西東兩端石簞作虹霓樣作門門內左右壁  
繪以石塊合齒等下中半壁面數處又作圓穴或值行人  
難避之境遇時使之避身預料者也又其上中半用碧團  
石圓等下設鐵道而通行門之外西以崖高數十丈斷山  
露壁處以石塊方張治簞門之東崖稍低不為設簞一回  
行過則穿山如弓樣作窟至於中間白晝生昏壁之面生  
水淋下勢野固然古之稱名蟻峴却非今日穿窟作穴之

是胡然而來答云俄與田令得乘東便一隅以平澤官家  
野率藉托而免逐下田令至天安邑下送矣乃行至軍勿  
浦首書記進酒果暫憇還衙園菊初綻庭花依舊於焉日  
已沉昏

九月一日寒露塗哭禮因眩暈權停松木作板時用頭節  
造成木椅子如葫蘆樣而塗墨再試柿漆宛若真漆有光  
置諸寢室每常倚凭首書記間余全義之行用草綠鵝青  
洋毛本緞為內外拱且以彈綿內補裘著又以色絲繡花  
鳥于三面穩厚溫潤便成上品件凡物之成造隨其人切  
之施措然至於此物抱素無文支得衰筋為計者至此侈

野率并乘車未幾各車野乘日人各持包裹舉有急動之  
狀使喜龍探見旋來云旗手松野請余移坐于第一車即  
起身轉往則無慮數百名各持箱籠等已為先乘日人日  
比與松野在前引導懇辛移人都無立脚處車上日人恐  
喝還出日比與松野以平澤倅布論諸人始乃得支喜龍  
萬石亦得乘松野人去電車日比叙別下車于時車下諸  
人爭相欲乘或乘而被却遂經一場大擾吾之野率與籠  
子亦不得載申初二刻車已發行巧值霜餘西北風亦難  
堪耐於焉至通伏浦時正酉初刻本郡校吏以下數十名  
持籃輿來待僅得下車車又發見路東鄉長持衣籠而立

下午三點十二分發行矣  
 聞於吏輩則去晦間無類輩六七百名聚集於溫陽地稱  
 以一進會尚今不散云矣  
 全義郡金相烈三檢獄案公州府裁判所指令到付初檢  
 官全義郡守權宅洙覆檢官懷德郡守趙東濬西倅許裁  
 判所指令并校移照會天安嚴里田五衛將后植許修一  
 札錢五十兩送給日人岩下櫻井鷄二首式劉尚詰廩通  
 一箇送給施意  
 公州延 命之行間以全義獄事尚此差遲今既出末勢  
 不得一往以今日列車發行使令已石官奴萬石陪從為

麓而尤多偃息之便好人情變易推可知也  
 本郡治道申飭非止一再而巡校之董飭滯漫無紀律至  
 於官門前路尚今不治况乎各面乎向於往來路亦為嚴  
 飭者屢矣不可但以民頑致責故擬入該地所掌巡校二  
 名及田頭作者四名不善措飭之首巡校各答二十度後  
 嚴飭放送  
 全雅德基特玄主事鳳柱書來蓋昨冬收買柴場山坂未  
 盡處越價後捧標事而要托告示故眼同巡校金昌植  
 出送  
 列車自今日扶江至賣標平澤停車場上午八點五十分

計矣已刻觀察府秘訓專到見是稷山郡按覈使安鍾憲  
 本月十三日到郡故以郡守參覈官另差馳赴參覈事也  
 朝者都吏朴樸呈今年緊狀磨勘次赴往公州府故先以  
 冠帶籠付送矣現今事機如此則冠帶籠還來然後可以  
 馳往稷山矣專送金永哲使之覓來事分付  
 陪率刑吏朴啓淳金榮濟通引朴喜龍使令劉興云官奴  
 萬石辰初刻離發至二十里外感歡李已石金永哲自金  
 義從輪來待仍行捨南大路取東路至八里踰城隍峴  
 頗高又二里稷山郡泊入郡司下處  
 本倅郭 環送首書記傳喝因答送本郡戶長韓奎東首

書記尹啓鎮來現少頃本倅出來叙話諸般事狀本倅家  
 在水原安中里且天安倅金用來亦以參覈官差定尚未  
 到云  
 按覈使下處于東軒仍呈馳進狀以平服入見按覈使安  
 鍾憲各叙十餘年積懷又話始興稷山事狀檢案則業經  
 初招方今再招矣  
 午飯罷聞餘在罪人捧招云自願職分躬進參傍為可故  
 即詣東軒參看礦野商民蔡元實以勒奪有夫女罪受答  
 十五度五日致斃其弟仁石八月初一日率黨入邑捉下  
 前郡守于內衙庭中以石亂打以刀割腹至於初二日殞

廳司倉又其西鄉枝即城山下邑戶二百餘戶一邑戶籍  
 總三千三百戶結總一千七百四十八結二十五負五東  
 場市二處十里成歡一六日十里笠場四九日矣四山環  
 圍前川西出東流  
 天安倅馳到相面于東軒罪人三招前郡守衙奴趙性才  
 發送巡檢昨暮捉來與吾贊實對十捧招稅監金鍾蓋捉  
 來捧招在囚中吉贊實金昌俊金聖權外礦軍七名別無  
 更問故特為申飭放送  
 入東軒路歷訪吏廳天安倅處取暫晤後叅見罪人三招  
 畢并付書後按覈使以三谷里金礦等處視察形便次偕  
 命故邑村民數千名發通來會執捉蔡仁石踏殺事自天  
 安郡守已經查報事也按覈使隨其取供親裁成案凡五  
 人再招供畢  
 邑基自聖居山後嶺磅礴而來為城山關一小局東驚三  
 帷地連衛會與玉女峯作賓主相距亦三里前頂叢石削  
 立如牛馬人物形中開小野漢川橫繞歸平澤界二十二里  
 會看橋政堂負子陞扁柱笏樓內外三門扁湖西界首衙  
 門傍有使令間衛之此丹室東內衛庭東秋廳其東客舍  
 又十步地靈治亭今廢只有石等方治其下巡校廳扁觀  
 德堂鄉廳南吏廳扁禮城樓房郡司兼設郵遞司西軍器

廳司倉又其西鄉枝即城山下邑戶二百餘戶一邑戶籍  
 總三千三百戶結總一千七百四十八結二十五負五東  
 場市二處十里成歡一六日十里笠場四九日矣四山環  
 圍前川西出東流  
 天安倅馳到相面于東軒罪人三招前郡守衙奴趙性才  
 發送巡檢昨暮捉來與吾贊實對十捧招稅監金鍾蓋捉  
 來捧招在囚中吉贊實金昌俊金聖權外礦軍七名別無  
 更問故特為申飭放送  
 入東軒路歷訪吏廳天安倅處取暫晤後叅見罪人三招  
 畢并付書後按覈使以三谷里金礦等處視察形便次偕

至六十里申正二十二分乃下車入會社訪日人高木及  
 日比并出他未晤即向前店定下處  
 永平廣德居申雅極煖有幹事公州同車下來叙話因伴  
 往大岡德三處野主人以醪酒川魚松耳等饌款接酌罷  
 還處夕飯時大岡又以生鮮助齒佐饋夕飯味甚甘香甚  
 感也  
 黃議官斗淵崔斗煖崔正星首書記黃敏植來見故托以  
 轎子及轎丁明日早朝發行公州事為言本倅日前因延  
 命行直向連山本第云矣  
 十六日霜降首書記率轎丁等待轎崔每十里一兩五錢

本官出去周覽後旋還  
 按叢使參叢官及本倅詣客館行望哭禮後望 闕禮按  
 叢文索正書成貼發送後午刻使發行上京余與天安倅  
 修送參叢形止發行狀于公府因各叙別登途  
 公州延 命必及今為之故即向成教停車場命還送朴  
 啓淳朴樸呈朴喜龍等時尚早拓見巡檢李相源往訪會  
 社日人渡邊與林主事明浩通辨監督戶井子出他未晤  
 時尾形入來相與叙阻  
 出買標野蒂回萬石李已石買標三張每張價四兩四錢  
 申初刻三十分乘車達見叢下櫻井叙阻旋別因發全義

九今六月日叙任公州總巡聞余之來出見叙話  
 入宣化堂告別見澄清閣留自辟未蘓參奉台永囑托邑  
 事歷訪李主事漢容叙話前後事狀又警務署見總巡尹  
 永九設酒餼款待即還私處午正刻登程歷入申主事蕭  
 熙家旋出由拱北門前路渡錦江至十里下酒店捨北去  
 大路取東南間路沿溪而行八十里長谷遠迤縈迴石磴  
 林壑步步仰脅當頭一巨山名曰銅穴山山頂叢石羅立  
 數里最下頭一巨巖特立其下石壁橫披如屏障數百把  
 又其下一小庵巨木叅天霜染紅紫明照斜陽行行至銅  
 穴峴上與小庵相望不遠適逢土人問之云是山頂叢石

往還一百二十里合錢七十二兩出給且申雅作伴騎馬  
 雇十八兩庚辰刻離發鳩阜砂器取峴各十里公州界又  
 九里踰弘峴店至五里銅穴峴甚高峻又行五里內洞中  
 穴十二里始與大路相通三里錦江五里公州府主人家  
 呈迺 命狀除迺 命以公服見觀察使沈健澤叙話諸般  
 事務使曰今番兩次賢勞蓋由不得已者也及見處事可  
 謂老當益壯此後若或有道內難處之事則尤當幹辦云  
 云故答以有不可者二一日身嬰眩暈二曰吏乏爛手三  
 曰邑絀旅費以此事狀實難奉承特加另護無至臨事債  
 誤之意屢屢為言而出夜已成正三十分也定山居尹永

辦致謝因乘車七點鐘十九分發行抵通伏浦八點鐘二  
 十七分因下陸運劉尚結轉往會社見櫻井叙懷永修敦  
 好為言故遂許之午初刻本郡首吏與藍與等并未待因  
 即叙別至軍勿浦吏校某某未待入洞長家首書記進甘  
 酒柿菓子等渡津還衙時正午正三刻也  
 見郵來京書家內無故而趙即龍鎬因省秋事去月下去  
 平壤云矣間因違病本月五日奄忽於平壤云此何惡報  
 以吾耄耄之年當此不忍之狀慘悲疚懷不可形言而死  
 者已矣最其青孀孤兒將何依賴而支保乎念到于此神  
 眩心醉莫知底定也

百餘箇最中巨巖名稱五十丈巖其餘叢石及石壁皆赤  
 色且有孔穴如鑄銅生穴以此謂之銅穴山小庵曰銅穴  
 寺造建于盤陀石面上覆巨巖如窟樣蓋三韓古刹一僧  
 常留石壁曰錦羅絕壁傍有一小泉昨日過此未得真面  
 目今日行始知有此景然路促未得一賞可歎也  
 酉正刻行抱全義郡治入黃議官斗淵家止宿適時本官  
 權宅洙亦還官矣送下隸傳喝主人備供朝夕甚不安夜  
 與主人及訓長李在協叙話  
 飯罷入見本伴時到車未到即出停車場買標通伏浦至  
 九十里每張五兩七錢五分時黃斗淵黃敏植來待余極

見官報 皇太子妃宮自今月初十日以滯崇有靡寧之  
 節太醫院都提調尹議政口傳奏請率醫官入診詳察症  
 候議定湯製啓稟十一日口傳啓請并直 症候未知有  
 何疴崇而至於此舉聞不勝惶恐修兩度書于磚西大小  
 舍廊  
 二十一日作夫出杖秋事告成滌場在即故結把掌派出  
 必於五排日內無零準納雜一排日有或末滿排錢則該  
 洞長及注備斷當捉致督納而切勿使杖替納直納官庭  
 受印尺以去事告示各面官廳色朴表熙都捧色朴啓淳  
 差出并令首書記者檢

日人櫻井及劉尚結來訪以點茶酒饌待之櫻井帶持北  
 海道所產魚鹽二筒贈遺云是貴物即為破筒嘗之果異  
 味也  
 二十日 皇太子妃宮患使尚未向復至有太醫院并直  
 之舉自願職在外官未能詳承 証使下情惶恐并修書  
 于直宿諸臣且圍洞李大臣址鎔女有書答送  
 田后植告去菊花桃一箇贈給此是要請者也因送別洪  
 應教象英禮在明日云故別定巡校池龍夏色吏后昌洙  
 使令梁順哲金萬得護葬次命送  
 每年冬月以梅花杜鵑等花培栽土盆排置案卓上日夕

必觀接受其蓓蕾敷榮以寓化翁發生之妙理矣此郡則  
 初無此等卉族且鮮解事者自不能開口話到苑庭前叢  
 林中山茶花採得一本培植甄奩又以芭蕉旱蓮兩種依  
 法培灌以為冬月玩賞之具  
 官庭西墻下葉草向已摘取曬乾可為一把量味頗香烈  
 不堪吸鄉長最好熏品故并即送給矣切草一斤贈遺此  
 未免俗套也  
 庭前花卉因霜凋殘不能耐久故折取黃白菊及唐菊禁  
 院花鷄冠花唐菟數種排插琉璃瓶貯水潤枝其半草鮮  
 妍倍勝於庭砌零落時置諸官房及春水樓

向於稷山參覈時使安鍾憲氏已蒙全南巡察之命而  
 要余薦人故以固城朴鎮國應對蓋此人解事能文綜詳  
 周給百事可堪足補廣南人才而舍於固邑已野試用者  
 也伊時巡察使即欲電報招致云矣見今各道巡察必將  
 非久登程且朴某間應期會故修書叙濶後戒以責任之重  
 兼陳麗水成茂公錢事狀以為不日督刷事申托且修巡  
 察使書而徒郵便魚付家書  
 二十四日 詔下直宿撤罷更以輪直仰認 太子妃宮  
 憲使漸向差復誠不勝歡忭之忱  
 本道巡察使金星圭代正三品李始榮 命下矣

二十六日太醫院都提調口傳 奏曰即伏聞人診醫官  
 所傳之言則 太子妃宮患候今又添損云臣等不任驚  
 慮之至自今日更為并直之意敢 奏 答曰知道姑為  
 并直本院又 奏曰臣等自今日移直於 太子妃宮差  
 備近處事奉 旨依 奏  
 十月一日望月後行望 關禮因改脈詣 大成殿焚香向日菊  
 花乾淨時日人櫻井通來問菊是聞香悅心目之物而今此  
 採取乾正是何主見也余曰公但知其觀說泛樽不知為衛  
 生療病良方孰未羨前採乾作枕櫬隨床褥者可自聞至  
 若明日祛風隨以見效然則多勝於徒說拋棄也櫻井曰然

則願患用餘二件甚好云而曾見岩下監督以頭風苦痛  
 故作枕三件二遺櫻井一遺岩下修書專送  
 金同知昌燮即泥洞翠石台之從曾孫也初以內需司舍  
 音持公文下來自郡告示番土野在北面諸作人處向因  
 前舍音崔注善漢膺作戲勢不得被逐矣今又帶公文下  
 來入見托以定巡枝別般曲護事屢屢故別定巡枝告示  
 于該面長及諸作人處  
 見郵來克兒書 皇太子妃宮以宿患去二十八日戌時  
 薨逝 國運孔艱胡至此極况又春秋曷威出此不意之  
 諱音尤切罔極

錢二千五百兩帶持同行出停車場買標五張永登浦至  
 每張價九兩七錢八點鐘四十五分登列車日人大岡德  
 三亦上京相達徽叔十一點五分抵永登浦下車逢龍仁  
 邑居村司果載坤叔話適時仁港列車亦到又買標二等  
 一張二兩三錢五分三等一張一兩二錢十一點四十分  
 乘車是日日本戰陣慰問使權重顯回還軍人多出迎接  
 矣因至新門外時已十二點零又乘電車至黃土岬下車  
 步行至工後洞第稚子弱孫團聚歡迎諸眷俱穩甚庸慰  
 洽而老妻近以感崇吟苦  
 探聞磚西台監方在 關內云夕後往磚西則台監尚不

日前首校之子芑用被酒行悖與朴鴻來家雇傭有所言  
 詰之際鴻來母在傍解紛被擠仆地至有傷臂之境云故  
 捉致嚴杖二十度著枷牢囚矣今聞鄉長野言則非但臂  
 傷不輕有欠紀綱且渠父子外間行為亦駭聽聞故一并  
 除馱芑用笞十七度仍為牢囚  
 都約長李都事允植以鄉約條規成貼事與各面面長梁  
 柱七李經九趙和淳李炳佐入來故踏印出給各面洞使  
 之永守條約勿替期效事申喻  
 六日申刻陰雨微灑 妃宮薨逝後不可不一次上京慰  
 問某某屢故當日率萬石發行卷卿李永老尾章銓上納

出來某某知舊在座叙阻又見叅書忠植慰問總話拖至  
 十二點鐘主台不出故不得已還家  
 七日兩飯後往松石園見閔叅判泳璘叙話諸般事狀適  
 逢金叅領顯台聞日俄交戰之旅順事狀自中之亂層生  
 疊出必將非久陷落云而蓋因慰問使還來後詳報云  
 轉往帶洞第拜謁 祠宇又見新生曾孫像貌奇妙結局快  
 稱麟兒渠父年過三十而始生男兒余亦七十一而見此  
 長孫之慶此兒足為一門之悅孫因名曰命曾因向陽泳  
 家旋還二后第李判官基模來坐因叙話待以午饌自張  
 中軍家糧床供米少酌後派饋諸少輩九曲洞金室許錢

四元給送晚往閔叅領泳璘家不遇留名帖而還  
 夕飯後聞磚西台出直故即往慰問 園野則姑未完定  
 然初議則以馬場里龍馬峯下 築禮則以今十二月內  
 為之據而姑未的料也云矣因叙別大小舍廟冒雨還第  
 夜己子初刻  
 八日成服諸具不得不準備而北布一疋價為四十餘元  
 云以家中所在件并帶行中今日不得不還官故使恭卿  
 及后章鉉領納帶來錢于度支部後即往仁港上納條區  
 別以米并出尺下來事申喻  
 因登遠出新門外惟暘兩孫及柳后兩人亦隨來因買標

宿畢了幹務足可謂快活能事莫過於此然這間列車電  
 車人力車之代步驅馳自致眩憊今焉頓唐漸氣難振良  
 可苦也  
 九日午陰 皇太子妃宮 薨逝府訓未刻到付此訓是  
 何等重大之事而今初一日出者今始來到所謂郵遞之  
 失規汗漫莫此為甚也以望哭次因即下帖于校中申正  
 刻以布圍領帽帶詣 客館望哭行禮翼兒及鄉長以下  
 諸官屬叅班校任等并未及會哭矣  
 志孫自京下來見克兒書即因翼兒招上事也十日曉微  
 雪陰都有司李允種掌議張奎鎮行望哭禮來見午後三

率萬石乘列車還送諸人九點四十五分發行至永登浦  
 時正十一點五分也至十二點五十分買標登車即發水  
 原漢津居李主事敏和同乘相晤李抵西井子下去此距  
 漢津為四十里云又至通伏浦下車時已午後三點十二  
 分邑屬姑未見待直向會社見岩下櫻井寒暄  
 櫻井曰京釜鐵道自今初三日全通永同然則此月內足  
 以通行列車于釜港大抵初以今十二月內畢後預筭者  
 其間十分董督今至完筭野入則六千萬元假量云  
 少頃董與未到故因還衛今番此行出於不得已從權私  
 行大抵三日之間往返三百餘里之程如隣里樣留京二

佈桑苗指授方畧矣另擇各郡解事一人差定有司陰曆  
 九月二十日起期來待府下一齊領受較計邑大小分依  
 俾為種春務茲蚕農價值則限三年後每株銅錢三分式  
 收聚上送以為償還事到付矣前已使張奎鎮泐送因桑  
 苗不來空還又因指令即送于全義郡始授八千株及種  
 桑規則今日來到故使各面長分排各面  
 衙舍東墻外前日大同庫社倉官廳等遺址空堡與客舍  
 西墻連接今此桑苗幾百株種養宜由於使民發達第念  
 蒸之為木最閔 國計民產飼蚕成規為利甚博有非尋  
 常樹木之可比而愚童識見因循汗漫收效差違寧不慨

點鐘翼兒志孫從輪車上京  
 妃宮謚號 紀烈 殿號 懿孝 園號 裕康 公除  
 自今十月初四日成服始計同月十六日滿十三日矣各  
 衙門開坐事 梓宮銀釘上加漆今初五日為始間一日準  
 十度事太醫院直宿依已例撤直退去事  
 大東新報即日人村崎重太郎發行衙簾後彥編輯自今  
 年二月日創刊至一百六十九號依皇城新報例今初六  
 日為始頒行各郡矣  
 農商工部訓令課桑種樹屢有勸飭各郡而鄉村物情每  
 視汗漫故種桑二十五萬株使蚕業課技手專派領往分

卸回還下午五點三十分至通伏浦每日一次往來云  
 近日此近賊患之說種種入聞而衙舍與民家稍間夜甚  
 寥寂自吏廳別定校吏各一人每夕守直衙中  
 十六日昨見家書老妻欠御數日極重自昨朝少有差效  
 云然聞甚驚慮從郵便書問  
 向日桑苗分給時以府訓申飭各面長使之分排饒實戶  
 如法種植期有實效事曉喻令聞所傳之言則甚甚至有每  
 戶分排之說故措辭令飭於各面面長大抵課桑種樹實  
 為手利民之策也民若稍開心志何待令飭而勉從哉今  
 况上自部府講究斯民利益幾萬株桑苗動費排送寬限

數哉特取三百本親自檢者以為首先如法種植使一郡  
 諸民效則而觀聽焉今日種桑自午前九時以午後二時  
 三十分至畢後而諸吏校在郡者并來幹事其中巡校李  
 時鉉初也來參少後去他更無現形言念野習駭惋莫甚  
 因即除汰  
 十三日晚兩池塵陰是日 妃宮薨逝聞計五日以祭服  
 詣客館行成服禮諸官屬及鄉人李允植李經九張奎鎮  
 秦班  
 兵章鉉徒列車下來發印條稅錢一千四百三十二兩尺文及  
 泚菜一缸持米聞列車自昨日永登浦六點鐘發行至大

邑内面各洞漠然無聞其在承訓奉行之地任自漫漶鄉  
約共公之議奚獨背馳言念事體甚庸慨歎令到即時  
其委折查報事告示邑内面面長  
厠前遮面以辛夷花木排種者扶疎無遮故採得杜竹二  
叢補植結構作翠屏者得完好也  
二十日恭卿自京新門外五點鐘半到車發行六點鐘至  
永登浦七點鐘十五分又發下來見家書老妻患節即感  
崇觸傷間用四物等劑自昨快有減勢云其間屢日思念  
之餘幸莫過於此也癸卯條稅錢尺文三千九百三十五兩  
三錢五分一張下來

歇價務圖勸勉於公於私斷不可量勉度了即聞桑苗分  
排便同卜定不擇勤慢與大小戶乃逐戶分給任渠汗漫  
培植之御殆無其規來後利益今姑勿論至於委員查檢  
將何以荅乎不得不立規設法期圖着實栽植茲又令申  
各其洞中別定有司一人統率各戶培養之節全管董飭  
逐戶分排即為勿施另擇勤幹稍實戶以該洞分排之數  
量宜分定培栽後有司及戶主姓名種桑株數修成冊報  
來以為報府事知委  
曾以賊警防禦次鐵鎗木椎每戶準備已有府訓定規且  
自鄉約所別立規模右項防禦之機已行點閱云而惟獨

健云而家作葉草二十把寄來云牛間巡校廳時祀後物  
 八米與元根共之回資十兩整三斗石花鹽三器一缸洋  
 黃一封修書謝之  
 朴健模自仁港至永登浦逢丘章鉉替送仁港帶持家書  
 與癸卯稅錢零條五百二十兩癸秋戶錢甲春戶錢各一  
 千二百三十三兩尺文合四張及四物湯二十貼持來見  
 克兒書老妻患節近躑躅平復甚幸  
 磚西老安堂貞敬夫人昨日申時卒逝云驚愕之外自為  
 臆塞不知為懷也因卸便書問致慰  
 十一月一日向以防賊事對各面長面諭又令飭一郡自

京奇因 特下 詔書政府大臣來會賓廳 妃宮謚號  
 更為議定 純明奉 勅是依 裕康園以馬場里龍馬  
 山下內洞完定十五日三者審封標十七日始役十一月  
 二十九日卯時下 玄宮賓廳擇日  
 癸卯條稅錢零條五百四十兩秋戶錢甲辰春戶錢磨勘次  
 下吏丘章鉉上送京第朴健模因仁港幹事同為上去  
 東倉社米親捧次出往捧十八石米色比昨年稍劣故別  
 般申飭未納作者亦抄報事分付轉往邑倉至中路以腹  
 痛還衙習送該色一體董督  
 閩慶大井里吳元根持其父書來述以無何之病長時不

欲同展念經過冬還山為計而佛像年久色渝且經年前  
 賊變累及金像為其師眾者不忍視瞻將欲鳩財改金而  
 如非官令莫可生意特垂慈悲俾成功德事為言故余曰  
 昨秋慶燁敢生不善之心收財千餘金仍為逃走且曾在  
 麗水時與國寺講師覺海堂問道聽講甚相契合適因  
 靈仙庵回樛講求鳩財之方寺宇建等與佛像架架準擬  
 一新次特發勸演文鳩財三千餘金僅修庵室而進後聞  
 之則樂從者無多至於改金製架因為中止此等事非不  
 知為無上善事然必先究其心樂否後可以徐圖為好矣  
 其龍禪之深機妙旨真率蘊包多有可聽且遊覽山川宿

鄉中爛議長策各其洞另造鐵鎗棒子又成節目派給各  
 洞去月初有各面約長點閱鎗棒云而惟獨邑五洞初無  
 知委故即為告示該面長使之查報事令飭又過一望無  
 聞所習駭然該面長為先別附過使校吏輩董飭鎗棒以  
 為一體準備者品事分付  
 春川廣德金宅洙來見與舜七平伯輩種種從遊年來種  
 蔘廣岳山今秋採乾放賣次持來云故五十斤一斤三十  
 五兩無斤一斤九兩買得  
 僧而龍岑二持昆布多一器來話今春自河東獲溪寺雜  
 發歷覽畿湖名刹及到此寺住持岑二即師兄弟間也將

於午間及夜深胃虛口渴種種思食別無可餓者怙怙孤  
 館亦一添惱今此腆饋足為忖度我心者也  
 磚西老貞敬夫人墓禮擇於本月二十二日辰時合窆龍  
 仁下東村遊槐亭黃史相公先墓云矣  
 十二日未正刻有剃髮二客以名帖要見因接見一是寺  
 洞居朴容允一是筆洞居金完變相與接晤本人即一進  
 會人以十三道各郡支社事務所設立次持本會社公函  
 因出示且曰會負今日團聚與人民等當為演說今既設  
 立支會事務所則會負從當留接郡下允於施措官民間  
 互相規則必無為藤事為言而出

飽名勝曾與名士高釋互相從遊頗有講解酬唱之詩已  
 成卷帙云故依其所誦黃梅泉韻賦贈一律  
 內里倉親捧社米次出發首書記陪從歷八鯨井里間長  
 洪應教因往社倉餘在米捧為八石而坐待二時刻都無  
 米納者對社首等別般嚴飭轉向斗井里金容商家暫應  
 與諸金叙懷迫昏還衙邑倉今捧十四石米收以七石報  
 米故以來排日督捧無致後悔事指令  
 全雅容商家榻床入米春水樓亦并之蓋是料外也因修  
 書謝之泐饋首書記及在傍人  
 首書記粘米食鹽一缸供米味甚清甘一自眩症之後每

申刻聞之則一進友會負剃髮者二十六名齊會于客舍  
 前又新入者三人當場剃髮又書四大綱領條日本日下  
 午二時開會僉君子來臨敬要事二張揭付店壁後一齊  
 免冠頓首演說曰 皇室尊重獨立基礎鞏固云者我  
 皇室堂堂獨立之國而外有獨立之名內無獨立之力者  
 何也政府壓制甚甚生民之元氣已絕民心各散愛國之  
 誠全無故也若民結團心一體團合則盡曰民惟邦本乎  
 本固則獨立基礎之事自然鞏固也政治改善勸告者改  
 善一歎惟在政府之手端也非人民之自行自為也塗炭  
 生靈惟望政府之拯我民於水火之中也其實施請願勸

告者也人民生命財產保護者生命財產人民之衛生財  
 產之發達尚矣勿論壓制貧危之下生命之枉死財產之  
 勒奪總論我十三府則必算海量不可勝數也比諸開明  
 之規謀其經緯果何如願學於開明國規模也同盟國事  
 上補助事方今與俄開戰是東洋三國之大義也其同盟  
 國之義盡其心盡其力雖萬一之力以義相助事也斷髮  
 一款團結一心開明上進步之第一初步也  
 且云今我會負數甚無幾然十三道各郡次第應進日以  
 一進同心則二十萬同胞自為一團然則何異於使一  
 家一室彙集成一束結作索綯雖欲斷絕豈能容易自日

俄開戰以來許多費用自民會擔當補助此實人民愛國之誠而亦由唇亡齒寒者也至於我邦今日吾輩以空手擎天似或愚迷至於衆心成城足以當一隅茲以自持盤費不使貽笑於他人財產亦一愛國也設或操持軍物以鍊精銳則慮不無料外事生于其中語曰捉馴生鷹而獵之必雉盡攫鷄之喻是也且新著鮮衣必擇精潔處而起居至著久塵垢易致汗漫自任此蓋吾輩戒慎銘佩者也只願食君子一心報國期圖鞏固基礎焉因閉會云矣

朴喜龍以中化學校學負入泰事今日上京而留京時衣服飲食將欲寄托於親知云修家書付送計矣已發失便從郵

付送

一進支會長韓世教副長金興烈以下五人姑留事務而餘人或上京或向木川云故因據實報府

十五日今日 明憲太后練祭日也因 純明妃宮卒哭前未得行 祀更以卒哭後擇日行禮云而間以眩崇近十日不能巾櫛望哭禮節次不得已權停甚切悚歎

忠南進步會長張靖煥副會長金泰植公函又聞有遁文一度以公函傳及作廳以為騰布於貴郡各面如或掩置列派調查之日悔不可追云

申刻李允植來言各面鎗棒不可不官前一次點考故以

將欲診脈出方而日色已晚似不診脈故使之留宿春水  
樓翌早診脈後謂以風火野崇水渴木痿而三才扶正飲  
二十點出方改以製藥試服次從郵便付京書  
磚西龍仁奠禮時率擬會奠矣近日眩暈添劇房闈出入  
實難自由故不得已以書替伸且祭需一盤期欲辦備而  
勢亦末由昨聞姜晚石明日發行故修書簡三度且備祭  
需代錢壹百兩使翼兒專往姜晚石家面陳付送  
井健模橙于一个待米橙是橘屬大如杯苞黃皮厚香氣  
馥郁的未知何方所產而初見初嘗之果古人詩云纖手  
擘時香不去金穰分處味微酸是也

今日來會事知委矣四面齊會而惟邑內與小北兩面尙  
不入來然不可以此兩面而巡拖時日云故使之點考後  
申諭出送

余對各面長日邑內面與他面迥殊而當初鎗棒知委時  
該面長不為措飭於邑下故不得已余自申飭而該面長  
別付過矣至于今日又不來參該面長之舉措甚為駭妄  
且小北面則不過十里之地而便同他邑諸般令飭一不  
舉行該面長不可尋常置之另自鄉約所招致兩面長別  
設團東也

李允植率其再從敏植入來而敏植素鮮醫藥為余所慮

去月念間勤孝谷鄭泰新私掘鄭泰亨妻葬事因原告貯  
 訴提因被隻計將依法報府勘屢矣其族人鄭泰球累次  
 來言門內相訟不可使聞他人自宗中會議私和云而原  
 告又以私和之意呈狀然元來掘案審慎莫重故不能決  
 案夫又自門中呈單特念無訟之義被告鄭泰新安貼放  
 送判決書成給

是日巽時節 純明妃殿下發引宜當行望哭禮於客舍  
 而終未見上府知委甚訝也二十九日是日卯時下 玄  
 宮而雖未及公文到付晴禮難抑詣客舍行望哭禮  
 純明妃殿下發引時及下 玄宮時與來月初三日卒哭

時望哭事訓令今始到付此等典禮果何如重大而上府  
 知委若是漫漶深庸慨歎也

府秘訓牙山郡貢稅地致死男人朴正甫獄事已行初檢  
 而覆檢官以郡守差定馳往事也現今眩氣跨月吟苦至  
 於公務廢闕之境有此檢官之奇勢將舉實頓報乃已番  
 番此報有若謹避言念職分甚切憂悶

柳泰卿自京下來見家書大慶一安而其間稅錢中五千  
 八百七十七兩三錢五分一厘一毫及三才扶正飲藥材  
 下來

十二月一日乙巳小寒聞公州來說則去月念間一進會

令舉由電達于日本天皇陛下其電飭曰俄國將軍數月  
 嬰城固守極為嘉尚特別保護再昨日下午三時 天皇  
 陛下又電飭于日軍司令却未到日公館當日自泥以牲  
 日人等以旅順受降仔祝捷會取松枝蕤蕤結構于街路  
 上太陽旗上特書旅順陷落祝捷會七字又以各色絲燈  
 廣張上下通紅如同白日且設火毬戲娼妓線管鐘鼓填  
 咽雜運男女老少充滿街路歡天喜地觀光宏壯一進會  
 負一齊手提西瓜燈情表祝捷矣  
 四日金智洙自京來見惟孫書三才扶正飲今至八貼少  
 無顯效故請耒李恭寬診脉後更以加味二陳湯五貼煎

負屢百名聚會於府下者已多日矣自該郡儒會募集無  
 賴輩數百名各持棧杖打擊一進會負而會負一齊奔波  
 四散逃竄欲渡錦江危急落水死者有之會長以下重傷  
 者甚多衣服什物盤纏錢兩沒數見失至於該會負居停  
 店幕併皆打破云矣  
 三十日出皇城新報見旅順陷落之說陽曆一月一日下  
 午八時日軍占領二孤山砲丸兩集俄國旅順守將士以  
 望將軍同九時量送降書于日軍中後水雷艇餘存口隻  
 灌石油一齊爆沉軍舍房庫軍器什物併皆爆燼因生于  
 火藥庫上衝火燒死矣降書中有請求教三條自日軍司

九日牙山覆檢指今留案今已多日勢不得及今往幹故  
 已刻發往牙山郡抵十里新成里朴健樸家暫憇午饌備  
 進其子祥鳳來拜以果種分饋  
 牙山郡治邑前有大數路傍露立一丈餘石彌勒野經三  
 十里之間峰巒擁路叢立別無人家田苗則脊薄矣過數  
 至旌門閣前邑人巡奉行行百餘步即場市適當市日別  
 無可觀會者無幾緇有人家挾路數百餘步地間間有遺  
 愛碑抵閣門樓揭慮民樓三字扁額北傍即客舍扁牙州  
 館又其前秋廳過官門入將廳下處扁佐治堂即官門之  
 南側少頃本郡首杖首書記等并來現本官李秉協去月

服事敦定

五日見牙山覆檢頃報狀回題則以不可頃免事為辭矣  
 現今病狀莫可振作然諸議皆云更難頃報故幾日間待  
 病少差後赴幹事姑為留案以覆檢次書請天安田后植  
 六日田后植以鐵路來到故使之留接于鄉長家  
 褒義壇即三學士建院享祀之所而一自毀撤只存遺墟  
 感歎者久矣其後更蒙 朝令設壇自士林春秋焚香又  
 於今春等塲設門而記其事實付揭劄撫念往蹟豈無  
 慕賢之忱哉茲捐十元銀出付稭中存本殖利以為補  
 用事申瑜于有司等入

現以檢尸藥物不効待令連傷無效故投入本郡首刑吏  
 別般廢傷野謂該吏者泥醉不省野當廢杖懲習然姑令  
 置之申初刻始得行檢至迫暝畢還為封鎖  
 守直等白活內矣等擔任尸身今至二十餘日不勝堪耐  
 願為替代輪回事告訴故余曰守直等事本非檢官野管  
 必自本洞別定者檢則汝輩情勢雖云難堪自余莫可通  
 變事為蒼矣彼輩一直哀訴故即招本郡首刑吏則醉尚  
 未醒余曰守直等節宜汝郡申飭而彼輩屢告私情聞甚  
 悶然即為變通輪回事分付之際忽二箇人自外突入云  
 一自獄變後一洞上下舉皆奔竄蕩敗家產莫可莫接果

旬間因 懿孝殿進 香差使負上京未還兼官溫陽郡  
 守權重億也自官廳進酒物率米一石定野于秋廳  
 出往十里貢稅地御前日各邑稅米捧上裝載之野人家  
 洽為百戶人物殷盛余曾過此處訪曹進士也前蕭條樣  
 後岡建等一屋塲垣內造瓦家三四箇屋于最前頭建二  
 層屋一處云是瞻望臺其蓋造不甚宏壯法國人宣教師  
 成一論所住而此村西教入學者數十餘戶云矣因下處  
 于金場煎家主人入見款接以酒物供進結以午（？）此  
 人素無知而款曲之至於如此且野率之午饒飢亦皆  
 備待云其為樂不安然甚多感也

歸政堂負子而坐廟以迄民堂又仁民堂凱階軒堂之西  
 庭有盤松一株覆枝十餘間又有槐木一株各圍數丈  
 之東丹室其東內衙堂前內三門又中三門扁牙門  
 又其外廡民樓內有使令間衙之北人吏廳鄉校在其南  
 其下司倉邑五洞一百五十三戶一邑十一面二百八十  
 洞戶摠二千九百結摠二千四百三十三結六十三頁三  
 東各面場市四處浦口四處此郡各浦興販米穀漁鹽等  
 屬惟白石一浦日本汽船自仁港無常來往云矣蓋四山  
 重疊中關平野土品膏沃自南至北海水相通舩隻湊集  
 生理極好為生民樂土人物亦可謂士夫鄉也邑誌為甲

無改立之道云故余曰今此檢官之到此初無一箇人招  
 待之令而至於行檢時一洞聚集觀光者幾近百餘名若  
 至貽弊於汝洞則豈有一箇人得見之理乎彼輩呼訴不  
 聞則已矣既得聞之此亦可悶也必須善措處期於輪回  
 替寔事分付則彼曰許多生費實難堪當果無改鑿之道  
 云云語意頗不恭余曰汝亦此洞人即以入來者替立事  
 捧傍者左右觀者甚快之因還郡

十一日罪人間招致死男人即陽城居朴正甫去  
 日被打於縣內面貢稅地朴致官父子至十六日致斃事  
 周覽邑形便主山鶴橋山以靈仁山為案對教川東出西

直送而本以負寒之人多日效勞甚切不安帶來盤纏只  
 餘三十九兩故仍給以送  
 午刻離發抵到載店少憩店後一石山盤距問於  
 曰高聳山余曾於輿地圖說已知牙山高聳山產玉石之  
 說故因問此山有玉石否土人曰以若愚迷識見玉雖在  
 傍豈能分辨乎第有古來竒談昔年土亭先生莅邑時郡  
 治在於越邊名內洞朝夕常望每桶財庫一日夜率一通  
 引潛往此山指點幾處曰此是金穴彼是銀礦通引曰既  
 知丁寧則何不採取耶曰雖是山麓之物財主主用有時  
 不可遽爾生慾如非其人而括取則必致大禍汝亦幸勿

午日清交戰時間失未能考蹟可歎也  
 耶謂金聖云金永先金成順李明云服事姜斗永尋出於  
 口招使卸推提矣自宣教師成一論處以公函不為捉致  
 事為辭故獄體至重者證未詳至於隨其供招查問委折  
 然後獄事歸正可無幽明間點昧之嫌幸勿防塞即為押  
 送事答函  
 十五日日本郡首書記持褒貶題來見本郡居中平澤則老  
 鍊手腹且何事不濟上念我近日昏耗得此度  
 愧報已也  
 檢案畢書成貼發送公州府田后植家自此四十里勢將

以此傳說可也夫如是者屢矣通引每自心中思念獨往  
 竊審其形便凡幾次後試採一穴則銀屑現露心甚喜悅  
 然以土亭之神明不敢生意其時土亭每服蜈蚣汁後喫  
 生栗一箇而除毒通引敢生不測之心謀以柳木削如生  
 栗樣蜈蚣汁進服時輒以同進因此而不幸矣以故移邑  
 於今日郡治云余聞而自思曰為土亭先生地豈有是理耶  
 仍行申刺拖新成里朴健模家公兄以下書記及巡校等并未  
 待進納公州來褒貶題日後問安仍進酒物暫憇旋登  
 里洞送朴來熙尊問朴仁至四巨里鄉長落馬受傷云故使  
 慰問大拖四巨里店本二家而每因賊患移他矣向日我去時只

餘一戶其間又為空家聞是為賊徒侵掠不得堪耐云是  
 可歎也因還衙時正月初二刻  
 內需司查檢官玄相國持觀察府劄令來見即此  
 水原梓村崔校理漢膺在土檢查事依公文巡檢色吏各  
 一人別定以送歲前不得不上京故請由觀察府又修書  
 于觀察使及府主人  
 金主事道默持尹摠辦澤永書來蓋因金監董永圭所買  
 小北面徐相天掘浦畝三十三萬四千兩價庄土完文所  
 托故因為立案成給  
 日人村上榮治郎吉川文治郎兩人來言近住通伏浦保

伴來  
 西北兩面大小民人權伯淑崔大元等訴狀內北面荒井  
 里前坪西面內里後坪本係陸畝轉相買賣舊有  
 于今日未聞內需司畝夫不意日前有查檢官下來稱以  
 舊浦成陸三四十石落民畝違違丈量至於見奪之境豈  
 不冤抑乎云云  
 查檢官玄相國入來故余以民狀事言及則曰今番查檢  
 田畝即明惠公主房地而依舊量案丈量東西四標分明矣  
 黑石前坪二十四石七斗五升落允內里東倉院井黑石  
 四洞各人等田畝院峯東邊西石五斗落新搜浦坪六石

線社而巖下則移住美江櫻井則去月晦間身死於永登  
 浦云甚慘愕也  
 僧兩龍持昆布炙一器來言間往鄭竹醒私館穩話數日  
 賦詩談經云余別無可贈者以周紙二軸簡筆二柄真墨  
 一丁洋黃一封施意  
 金結祚再昨日自京下來今朝還發回資十四兩給送方  
 碧下室內小菴在於再昨日故以錢二兩脯一點肉濁十  
 柄修書慰問  
 自校任各面社首以該面長者檢察任事入稟故依稟施行  
 觀察府所呈由狀回題以十五日定限署理稷山而答書

九斗落以上崔漢膺家奎主與各洞知事人從公議查執  
 則有何稱寬之理乎因以新量案成貼以去  
 今年冬候溫和如春三月節氣且無一點雪自以為衰病  
 調振之得宜現今連日風雪涸陰凜冽蓋此窮歲嚴寒甚  
 不為恠然巧值明將上京之時姑不可退定期限未知何  
 以堪耐也  
 柳泰卿自稷山郡為叙別而來彼亦二十六日上京云而  
 聞於京來人則京江尚不合水云甚恠事也  
 既以稷山署理故修照會與印章書簡使校吏明日齎送  
 事申飭因為東裝雨籠堂以別章來及故走筆次其韻贈

示  
 二十五日巳初刻雜發率翼兒到停車場諸官屬某某并  
 來錢午正刻乘車至永登浦時巳下午一時三十分  
 仁港車上來四時十五分因乘車至新門外奴萬石昨巳  
 先來待候替乘電車抵夜珠峴下車至工后洞第時正五  
 十三分也大小家諸眷并團聚潭度一安兒曹無恙尤喜  
 也  
 二十七日卯生朝也是日內外賓戚來見者甚眾設榻床  
 而娛之率來兩隸各以三元錢題給還下送某某鄉人及  
 官屬某某許歲肉或一二斤式曆書一件式派給事錄送

關泰班平澤卞道義書從都來并息淳片禹鉉李已石問安  
 次上來仍留接去月二十五日稷山伴之牙山獄事明查  
 文案持來五日平澤官屬等并還下去以西元  
 實  
 七日昨暮自磚西琴來台監人蔘二斤以藥用次送來故  
 朝往致謝適值龍仁省墓之行因叙別旋還八日下午九  
 時三十分地震  
 孝子故副司果李顯暉貫慶州此是度支司稅局長李健  
 榮家親孝行錄去年臘月間已蒙 恩施茲後都人士并  
 以詞章贊賀已成卷秩方欲付剞劂永壽其傳云而自厥

房子則姑令留置  
 二十八日翼兒及志孫下去鄉第已刻柳泰卿自稷山昨  
 日上來今方發往本第云晚後步往大宅拜謁 祠宇二  
 十九日往磚西吊問琴來台監後轉往帶洞第拜謁家  
 廟仍為留宿  
 乙巳正月初一日甲戌立春即陽曆二月初四日行正朝  
 茶禮午後往大宅拜 廟轉向磚西琴來台監慰問土京  
 後眩暈一向未差勢不得詣 闕問 安晏高知  
 氏使之 奏稟 大內  
 三日申後微雪是日 純明妃卒哭行禮因眩暈未得詣

近余上京後適值歲時親戚賓朋之來問者日以酬接眩暈隨以添耗有言慈仁居尹監察鳳奎現住同隣醫學見稱試問為好故往訪脈外實內虛水渴尺沈身熱若非天麻難以為治天麻一斤為先法製作糊丸每日一兩重假量吞下以至長服則身強氣充自可平復又示本草綱目藥性修治等諸條而勸服仍還買來天麻依法製藥始煎服

十五日 明憲太后練祭行禮柳命初劉槐泉梁凡山來話是夕月色如晝病餘老懷不減少壯時想率翼兒往踏松橋以下等處而還

家聞余之上來要托一文至若樹風贊揚之地莫可以不文謝之因賦一詩而賀之申後清國保定府人杜方域即漢語學校教師也適時來訪克免寒暄之際以李孝子事稱道因請一詩杜氏仍作一律詩成辭意真重因并書以送

九日柳雅恭卿上來見翼兒喜兒輩習字野用以紙筆墨三種蒼送德善及劉士健許亦以筆墨優數分給七寸徑箕善來見去癸卯十月十七日遭內艱以七緡錢平澤首書記告日從郵來去月二十八日出牙山覆檢明查後指令膳米

委送其子憲成傳喝以二元錢謝之柳泰卿自稷山上來  
 法律學校自今日夜學故始於芋洞云克兒入學次往泰  
 自午後六時至十二時而止  
 石醒今十七日出書從郵便付來大度一安而其子琮銘  
 昨年以遊覽次往美國姑未聞消息云矣因荅付  
 見尹醫診脉云脉度比前稍緩可見向差之漸自以後則  
 每日大棗二十枚食後煎服事為言故始服  
 三十日上午五點鐘發行柳泰卿及李已石金昌彦隨從  
 出新門外停車場至平澤買標七點三十分登車後克兒  
 梯孫等人并送別考見自此至東萊停車場九五十二處

十七日是日上午二時十五分月有蝕之時間四分二十  
 八抄虧蝕東北復圓西北也  
 十九日往訪尹醫言及近日病情更為診脉則曰結脉又  
 變為代脉係是脾肺大腸經風燥肝崇此等脉度知者鮮  
 矣若不及今調治必將大損因出人參黃芪湯每日一貼  
 煎服至脉度如常而止耳聾則却氣閉肝崇以蒼朮塞耳  
 可以見效且天麻尤多多長服眩暈快祛耳眼聰明強筋  
 力之聖藥以病症論之多勝於山參幸勿泛聽連言也因  
 辭還入參黃芪湯自今日煎服  
 金泰奉行健氏寒暑莫甚且以風病跨朔委痛聞余上京

教人善由護事也  
 三日陰明日 釋奠大祭也脯牛監封 祭享時初獻官  
 以感眩未得進齋以預差填代  
 陽智學日宗人有點持主事敬默書來自數年以來表耗  
 侵尋添以塵憂孔艱為辭與有默氏叔話抄筆二柄真墨  
 一丁及盤錢三緡施給且以余近日現狀語到方服天麻  
 丸而此藥近乏難買彼曰渠生地區無異野產每於二三  
 月可以採乾藥用云故限十斤及時採取如法乾淨以來  
 則富以從時價酬勞之意申托  
 申刻執禮張圭鎮及鄉長朴準華詣客館祭物監封成刻

因行車至永登浦暫停又行十點時到通伏浦下車即向  
 渡津錢一兩賞給沙工等還衙翼兒已先來在衙多日是  
 日猝寒神氣不便無非衰耗之甚也酉刻巡校池龍夏兵  
 房后昌洙馳往稷山郡印章覓米故領受後報府  
 昨暮晚雲金叅奉行健作一律詩遣其子魚付書問而書  
 已答送然詩亦酬唱為好故叙我現今事狀次韻待便  
 二月一日賀禮後並哭又行謁 聖禮李令雲樵洪叅奉  
 鍾穩金雅章玉來見金則去月初掌議張圭鎮遞代填差  
 云矣 校官釋奠各差備官整出  
 大英國聖教會長來主事世俊以名帖通刺遞接蓋是邑下

公議也本官之隨事庇護其不難事而果無部府認許則  
 實難自我擅許令飭幸勿為惟焉  
 稷山倅以中里鄭敬三敲打班名事間有三度書月初卽  
 為捉致鄭民查問捧指則與稷倅所言相左又為令飭該  
 面查報內鄭妹出嫁於屯浦日前歸寧次率一童徒步往  
 親家之中路水原居林金柳三人乘醉突出桶以滋奔之  
 女抱其腰而戲踴無獲幸因洞人之救得免大辱云云此  
 果班名之忍可為者乎抄其兩指答書于稷山倅兼謝柳  
 泰卿書  
 寧邊郡一隻牛產生雙頭蛇身是何妖孽甚怪事也

翼兒因李允植請要觀光次率首書記上去鄉校子初刻  
 行 祀禮畢明日卽 社稷大祭也所崇尚未差馭官以  
 預差替行事敦定釋米祭燔肉米納申刻自校任祭物監  
 封子初刻行禮五日祈穀大祭燔肉米納  
 一進會負盧東奎韓弼錫通刺以病狀未得邀接繼有事  
 務野會長韓世教公函謂以因京會野知委貴郡各面家  
 座間為打數摘奸而惟獨迄乃洞院井里東倉里石橋四  
 洞初無官令不得調查美間因空官未得了畢卽為令飭  
 該洞以為竣幹事為辭故答以貴負之摘奸家座初無官  
 飭而自外擅查至有四洞之以無官令不為應查者此亦

遊覽於貴地方近處矣路費絕之限五元請貸故勢不得  
 忍却以二元錢給送  
 官報十九日特下 詔書蓋因全州郡米穀之等發通聚  
 會數千名且一進會負萬餘名桶以結錢以純白銅當納  
 事會集官門外全州吏屬輩發通各郡名曰倡義野排斥一  
 進會互相首藤事也  
 內里趙秉均即暢淳之子也未見云結錢零在條限幾日  
 寬限事云云故余曰此何時也而敢以稅錢之退限為言  
 事甚唐突申嚴責諭  
 三月一日甲戌清明近田以來日候乖宜兩澤壅遲魚以

見官報今月初七日惟孫補侍衛第一聯隊第二大隊餉  
 官又十五日補陸軍研成學校教官 詔曰表勳院初設  
 以來官僚之效頗煩多不可無褒賞之典技手吳惕泳特  
 叙七等八卦章  
 庭東葡萄將擬登架而架材自姜參奉鄭主事方碧下處  
 求來故命官屬構架四間仍即登蔓且首書記禔松七株  
 採來又命排種于十宜臺詩境之左右以為來頭陰翳之  
 具從此而臺上面目倍生色焉此舍之此等營為於余似  
 涉迂濶能為後來者公退休憩之好處則豈非美事歟  
 日人大石一之未見云本以平壤鐵道建等監部負得暇

風寒尚峭節屆清明而壠頭秋麥了無青色春後耕年尚  
 不立苗窮節民憂不覺上眉而且崖柳不舒庭夢不釀頓  
 無三春繁華底氣像古詩云十日陰雲料峭寒試取花柳  
 問平安也  
 觀察使李乾夏今二十一日赴任而見公函本府明化學  
 校為其擴張教育發達因講論方略特以座下選定贊成負  
 事也  
 石醒來書有曰李尚書應永與戴撮要序曰心細如髮才  
 大如海李春判鳴善與委負喬赫書曰知其性度寬厚有  
 長者風能憂人之憂及觀白雲山名墓蓋歎其虔誠奉先

慈仁吏對咸安吏語曰望之灑然即之則溫此蓋公之人  
 所不及愛也云云雖曰文字証的皆有補義之辭吾何能得  
 此譽也  
 竹山宗人有點持理懇書來蓋其子定婚今十五日行禮  
 云而請助事也因留宿春水樓回便以六元錢答謝路費  
 一兩給送  
 見新報陽曆五日印度自外子外北方至召外有激烈地  
 震至於損害人命致斃多殺尤甚建築物俱為顛覆中第  
 一有名回回教伽藍亦為損壞云  
 十二日陰李令雲樵孫女與南山洞柳定胤子炳荃今日

故具各種送給送以神荒不平許多日廢務送命之行初  
 以今日為定勢不得延期此亦衰老所致  
 見皇城報三月一日印度地有激烈地震其損害非常且  
 被斃者一萬三千人云亦是大變怪也  
 十八日晚霰又雨自昨冬以來曾無一次雨澤之滿洽春  
 已垂盡而秋麥未得茁長春半尚不萌芽窮節嗷嗷惟望  
 霓之日甚自穀日前西北風大作儼若初冬之霜寒矣曉  
 頭霰雨兼注一場旋止而寒風又作時候甚幸為念民情  
 不勝憂悶公州行又停止  
 十九日午後二點鐘率官奴萬石作公州送命之行至軍

成婚轎子等請借故諸般物種及官奴使令等侍陪次命  
 送又以十緡銅十柄燭助婚需已刻暫往致賀旋還少頃  
 婚需一床備來以書謝之  
 京別五衛將熙鳳因小北西守禦廳地搜捕事來見叙話  
 旋運故另送尼昌洙摘好定界事分付  
 近以醫繼抄錄與翼見及本道義柳容明日事惱神書後  
 甚難請選全章玉使之如干騰出事申托  
 李齊長雖教來詰齊長回甲今十七日而要余請速故遂  
 許之百刻翼見遠來見家書帶洞第以二萬兩致賣竟  
 十六日微雨旋止已刻半陰風動孝谷書齋以花種要托

叔祖至四點鐘後電車下來賣標二張每張六兩三毫因  
 乘車運送官屬等行車五點四十分到全義郡下車使令  
 李己石先來待入店舍命送己石于本衙傳喝少頃崔斗  
 煥首書記黃喜秀來見驕子與驕軍等并申托驕丁朴善  
 七廉聖甫全聖寬李清道四名崔公州六十里往還每名  
 十八兩式驕賞五兩出給夜間本伴權宅洙改名恭容黃  
 議官斗淵連山居崔委員馮禪來問叔話崔委員則因馬  
 同病  
 二十一日陰午正刻到公州府主人家擊想呈馳進狀除  
 逆命以手服入宣化堂見觀察使李乾夏氏寒暄使問以  
 勿津則津頭形便有漲水痕與前有異故問於沙工輩則  
 謂以昨日晚風電大作至卯刻本郡西南北小北四面海  
 溢各堤堰并皆潰決秋麥與乾播永沒無形鹹水漲滿今  
 年耕作更無餘望且人家漂頓不知其的數而至若院峰  
 以上居民數三百名各出護堰幸免破潰沿海各郡舉皆  
 被害海邊居民將至漫散之境云聞甚驚駭通時諸官屬  
 以幾行事并未到相顧愕然事當親審形便慰問而逆命  
 之行不可更遲故使該書員及巡校輩涉往被災各面洞  
 照詳捕奸事申飭  
 仍訪會社寂無一人又至傳車場連日巡查竹迫直太節

叔祖至四點鐘後電車下來賣標二張每張六兩三毫因  
 乘車運送官屬等行車五點四十分到全義郡下車使令  
 李己石先來待入店舍命送己石于本衙傳喝少頃崔斗  
 煥首書記黃喜秀來見驕子與驕軍等并申托驕丁朴善  
 七廉聖甫全聖寬李清道四名崔公州六十里往還每名  
 十八兩式驕賞五兩出給夜間本伴權宅洙改名恭容黃  
 議官斗淵連山居崔委員馮禪來問叔話崔委員則因馬  
 同病  
 二十一日陰午正刻到公州府主人家擊想呈馳進狀除  
 逆命以手服入宣化堂見觀察使李乾夏氏寒暄使問以

黃痘委苦今則少差年今七十一歲矣因備陳本郡形便  
 今十八日朝海溢事狀遂辭別轉往澄清閣見鄭礪山觀  
 喜即礪山在任時素有一面諸般事并申托歷見李主事  
 漢容出主人家  
 未初到批全委郡衙本俸以觀市中錫事出去故即向店  
 舍見崔委員則本俸俄向東村少後復來云矣因店舍頗  
 擾轉往黃議官家警愬主人以舊粉粥與清酒供待心甚  
 不安又備午飯云因謝之驕丁告退故四名許錢八兩賞  
 給  
 午後四點四十六分買標三張各六兩三錢因乘車之際

黃議官及崔斗燮適來叙別有一少年稱云全州郵遞主  
 事尹祥儀同車而行相與叙話京居北松峴至平澤停車  
 場下車諸官屬并待候因遲衙日已西沉  
 海溢以後自該洞宜有報狀而于今六七日尚無所報報  
 府遲緩生梗在耶故以懲習火北而西面小北面三面而  
 長抵來事分付矣西北兩面而長為先來待究其所習當  
 別般嚴繩而既來之地錫已施矣特為申錫放送  
 李允植金章玉因公州鄉約糾正事務來見小北面長宋  
 學洙稱以病情而不為就抵極為駭然期於提待事分付  
 祝賀大使一行今月二十日還到京中矣

四面海溢處不可不一視審故命轎早發首書記元昌  
 洙全喜福從之歷訪勤孝谷鄭竹醒旋別抵院峰越津又  
 渡中禦廳津到中坐里鞍堰安頭堰西洞頭民并來待周  
 察海水浸入形址則院峰五六石落新搜浦安頭堰全坪  
 被浸中禦廳四五石落中坐里七八十石落鞍堰三分二  
 見浸矣此迄今坪皆京各人之田土而其中尹議政家田  
 地而四百餘石落此是去年以粟三十八萬兩買得於徐  
 相天搜浦苗者也今番被浸後量為四十石落而此則自  
 各作人私相築堰堰不充實因以決潰所種年麥盡入滄  
 桑發外則方池田疇乾播未種可謂一大厄在自今年始

乾播云矣招致洞氏一一慰諭後因越黑石津入內里面  
 長趙暢淳家中火因別過鯉井里抵蘆下里蘆中里新成  
 里自黑石里水浸田苗又為數十餘石落各處被害人許  
 并為慰問歷訪李都事允植寒暄少頃榻床供來下魯等  
 又饋酒物且以秀魚二尾送道官廳以備夕膳事為言心  
 甚不安也  
 四路歷入松下里訪李漢英不過仍訪洪鍾德全章玉暨  
 叙又向松中里見李議准鍾敦致賀回甲後閱覽壽詩少  
 頃酒物前陳小酌因日晚登途而還日已晡矣周覽各面  
 田土之被浸者洽為數百石落秋麥春年盡屬埋沒各洞

二十八日昨日陽曆五月一日也京釜鐵路自伊日十三  
 時開直通且一日四次行車  
 東醫寶鑑間擬抄出而兵帳寫字之不足矣向聞於鄭竹  
 醒則本書齋諸生中可堪書寫者為十餘人云故將欲使  
 之抄出而本丹中多有刑削不可不親自申喻後庶無錯  
 誤醫鑑九丹帶持出往勤孝谷而對諸生逐條曉諭筆九  
 柄墨三丁分給歷入書齋兩題有房中有廳軒凡七間大  
 房二間已為居處而越房一間因財力不敷未得修飾則  
 三十名學員同處一房狹窄難堪云昨午此屋構成時錢  
 兩未及施意故錢二十兩出給使之修理居處事申喻轉

萊麻亦有被浸者而大抵久旱土乾之餘賊水入土頗深  
 雖開穀年莫可種穀云嗷嗷民情甚切殆測因陳實報府  
 二十六日微雨早雷昨於黑石里津頭有人傳言劉巡風  
 以海溢事昨日下午未更為尋堪云而聞余之巡察被災形  
 便送人傳唱回請然自此距振威新堡為十里地云故未  
 得往敘事答送矣今日朴聖旭因拙補處者審次又往小  
 北而故修書閣之  
 見新聞全而康津海南等地去月十九日自朝至夕白氣  
 貫日其夜變為黑氣踊且二晝夜昏而不祥之兆各邑人  
 心疑懼矣

往李炳佐家暫話而還  
 一進摠代安台榮自京下來以無名雜稅革罷勸告事入  
 未為言故答以此色本無場布只是一補也無論正供雜  
 稅皆是觀察府之所聞者而日前因訓令已為革罷斗安  
 稅曾因濟用司訓令行令者也今既撤庖自歸勿論事因  
 為還送  
 今日跟踐春也緩步登十宜臺桃李西種花已為零落可  
 知春无之盡盡山茶玉梅等為方帶春色嬋妍感開亦足  
 謂分外得春且近日風日不佳庭前槐柳尚未繁葉臺邊  
 草花種今結莢芽令人可愛

四月一日半陰風寒為埋香舍草埔等工役今既就緒埋  
 任李炳佐李漢英韓檢履壇長李鍾敦別有司李允植權  
 赫奎圖所以永久安享於式揭付記文而要余為文故因  
 志此事繫付之副刻  
 日昨入勤李谷有吏齋通覽則庭除有如干草卉非禮而  
 固無可稱者故前首山茶花各一本取禮送之又命下道  
 義往檢警躉膳抄如有踏誤處使之詳喻釐正  
 即接西面長報告書本面寒沙谷即無人之境有男人四  
 十歲假量者脫其上衣以裹足布一條縛其手足又一條  
 結項鉗口刺項致死云故聞甚驚悚因馳往詳察形便舉

其事狀報府

京釜職道株式會社總裁古市公威公函獎社職道速工  
 事既為竣工自本年一月一日開始營業寔為幸也茲擬  
 來五月二十五日於京城南大門外舉行開通式奉邀台  
 駕尚望伊日光臨是盼肅此頓頌台安云且以赴會式禮  
 一張及去來時間通式優待乘車券自五月初十日至八  
 月三十一日使用一等標各一張送來矣近見新聞則日  
 本伏見宮博恭親王殿下因開通禮式觀光今十五日發  
 行二十日到京且天下有志者唱望恭列為千餘人云而  
 自願來遊如此或况坊欲一次赴觀為好故得由次因修

書于公州澄清閣留鄭礪山觀喜

本郡雨澤初二日晝雨至三日卯刻開霽者洽為一犁許  
 農形則昨秋以後亢旱太甚秋麥未得發穗而如焚春年  
 亦僅僅立苗者尚不得脫黃俱無食實之望言念民情只  
 切問督事報府

是日浴佛日也因 國長未得觀燈歸喜懷甚寂寞午間  
 步往望漢寺閑敬主僧岑二去三日日遊覽次往江原道  
 金剛山尚未還僧丰讚繼圓聖文昌洽輩又以遊覽次方  
 去江陵內山等地云而要余信標故許施回路歷入鄉長  
 家偏覽家後形便則土役尚未完畢矣又訪李令雲樵叙

話而還此亦消暢法也  
 一進會事務所設置以後連以眩症未得一往相面故是  
 日暫往該所則事務負宋泰湖梁在善方留接矣因叙話  
 事狀後入米  
 今年年麥已判歉荒白米每斗價至九兩零之多而私相  
 與受際時俱絕富此東作之時尤極悶者迨此杜米請劃  
 為好故措辭以窮藪艱食何時不然至於今年荐歉之餘  
 瓶罌俱罄海溢之後年麥并沒米頭接濟尚矣勿論目下  
 頤頤懷不忍見本郡社還米起今分羅使之助糧東作恐  
 合急務事報府

是日即 嚴闔忌辰初欲潛行上京身親將事近日眩崇  
 終未差放未得伸誠命翼兒三點鐘從列車上送夜子刻  
 行望拜禮  
 李都事允植持秀魚四尾來見叙話秀魚并出給供需調  
 羹分饋書後吏及房子等  
 鞍峴里居民等狀新德里金教哲昨年十一月八葬於本  
 洞單白帛處自其後一洞憂患延綿死亡者今至六七人  
 卽為申飭拯移事呈訴故卽為對辦督拯事眼同該洞民  
 出送  
 邑社倉社米并斛量分給各洞社米欠縮昨秋捧還時每

任品川十一郎字田川泰秀同伴連信大臣大浦諸氏自  
 東京今陽曆五月十三日離發御命出疆二十日渡釜港  
 二十一日自釜港上午七時二十分搭乘御用黃屋列車  
 下午五時十分過本郡停車場而又七時二十分抵南大  
 門轟發烟火炮十數次伴接官金鎔濟尹致吳朴鏞和李  
 根湘及文武官諸氏迎接直入慶運宮教德殿供需委任  
 德國高等夫人孫擇孃接待儀專任於宮內府顧問官加  
 藤增雄及農商大臣禮式院署理朴齊純宮內府叅書官  
 金鎔濟二十二日陞見于漱玉軒呈國書同日御前陪食  
 二十三日 皇上陛下幸行于敦德殿竹回謝禮二十五

斛拘平捧置者而及其分給日各村社米別無欠縮邑各  
 洞之野捧若是見縮此是倉直輩弄奸不可因循嚴飭而  
 止卽為一一徵出以為還給各洞事分付  
 向於日本皇室特感我邦祝捷大使義陽君李載覺氏之  
 泐遣感意歡迎優待無不周到定館於芝離宮至於御前  
 陪食時叙大勳章位桐花火綬章宴饗于駐日公館且皇  
 族及列邦公使共表同情特設園游會然自日本禮不可  
 無遣使報聘簡派皇族海軍少佐伏見若宮博恭親王殿  
 下帶祝賀各禮來韓隨員勅任武部官丹羽龍之助奏任  
 海軍中佐關野謙吉陸軍少佐伊達紀隆家令御牧賢基判

今日下午五時十分過此不為停車無暇現納名帖只是  
 單身立待道傍過車時叩頭而已云云現今風日不佳時  
 尚早矣老人何堪彷彿於空曠地界耶因請余至貴票所  
 御下午二時十五分與平澤驛長許斐里次郎叙話進茶  
 時近邑觀光會者數十餘人皆難堪風寒聚會于賣票所  
 近處便成人海紛擾甚多至四時二十分日人并皆指送  
 于停車場東邊鐵路之數十步外挿木抹以索長橫為限  
 而排立至若余之所率數十名仍擇避風處合置不為渾  
 入於驅送亦一可感也  
 又有通辯及數三日人之相面而都不記其名又至五時

日參鐵道開通禮式二十六日設園游會昌德宮玉流泉  
 之秘園云矣  
 蓋此迎接實由於優待歡迎派遣伴接官宮內府顧問官  
 加藤增雄及式院禮式官高義敬玄百選高義駿武官玄  
 普運禮式主事李暎奎先往釜港迎接日本人京釜鐵道  
 總裁古市公威前往釜港矣且自釜山至京城野經各道  
 觀察使以下各地方官領率小學校生徒以小禮服出停  
 車場叩頭敬禮歡迎後即納名帖因為護送事內部訓飭  
 舉行事故余亦以下午一時出停車場逢日巡查竹迫直  
 太郎問其報聘大使迎接節次及何時干到着與否則曰

六升嚴飭該社首刻期克納還給各該洞事分付回路歷  
 八斗井里訪金雅仁洙旋還  
 小北面倉送首書記及該色社米分給向以海盜不報事  
 捉待該面長事申飭而稱病不待尚今一朔不為自現故  
 更派巡校捉來而該面長之前後犯科非止一再不得不  
 嚴治頑習懲後美即以捷楚二十度着枷牢囚  
 去月望間稷山牛卧里鄭文教素稱此近學者名色著幸  
 衣入毬庭跪坐呈狀見是尾也洞民斫伐邱木五株事及  
 其對質互相是非故責諭兩人使之私和美今焉鄭班得  
 付金大臣嘉鎮氏書八庭呈訴而橫豎說去構捏時談耶

自成歡停車場電話上來大使現方到着暫停云又五分  
 時電話今方發行云日人請余改官服同出鐵路之東舖  
 席于地單身獨立少頃列車上來火桶車前插國旗二面  
 繼又列車四座前二車皆日兵數百名野乘第三車大使  
 擔乘第四車韓日接伴官人等搭乘第三列車以黃彩漆  
 之必是大使野乘因叩頭迎接倏忽之間已為過去其何  
 堪人物搭乘飾次製度未暇詳覽乃還入賣栗野其間時  
 于為十五分矣因改服與諸日人叙別還衙  
 已刻出東倉社還分給往內里倉社還米一一斛量分給  
 各面欠綿米南面十二斗四升西面五斗七升北面六斗

謂學者之補固如是耶題以畜既時晚還給舊作松又私  
相安議和好則不必更煩事為辭矣鄭又跪告其中十斗  
落不得不特許新差墓直為好云不得已慶辦出送  
小北面長之怠慢令甲非止一再鎗棒點考之不奈海溢  
形止之愆報鄉中亦野共知而及其發令捉待稱病不赴  
襲謬益深該面長令為捉囚懲勵亦自鄉約爛商收議後  
別校施警俾圖改悟無復前踏事申飭  
見新聞日昨開通式場諸般儀節果是壯大故略抄以記  
開通式場設於南門外停車場立十丈綠門扁開通式三  
字揭韓日兩國國旗又粧飾五色花電燈纓絡繞付燦爛

以備夜間不夜城光景綠門內右設備車馬待食所及憲  
兵出張所左設食物店又置來賓休憩所正面大食堂長  
廣約四十間粧以松葉揭以大小國旗可容一千二百餘  
賓客側置軍樂所食堂背後建造二十一間屋子式場背  
後山上綠陰叢茂中有茶亭麥酒亭其他各種設備有來  
賓之自意暢叙又其外造花及人形不遑名狀來賓入松  
門右側有應接員受名刺面面贈遺開通式紀念繪畫葉書  
五枚畫獲鷄及富士山扇子一柄京釜鐵道線路案内圖  
一本線路畧圖一本經營概要一冊左側應接員贈遺開  
通式順序一坐次圖一能樂才藝部一後入于內門兩簷

翼然三門洞開粧以青松絡以黃橘國旗千章球燈萬點交  
 叉韓日兩國大旗章來賓由是而通過食堂左旋至式場  
 萬樹櫻花左右爛熳依然如芳山春景一座綠欄紅幔軒  
 廠爽朗天帳懸各國旗章地上列白布坐卓扁額式場二  
 字左側勅任外交官高等官貴衆兩議院議員外國及日  
 本貴婦人右側一同紳士來賓待候博恭王及義陽君  
 式場東上新搆一間壁畫青松綠竹安著紅錦整椅子一  
 雙左椅上即博恭王座武官及大浦連相長谷川大將林  
 公使諸氏右倚上即義陽君座沈泰政朴農相其他各大  
 臣列坐欄外南上各國公使各顧問官列坐午前十時十

五分韓國軍樂隊一齊奏樂德國樂師居中節奏十時四  
 十五分爆竹轟震止樂總裁古市公威叩頭敬禮朗讀式  
 辭博恭王著海軍正服起立表敬義陽君服文官禮裝起  
 立座下朗讀令旨衆賓一同起立表敬米公使安連代熱  
 心同情述其祝辭連信大臣大浦武兼氏農商大臣朴齊  
 純代朗讀祝辭導諸賓至宴席一同就席  
 蓋食堂結構彩花叢叢錦卓重重扁額歡迎二字交叉旭  
 日太極西旗山珍海錯羅列成行博恭王為韓皇義陽君  
 為日皇各舉觴三呼萬歲軍樂隊奏樂衆賓皆齊聲和應  
 脫帽敬禮循序退出或彩花挿帽京釜鐵道紀念盃一具

金子紀念齒牙箇一具各其懷出餘與方舉行於能樂堂  
 王與君與衆賓御坐觀其藝術形形色色不可勝記  
 園遊會設於花樂堂之後山谿曲折彩花滿樹幽篁清華  
 屢屢巧飾一曲有美心亭陳列古器恰同博覽會場二曲  
 有挿花亭古松奇花交呈春色三曲有茶話席石島品泉  
 玉蓋名香四曲有望遠臺有泥塑人物五曲有藤花亭六  
 曲有茶酒店或為休憩或為談話處處設酒壺卷烟隨意  
 縱飲無限有治遊原之樂  
 大神樂設於練門內擊毬打鼓極臻神妙拍手喝采任其  
 歡樂氣球懸空釜鐵道開通式七守下懸一海軍手持

日章旗飄飄騰空而去渺渺入雲不見其影火花設於練  
 門外之西每一爆發人魚鳥獸乘風游空冉冉而下百般  
 物形極其觀覽角力戲設於練門外南邊如花如月之宮  
 妓數十名整齊彩衫鈿舞男舞僧舞等翩翩紅袖如驚鴻  
 飛鸞此是韓國運社之所供覽也紅燭歡娛至夜艷麗午  
 後七時電燈球燈一時点火爛爛如星宿海中有戲臺曲  
 頭閣代粉粧綠木紅裳雜奏歌奏助其餘與觀光者人山  
 人海揮汗成雨蓋西球之千載創有也  
 又有和城臺歡迎會又玉流泉園游會農商大臣朴齊純  
 代東閣內秘苑開設園游會請邀博恭王及義陽君其次

鮮妍可觀不量此翁之日久護養吁亦可歎也  
 來三日卸姜議官永元氏昨辰來此後連有酒麵之饋心  
 甚汝慮以五兩價買得秀魚四尾喜問則曉石適值上京  
 只以捧票送來矣  
 五月一日我邦紀元五百年来非無法律不能善用如無  
 其律久矣至于近世尤無餘地有權者與有財者無彈法  
 憲昧痴者不知重而冒犯狡奸者知其嚴而姿行國典紊  
 亂不能勵行而至于此也今之所謂做行法律者即大明  
 律等若干偏其煩細苛酷不可以的當時局之要領近聞  
 地方裁判所之拷問訊杖諸般惡刑甚不合於文明的主

貴衆兩議院議負諸代二十六日午後三時奉迎衆賓暫  
 憇于映花堂又進宙合樓開張宴會樂聲劉曉料理則韓  
 國食物各國公使及家屬與内外文武及紳士四百餘人  
 演慶堂玉流泉今馬門芙蓉亭尊德亭翠寒亭籠山亭諸  
 所置諸般料理品來賓自由就食當日午前有小雨午後  
 天晴經陰芳草一層生色于秘園和氣霽溢矣  
 二十七日傳恭王本日午前十時回發以列車至仁港轉  
 往滿洲等地勞問戰士云而送別時諸般節次一如到著  
 日也  
 前店文兒輩從牆缺處潛入折去芍藥四朶彼輩但知其

官職法意何苦嚴重而挽近浮浪恃倫輩敢生詭計偽造  
 官誥稱以借啣煽動蠢民討賣賞無辜殘氓難以支保緣  
 此而獎瘼滋長非徒時究運至亦多聽聞駭眩而自京至  
 鄉莫能禁斷觀者常事俗尚果何如而至此耶  
 日本陸軍憲兵曹長勳七等瀕戶口智章通辭李源常來  
 見云今春來住成歡停車場兼幹保護等事距在隣境特  
 為一訪云而叙話諸般事務因旋去其用意甚感也  
 近來無恒產非庚輩出沒京鄉誘人子弟釀成陰謀或藉  
 托豪強或締結外人贖造文券盜賣田土暗引惡債以酒  
 色末技爛用消盡增行其額扮成票記究竟橫徵子而於

意也我東之無論何如司法官吏畏權愛金朝決暮反枉  
 伸直屈凡貴賤貧富之訟皆有理落科者勢所必然是蓋  
 國無常憲而然今我大皇帝陛下深燭事狀特令法  
 部新製法典命名曰刑法大綱頒布中外  
 命官僮鋤取雜匝各草花種分給各廳邑各洞及姜畹石  
 家與育英齋修書鄭竹醒詞伯  
 此日卸天中節也曾於此日浴蘭湯泛蒲酒勝遊名節又  
 承恩命於乾清宮賜時服頰粉團櫻桃等物退以與工  
 桑所諸僚涵泳優渥今此殊鄉孤居裏侵專城之養俗尚  
 全昧凡百蕭涼不知何以為懷也

蕭條行旅阻絕聽聞所及心寒骨竦衣被生靈其何以冀  
 保于寃其泥委責在守土之官任字牧者苟能實心為民  
 若痛癢關其身利病切其膚另意設法剷除安集何患無  
 其術而挽迤官箴既弛法網頓壞肥己之欲固念安民之  
 策或有貪饕之甚者剝割無辜蕩其家產使之沉難不勝  
 忿慝不耐東陵喪其良心陷於匪類徒黨日增遂至滋蔓  
 難圖之境而余亦幸乎中人也至於此郡姑未見匪類義兵  
 之起鬧然如安城竹山等郡隔在四五十里隣境無日不  
 猖獗騷亂云而莫之禁豈得免如水漸漬之患乎邑樣凋  
 殘老病侵尋雖有智者莫可如之何矣可謂長太息也

乃父弟而於乃兄或輩及族戚喻之不得禁之末由新聞  
 廣告舉皆此般苦情苟若買土者知盜賣之不當買捧債  
 者知橫徵之不當捧土不肯為損官之事蓋由於法網解  
 弛風俗敦敗也且以廣告者言之雖欲保全家產苟為預  
 防之計然父而揚子之惡兄而斡弟之過殊若干戈相尋  
 遂至傷恩蔑倫能無愧於心乎與言及此良用寒心也  
 挽迤賊警之熾莫今日若攘奪之患殺越之變無處無之  
 至於燒人家屋掘人塚墓無所不為且稱以義兵云者先  
 自閩西蔓延十二道列郡聚黨數百名或一二千名恣行  
 不法勒奪饒民同有紀極苦於強盜縱橫跳踉以至閭里

在外今焉十九載矣每於家間有事日安得無怙悵慮意  
 耶死年今七十二歲近又痛苦日以侵尋神昏精耗無復  
 望舊日氣力只自浩歎已也  
 十五日上午八時怡孫從車下來見克兒書老妻自昨日晚  
 前以霍亂數十次吐瀉氣力大損脉細神昏醫則以尹監察  
 鳳奎金思律種遠重進五苓散蜀蓼湯二薑飲蓼薑湯等  
 藥別無呈效下情極為抑鬱茲為專達云云聞甚驚愕勢  
 將潛行親看為宜故以下午三時率怡孫從列車上京  
 事款定  
 因率李已石出停車場午後七時買標乘列車行至南大

牙山南面蒼北里李聖喆來見即我師贈童蒙教官李奎  
 烈氏之曾孫其祖運埴壬辰年自咸安郡上來至十二月  
 別世其父鍾履去年二月作故家勢零替親執農務云旋  
 為告退故以五兩錢施意叙別  
 本道觀察使任中樞院副議長初四日命陸軍副將權重  
 顯叙任矣星州郡守南宮德間已赴任修問致賀兼托石  
 醒并付書  
 東醫寶鑑抄略騰寫者合為作編凡七冊使朴來熙粧續  
 名曰醫鑑集要  
 是日學兒生朝也滄懷難禁登後園望京回下自余作宰

門外即九點鐘三十分也是夕月色明朗如同白晝乃下車  
 連乘電車入南門轉至黃土堤步入工後洞家諸子侄戚  
 戚并齊會即入好詳察症形元氣大脫精神全耗手足厥  
 冷膏膈煩熱魚味渴脉度沉微自昨朝吐瀉止息然野食  
 無過粟米飲四五匙藥料只獨蔘湯尚未能回陽似此七  
 十五歲老人猝當暴病症勢危惶乃與子若孫輩詳話諸般  
 事狀時已上午二點余亦勞瘁眩暈一倍添純果難收捨因  
 暫憩十六日半陰天晚請尹金兩醫相議則野見暑同運試  
 生脉散等劑至於午後少有動靜手足生溫然開眼物無視  
 欲語聲不出喉渴口焦始乃指口而已且

大小便不通又試清心元一丸晚後得放大小便後重便  
 小許又出白痰似是痢症可慮也申後翼兒自永平上來  
 自磚西送人傳喝人蔘一斤送來夜往磚西叔阻暫還十  
 七日陰病情比昨快有勝效請西醫用蔘苓茶因胃氣積  
 敗用粟米一甫兒八人蔘一兩黃粟大棗各十枚生薑五  
 錢同煎無時進服十八日半陰又用清心元一丸十九日  
 陰尹言膏腹煩否詳始喉渴大便後重皆虛煩也須用六味湯  
 然後可以除此難症云金曰熱結於膏腹間則以生脉散為第一  
 云而因兒輩之論從金醫之議此蓋慮或痢症也平日夏至  
 微雨旋止自今晚有感崇身熱喘促煩悶因金醫言用星香  
 正氣散今日則粟米飲可量教鍾子服四五次往往昏迷  
 不省或開眼

味湯一貼試服二十二日病情過夜稍穩連用六味湯事  
 申喻上午五點鐘帶李已石出停車場翼兒惟孫亦從之  
 因買標至七點二十分乘列車翼惟而兒輩還送乃行車  
 中逢金司馬弼尚叔阻九點鐘抵平澤停車場下陸與日  
 人及通辦全昌模等暫話又安至日人郵遞局少愨命送  
 已石于浦監處使之通奇行邑中藍輿軍出來事知委仍  
 行渡津數里許則有書記率驕軍等先來結以諸官屬某  
 某來到卸為還衛時正十一點零也聞自郡專送問安使  
 全永詰軟鷄十首云而余下乘時至水原北行列車交搜  
 則其時相違奈何

或言語而終是視不明語甚訥澁午間往帶洞第拜 祠宇  
 此第間為移買於古澗洞故下來時歷覽且工後洞第今  
 二十四日搬移為定故往看而還如干修理自明日為之  
 云矣永善自拜仙澗聞病奇上來二十一日午後兩閱秘  
 書丞忠植來問細君病情其聞某某諸人皆來問病甚擾  
 極也

余之今行勢不得從權觀多日且夏至已過近來亢旱太  
 甚祈雨等節亦未知何以措處現今病情稍有減勢念到  
 民事勢將還郡為宜故即往磚西叙別主哀台監又以人  
 蔘一斤滑心元一丸蘓合元十九丸見贈尤感也見尹醫六

朱初刻日人西惟德來見云某以稷山新堡農土視察次  
 下來同伴三人舉皆步難不得不變通輜丁而自外難辦  
 期於區別以給事懇乞故以其此郡形便備陳終不聽從  
 只要區處故命使令二名及藍輿以副其托送之運後得  
 聞則卸往十里新堡地周覽形便後還來邑下而輜雇則  
 以三元題給轉往停車場上京云矣  
 二十四日雨也陰夜又雨未刻稷山巡校韓英愚色吏梁  
 完沐持印信圖章與照會來到即為領受謂以本伴今日  
 受由上京自觀察府照官差定該郡鄉長鄭養錫首書記  
 尹格鎮戶長韓奎東云

第念室憂尚未盡效則必待京奇之如何更欲一次潛行  
 計而今此煎勝又是一重擔未能如意自由界頭甚可吁  
 也自余還郡今為三日細君患候果至何如而藥餌未飲  
 亦為稍勝否且今日即二後第搬移日也病人移接等節  
 亦所關念全永詰之上去已三日尚無回音甚訝驚  
 本月初開城府大雨淫下後數百萬蝴蝶分翅異體粉粉  
 飛落于城內家宅此是異事也好事者相語曰蝶與蛾一  
 般此蓋俄敗於鞏國地方之兆或云南宋末大蝶小蝶數  
 百萬數溺死于南海云云此好事者迷信的常言大抵怪  
 異事也

郵電兩司自京至十三道日人引繼委負長途信書記官  
 池田十三郎自今月十日為始次第繼續事務以七月一  
 日為始大韓郵票業書廢止日本紀念郵票售賣而票價  
 則本三錢加計以六錢捧價云警務視察京城各署則去  
 月已為警務各道則以八道定國城今月內并赴任矣  
 二十七日全永結自京來見二十四日出家書細君野患  
 一向彌留此於前日似有差度然症情不為尋常連進生  
 脈散又蓋无散而朝日則病氣沉潛神氣稍清當夜則煩  
 悶語語皆不寧精神出沒此必關格後扶感症使每日  
 問議於金醫云老人氣力何以支過耶甚悶者也且家舍

則今日搬移於壽洞家云矣  
 去庚子夏日還集春兩室事蹟及山川疆形實記別有詩  
 句註解其翌年在益山時記文成又石醒子隨頁點評撰  
 跋另成一冊未及騰諸叢瑣錄矣今者上京時帶來而  
 附之  
 見昨日出京第郵來書細君多耶此昨現有減勢今日則  
 諸般事周極問知或起生藥料只以蔘橘茶連進極為欣  
 幸云  
 且余從二品加資再昨 啓下有多數人致賀金圈雖今  
 日下送搜懸未得好便姑俟日間云蓋今此 天恩特出

曠絕向日聞於暢孫則自大內引見暢泳以汝祖年踰七旬無有列郡治蹟之優著合施褒賞之地無以可表 特加一資事伏承 下教其野感惶何以圖報耶只切兢惕而已也

二十九日半陰是日陽曆七月一日也大韓十三道各郡新舊貨幣交搜及日人警視警部各任野赴任且電郵兩司事務實施并於今日始行云

南山洞便見惟孫書細君惠節漸向差效云甚幸而再昨日巳時帶洞第 祠宇移安昨日并搬移于古澗洞定頓云矣

三十日陰酉刻西採取七種草花送于日巡查竹迫直太郎及停車場長許斐里次郎慶日人松島未見稱以醫術探問境內病人故答以無有因旋去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발행인** 이보선(평택문화원장)  
**저자** 오형묵  
**역자** 허경진  
**발행처** 평택문화원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비전동)  
**전화** 031-655-2002  
**팩시밀리** 031-654-8807  
**디자인 및 인쇄** (주)이다  
**저작권자** 평택문화원  
**ISBN** 978-89-93983-63-0

※ 이 책의 내용과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평택문화원에게 있습니다.

평택문화원과 저자의 동의없이 내용 및 사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